



III. 민속과 전통

1. 조사 연구 개요

- 1) 조사 목적
- 2) 조사 방법 및 범위

2. 조사 지역 개관

- 1) 인문 · 지리적 개관
- 2) 마을별 개관

3. 조사 내용

- 1) 지명유래
- 2) 마을과 사회
- 3) 생업과 생업기술
- 4) 의식주생활
- 5) 세시와 놀이
- 6) 평생의례
- 7) 민속신앙
- 8) 종교
- 9) 구비전승
- 10) 민간의료
- 11) 무형문화재
- 12) 공예기술

4. 맷음말

1. 조사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양주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 민속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하여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확인·조사·기록하고, 이에 대한 발굴 조사와 보존 여부를 결정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면밀히 확인·조사·기록하므로써 양주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우리 민속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식 및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신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곧 한 지역 문화의 기초구성과 민중문화를 이해하는 기틀이 될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다양한 전통문화들 중에서 민속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의 모든 생활양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밝히는 것은 한 지역 문화의 기초 구성과 민중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 민속현상이 실제로 베풀어지는 현장은 개개의 마을이다. 따라서 한 지역의 민속 이해는 그 지역에 정주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마을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민속을 조사·연구하는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속의 조사·연구가 마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통문화가 크게 파괴되어 왔다. 조사 지역인 양주지역 역시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그 파괴 정도가 심하였다. 그러나 양주군은 예로부터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서울 북부의 문화중심지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문화량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꼼꼼히 한 결과 유·무형의 민속자료들을 얼마간 찾을 수가 있었다. 단지 조사 기간의 제약과 비용의 제한으로 양주군 전 지역에 대한 세밀한 민속 조사를 행하지 못하고 각 지역별로 표본 마을을 선정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기약한 바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긴급 조사였지만 아래와 같이 많은 양의 생활 문화를 조사·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양주군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민속신앙은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장흥면지역은 산신제나 도당제, 그리고 도당굿 등 우리의 전통문화인 민속 현상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남면 감악산 일대는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옛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영험한 지역으로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속신앙 등 많은 문화량을 간직하고 있다.

2) 조사 방법 및 범위

조사 지역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일부 단편적인 조사 연구자료가 거의 고고·역

사 분야에 국한되어 있을 뿐 민속현상에 있어서는 별로 밝혀진 바가 없다. 물론 민속과 관련된 조사 연구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문화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연구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민속자료는 대부분 ‘양주별산대놀이’를 중심으로 한 가면극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는 양주 민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전무하다. 기껏 해야 이두현(1978), 조성선(1989) 등 몇 편의 자료가 전할 뿐이다.¹⁾

본 조사팀은 양주군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들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의 지명을 파악하는데는 한글학회에서 발간된,『한국지명총람』의 경기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기타 지역 개관 등에는『양주군지』,『민족문화 대백과사전』등이 활용되었다. 이들 인용구는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이들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함은 물론 양주문화원과 양주군청, 그리고 양주군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향토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통문화가 잘 유지·전승되고 있는 전통마을을 조사 예정지역으로 선정하되 가능한 지역성을 안배하여 각 읍·면 별로 1개 마을 이상을 표본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 마을들을 낱낱이 찾아가서, 민속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주군(1개 읍, 6개 면) 내에서 20 개 정도의 조사대상 마을(제보자 참조)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들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전통성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산신제를 비롯한 여러 민속현상들이 전승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소개한 마을들 이외에도 장흥면 부곡리 등과 같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산신제를 비롯한 여러 전통문화가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표본조사라는 제약성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지역에 비해 장흥면이 조사 대상 마을로 많이 선정되었다. 장흥면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급속히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마을을 모두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현지 조사에는 이관호(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민속분야 책임 연구원), 기량(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생활 부분), 김현미(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민속분야 조사원), 김두진(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민속분야 조사원) 등이 조사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장흥지역의 경우 1997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타 지역은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택해 실시하였다.

자료 제보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장의 협조로 그 마을의 연장자나 이장, 반장, 또는 제관이나 축관을 여러 차례 지낸 사람을 택하였고,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하므로써, 공통된 견해를 추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점에서 경로당의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료 조사에 도움 말씀을 주신 마을의 제보자들은 다음 표와 같다. 또한 조사와 병행하여 사진 촬영, 실측, 녹음을 통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그리고 민속 전반에 대한 설문지를 미리 준비하여 현지 조사에 활용하였다.

조사는 총 13개 분야로 민속 전반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조사 지역 개관 (2)지명 유래 (3)마을과 사회 (4)생업과 생업기술 (5)의·식·주 생활 (6)세시와 놀이 (7)평생의례 (8)민속신앙 (9)종교 (10)구비전승 (11)민간의료 (12)무형문화재 (13)공예기술 등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19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므로써 마을 생활문화의 역동적인 면모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 양주지역과 관련된 참고문헌은 양주지역 관련 참고문헌편을 참조할 것

제보자 명단

(1998년 현재)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주소	기타
김태식	남	74	농업	양주군 광적면 가납1리	노인회장, 제관 경험 多
최석호	남	45	상업	양주군 광적면 가납1리	가래비 시장 번영회장
한공모	남	83	농업	양주군 광적면 가납1리	
최영자	여	70	상업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가래비 시장
허주범	남	62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1리	제관 경험
천인준	남	82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1리	
백의현	남	59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제관 경험
백대현	남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터주가리
최칠성	남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터주가리
이운순	여	67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김기우	여	76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백승모	여	72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백인용	남	77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입춘대길, 제관 경험 多
이응무	남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입춘대길
심장보	남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구 이장
이석주	남	63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제관 경험 多
정평진	남	71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김병화	남	72	농업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백승돈	남	75	농업	양주군 남면 매곡리	
정중호	남	67	농업	양주군 남면 경신리	제관 경험 多
문씨	여	52	상업	양주군 남면 신산리	건어물 장사(신산장)
김창만	남		농업	양주군 남면 신암1리	제관 경험 多
신정녀	여	66	종교인	양주군 남면 신암1리	감악산 굿당
김유천	남	62	농업	양주군 남면 신암1리	제관 경험 多
안용돈	남	67	농업	양주군 남면 신암1리	제관 경험 多
이석우	남	70	농업	양주군 남면 신암1리	
백월희	여	72	농업	양주군 남면 신암1리	
조홍제	남	74	농업	양주군 남면 신암1리	
이용덕	남	92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1리	
한정순	여	70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1리	
이채학	남	73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1리	제관 경험 多
이용학	남	80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1리	
서병기	남	73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1리	
이병덕	남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1리	
지영복	남	44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	마을 이장
강병열	남	67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	
임준영	남	80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	
조인한	남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	
김영일	여	65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	
조인한	남	66	농업	양주군 백석면 홍죽3리	제관 경험 多
이현규	남	58	농업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주소	기타
장영준	남	81	농업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조금순	여	67	농업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백정생	남	57	농업	양주군 장흥면 삼상1리	마을이장
최병하	남	56	농업	양주군 장흥면 삼상1리	양주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길상옥	남	80	농업	양주군 장흥면 삼상1리	제관경험 多
신철순	여	85	농업	양주군 장흥면 삼상1리	
이정길	남	72	농업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제관경험
김천일	남	42	상업	양주군 장흥면 울대2리	5대째 거주
김태진	남	71	상업	양주군 장흥면 울대2리	6대째 거주
김희원	남	76	농업	양주군 장흥면 울대2리	
한성권	남	64	농업	양주군 장흥면 울대2리	
김달현	남	76	농업	양주군 장흥면 울대1리	
민학진	남	79	농업	양주군 장흥면 울대1리	16대째 거주
노인호	남	65	농업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마을이장
정○○	여	45	종교인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무당(만신)
홍순일	남	73	농업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티주가리
노○○	여	66	농업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박두호	남	75	농업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이은조	남	70	농업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김봉순	여	63	종교인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巫女
최영득	여	62	농업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박장의	남	82	농업	양주군 주내면 유양1리	
김정열	남	43	농업	양주군 주내면 산북3리	
박홍완	남	79	농업	양주군 회천읍 회정 3리	제관 경험 多
곽필순	여	86	농업	양주군 회천읍 회정 3리	
안영균	남	54	상업	양주군 회천읍 덕정 4리	풍년쌀 상회
이승준	남	51	상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덕정장
권상호	남	34	상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덕정장

2. 조사 지역 개관

1) 인문 · 지리적 개관

양주군은 경기도의 중앙 북부에 위치하였다. 동쪽은 포천군, 서쪽은 파주시와 고양시, 남쪽은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북쪽은 연천군, 북동쪽은 동두천시와 접해 있다. 지구대를 놓고 보면 양주군은 동경 $126^{\circ} 54'$ ~ $127^{\circ} 07'$ 와 북위 $37^{\circ} 40'$ ~ $37^{\circ} 57'$ 에 위치한다. 지형상으로도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지구대(楸哥嶺地溝帶)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군의 대부분 지역이 산지를 이루며 그 사이에 좁은 저지(低地)가 길게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동쪽 산지는 의정부의 북부에서 시작되는 천보산맥(天寶山脈)이 이어진 것으로, 천보산과 왕방산이 그 주축을 이루며 포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서쪽은 두 줄기의 산지로 이루어지는데, 안쪽은 마차산 · 도락산 · 불곡산 등 의 400m 내외의 산지이고, 그 바깥쪽으로 서쪽 면계에는 감악산 · 노고산 · 앵무봉 등 한층 더 높은 산들이 있다.

이 동서 산지 사이에 있는 좁은 저지에 청담천과 신천 등이 흐르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 북류(北流)하다가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중앙의 저지는 북부의 경우 몹시 협소하지만 남부의 주내면과 회천읍 일대로 가면서 산지가 침식되어 구릉지가 넓게 발달하였다. 내륙 지역에 위치하여 한서의 차가 심하며, 강수량은 많은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0.8°C 이고, 1월 평균기온은 -6°C , 8월 평균기온은 26°C , 연 강수량은 1,300mm이다.

양주군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동두천시 · 의정부

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미금시 · 서울시 노원구와 중랑구 전부와, 연천군 · 포천군 · 고양시 · 서울시 도봉구 · 성동구 · 송파구 · 은평구 일부를 포함하는 군(郡)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모두 시 · 군으로 분리 독립하거나 서울시로 편입되어 그 규모가 작아져서 현재는 회천읍 · 주내면 · 광적면 · 은현면 · 장흥면 · 백석면 · 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천읍은 양주군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42.60 km^2 의 면적에 1만 1,005가구, 3만 4,02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1996년 현재), 읍소재지는 덕정리이다. 조선 전기 아래 구한말까지는 크게 회암면 · 천천면 · 어동산면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1914년 군면 통폐합 때에 고주내면 삼가대리와 이담면 송라리 일부를 흡수하여 회암면의 '회' 와 천천면의 '천'을 따서 회천면이 되었다. 1985년 10월에 읍으로 승격하였다. 동북쪽의 칠봉산, 서쪽의 도락산, 남쪽의 고장산 사이에 분지가 형성되었고 청담천 · 덕계천 · 회암천이 중앙부를 지나며 이들 하천 유역에 충적평야가 발달하였다. 전체 면적 중 전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논이 밭보다 많다. 따라서 주요 농산물은 쌀이지만, 최근 원예업과 축산업을 비롯한 균교농업과 공업시설이 확산되어 대도시 균교지역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경원선 철도가 덕정역을 지나 읍의 중서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며 3번 국도가 이와 병행하여 덕계리 · 회정리를 거쳐 동두천으로 이어진다. 또한 316번 지방도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등 도로망이 발달된 편이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다. 회암리에는 조선

시대 최대의 사찰로 알려진 회암사지가 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덕정·덕계·회암·회정·율정·봉양·옥정·고암 등 8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기독교 교회 28개, 불교 사찰 7개의 종교단체가 있다.

주내면은 양주군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43.10km²에 4,380세대, 1만 4,21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1996년 현재), 면소재지는 남방리이다. 본래 읍내면과 고주내면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을 1914년 군면 통폐합 당시 천천면 덕도리와 고장리의 일부를 편입시켜 주내면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주내면에 군의 치소가 자리잡고 있어서 행정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남동쪽의 천보산, 북서쪽의 불곡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완만한 지형을 이루며, 면의 중앙부를 통과하는 중랑천과 어둔천·광사천의 지류가 곳곳에 평야지대를 형성해 놓았다. 경지율은 약 27%이고, 논농사가 밭농사에 비해 많아서 주요 농산물은 쌀이다. 특히 고주내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둔리와 남방리 일대에 어둔·남방·묵남 저수지가 집중되어 있어 주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축산업도 활발한 편인데 한우 사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제조업으로는 원피·가구 제조업체가 많다. '양주별산대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경원선 철도가 주내역을 거쳐 면의 남북을 지나고 이와 나란히 3번 국도가 있고 350번 지방도가 동서를 가로지른다.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2개교가 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 교회가 9개, 불교 사찰이 9개, 기타 종교가 1개 있다. 남방·유양·어둔·산북·마전·광사·만송·고읍·삼승리 등 9개 리로 이루어져 있다.

광적면은 양주군의 서부에 위치한다. 48.49km²의 면적에 3,802세대, 1만 1,51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1996년 현재), 면소재지는 가납리이다. 본래 구한말까지 양주군 광석면·석적면·백석면과 파주군, 적성군으로 분리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1914년 군면 통폐합 때에 광석면·석적면 지역 대부

분과 백석면 능내리·고릉리·단촌리·연평리 각 일부, 파주군 천현외폐면 삼현리·광탄면 발랑리 각 일부, 적성군 남면 매곡리·상수리 일부를 합쳐서 광석면의 '광'과 석적면의 '적'을 따서 광적면으로 바뀌었다. 동쪽에 도락산, 서쪽에 노고산, 남쪽에 노아산이 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석우천과 우고천이 합류하는 신천 주변에 약간의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약 28%의 경지율을 보이는데 밭농사가 논농사보다 많다. 넓게 분포한 산지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은 군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섬유·염색 가공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수백 개의 제조업체가 있고, 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체도 다수 분포한다. 가납리에는 조선시대부터 정기시장인 가래비장이 형성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가납리를 중심으로 349·350·368번 지방도가 사방으로 뻗어 있고, 316번 지방도가 면의 북부를 지난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 교회만 7개가 있다. 가납·석우·덕도·효촌·광석·우고·비암리 등 7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양주군의 북서부에 위치한 남면은 36.69km²의 면적에 3,270세대, 9,57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1996년 현재), 면소재지는 신산리이다. 본래는 대부분이 적석면 남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양주군 석적면 회촌리·이폐하리·항동리 일부와 묵은면 사패리 일부를 포함하여 연천군 남면으로 편입되었는데, 1945년 8월에 파주군으로 이속되자 면민들의 반발로 1946년 2월 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양주군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본래 적석면의 남단에 위치했던 이유로 남면이라 불리게 되었다. 북쪽에 경기 5악의 하나인 감악산을 비롯하여 구름재·사리산 등의 비교적 높은 산들이 있어서 북고남저(北高南低)의 지세를 이루고 있다. 남쪽의 상수리·입암리 등에는 효촌천·입암천 주변에 형성된 분지가 있어서 생활증심지가 되고 있다. 경지율이 30%를 넘는데 논농사가 밭농사에 비해 훨씬 많다. 축산업도 활발한 편이다. 염색가공업 위주의 제조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입

암리에는 쇠전[牛塵]이 유명했던 정기시장인 갓바위장이 셨으나 현재는 없어지고 신산리에 정기시장이 열리고 있다. 316번 지방도와 349번 지방도가 만나 삼거리를 형성하는 상수리는 교통 요충지이며, 이들 지방도와 함께 1·2·10번 군도가 면의 동서남북을 사방으로 연결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1개의 분교를 포함한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 교회 7개, 천주교 성당 1개, 불교 사찰 7개, 기타 1개가 있다. 선산·신암·매곡·구암·두곡·경신·상수·입암·한산·황방리 등 10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백석면은 양주군의 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 41.40km²에 3,606세대, 1만 1,5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1996년 현재), 면소재지는 오산리이다.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광석면 2개리 일부, 파주군 광탄면 마장리, 고양군 신혈면 벽제리 각 일부가 백석면에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1983년에 영장리와 기산리가 파주군 광탄면에 이속되었다가, 1987년 기산리만 다시 백석면에 편입되었다. ‘백석’이란 명칭은 방성리 산성동의 뒷산 기슭에 있는 흰돌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북동쪽의 도락산, 중앙의 은봉산, 남서쪽의 앵무봉, 남쪽의 챤봉이 이어져 면의 동과 서를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이 산지이며 북쪽의 오산리지역에 좁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약 26%의 경지율을 보이며, 논농사가 밭농사보다 우세하다. 양주군에서 목장용지가 가장 넓은 지역으로 축산업의 비율이 높다. 제조업은 원피가공업이 두드러지나 군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한 편이다. 349번 지방도가 남쪽에서 서부를 지나 광적면으로 연결되며, 350번 지방도가 주내면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어진다. 또한 8번과 11번 군도가 남북을 이어주는 등 도로망이 확장되고 있다. 방성리 일대의 ‘양주소놀이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개교의 초등학교가 있다. 기독교 교회 7개, 불교 사찰 4개, 기타 3개의 종교단체가 있다. 오산·방성·홍죽·연곡·가업·복지·기산리 등 7개 리로 이루어져 있다.

양주군의 중앙 북부에 위치한 은현면은 면적이 34.49km²에 3,117세대, 9,318명이 거주하고 있다(1996년 현재). 면소재지는 선암리이다. 뮤은면과 현내면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뮤은면, 현내면과 이답면 축산리·황매동·송라리·안흥리 일부, 적성군 남면 한산리 일부, 석적면 항동리·행동리·대야지리 각 일부를 편입시키고 뮤은면의 ‘은’과 현내면의 ‘현’을 따서 은현면이라 하였다. 1983년 상패리가 동두천시로 이속되었다. 북동쪽에 소래산이, 남쪽 끝에 도락산이 자리잡고 있다. 북쪽의 봉암·낙락·부검 저수지, 동쪽의 기곡 저수지, 남쪽의 도하·뮤은 저수지 등 보유 저수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이들 저수지 주변에 발달한 분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경지율 역시 약 32%로 군 내에서 가장 높으며, 농축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섬유가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백 개의 제조업체가 분포하는 농공복합지역의 성격을 띠는 곳이기도 하다. 회천읍과 남면을 잇는 316번 지방도와 광적면에서 이어지는 368번 지방도가 동서남북을 사방으로 연결한다. 3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10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다. 선암·용암·하패·운암·봉암·도하리 등 6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남부에 자리잡은 장흥면의 총 면적은 63.06km²로, 2,561세대, 7,9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1996년 현재), 면소재지는 일영리이다. 본래 양주군 지역으로서 6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 통폐합시 고양군 신혈면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므로써 7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즉 장흥면은 현재 일영리·교현리·율대리·삼상리·삼하리·부곡리·석현리 등 7개 리로 이루어져 있다. 장흥면 내에는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2개교가 있으며, 교회가 23(5)개, 사찰이 28(8)개, 성당(기타)이 1개가 있다. 양주군 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지만, 북쪽은 챗봉, 동쪽은 사패산·도봉산, 중앙에 일영산 등의 산지가 많아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매우 적다. 경지율도 10% 정도이다.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곡릉천이 서쪽으로 흘러

들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룬다. 북한산 국립공원인 도봉산과 인접해 있어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일영·송추·신흥·장흥·덕매·장자원 유원지 등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도시민들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토지도 떨기·파실·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데 주로 이용되어 관광농원과 낙농업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은 부진한 반면 양주군 내에서 도시 근교농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다. 서울 교외선 철도가 면의 중앙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일산~의정부간 39번 국도가 병행하고 있다. 서울 교외선 철도 및 39번 국도와 나란히 하여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2) 마을별 개관

(1) 회천읍 회정 1리

의정부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3번 국도를 타고 가다 주내면을 거쳐 회천읍 덕계리를 지나면 회정리가 나온다. 회정리는 회천읍의 서쪽에 위치하며 은현면 용암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3번 국도가 회정리 중앙을 남북으로 지나는데 도로 동쪽은 비교적 넓은 논이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 낮은 산지가 있으며 이 사이에 주택과 상가를 비롯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천천면 과화리 지역이었는데, 개편 당시 과화리와 덕정리의 일부 지역을 떼 내어 회정리라 하였다. 회정 1리는 별말이라고 부르는데, 새골·별말·과골을 모두 합쳐 부르는 지명이며 모두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말이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나뉘어져 1반과 2반이 되었는데 약 85 가구가 살고 있다. 3·4반은 과골이 나누어진 것으로 83가구가 거주한다.

면소재지인 덕정리까지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면소재지 보다는 이웃해 있는 덕계출장소를 이용한다. 의정부까지는 약 14km, 동두천까지는 10km 정도이며,

이들 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자주 다니 교통이 편리하다. 시장은 덕정장을 많이 이용하지만 의정부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로를 주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덕계리에 있는 덕산초등학교와 덕정중학교에 다니며 고등학교는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진학한다. 도로 양쪽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별말교회와 호산나교회가 있다. 과골 산등성이에서는 매년 산제를 지내고 있다.

밀양 박씨가 오래 거주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각성 바지 마을이다. 회정 1리 노인회장인 박홍원은 17대 째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4~5년 전부터 3번 국도 양쪽으로 상가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회천농협 회정점이 들어섰다. 본래 논이 많은 마을이라 논농사를 많이 지었고 농업 인구도 많았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전해 온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경작지도 줄고 이들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공장들을 상대로 외지인이 운영하는 상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 주내면 유양 1리

의정부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3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주내 삼거리 검문소에서 350번 지방도로로 접어들면 주내면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유양리가 나온다. 350번 도로는 마을을 동서로 관통한다. 유양리는 조선 중종 원년(1506)부터 양주관아(사진 1)가 있었던 곳으로 이 일대를 양주읍내 또는 읍내라고 하였다.



사진1 양주관아 전경

조선시대 유양리 출신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유양리에 들렀는데 그 곳이 자신의 고향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껴서 그 후로 유양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읍내면 서부리 전부와 동부리·남방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현재의 유양리가 되었다. 북쪽에는 양주의 주봉인 불곡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쪽의 원골, 뒤쪽에는 양주산성이 있다.

유양 1리 마을회관 앞에는 1995년 5월에 세운 「유양팔경비」가 있다. 유양팔경은 옛날 양주목사가 유양리의 경치에 반하여 중국의 8경을 본떠 지었다고 하는 유양리의 아름다운 경치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산성낙조(山城落照)

저녁 노을에 감싸이는 낙조는 참으로 아름답다.

②기당폭포(妓堂瀑布)

지금의 천성농원 일대는 기생촌이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밥지어 정성으로 폭포물에 맞으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하여 물맞던 폭포.

③선동자화(仙洞煮花)

신선이 노닐던 곳. 꽃전병을 부쳐 먹으며 시를 읊던 동천.

④화암종성(華庵鐘聲)

암자에서 아침·저녁으로 예불 올릴 때 울리는 은은한 종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의 자비로 움을 일깨워 주었다.

⑤금화모연(金華暮烟)

아침·저녁 밤짓는 연기가 금화정 골짜기로 모여 들어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⑥승학연류(乘鶴烟柳)

승학교에서 비석거리까지 길 양편으로 버드나무 가 흐드러져서 버드나무 동굴을 이루었다.

⑦수락귀운(水落歸雲)

수락산에서 구름이 피어 올라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⑧도봉제월(道峰霽月)

밝은 달이 도봉산 너머로 지는 광경은 부지런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양주 구읍 시절에는 1,000여 가구 이상 거주하였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밭을 갈다보면 기와조각이 나온다고 한다. 원래 양주목사는 관아터를 샘내로 정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의 산세가 험해서 역적이 난다고 하여 유양리로 정했다고 한다. 무학대사가 원골을 지나면서 터를 보고는 좁기는 하지만 형국이 좋아서 관아터로 정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과거 유양리에는 “노함박이 성하다.”는 말이 있었다. 교하 노씨, 함씨, 밀양 박씨가 많이 살았는데 이들이 양반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성씨들은 이들에 의해 근처 지역으로 쫓겨갔다고 한다. 특히 어둔리로 많이 이주했는데 “양반 못된 것이 어둔리 가서 산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1반 모듯 말에 밀양 박씨가 많이 살 뿐 다른 지역은 각성바지이다. 전에는 “발가벗고 30리를 가도 안 내다보는 데는 유양리밖에 없다.”는 말이 있었을 만큼 인심이 박했다고 한다.

유양리는 옛부터 농경지가 적었고, 관아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농업인구보다 상업인구가 많았다. 어둔리·남방리·샘내 등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를 해서 유양리에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식량이나 생필품을 사 갔다고 한다. 농지가 적은 유양리 사람들은 몇 달씩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350번 도로변에는 3~4년 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양주 전통 순대집들이 음식촌을 형성하고 있다. 양주 순대는 이 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

유양리는 약 30여 년전에 1리와 2리로 나뉘었다. 당시 28사단 소속의 한 소령이 기생촌이었던 유양 2리의 터를 사서 자기 집안의 나병 환자를 이곳에 데려왔는데 그 뒤로 나환자들이 계속 들어와 나환자촌이 형성되자 2개 리로 나뉘게 되었다. 나환자들은 처음에 동냥을 다니며 동네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다가 돼지나 닭을 키우면서 돈을 모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유양 2리에는 염색공장과 기구공장들이 입주한 유양공단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유양리에는 외지

인이 원주민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불곡산 아래 동부동에는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이 있는데 매년 정기공연을 하고 있다. 불교신자가 많은 편으로, 불곡산에 대한불교 조계종 백화암이 있고, 원골에 대한불교 관음종 옥천사가 있다. 마을회관 옆에 주내성결교회가 있고, 무당이 1명 살고 있다.

(3) 광적면 가납 1리

양주군을 지나는 349·350번 지방도로가 만나는 곳에 자리한 가납리는 전체적으로 산지보다 평지가 많은 지형이다. 봉어혈 지세라서 오리를 기르면 짚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 옛날부터 오리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석적면 행동리·이패리·대야지리, 광석면 일폐리, 백석면 능내리·고릉리 등 6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어 가납리라 하였다. 가납리는 3개 리로 분할되었는데 2리와 3리는 논이 많은 농업지역이고, 1리는 상업지역이다. 가납 1리에는 광적면사무소와 광적농협, 양주문화원이 있으며 면사무소 아래 장터에서 4·9일마다 가래비장이 선다. 이곳이 상업지역이고 장이 서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큰 시장을 볼 때는 의정부 시장을 이용한다. 의정부까지는 약 12km로 버스가 자주 운행한다.

가납 1리는 1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반은 새 낭골로 25가구 정도 거주하며 2반은 안말로 30여 가구가 거주한다. 3반에서 10반까지는 가래비로 400여 가구가 거주하는데, 가래비는 상가·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가 밀집되어 있다. 11반과 12반은 추교동으로 40여 가구가 거주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납교회, 평민교회, 영화교회와 대한기독교 감리회 중앙교회가 있고 절은 없다. 마을 북쪽의 산 언덕에서 매년 산제를 지낸다.

아이들은 가납초등학교를 거쳐 근처 광석리의 조양중학교로 진학을 하며, 고등학교는 의정부나 파주 등지로 나간다.

(4) 광적면 효촌리

양주에서 316번 지방도로를 따라 파주 방향으로 가다보면 파주시 바로 직전 도로 양쪽에 있는 마을이 효촌리이다. 서쪽은 파주시와 북동쪽은 남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석적면 거마동·효가동 전체, 신촌리와 회촌리 및 적성군 남면 매곡리 등 3개 리를 병합하여 효촌리라 하였다. 효가리의 '효'와 회촌리의 '촌'을 따서 효촌리가 되었다. 북쪽이 효촌 1리이고 남쪽이 효촌 2리이다.

① 효촌 1리

효촌 1리는 316번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효촌 저수지가 있고 뒤쪽에는 국수리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산제를 지내고 있다. 면소재지인 가납리까지는 약 8km 거리이며 의정부는 약 20km 떨어져 있다. 마을에서 316번 도로까지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큰 장은 의정부로 보러 가지만 남면과 접해 있어서 신산장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며 파주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40여 년전까지 효촌리에 초등학교가 있었으나 덕도리로 이전하여 현재는 덕도리에 있는 효촌초등학교에 다닌다. 중학교는 남면의 남문중학교로 진학하며, 의정부나 파주 등지의 고등학교로 나간다. 마을에 교회나 절은 없다.

양천 허씨가 회내미에 처음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으나 현재는 6가구만 살고 있다. 옛날에는 내시 후손들이 살아서 1930년대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몰수당하기 전까지 그들 소유의 땅이 많았다. 1·2반은 회내미, 3반은 미누골로 총 6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돌기와집이 여러 채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폭격 피해를 입지 않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을회관 뒤쪽에는 연양군 후손 일동이 건립한 연양제(延陽齊)가 있다. 연양제는 묘역을 이장하면서 화장한 채를 단지에 넣어 묻어둔 곳으로 해마다 여기에서 그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 건물을 '제사 지내는 집'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 마을 입구에서 뒤쪽으로 길게 형성된 논에서 논농사를 주로 하고,

무·배추·고추 등의 밭작물은 대개 자급용으로 재배하는데 콩을 많이 심어 팔기도 한다.

②효촌 2리

효촌 2리는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반은 효계울로 수원 백씨가 많이 살았던 곳이며 현재 약 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2반은 우러리로 30가구 정도가 거주하며, 3반은 거마울로 약 40가구가 거주한다. 2반과 3반은 각성바지다. 면소재지인 가납리는 약 4km, 의정부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큰 장은 주로 의정부를 이용하지만, 파주 법원장이나 가래비장을 많이 이용한다. 교육은 덕도리에 있는 효촌초등학교와 광석리의 조양중학교로 다니며 고등학교는 의정부와 파주로 많이 나간다.

효계울에는 1981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백인걸 선생 묘가 있는데 1985년부터 묘역 정화사업을 벌여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수원 백씨, 언양 김씨, 전의 이씨가 많이 산다. 효계울에서 안쪽으로 계속 가면 고개 너머로 우러리가 나온다. 우러리는 각성바지로, 농토가 적은 빈촌이었다. 우러리 남쪽에 거마울이 있는데 이곳에 효촌 2리 마을회관이 있다. 마을회관에는 향토유물관과 건강관리실이 함께 있다. 회관 앞으로 실개울이 흐르고 놀이터와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회관 바로 옆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다. 오래 전에 세워둔 3기의 장승과 최근에 세운 2기의 장승이 함께 서 있는데 이곳에서 장승제를 지낸다고 한다. 거마울에는 강씨가 많이 살았으나 현재는 한 가구도 없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강씨네는 부자였는데 어느 날 시주받으러 온 중에게 쌀 대신 소똥을 펴 주었다. 몇 년 후 다시 강씨네를 찾아온 그 중이 마을 앞산 피고개를 반으로 자르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갔는데 욕심이 많은 강씨가 피고개를 반으로 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피가 쏟아졌다. 그 후 강씨네는 망했고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효계울과 거마울은 우러리에 비해 잘 사는 곳으로 농지도 많고 젖소 사육도 많이 한다. 교회나 절은 없다.

(5)백석면 홍죽리

장흥면 교현리에서 349번 지방도로를 따라 소서고개를 넘으면 바로 홍죽리가 나온다. 349번 도로 왼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뒤쪽으로 월암산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산에는 밤나무가 많다. 과거 양주밤이 많이 나던 시절에 양주밤은 곧 홍죽리 월암산에서 나는 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백석면 내동리·홍죽리·천죽리 전 지역과 백석면 난곡리·단촌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홍죽리라 하였다. 홍죽리는 홍동리의 '홍'과 천죽리의 '죽'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홍죽리는 3개 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가 산체를 지내고 있으며, 부추를 많이 재배한다.

①홍죽 1리

홍죽 1리는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반은 고말재로 20여 가구가 거주한다. 안골을 위아래로 나뉘어 윗마을은 2반, 아랫마을은 3반으로 총 80여 가구가 살고 있다. 각성바지로 과거에는 토박이만 60여 가구 정도 살았다고 한다. 면소재지인 오산리까지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의정부까지는 12km 정도가 된다. 연곡리에 있는 연곡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도보로 30분 가량 걸린다. 중학교는 광적면 광석리에 있는 조양중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는 의정부·동두천·파주 등지로 나간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동교회가 있고 절은 없다. 최근에 극단 미추가 안골에 들어와 있어 연극 공연이 있을 때면 관객들이 찾아온다.

②홍죽 2리

월암산 아래에 위치한 홍죽 2리는 홍골이라고 부른다. 349번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백석면 홍죽 2리 홍동마을"과 "백석면 홍죽 2리 홍죽마을"이라고 쓴 장승이 서 있다. 홍골은 홍씨가 처음 입향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현재 홍씨는 2가구가 살고 있다. 현재는 각성바지다.

월암산에 한국불교 법륜종 각명사와 대한불교 보문종 월암사가 있고 교회는 없다. 논이 밭보다 많았으나 지금은 논을 메워 밭으로 경작하며 부추를 재배하고

있다. 홍죽 3개 리 가운데 부추 생산량이 가장 많고 젖소 사육도 많이 한다. 연곡초등학교와 조양중학교로 통학하며, 고등학교는 의정부·동두천·파주 등지로 나간다.

③홍죽 3리

홍죽 3리는 천죽 혹은 냅대라고 부른다. 2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반은 아랫마을로 약 35가구가 거주하며, 2반은 윗마을로 40가구 정도가 거주한다. 가장 서쪽에 분투골이 있는데 분투골은 현재 1반에 속해 있다. 거리가 멀어서 1개 반으로 따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10여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다고 한다. 면소재지인 오산리까지는 4km, 의정부는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홍죽 3개 리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다. 절이나 교회는 없으나 불교 신자가 전체의 약 80% 정도 된다고 한다. 전주 이씨, 김해 김씨, 한양 조씨가 많이 살았으나 현재는 진주 강씨, 전주 이씨, 평택 임씨가 많이 산다.

마을회관 옆에 느티나무 고목이 하나 있는데 80여년전에 베었다고 한다. 그 당시 구렁이가 나왔는데 그후로 느티나무 대감이라고 하여 집집마다 고사를 지낼 때는 느티나무 대감에게도 절을 했고 터주를 모셔두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의 느티나무는 새로 심은 것이다. 매년 5월에 마을 청년회 주최로 경로잔치를 연다.

(6)남면 신암 1리

의정부에서 349번 지방도로를 따라 파주 적성 방면으로 가다보면 도로 양편으로 적성면과 경계를 이루는 신암리가 나온다. 적성 방향으로 도로 오른쪽이 신암 1리이고, 왼쪽은 신암 2리이다. 신암 1리는 위쪽에 있다고 하여 윗신암골, 신암 2리는 아랫신암골이라고 불린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부가 신산리로 통합되고 1·2리로 분할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2개 리로 나누어졌다. 면소재지인 신산리는 약 3km, 양주군청이 있는 의정부는 24km 정도 떨어져 있다. 25번 버스가 의정부~적성간을 운행한다.

신암 1리는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지말·읍지말·선유동이 합쳐진 1반은 4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2반 부도골은 약 30가구가 거주한다. 과거에는 함안 조씨·무안 박씨·청풍 김씨가 오래 살았는데 텁세가 심했다고 한다. 낭바위에는 남원 양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현재 낭바위에는 전주 이씨 회산군파 일부의 묘역이 있다. 전체 가구 중에서 노부부만 사는 가구가 절반 이상이다.

349번 도로에서 마을로 올라오다 보면 25사단이 있고 부대 위에 실로암 기도원이 있다. 기도원 위쪽으로 마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신암저수지는 1976년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8채의 집이 헐렸다고 한다. 농지개량조합과 수명계약을 하고 양주군청에서 낚시 허가를 받아 개인에게 저수지를 임대하여 1년에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벌인 퇴비증 산사업 후에 하사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신산리 토교장에 논을 구입하였다. 신암 1리 주민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하고 있으며 소작료는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부도골에는 대한불교 태고종 수월사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감악산 굿당이 있다. 이 굿당에서 감악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 풍수지리연구소라는 굿당이 하나 더 있다. 신산리에 있는 남면초등학교와 남문중학교로 통학하며 고등학교는 주로 의정부로 간다. 파주 적성까지의 거리가 5km 정도밖에 안 되므로 파주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암 1리는 감악산을 비롯한 산지가 많아 농경지가 적은 편이다. 논농사가 밭농사보다 많은 편이다. 전에는 밭에 참외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수지가 안 맞아서 수박으로 바꾸어 재배하고 있다. 무도 많이 심는다고 한다. 선유동에 5년 전에 마련한 상여도가가 있는데 신암 2리에 있는 것을 같이 사용하다가 신암 1리 전용을 새로 장만하였다고 한다. 큰 장을 보기 위해서는 파주나 의정부로 나가지만 대개는 신산장을 이용한다.

(7) 은현면 하패리

316번 지방도로 은현 삼거리에서 신산~봉암간 117번 군도를 타고 가다보면 하패리가 나온다. 하패리는 은현면의 북쪽에 위치하는데 신천(新川)을 경계로 동두천시 상패동과 접하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현내면 하패리와 이남면 송라리 등 2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하패리라 하였다. 하패리란 이름은 옛날 사천현(沙川縣)의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붙여졌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전 의정부에서 봉암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117번 군도가 정비되었다. 하패리의 서쪽에 남북으로 걸쳐 지나는 이 도로는 원래 28사단이 관리하던 신작로였다. 이 길은 의정부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에 의해 점차 도로가 정비되었다고 한다. 하패리에서는 큰 일을 치르는 집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한 집에서 쌀 1말씩을 추첨하여 서로 부조하는 미덕이 있었다고 한다.

① 하패 1리

하패 1리는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래산 아래에 위치한 1반은 소래 마을로 약 25가구가 거주하는데 남양 흥씨가 많이 살며 타성이 적은 편이다. 2반은 월계 마을로 약 25가구가 살고 있다. 3반은 텁골(기곡)이라고 하며 역시 25가구 정도가 사는데 고성 남씨가 많다. 4반은 선업리 또는 서너비로 약 35가구가 거주하며 의령 남씨 집성촌이다. 선업리에는 1997년에 신축된 의령 남씨 사천백공 제하파 사당이 있어 매년 음력 10월 보름 이후 첫 공휴일에 시제를 올린다. 하패리 전체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반월 혹은 동쪽 마을이라고 불리는 5반은 50여 가구가 거주한다. 6반 송천 마을에는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하패 2리에 있는 상패초등학교로 진학 하나, 1반과 2반은 동두천의사동초등학교로 통학한다. 약 20여 년전까지는 은현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중·고등 학교는 동두천과 양주군 내로 다닌다. 면소재지인 선암리까지는 3km, 군소재지인 의정부까지

는 16km이며, 동두천까지는 2km 남짓한 거리이다. 선업리에 대한기독교 감리회 선업교회가 있으며 절은 없다. 일제시대에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다.

하패 1리에는 축사와 비닐 하우스, 공장들이 어우러져 있다. 축산업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는데 주로 젖소를 사육하고 송촌 지역은 닭을 많이 키운다. 비닐 하우스에서는 배추와 무를 많이 재배하며 이것들은 주로 동두천농협에 도매로 파는데 동두천 시장에 직접 내다 팔기도 한다. 동두천까지 도보로 30분 정도 걸리는 동두천생활권이다.

② 하패 2리

하패 2리는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반과 2반은 진재, 3반과 4반은 낙락골, 5반은 그네뜰(귀평동)이라고 한다. 낙락골에는 의령 남씨가 많이 산다. 동두천까지 4km, 의정부까지 20km, 면소재지인 선암리까지는 2km 정도 된다. 교회와 절은 없다. 상패초등학교를 다니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주로 동두천과 의정부로 다닌다.

약 10여 년전부터 낙락골로 버스가 지나면서 의정부로 나가기가 편리해졌다. 그 전에는 봉암리나 덕정사거리까지 걸어가서 동두천으로 나갔다고 한다. 갓바위장이 있을 때는 이 장을 많이 이용했으나 신산리로 옮긴 후는 동두천 시장을 이용한다. 하패 2리는 동두천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동두천 생활권이다. 산지보다 평지가 많은 편이다. 논과 밭은 비율이 비슷하고 3년 전에 농지 정리를 하였다. 밭에는 열무나 배추를 많이 심는다. 농산물은 도매상이 직접 들어와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동두천에 가서 파는 경우가 많다. 양계 농가가 많았는데 양계 파동 이후 수가 줄어들고 대신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나서 현재 7~8개 정도의 축사가 있다.

(8) 장흥면 삼하리(三下里) 매내미 마을

구파발역에서 349번 지방도로를 따라 경기도 양주군 장흥 방면으로 약 5km 정도 가다보면 고양시 오금

동과 경계하여 삼하리가 위치하고 있다. 349번 지방도로가 마을 중심을 가로질러 지나고 있는 삼하리는 마을 전체가 숲으로 우거져 있다. 거리상으로도 장흥면 소재지까지가 약 4km이고, 의정부까지는 약 12km, 고양시까지는 6km 거리에 있다. 한편 삼하리의 옛 지명은 삼파아랫말 또는 삼파하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고양군 신혈면(神穴面) 선유동(仙遊洞)을 병합하면서 삼하리로 개칭하였다. 삼하리 중 조사 대상 마을인 매내미 마을은 한자명으로 ‘매남리(梅南里)’라고 기록하는데, 매내미를 ‘능말’이라고도 한다.

주변이 많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하리는 양주군 장흥면의 지역으로 위치상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모든 생활권이 서울의 영향하에 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주민들은 장작 나무를 해서 서울 서대문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경제적으로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한다. 즉 서대문까지는 약 12km로 장작 나무를 지게에 지거나 우마차에 싣고 걸어가 나무를 팔 다음, 그 돈으로 고무신 등 생활 필수품을 사다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연탄 등 신 소재의 연료가 보편화되면서 삼하리 사람들도 나무장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으로써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으나 곧이어 실시된 새마을운동은 소위 ‘보릿고개’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산악 지대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류를 이루었던 삼하리의 경우 주로 보리·콩·밀 등과 무·배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많지 않은 논농사를 짓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논농사의 경우 인력으로 물을 댈 수 있는 논인 ‘보’가 500마지기 정도이며, 인력으로 물을 댈 수 없는 논인 ‘천동지기’ 역시 500마지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화훼 단지나 특수 작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주변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인근에 일영유원지를 비롯해 많은 유원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수입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삼하리에는 관광객들

을 위한 각종 위락 시설과 함께 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다.

한편 삼하리의 가구 수는 현재 180여 가구로, 이 중 토박이가 120여 가구이고, 나머지 60여 가구는 최근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지인들이 삼하리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으로, 그 이전에는 벼농사나 밭농사를 주로 짓고 살았으나 이들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화훼나 버섯 등 비닐 하우스에 의한 특수 작물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외지인들은 주로 전세를 살거나 비닐 하우스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면서 특수 작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음으로 성씨별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각성바지로 그 중 전주 이씨가 19가구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안동 김씨와 고령 박씨가 각각 10여 가구씩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마을에 들어온 성씨는 안씨로 언제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안씨는 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남녀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의 경우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지인들의 대대적인 이주와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토박이들은 우리 전통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모든 생활권이 서울의 영향권하에 있으면서도 매년 음력 9월 9일 마을 뒷산에서 ‘도당제’를 지낸은 물론, 초상이 났을 때 상여를 이용해 장례를 치르는 등 우리의 전통 문화를 유지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시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서대문 시장을 주로 이용하였고, 기타 인근 장으로는 고양장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타 행정적인 부분과 전화 시설 등, 양주 군청이 의정부에 있는 관계로 의정부의 영향하에 있다. 교육 시설 역시 의정부 관할하에 있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삼하리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삼상리에 있는 삼상초등학교에 다니며, 중·고등학교는 의정부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한다. 그러나 20

여년 전만 하더라도 고양중학교나 고양농업고등학교(현재 고양종합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삼하리 장로교회와 장흥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자가 15가구 정도이고, 구파발 성당에 나가는 천주교인이 10여 가구, 남녀호랑교인이 1가구 살고 있으며, 3년 전에 삼하리 절 안에 들어와 무당업을 하는 만신이 한 사람 거주하고 있다. 그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의례에 따라 조상을 숭배함은 물론, 불교 신자들로서 인근에 있는 절에 다니고 있다.

(9)장흥면 삼상리(三上里)

본래 양주군 장흥면의 지역으로 삼하리와 경계하여 그 동쪽으로 삼상리가 위치하고 있다. 장흥면 소재지까지는 약 3km이고, 군청이 있는 의정부까지는 약 10km이며, 구파발역까지는 약 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뒤로는 노고산(老姑山:495.7m)이 삼상리와 삼하리, 그리고 고양시 신도읍 효자동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고, 노고산 북쪽으로는 삼상리가 동서로 길게 위치하고 있다.

삼상리의 옛 지명은 삼패웃말 또는 삼패상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정주머리·배울·장포·능안을 병합하면서 삼상리로 개칭하였다. 제일 먼저 내관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아래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삼상리는 현재 총 180가구에 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 4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전체 가구의 30% 정도는 하우스를 이용해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하우스에서 살림을 겸하는 임시 농가들이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양봉(사진 2)을 하여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전체 주민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며 젊은 층도 많아 거주하고 있으나 주로 직장에 나가고, 농사는 노년 층에서 담당한다.

삼상리의 각 반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1반은 장포동



사진2 농가의 벌통

으로 1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반과 3반은 배울로 총 115가구이다. 배울을 한자어로는 이곡(梨谷)이라고 하는데, 바로 일영유원지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일영유원지 개울을 중심으로 남쪽인 노고산 아래에 2반이 있으며, 개울 건너 북쪽으로는 3반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2반에는 훈이 농장이 있고, 3반에는 내시가 살던 옛 고가(古家)가 있다. 한편 4반을 정자동 또는 정주머리라고도 부르는데, 총 4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정자동 서쪽으로는 덕매유원지와 장자원유원지가 있다.

이와 같이 삼상리에는 일영유원지를 비롯하여 장자원·덕매 유원지 등 3개의 유원지가 있다. 이 중 규모가 제일 큰 유원지는 일영유원지로 연 6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 다음에는 장자원유원지로 연 10여 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한편 덕매유원지는 규모가 가장 작은 유원지로 연 1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이와 같이 삼상리는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지로 도농교류에 의한 상업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전체 수입 중 농업에 의한 수입보다는 상업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자원유원지는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삼상리 지역 400여 만평에 민속촌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삼상리의 생활권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서대문·의정부 지역으로 예전에는 나무장사와 소규모의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히 살아오던 지역이다. 특히 오랫동안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와 그린벨트 지역으로도 묶여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제한된 지역으로 마을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3살방이 끼여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지 최근 들어 일영유원지를 비롯한 덕매유원지와 장자원유원지 등이 개발되면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계로 주말 농장 또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말 농장은 대개 1평당 1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5평 또는 10평 단위로 분양되고 있다.

종교 상황을 살펴보면 삼상리의 경우 기독교보다는 불교 신자가 많다. 교회는 없으나 절은 3곳이 있다. 즉 삼상리에는 노고산 자락에 청룡사와 도림사가 있으며 정자동에는 ‘부처님의 집’이라는 암자가 있다. 즉 삼상리는 유교와 불교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마을로 전통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짹수 해에 마을 공동으로 도당제와 도당굿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내 오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는 삼상리에 있는 삼상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예전에는 약 10여km 정도 떨어진 고양중학교를 다녔으나, 지금은 의정부로 다니고 있다. 시장 역시 3일과 8일에 서는 의정부장과 서대문시장을 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10)장흥면 교현리

구파발에서 고양시 효자동을 거쳐 63번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도로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고 이곳을 지나면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이 도로 왼쪽에 연이어 있다. 예비군 훈련장을 지나면 고갯마루가 나오는데, 바로 이 고개가 교현리 서낭당 고개이다. 서낭당 고개에는 약 150여 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바로 이 소나무가 서낭나무이다. 정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낭당을 위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을 오고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서낭 고개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초에 개인적으로는 서낭당을 위했다고 한다.

서낭 고개로부터 송추유원지 입구 검문소가 있는 곳까지가 바로 조사 대상 마을인 교현리이다. 즉 63번 도로를 타고 서낭당 고개를 넘어 가다 보면 일산과 의정부를 잇는 39번 국도와 만나는데, 서낭당 고개로부터 39번 국도와 만나는 이 지역까지가 바로 교현리이다. 교현리로부터 의정부까지는 약 9km 정도이고 장흥면 소재지인 일영리까지는 약 6km 정도이다. 교현리는 본래 양주군 장흥면의 지역으로 다리고개 밑이 되므로 다리고개, 달고개 또는 달현, 교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시못골·웅달말·양짓말·샛골·장안·이안말·술막거리를 병합하여 교현리라 하였다.

교현리 마을 앞으로는 일산과 의정부를 잇는 39번 국도가 지나고, 마을을 가로질러 구파발과 송추를 잇는 63번 도로가 지나고 있다. 그런데 구파발과 송추를 잇는 63번 도로는 2차선 도로로 현재 4차선으로 확장·공사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서낭 나무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서낭 나무 외에도 교현리 장포동에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소나무는 군 지정 보호수로 마을에서 위하지는 않는다.

한편 교현리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인근 지역과는 달리 외지 사람들의 투기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대로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은 도시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건설과 구파발~송추간 4차선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한다. 즉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가 고가로 지나가 그 부근에 있는 농경지들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구파발~송추간 도로의 경우에도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 건물을 지을 때 고도 제한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이 따른다고 주민들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교현리는 샛골·웅달말·심의동·다리고개·장포동·이안동 등과 같은 여러 자연 마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이 중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마을은 이안동과 장포동 뿐이다. 각 자연 마을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이안동에는 22가구가 살고 있으며, 심의동 15가구, 샛골 20가구, 장포동 15가구, 다리고개 15가구, 응달말 15가구 등 총 10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토박이들로 이들 이외에도 약 20여 가구 정도가 전세를 살고 있다. 따라서 교현리에는 총 12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군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성씨별로는 이안동의 경우 이씨가, 심의동에는 황씨, 샛골에는 김씨, 장포동과 응달말에는 각성바지, 다리고개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성씨 중 교현리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성씨는 김해 김씨로 약 10대조가 샛골에서 터를 잡고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들어온 성씨는 전주 이씨로 8대조가 파주로부터 이안말에 터를 잡고 정착하였다고 하는데, 이안말에 정착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8대조 할아버지가 파주에서 살았는데, 어느 해 인가 ‘주통(뇌염이라는 전염병)’이 마을에 퍼져 온 마을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한다. 다행히 8대조 할아버지만 겨우 살아 남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기 때문에 인근에 살고 있던 당숙집에서 더부살 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당숙집에서 너무 팔시를 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숙집을 나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이안동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문·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현리는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토박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현리에는 사단본부와 연대 본부가 있는 군사 지역이기도 하다. 약 20여 년전에 ○○사단이 교현리에 자리잡은 것을 비롯하여 무장간첩 김신조가 교현리 장포동 뒷산을 통과하여 지나간 이후 ○○사단 관할의 ○○연대 본부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 주변에는 군인 아파트가 있어 군인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산물로는 예전에는 채소와 나무장사가 유명하였다. 채소나 나무를 해서 서대문이나 의정부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농토가 적고 토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예전에는 교현리 거주 주민 50~60가구 중 1년 내내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살았던 집은 겨우 1~2가구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릿고개를 간신히 넘기면서 연명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목장이 많이 들어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검문소 주변과 이안동에 몇몇 음식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생활권은 서울이지만 예전에는 서대문·의정부 지역을 공동 생활권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는데, 시장 역시 3일과 8일에 서는 의정부장을 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종교 현황은 우선 사단 본부 안에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절과 교회가 있다. 그리고 교현리 1번지인 오봉산 밑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석굴암이란 절이 있어 많은 마을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리고 약 20여 년전에 세워진 장로 교회가 있어 교현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교현리의 경우 기독교 신자보다는 불교 신자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 이외에도 교현리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산신제가 있다. 산신제는 마을 뒷산 오봉산 아래 응달산이란 곳에서 지내는데 음력으로 9월 1일 날을 잡아 9월 3일 이전에 지낸다. 한편 1997년 6월 29일 자연보호 환경 단체인 우이령 보존회와 교현리 주민 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교현리 이안동에서 나무 장승 2기를 세우고 하루 동안 ‘나라굿’을 하였다고 한다. 국립공원 지역 내에 송전탑과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진혼제였다. 교육시설로는 송추 삼거리 검문소 근처에 송추초등학교가 있어 이곳을 다니고 있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의정부지역으로 나간다.

(11) 장흥면 울대리

의정부에서 39번 도로를 타고 일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울티고개가 나오는데 바로 이 울티고개 너머가 울대리이다. 울대리는 원래 한 개 마을이었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울대 1리와 2리로 분구 되었다. 따라서 울티고개를 중심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 울대 1리이고, 울대 1리와 연이어서 교현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 울대 2리이다. 즉 울대 2리는 송추유원지가 있는 마을로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울대리는 본래 양주군 양주면지역으로 양주군과 의정부시를 경계짓는 울티고개 아래에 마을이 있다하여 울티, 울띠, 또는 울대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용못굴, 옛굴, 송촛굴을 병합하여 울대리라 하였다. 울대리는 동쪽으로는 울티고개를 경계로 의정부시 가능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교현리 이안동과 경계를 하고 있다.

① 울대 1리

울대 1리는 일산~의정부간 39번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양쪽에 마을이 펼쳐져 있다. 의정부 방향에서 가다 보면 울티고개 바로 너머 도로 오른쪽으로 몇몇 상가와 함께 그 뒤쪽으로 민가가 있으며, 민가 뒤쪽에는 천주교 길음동 교회 묘지와 운경 공원 묘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곳으로부터 39번 도로를 따라 약 200여m 송추골 방향으로 내려 가다 보면 도로 왼쪽으로 농장과 마을이 있는데 이를 두 지역을 울대 1리라고 한다. 울대 1리에서부터 의정부까지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다.

울대 1리에는 민간인들만 약 40여 가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와 함께 군인 아파트인 쌍용 아파트가 있어 여기에서 사는 군인 가족들만 하더라도 약 70~80가구다. 쌍용 아파트 아래에는 30여 년전에 조성된 현학 농장과 송추 주말 농장이 있고 마을 동쪽으로는 사패산이 있다. 사패산 정상에는 갓처럼 생긴 갓바위가 있다. 그리고 사패산 아래에는 역사가 오래된 대한 불교 태고종 원각사란 절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다니고 있다.

한편 울대 1리는 평야가 아닌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농사처가 많지 않아 대부분 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초등학교는 송추초등학교에 다니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의정부지역으로 다닌다. 그리고 의정부와 거리상 가까운 관계로 대부분의 생활권은 의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울대 1리는 예전에는 민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6대째 울대 1리에서 거주해 오고 있는 민씨는 현재 3가구만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울대 1리는 각성바지이다.

전통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산신제와 산신굿, 그리고 기우제 등이 행해졌던 지역이다. 특히 산신제는 지금도 사패산 아래 야산에 산신당이 있어 이곳에서 해마다 3월과 9월초만 되면 1년에 2회씩 산신제를 지내 오고 있는 전통 마을이다. 기우제는 예전에 마을 북쪽 용못이라는 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용이 승천했다 하여 용못 또는 용못골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연못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10여 평 정도의 작은 규모이지만 명주실 한 꾸러미를 다 집어넣어도 끝이 안 닿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깊이가 많이 얕아졌다고 한다. 한편 용못 아래에는 곰소와 가마소라는 2개의 연못이 연달아 있다고 한다. 이들 연못은 약 7평 정도의 규모로, 깊어서 물이 마르지를 않는다고 한다.

② 울대 2리

송추골유원지 내에 있는 마을로 마을 전체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울대 2리 입구에는 송추 농원이 있는데, 바로 이 송추 농원 위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갈 예정이다. 마을 전체가 유원지로서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총 가구수는 약 90여 가구이나 토박이는 17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송추유원지가 개발되면서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를 하는 외지 사람들이다. 이들은 송추골에 들어온지가 대개 15~20여 년 정도밖에 안된 사람들로 송추골 입구에서부터 안쪽 골짜기에 걸쳐서 음식점 등 유통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다. 이 지역은 1년 중 여름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여름 한철 장사가

거의 일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송추유원지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해방 직후로 정부가 송추골에 1호, 2호, 3호, …라 하여 임시 건물을 지어 주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한다. 그 대신 민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송추골 입구인 현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울대 2리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서울 사람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서울 사람들의 땅 투기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지역 대부분의 땅이 내시부에 등록되었던 김방제 내시의 소유였다고 한다. 즉 울대 2리 역시 삼상리와 마찬가지로 내시가 오래 전부터 터전을 잡고 살았던 마을로 현재도 김방제(5년 전 85세 때 사망) 내시의 부인이 옛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송추골에서 의정부까지는 약 6km이며, 장흥면 소재지인 일영리까지는 약 4km이다. 학교는 송추초등학교를 거쳐 의정부에 있는 중·고등 학교로 진학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한편 마을 동쪽 김방제 내시의 집 뒤편에는 옛날에 태를 묻었다고 하는 ‘태봉’이 있다. 이 태봉 아래에는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일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3. 조사 내용

1) 지명유래²⁾

(1) 광적면

① 가납리

- 가래비 : 광적면에서 가장 큰 마을로 가래비장 쇠전 앞 하천에 큰 가래나무로 다리를 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건넛말 : 가래비 장터 건너편에 있는 마을.
- 능안(능내동) : 최씨가 능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만둔 지역이라 하여 붙은 이름.
- 안말 : 가래비의 안쪽에 있는 마을.
- 새닝골 : 대모시 북동쪽 도력산 자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교동 : 가납 1리 11반과 12반 지역.
- 대모사 : 마을 가운데 큰 뜻이 있어서 붙은 이름.
- 장터말 : 장이 서는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
- 만세배미 : 광적면사무소 앞의 논으로, 3.1 운동 당시 만세를 부른 지역.
- 왔다갔다 가래비 : 의정부가 생기기 전에 한수 이북에는 파주 공릉장, 양주 가래비장, 포천 솔모루장이 있었는데, 장을 떠돌던 남사당패들이 가래비장을 거쳐 공릉장과 솔모루장을 다녔기 때문에 가래비를 사이에 두고 왔다갔다 했다고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또한 가래비 인근 지역 사람들 이 가래비장을 한번 다녀 가려고 왔다가 가면 한 나절이 된다고 하여 붙은 말이라고도 한다.

② 효춘리

- 거마울 : 수레가 많이 지나다니던 수레네미 고개가 인근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
- 미누골 : 옛날에 민씨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
- 우리리 : 효계울 남서쪽에 있는 마을.
- 회내미 : 인근에 전나무 숲이 무성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회광(檜鑛)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효계울(孝溪洞:소개울) : 이 마을에 살던 효자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겨울에 잉어를 잡으려고 개울에 들어갔다가 잉어를 잡아서 어머니를 낫게 했다고 한다. 이 개울을 ‘효계’라고 부르면서 동네 이름이 효계동이 되었다고 한다.
- 범바위 : 국사봉 정상에 있는 바위로, 바위 모양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한다.
- 수레네미 고개 : 거마울에서 파주 법원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파주와 양주를 잇는 곳이며 중국으로 가는 길목으로 수레가 많이 통행하였다고 한다.

(2) 남면

① 신암리

- 부두골(부도골) : 고려시대 감악산에는 48개의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스님의 부도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
- 선우골(선유동) : 옛날에 선녀(신선)들이 놀던

2) 이 내용은 『한국지명총람』, 『양주의 지명유래』, 그리고 필자의 현지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곳이라고 한다.

- 양짓말 : 양지바른 곳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 음짓말 : 응달진 곳에 자리잡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신앙골 :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신암리 : 신을 모시는 바위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 웃신양골 : 신양골의 위쪽에 있는 마을.
- 낭바위 : 선우골 서쪽 신암리와 파주 적성면 설마리의 경계 지점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3)백석면

①홍죽리

- 안풀 : 홍골의 안쪽 산 밑으로 아담하게 자리잡은 곳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 냅대(내대) : 동쪽 냇가에 희귀한 대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 한자로 '내천(川)' 자와 '대죽(竹)' 자를 써서 '천죽동'이라고도 부른다.
- 홍골 : 홍죽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홍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바우배기 : 냅대 북쪽의 논 가운데에 큰 바위가 여러 개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바위는 없어졌다.
- 분투골 :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죽은 사람들을 묻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은봉산(隱鳳山) : 풍수지리적으로 봉황이 숨어 있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소새고개 : 소새고개는 소가 고개를 넘어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 지역이 와우형이라고 인식되어 소와 관계된 지명이 여러 개 보인다. 조선 초기의 정승이었던 윤자운의 묘도 와우형이라고 한다.

(4)은현면

①하폐리

- 그네뜰(귀평동) : 산봉우리가 끝나면서 돌아앉은 곳에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터골(기곡) : 선암리에서 오다보면 세 개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여 터골이라고 하며, 고성(固城) 남씨(南氏)가 터를 닦은 골짜기라 하여 터골 또는 기곡리라 부른다.
- 진재 : 폐재에서 길게 이어진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장현(長峴)이라고도 한다.
- 낙락골(낙낙동) : 옛날 이곳 양반들이 농가를 부르며 희희낙락 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부괴미(부개미) :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하여 붙여진 이름. 안동 권씨가 세도 있을 때부터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 선업리(서너비) : 하폐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로, 옛날 선비가 업 삼아 한량들을 모아 이 곳의 신선 바위에서 활을 쏘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소래(송촌) : 소래산 아래에 있는 마을.
- 월계 : 달이 뜰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외딴말 : 외딴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동쪽마을 : 선업리 동쪽에 있는 마을.

(5)장흥면

①삼하리

- 과부모이뚱 : 마을 뒷산에 있는 명당자리로 이곳에 묘를 쓰면 정승이 난다고는 하나 30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전설이 있는 곳임.
- 건너말 : 삼파아랫말 건너 쪽에 있는 마을.
- 노릉굴 : 삼하리에 있는 골짜기.
- 노리미고개 : 매내미에서 고양시 신도읍 오금리 하촌으로 넘어 가는 고개.
- 능머루 : 삼하리에 있는 마을.
- 대솔밭 : 큰 소나무가 많아서 대솔밭이라 한다.

- 도당산 : 삼하리 뒤쪽에 있는 산으로, 도당산 아래에서 도당제를 지낸다.
- 독제이고개 : 매내미에서 고양시 신도읍 오금리 중촌으로 넘어가는 고개.
- 돌미 : 삼하리에 있는 들.
- 두껍바위 : 삼하리에 있는 바위.
- 막은데미 : 삼하리에 있는 들.
- 막은데미고개 : 막은데미에서 삼상리 재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매남고개 : 매내미에서 고양시 신도읍 오금리 당촌으로 넘어가는 고개.
- 매내미 : 삼하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능말 또는 매남(梅南)이라고도 부른다.
- 삼거리 : 삼하리에 있는 들. 매남고개, 신도읍 동산리 · 오금리 등으로 갈라지는 세 갈래 길이 있다.
- 삼사골 : 삼하리에 있는 골짜기.
- 샷갓 : 삼하리 뒤쪽에 있는 산.
- 새말 : 삼하리에 새로 생긴 마을.
- 샛고개 : 매남이에서 고양군 신도읍 오금리 삼마굴로 가는 고개.
- 소중골 : 삼하리에 있는 골짜기. 소가 죽었다고 한다.
- 양지편 : 삼하리 양지편에 있는 마을.
- 재라봉 : 삼하리에 있는 산.
- 절안 : 삼하리 뒤쪽 노고산 밑에 있는 마을. 예전에는 이곳에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빙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 죽지골 : 삼하리에 있는 골짜기로 지붕바위 위쪽을 지칭한다.
- 지붕바위 : 삼하리 뒷산에 있는 바위로 지붕처럼 생겼다고 한다.
- 철쭉갓 : 철쭉이 많다 하여 붙여진 지명.
- ② 삼상리
 - 가마소 : 삼상리에 있었다고 하는 늪의 명칭.
 - 건너말 : 이곡 건너 쪽에 있는 마을.
 - 공삿갓 : 삼상리에 있는 산 이름.
 - 능안 : 배울 동북쪽에 있는 마을.
 - 덕매유원지 : 삼상리에 있는 유원지로 1년에 약 1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한다.
 - 도당산 : 삼상리에 있는 산으로 도당제를 지내는 산제터가 있다.
 - 도림사(道林寺) : 상포동 북쪽 노고산 자락에 있는 절.
 - 배울(이곡) : 벌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 배나무가 많아서 배울 또는 이곡이라고 한다.
 - 벌말(평촌) : 삼상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벌판에 위치하고 있어 벌말 또는 평촌이라고 한다.
 - 산밑 : 삼상리 산 밑에 있는 마을.
 - 삼패상리 : 삼상리의 옛지명으로 삼패웃말이라고도 부른다.
 - 서리굴 고개 : 벌말에서 고양군 벽제읍 선유리로 가는 고개.
 - 수회동(水回洞) : 삼상리에 있는 마을로 개울이 아홉번 굽어 돈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 양짓말 : 삼상리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
 - 여우밭계골 : 삼상리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는 여우가 살았다고 한다.
 - 역전 : 일영역 앞에 있는 마을.
 - 우물골 : 삼상리에 있는 골짜기.
 - 우물너며 : 우물골 너머에 있는 마을.
 - 유각굴 : 삼상리에 있는 마을.
 - 일영유원지 : 삼상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유원지로 1년에 약 6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
 - 장포동(長浦洞) : 벌말 북동쪽 서산천에 둘러싸인 마을.
 - 장자원유원지 : 자연 경관이 수려한 삼상리에 있는 관광유원지로 1년에 10여 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 재궁고개 : 벌말 남서쪽에 있는 고개로 ‘쟁고개’라고도 한다.
 - 재궁동 : 재궁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쟁고개’ 또

는 ‘조현(糟見)’이라고도 한다.

- 쟁굴 : 쟁고개 너머에 있는 들.
- 쟁굴고개 : 재궁동에서 쟁굴을 거쳐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로 넘어가는 고개.
- 정자동 : 벌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정주머리’라고도 한다.
- 청룡사 : 노고산 자락에 있는 절.

③교현리

- 간곡 : 응달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새골 또는 샛굴이라고도 한다.
- 교현리 : 옛날 이 지역에 나무다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리 건너 구파발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올려다 보인다 하여 교현리, 다리고개, 달고개, 달현이라 한다.
- 다리고개 : 다리고개에서 신도면 효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샛골 :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를 샛골이라 하는데, 큰 샛골과 작은 샛골이 있다.
- 석굴암(石窟庵) : 응달산 동쪽 오봉산 밑에 있는 절.
- 소귀고개[牛耳嶺] : 응달말에서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쇠귀로 넘어가는 고개.
- 술막거리(주막거리, 주막동) : 이아니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 시못골〔侍墓洞〕 : 다리고개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어느 효자가 시묘를 살았다고 한다.
- 심의동(심의골) : 굽은 골짜기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양짓말 : 교현리 양지쪽에 있는 마을.
- 음지마을 : 응달말 남쪽에 있는 마을.
- 음지촌 : 교현리 음지쪽에 있는 마을로 응달말이라고도 한다.
- 이아니깨(애니깻, 이안말, 이안동) : 장풀굴 북쪽에 있는 마을로 편안한 동네라 하여 이안동이라고도 하고 안말이라고도 한다.
- 장풀굴(장포동, 장안) : 푸른 개울 건너에 있다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샛굴 서쪽에 있는 마을. 풀밭이 있었다고 한다.

④울대리

- 가마소 : 울대 1리 마을 뒤편 곰소 아래에 있는 연못으로 그 규모는 약 7평 정도된다.
- 갓바위 : 울티고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갓처럼 생긴 바위산으로, 그 모습이 갓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바위 이름이며 산의 이름을 사폐산이라고도 한다.
- 전너말 : 울티 전너쪽에 있는 마을.
- 곰소 : 울대 1리 마을 뒤편 용못 바로 밑에 있는 연못으로 그 규모는 약 7평 정도다.
- 막은고개 : 요못굴에서 울티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 이곳에는 무서운 짐승이 많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고개를 막은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 사폐산 : 울대 1리 마을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갓바위라고도 한다.
- 산신당 : 울대 1리 건너편 갓바위 밑 야산에 있는 울대1리 산재당으로 현재도 존재 한다.
- 산신제터 : 송추골 태봉 밑에 있는 산신제를 지내는 터로 조그만 바위가 있다.
- 송천정사(松泉精舍)터 : 송추골에 있는 송천정사 터. 조선시대 광해군 때 어우 유몽인이 대체학을 마다하고 이곳에 은거하면서 산수를 즐기다가 인조 반정 때 상부시로 화를 당했다고 한다.
- 송추동(松湫洞:송추골) : 오얏굴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다하여 송추골이라고 하였다 한다.
- 송추유원지 : 송추골에 있는 관광 유원지로 계곡을 따라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 송추골 폭포(송추폭포) : 송추골에 있는 폭포로, 폭포의 높이는 7m이다.
- 역전 : 송추역 앞에 있는 마을.
- 오봉(五峯) : 송추골 오봉산 밑에 있는 마을.
- 오얏굴(오야동, 옛굴) : 요못굴 서남쪽에 있는 마

을로 옛날 기와를 굽던 터가 있다.

- 요못골(용못골, 용연동) : 용못이 있는 마을.
- 용못 : 울티 서남쪽에 있는 연못으로 용이 승천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용못은 지형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사람들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곳 용못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연못의 규모는 약 10여 평 정도 된다.
- 운경공원묘지 : 울대 1리 뒤편에 있는 공원 묘지.
- 울대리 : 풍수상 사방이 가로막혀 터가 답답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아무리 둘러 보아도 집을 지을 마땅한 터가 없어 울대리라 하였다고 한다.
- 울티고개 : 울대리에서 의정부시 상직동으로 넘어 가는 고개로, 그 지형상 사방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매우 답답함을 느껴 울티고개라고 한다.
- 원각사 : 태고종으로 사패산 아래에 있는 오래된 절이다.
- 제상바위 : 울대리에 있는 바위로, 제상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쪽도리 바위 : 울대리에 있는 바위로, 쪽두리 같아 생겼다하여 쪽도리 바위라 한다.
- 천주교공원묘지 : 울대 1리 마을 뒤편에 있는 천주교 길음동교회 공원묘지.
- 태봉 : 옛날 이곳에 태를 묻었다 하여 태봉이라 한다. 송추골에 있음.

(6) 주내면

① 유양리

- 객사말(쟁문동) : 조선시대 양주 관아 귀빈 숙소인 객사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객문동(客門洞)이라고도 하는데, 음이 변하여 '쟁문동' 이라 부르고 있다.
- 동부동 : 양주 구읍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 지금의 유양 1리 5반 지역이다.
- 원골 : 양주 고을 원님이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 모퉁이말 : 평구재 모퉁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평구말(빙고마을) : 얼음창고인 빙고가 있던 지역으로, '빙고마을'의 음이 변한 것이다. 유양 1리 3반 지역.
- 말무덤 : 유양초등학교 북쪽에 있다. 임진왜란 때 죽은 말들을 묻었다고 한다.
- 병막 :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곳으로, 현재 주내역 근처이다.
- 송장골 : 옛날 죄인의 목을 베던 곳으로 유양 1리와 2리의 경계 지역이다.
- 미륵골 : 매내미에서 고양시 신도읍 오금리 하촌으로 넘어 가는 고개.
- 새젖골 : 예전에 사직당(社稷堂)이 있어서 사직골이라 부르다가 새젖골이 되었다고 한다.
- 청석골 : 청석골은 천연(天然)골 · 천송(千松)골 · 청송(青松)골 등으로 불리는데, 바로 여기에서 청석골이란 지명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7) 회천읍

① 회정리

- 과골 : 과실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구덕정(구덕쟁이) : 조선시대 역로의 주막거리로서 '덕정리'라 부르던 지역으로, 경원선 철도가 부설된 후 덕정역이 생기면서 '옛 덕정리'라는 의미로 구덕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 벌말 : 샛골 · 벌말 · 과골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옛날 이 마을에 못된 성격을 가진 노인이 살았는데 마을의 양반들에게 꾸지람을 듣고도 뉘우침이 없었다하여 과회리라 하였다고 한다.
- 샛골 : 벌말과 덕계리의 돈계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탑동(탑골) : 벌말과 구덕정 사이에 있는 마을. 옛날 이 마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인의 꿈에 스님이 나타나 마을

뒷산 고개 옆에 탑을 쌓고 빌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이 탑을 쌓고 치성을 올려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서 탑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갈매지 : 목마른 말이 물을 만난 형국의 지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마을과 사회

농업이 주요 산업이던 과거에는 마을 구성원간의 협동이 매우 중요하였다.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의 일은 물론이고 혼인이나 초상처럼 큰 일을 치를 때에도 많은 일손이 필요했으므로 일가친척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며 필요한 노동력을 자급하거나 상호부조하는 전통이 있었다. 즉 집성촌이 형성되거나 마을마다 여러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이러한 모습은 급속히 소멸하여 대부분의 마을은 각성바지가 되었고, 소수의 계모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농촌마을에서 협동조직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계다. 계는 마을사람들이나 같은 연배끼리 모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일종의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다. 계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친목도모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 양주군의 경우 마을사람들끼리 하던 계가 각 마을별로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 현재 양주군 내에 있는 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포계’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의와 상복을 지을 수 있는 베와 종이(창호지)를 마련해 준다. 상주는 이것을 받아 수의와 상복을 짓는데 대개 수의와 상복 한 벌을 지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상가에서는 직접 비용을 들여 나머지 상복을 준비해야 한다. 회천읍 회정 1리는 30~40명 규모의 상포계가 있다.

그러나 상포계라는 것이 부모의 상에만 적용이 되고 초상이라는 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계를 시작하면 아들·손자 대까지 이어진다. 또한 물품으로 계를 태워주기 때문에 당시의 물가에 따라서 계원의 계돈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어렵고 일단 구성된 계는 계원이 한번씩 계를 타면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현재도 계를 탈 사람이 몇 명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계를 타면 회정 1리의 상포계는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잔치나 큰 일이 있는 집에 일정한 양의 술을 태워주는 ‘주계(酒契)’라는 것이 있다. 은현면 하폐 2리는 약 20여 년전에 시작한 주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번도 계를 타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회천읍 회정 1리에서는 한국전쟁 전에 시작했던 주계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계원 전부가 한번씩 계를 타고 난 다음에 계를 폴했다. 잔치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은 계를 적절한 때에 태워준 다음 계를 폴했다고 한다. 술을 태워주는 분량은 대개 계원 1인당 막걸리 한통씩이다.

대한노인회 양주군지회에서는 ‘복지상조회’라는 ‘상조계’를 운영하고 있다. 회정 1리 노인회원 중에는 상조회 가입자가 많은데, 상조계는 상포계와 같은 성격의 계모임을 말한다. 이 상조계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입희망자를 각 마을의 노인회에서 접수하여 시작하였다. 매월 죽는 사람 1명당 1,000원씩을 낸다. 즉, 한달 동안 5명의 회원이 죽으면 회원 1인당 5,000원을 계돈으로 내며 이 돈은 죽은 회원의 유족에게 분배된다.

마을 구성원들이 조직하여 서로 돋던 ‘이중계’라는 것도 있었다. 이중계의 가입은 자유로우나 이중계원만이 마을의 공공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을도 있다. 큰 일을 치를 경우 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정 1리는 이중계에 가입하려면 쌀과 콩을 각 1말씩 가입비로 내야 한다. 이를 “이중든다.”고 한다. 계돈의 운영은 임원을 선출하여 관리하게 하는데 장리로 돈을 빌려주고 동짓달 초순 이중날(추봉)에 이자를 받는다. 이자는 상여나 그릇 등 마을 공공기물 마련에 사용하고 마을 잔치에도 부조한다. 하폐 2리 이중계는 신입자의 경우 벼 2말을 내야 가입할 수 있다. 일을 맡아보는 유사(총무)가 있어서 조직을 관리한다. 계원 중에서 큰 일을 치루는 사람이 있으면 이중계원들이 채리(볏짚 채양)을 쳐주고 하루 전에 음식장만부터 일이 끝난 후 뒷마무리까지 도와준다. 그러나 이중계는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쇠퇴하였고, 회갑연이나 다른 의례들을 집에서 하지 않는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중계에서는 ‘도가’라고 하여 상여나 그릇 등을 마련하여 보관하는 것이 있다. 조사지역에서는 대부분 현재까지 도가가 운영되고 있었다. 유양 1리의 경우 과거에는 동부 도가, 서부 도가가 있어서 사모관대, 원삼 족두리, 상여, 조근(요여), 제기 등을 마련해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5반 동부동처럼 반 단위로 도가가 있거나 2~3개 반이 공동으로 도가를 운영하기도 한다. 물품이 넓으면 이중 계돈이나 마을 기금으로 다시 사서 보관한다. 옛날에는 상여막이 따로 있었으나 요즘에는 도가에 상여를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사모관대와 원삼 족두리는 없어졌다.

‘추봉’은 이장의 수고비를 주며 마을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해 먹으면서 즐기는 마을 잔치라고 할 수 있다. 하폐 1리 선업리는 매년 추봉 때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몇 명씩 정해서 음식을 장만한다. 효촌 2리 회내미에서는 가구당 쌀 3말을 걷어서 이장조(이장의 수고비)를 주고 마을사람이 모두 모여 밥 해먹고 술 마시며 하루 동안 논다.

유양 1리 동부동에는 ‘세찬계’라는 것이 있다. 매년 음력 정월에 계원들이 돈을 추렴해서 모으거나 두레와 같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받은 품값을 계돈으로

모아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 이자로 설날 그믐에 돼지를 잡아 고기를 집집마다 나누고 잔치를 여는데 설날 제사상에 올릴 고기를 마련하지 못한 집은 이 날 받은 고기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양주군 내 성씨 현황을 몇몇 마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적면 효촌 2리 효계울은 수원 백씨의 집성촌이었다. 효촌리 184번지에는 조선 시대 양주목사로서 선정을 베푼 휴암 백인걸 선생의 묘역이 있는데 1985년부터 묘역 정화사업을 벌여 묘역이 공원화되었다. 남면 신암 1리에는 전주 이씨 회신군파의 일부 묘역이 있다. 은현면 하폐리는 남씨 집성촌으로, 특히 고성 남씨와 의령 남씨가 많았다. 1리에는 의령 남씨 사천백공 제하파의 종종 사당이 있다. 이 사당은 1997년에 신축된 것으로 매년 음력 10월 보름 경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시제는 보름 후 첫 공휴일에 지낸다. 장흥면 울대리와 삼상리, 광적면 효촌리는 궁궐에서 은퇴한 내시가 집과 땅을 받아서 살던 곳으로 지금도 그 후손이 살고 있다.

3) 생업과 생업기술

한 마을의 경제활동은 입지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형상 양주군은 산지가 평지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 왔다. 그러나 넓은 평지가 적은 지형 특성상 논농사와 밭농사의 비율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벼 수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팔아 생필품을 구입하였다. 현재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생업이 다양해졌다. 미곡 생산 위주의 농업은 근교농업으로 대치되었고, 서울의 공업 분산 정책으로 이주해 온 중소 제조업체가 양주군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한 장흥면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원지를 비롯한 위락시설이 있어 관광지로서 인기가 높아 관광산업이 발달하였

다. 그러므로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1) 사회경제생활

양주군의 경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30%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들어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화로 인하여 점차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주관 내 전체 인구로 볼 때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편이다. 과거에는 주곡 중심의 농업이었으나 최근에는 균교농업의 성격이 짙어져 시설채소와 원예작물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젖소 사육을 비롯한 축산업의 비율도 높아졌다. 따라서 현재는 수익성이 적은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더 많이 짓고 있다. 특히 청·장년층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설채소나 원예작물 재배를 주로 하고 있다. 반면 논농사나 노지 재배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밭농사는 대개 노년층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백석면은 농협에서 부추 재배를 권장하여 20여 년 전부터 흥죽리와 연죽리를 중심으로 집산지화하고 있다. 백석면 전체 부추 생산량의 1/4이 흥죽리에서 재배되는데, 특히 2리와 3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처럼 대단위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이 때부터는 부추작목반이 조직되어 작목반장이 작업지시를 하고 있다. 부추는 백석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영등포 농산물 공판장이나 가락시장에 도매로 판매한 다음, 생산 농가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 전에는 생산자가 직접 의정부에 가서 팔거나 의정부에서 하루를 잔 다음 서울 수유리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서울 외곽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이지만 양주군 역시 거대 도시인 서울과 의정부, 그리고 동두천 등과 같은 소비도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들어 시설채소나 시설원예를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장흥면은 원예작물의 재배 비중이 크고 은현면 하폐리는 무와 배추를 주로 재배하는 시설채소의 비중이 크다. 채소는 동두천 시장에 직접 내다 팔거나 은현농협에서 도매로 수매한

다. 균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주민보다 최근 외지에서 이주해 들어와 땅을 임대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무와 배추를 주로 재배하며 오이·호박·상치·토마토 등 거의 모든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다. 장흥면은 시설 원예를 주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일손이 부족하여 외국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은현면과 백석면은 목장용지가 많이 증가하였다. 백석면은 젖소 사육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은현면은 양계와 양돈을 많이 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는 소가 새끼를 낳을 때나 일손이 필요할 때는 품앗이를 한다. 젖소 사육은 약 20여 년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유는 회천읍 서울우유 공장에서 수거해 간다고 한다.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양주군의 전업 농가들은 점차 새로운 방식의 농업을 채택하고 있다. 장흥면은 농촌 장기 발전 위원회에서 지역의 자연적 입지조건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농업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일반 농업 경영에서 탈피하여 자연 농업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 농가를 확대하고, 가족 단위 주말농장이나 어린이 학습용 농사 체험장 등의 관광농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균교 자연적 휴식 공간과 꽃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두레'라는 마을 공동 노동 조직을 통하여 농번기의 많은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었다. 두레는 주로 김매기를 할 때 결성되었다. 이를 "두레 난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전에 사라진 두레는 음력 5월경에 시작되어 7월 15일 백중경에 끝난다. 김매기는 세별 매기까지 한다. 농사가 적은 사람들은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레패는 보통 30~40명 정도 되었다.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었으나 근력이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보통 20세에서 50세 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두레가 나서 일을 하려 할 때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일을 나갔다.

두레의 우두머리를 ‘영좌’라 하는데 마을에서 1명을 선출한다. 영좌는 나이도 들고 덕망과 재력도 있으며 똑똑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만일 영좌에게 유고가 있으면 새로 선출하였다. 영좌도 일을 같이 하였으나 전체를 통솔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영좌 외에도 ‘조사’라하여 공동 일에 대해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1명 뽑는다. 조사는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뽑는데, 일반적으로 잡심부름을 시킨다.

두레째는 보통 아침 6시경에 일을 시작하여 저녁 7시경까지 일을 하였는데, 1인당 보통 한 마지기(200평) 정도의 깁을 맬 수 있었다고 한다. 논이 적으면 아침 식사 전에 일을 끝내기도 하였다. 점심이나 새참은 논 주인이 담당하였다. 한편 두레가 날 때 풍물을 쳤는데 풍물은 나갈 때나 쉴 때,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쳤다. 회천읍 회정 1리에서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북을 치면서 북 장단에 맞추어 방아타령 같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을 나갈 때는 부지런히 나간 반면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흥겹게 놀면서 돌아왔다. 북장은 자유롭게 일복을 입었으며, 깁을 다 매고 나면 ‘호미씻이’라는 행사를 하였다. 호미씻이는 깁을 다 매고 나서 호미를 씻어 둔다는 의미로 복날 등을 택해 소를 잡고 술을 만들어 마을사람들이 대동으로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을 말한다.

영농이 기계화되기 이전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에 동원되던 두레는 이앙기나 제초제가 등장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광적면 효촌 1리 회내미 마을에는 광무(光武) 7년(1903년) 5월 농상공부(農商工部) 주최 농민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농상기(農商旗)가 지금까지도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농상기(사진 3)는 흰색바탕에 붉은색의 지네발을 양옆과 아래쪽에 달았으며, 그 크기(지네발 제외)는 가로 84cm, 세로 320cm이다. 지네발은 넓은 폭이 35cm이고, 좁은 폭이 19cm이다. 한편 농상기 맨 위쪽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바로 아래에는 “농상공부(農商工部)”란 글귀가 쓰여 있으며, 중간에는 “양주 석적면 회촌동 천하지대본(楊州 積穀面 檜村洞 天下之大本)”,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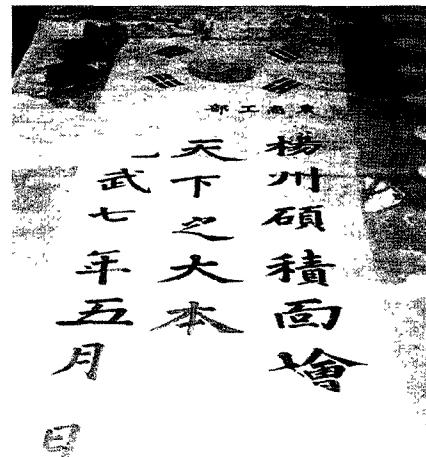


사진3 농상기

무 칠년 오월 일(光武 七年 五月 日)”이라고 쓰여 있다.

서울에서 의정부를 거쳐 동두천으로 연결되는 3번 국도를 끼고 있는 회천읍은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회천읍은 군 내의 다른 지역보다 도시적 성격이 강하여 양주군 전체 공장의 절반 가량이 밀집되어 있으며 규모도 큰 편이다. 양주군은 대체로 산이 많고 평지가 적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한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열악해지면서 공장에 취업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전업 농가가 줄고 가족 중 일부가 공장에 취업한 반농반공(半農半工) 형태가 늘고 있다.

광적면에도 최근 공장이 급증하고 있다. 농가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4개의 지방도가 지나고 우고천·비암천 등의 하천을 끼고 있는 입지 조건 때문에 공장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흥면은 북한산을 끼고 북쪽으로 송추·장흥·일영을 잇는 유원지가 유명하다. 서울 북부지역에서 한 시간 남짓 한 거리에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위락단지로 조성되어 연간 약 300만 명에 달하는 행락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 인구가 늘었다. 그러나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하는 사람이 많고 원주민 상업인구는 적은 편이다.

(2) 생업기술 및 도구

양주군의 산업이 현재처럼 다양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생업과 관련한 기술이나 도구는 농촌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비록 현재는 기계화와 산업화에 힘입어 전통적인 생업기술과 도구들이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양주군 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통사회에 있어서 주종을 이루었던 농업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모판을 설치하여 모내기를 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본래는 한식 즈음에 논에 물을 대고 사람이 범씨를 뿐어서 못자리를 만들었다. 못자리를 만든지 30~40일 가량 지나야 모내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작은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 못자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20일 정도 지나면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모판을 만들어 모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모판을 만들어서 모를 내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요즘은 모내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한다.

논을 가는 데 있어서도 요즘은 트랙터를 이용한다. 그러나 회정 1리에서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호리(홀)나 쓰레(써레)를 이용하여 논을 갈았다고 한다. 이렇게 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농우소가 필요한데 마을에서 농우소를 가지고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소가 없는 집에서는 소를 빌려 농사일을 하였다. 소를 하루 빌리면 이틀을 그 집에 가서 일을 해 주었다고 하며, 소 주인이 소를 끌고 와서 논을 갈아주면 3일 동안 그 집의 일을 해 주어야 했다고 한다. 전통적인 농기구였던 호리와 써레는 1970년대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고, 트랙터가 등장한 후 완전히 사라졌다. 회정 1리에는 별말에 트랙터가 한 대 있어서 빌려 쓰는데 논 한 마지기당 2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모내기를 한 후 김매기는 호미를 이용하여 애논매기와 두벌 매기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세벌 매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김매기는 농촌의

전통적인 노동 조직인 두레를 이용하였는데, 제초제의 보급으로 김매는 모습 역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가을 추수 때에는 낫을 이용하여 한 논에서 여러 사람이 벼를 베었다. 그러나 지금은 벼 베는 기계가 등장하여 모든 과정이 기계화되었다. 벼에서 이삭을 터는 태질을 이제는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대신 해주고 있다. 과거에는 절구통에 태질을 해서 타작을 하였다. 절구나 매통을 뉘여놓은 다음, 절구공이 2개를 양 옆으로 매어 놓고 '태줄이개'에 벼를 한 단씩 매서 절구에 쳐서 이삭을 터었다. 태줄이개는 한 발 정도 길이의 새끼줄로 만드는데, 줄넘기와 모양이 비슷하며 손에 쥐는 부분은 잡기에 편하도록 조금 굽게 만들었다. 줄을 질기게 하려고 삼을 섞어서 새끼를 꼬기도 했다고 한다. 태질은 마당에서 했는데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고 맨 땅에서 하였다. 태질을 해서 턴 이삭은 바로 쓸어서 모은 후 여자들이 빙 둘러서서 키로 까불렀다. 남자들은 키를 세워서 바람을 일으켜 쭉정이나 검불을 날리기도 하였다. 밭 곡식은 도리깨를 이용하여 타작하였다. 보리는 여자들이 전담하여 키질을 하였으나 벼는 남자들도 참여 하였다고 한다. 벼나 보리를 풋바심할 때는 수수깡을 꺾어다가 반으로 접어서 끝을 쥐고 접힌 부분 사이로 이삭을 훑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발로 움직이는 와룡기가 등장하면서 이 기계를 이용하였다. 경운기가 보급된 후에는 경운기에 탈곡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콤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탈곡한 벼는 마당에 깔아 두고 핵별에 말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제는 기계화가 되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이 등장하면서 농산물을 건조하거나 저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전기로 작동하는 이 건조실은 약 50가마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한 가마당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고 전조시켜 준다.

(3) 장시유통

조선시대 양주지방은 광주와 함께 육로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 다락원 부근은 원산항의 각종

어물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입구였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전국 장시상황을 알 수 있는『증보문헌비고』에는 가래비(3, 8), 동두천(5, 10), 신천(2, 7), 고주내(5, 10), 대탄(4, 9), 북두천(1, 6), 구곡(1, 6) 등이 양주에서 5일장이 서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양주에는 3개의 정기시장이 서고 있다. 은현면 봉암리에도 장이 섰다고 하나 얼마 전에 없어졌다. 남면 신산리에서 열리는 신산장은 1970년 상수리에 서던 갓바위장[立巖場]이 폐장되면서 신산리로 이전하여 장이 서기 시작하였다. 가래비장은 양주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깊은 장이다. 동대문 밖의 시장 중 3대 시장에 끌 정도로 큰 장이었다고 한다. 한편 덕정장은 일제시대 때 철도가 나면서 생긴 장으로 현재 도시 인구의 유입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양주 사람들은 간단한 생필품은 군 내의 정기시장을 이용하지만 잔치나 행사를 위한 큰 장은 의정부나 파주, 동두천 등 가까운 도시의 상설시장이나 상가를 이용하고 있다. 은현면 하패리는 동두천, 백석면 효촌리는 파주로 가고 그외의 지역은 대부분 의정부로 나간다.

①덕정장(2, 7일장)

회천읍 덕정리에 서는 덕정장은 덕정역을 기점으로 덕정~동두천간 도로 우측(덕정역 건너편) 보도와 그 안쪽 골목에 크게 형성되고 있다. 오전 10시경 이미 상품을 펼쳐 놓은 곳이 많았으나 그때부터 한창 물건을 펼치는 장사꾼들도 있었다. 장보러 나온 사람 역시 매우 드물었으며 다른 장들에 비해 개장을 늦게 하는 듯 하였다.

시장은 기존 상가 사이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였는데 기존 상가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하였다. 한편 회천 농협 부녀회원들은 덕정역 옆 보도에서 재활용품 교환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명의 아주머니들이 풍물(팽파리·북·징·장고)을 치면서 손님을 끌고 있고 한켠에서는 먹거리(묵·국수·빈대떡 등) 장사를,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의류와 채소, 그리고 화훼 등을 팔고 있었다.



사진4 덕정장 옹기점



사진5 덕정장 씨앗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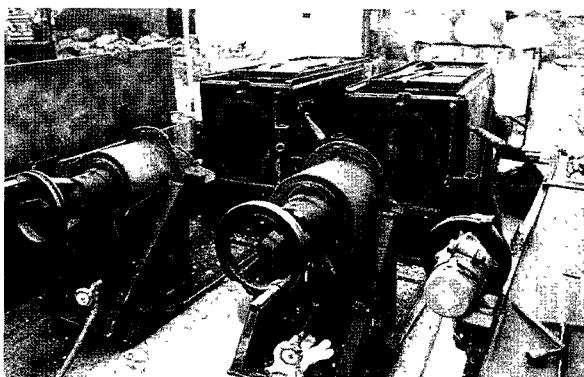


사진6 덕정장 튀밥기계

한편 예전에는 덕정장에 우시장(35년 전에 사라짐)과 대장간 등 옛 장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덕정에는 옹기점이 3군데나 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덕정장은 맨처음 우시장부터 시작된 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포목점이 성황을 이루었고 우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4~5년 더 서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

처럼 장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포목점이 설 때에는 오전에만 장이 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장이 유지되다가 전쟁 중 영국군과 터어키군이 진주하면서 장이 잠시 사라졌다가 그 이후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시장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저녁 8~9시까지 장이 선다. 아침에는 8시경에 개장된다. 그런데 원래 덕정장에는 상가가 없이 공터였다고 한다.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농협 연쇄점이 생기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이후 1980년대 지금과 같은 상가가 형성되었다. 아무튼 덕정장에는 지금도 옹기점(사진 4)을 비롯하여 씨앗장사(사진 5), 튀밥장사(사진 6) 등 전통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회천읍의 인구는 약 5만 여명으로 덕정장은 주로 지역민들이 이용한다. 구 장터는 군유지로 약 200여 평 정도 된다. 나머지는 개인소유의 땅이다. 그런데 현재 장이 서고 있는 지역은 덕정역 앞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날만 되면 이 지역이 매우 혼잡하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회천읍 고암과 덕정 중간에 형성될 신시가지로장을 옮길 계획도 있다고 한다. 점점 장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사는 쪽 잘되는 편이 아니다. 어느 장이건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경기가 더욱 안 좋다고 한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시간은 대개 퇴근 무렵인 오후 6~7시경이다. 덕정장은 일제시대 때 새로 형성된 장으로 이곳으로 철로가 나면서 덕정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장도 생겼다고 한다.

②신산장(2, 7일장)

남면 신산리에 서는 신산장은 원래 갓바위(양주군 남면 입암리)에 서던 장으로, 우시장이 섰다가 30여 년전에 없어지면서 신산리로 장이 옮겨졌다. 그러다가 1973년경부터 장의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주변에 군부대가 많아지면서 군인가족들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장터(사진 7)는 신산리 경기주유소 뒤편에 형성된다. 약 1,000여 평의 공터를 시멘트로



사진7 신산장 옷 노점상



사진8 신산장 약초상

포장하였다. 그 위에 천막으로 장옥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다.

장터 주변에는 아주 낡은 옛 장옥 건물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터에는 약초(사진 8)·호박엿·바구니·모종·곡물·생선·신발·의류·액자·채소·건어물·순대·파일 등 다양한 품목들이 자리를 잡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곡물은 장터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구매자들보다 장사꾼들이 더 많아 보였다. 장세는 규모에 따라 보통 1,000원, 1,500원, 2,000원 정도 차등있게 받는다. 주로 곡물과 야채, 생선류가 많이 나온다. 현재 우시장은 없다.

③가래비장(4, 9일장)

광적면 가납 1리에 서는 가납리장의 원래 명칭은 가래비장이다. 가래비장이 언제 처음으로 개설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사진9 가래비장



사진10 가래비장 곡물노점



사진11 가래비장 메주노점

한다. 구한말 시대 의정부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동대문 이북으로는 장이 3개밖에 없었다고 한다. 즉 포천의 솔모루장과 양주군의 가래비장, 그리고 파주의 공릉장(현 조리면 봉일천)이 그것이다. 이들 장들은 가래비장을 중심으로 동서로 거의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래비장을 ‘왔다 갔다 가래비장’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그 이유는 옛날 남

사당패가 이 세 장들을 이동하면서 장을 볼 때 오다가 들르던 장이 바로 포천장과 공릉장 중간에 있었던 가래비장이었기 때문에 와도 가래비장이고 가도 가래비장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사당패들은 일제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장터(사진 9)는 원래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가납 1리 720번지 주유소 근처 큰길 옆이 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1941년 현재 위치로 옮겨 지금까지 장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장터 뿐만 아니라 길 옆에까지 장사꾼들이 몰려 나와 장날만 되면 도로가 매우 복잡하다.

한편 가래비장은 예전부터 양주군 내에서는 유일하게 장이 서던 곳으로 양주군의 중심 역할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양주군 내는 총 3개의 장이 있다. 가래비장 외에도 덕정장과 신산장이 그것인데 신산장과 덕정장 등은 모두 일제시대 때 생긴 장들이라고 한다. 가래비장에서 포천장과 공릉장까지는 각각 약 50리 정도라고 한다. 특히 가래비장은 우시장이 크게 서던 지역이다. 약 300여 마리 정도의 소가 출하되어 매매되었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해 볼만 하다. 그러다가 일제시기에 우시장이 없어졌다가 1960년대 초반 우시장이 잠시 생겨 5~6년간 운영되다가 우시장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가래비장의 특산물로는 곡물과 밤을 들 수 있다. 양주밤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는데, 양주군 중에서도 주내·온현·광적·백석·장흥 등지에서 밤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밤나무가 병들어 예전만큼 밤이 출하되지 않는다. 곡물(사진 10)의 경우 싸전이 따로 있었고 여기에는 ‘강구’가 곡물의 가격을 정하여 주었다. 이들을 ‘말강구’라고 하는데, 말강구는 가래비장의 경우 4명 정도 있었다고 한다. 말강구는 곡식을 되어주고 떨어지는 것을 구전으로 먹는다. 이러한 말강구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에서 볼 수 있었다. 제보자인 김태식 역시 1960년부터 1970년경까지 약 10여 년 동안 말강구를 하였다. 한

장에서 말강구들에게 떨어지는 수입은 대개 두서너 말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한편 당시에는 돈암동이나 수유리 등지에서 장사꾼들이 물려와 곡물을 사다 팔았다. 한편 강구들은 곡물을 달아주는 것 이외에도 장세를 걷는 일도 담당하였다. 여기서 거두어 들인 세금은 1년에 한번씩 군 당국에 쌀로 5가마 정도씩 납부한다. 이러한 강구들은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보아 안되면 강구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가래비장은 총 4명의 강구를 매년 선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한번 강구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기 전에는 그대로 강구가 되었다. 또한 가래비장에서는 메주(사진 11) 등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거래되고 있다.

가래비장에는 1979년경 가납시장 번영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번영회장은 광적체 육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석호로 초대 유광렬(사망), 2대 송춘석에 이어 올해부터 3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조직을 살펴보면 회장 1명에 부회장 2명, 총무 2명, 감사 2명, 운영이사 10명에 총회원수는 370여 명이다. 가래비에서 상업에 종사하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연회비는 1만원이다. 예전에는 입회비를 3만원씩 받았다고 하나 지금은 받지 않는다. 번영회에서는 1998년부터 인근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경로잔치나 광적면 내에 있는 각 마을 행사에도 일정액을 부조한다. 그러므로써 면민들이 광적면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장터는 양주군 소유지로 매년 2월에 운영입찰을 본다. 입찰을 보아 입찰에 당선된 단체는 군에 일정액의 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터는 총 460여 평으로 1년에 양주군에 내는 세금은 100만원이다.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40만원씩 냈다고 하나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징수자는 이외에도 300만원을 번영회에 납부해야 한다. 즉 총 400만원을 번영회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징수자가 갖는다. 총 상인수는 약 70명 정도로 시장 안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3,000원씩을 내고 바깥쪽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들의 경우에는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장세를 납부한다.

4)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자급 자족적 농업사회의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는 목화나 모시(茅) 또는 삼(麻)과 같은 식물을 재배하여 실을 얻고 그것으로 옷감을 짜서 옷을 지어 입는 의생활 전통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어왔다. 즉 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를 기본 형태로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의복은 모든 제작 과정이 가정 내에서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양 문물의 유입과 산업의 발달로 이러한 의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합성섬유가 등장하였고 양복이 들어와서 옷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간편해졌으며 기성복을 사서 입게 되었다. 특히 일상복에 있어서는 한복과 양복이 공존하다가 이제 양복이 보편화되었다.

경제가 어렵던 과거에는 서민들이 최소한으로 필요 한 정도의 옷을 가졌고 옷이 헤어져 입을 수 없게 되면 버리거나 기저귀·행주·걸레 등의 용도로 변용 하였다. 의생활에 대한 조사를 제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해 내려오는 자료가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사 지역 역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의생활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로 제보자와의 면접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그 조사 내용이 1900년대 이후, 특히 1940~1960년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들이 주로 입었던 복식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논의되었다.

① 평상복

의례복이나 일복(작업복)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옷을 편의상 평상복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유아의 평상복으로는 기저귀를 차고 배냇저고

리를 입은 다음 두랭이를 두르는 차림이 일반적이었다. 기저귀 역시 유아의 속옷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광복과 같이 빨래에 강한 천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잘 사는 집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른들의 옷 중에서 헤어졌거나 입지 않는 옷의 안감 등 비교적 부드러운 감으로 기저귀를 만들어서 채웠다. 장흥면 삼상 1리 정자동의 장필중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옷을 기저귀감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천이 큰 것은 몇 겹으로 접어서, 작은 것은 몇 조각을 겹쳐서 만든 후 삶아서 기저귀로 채워 주었다. 형제간에 대를 물려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노란 고무줄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저귀는 광목 끈으로 고정시켰다.

한편 배내옷이라고도 불리는 배냇저고리는 대표적인 유아복으로 태어난지 3일 만에 첫 목욕을 하고 입는 옷이다. 광복이나 융 등으로 만들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새 옷감으로 지어 입히기보다는 형이나 누나들이 입던 것을 물려 입히거나 어른들이 입던 낡고 헤어진 옷으로 지어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융 같이 좋은 천은 부잣집에서나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저고리는 목둘레를 V자 모양으로 파고 앞을 튼 형태이다. 그러나 단추 대신 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달아 앞을 여몄다. 전체적인 형태는 남자 저고리와 비슷하나 팔소매가 다르다. 유아들은 팔목을 자꾸 접으려 하기 때문에 1~2개월 정도까지는 팔목을 동여매 주기도 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릴 염려가 있어서 배냇저고리의 소매는 팔의 길이보다 주먹 하나 정도의 길이만큼을 더 길게 만들어 끝을 동여매 준다.

두랭이는 광목에 솜을 두어 누벼 만든 아랫도리로, 아기의 배를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치마처럼 허리에 둘러 하체를 감싸주는 옷을 말한다. 보통 백일이 지나야 바지를 입혔으므로 두랭이는 백일까지 입던 아랫도리였다. 두랭이를 배두랭이 또는 배두렁이라고도 부르는데, 소창·광목·무명 또는 떨어진 현옷 등으로 만든다. 여러 겹으로 접거나 솜을 얇게 두고 누벼 만든 사각형의 천 위쪽에 서너 개의 주름을 잡고 치마허리

를 달아 행주치마처럼 만든 것으로, 허리끈을 뒤로 한번 돌아 감싸고 앞에서 묶어 고정시킨다.

이외에 침 훌리는 것을 대비하여 목에 둘러 준 턱배기(턱받이)가 있었다. 턱배기도 두랭이와 마찬가지로 솜을 두고 누벼서 만들었는데 수를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입던 옷으로 용변을 가릴 때까지 입는 개구멍 바지가 있었다. 고무줄 허리에 가랑이는 구멍을 내서 용변을 보기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1970년대까지도 이 개구멍 바지를 입은 어린이들을 흔히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아이가 성장하여 아동기에 접어들면 여아의 경우 대개 노랑이나 분홍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었고, 남아는 검은색 바지에 분홍 저고리나 검은 저고리를 많이 입었다. 여아는 머리를 땋아 붉은 냉기를 했는데, 금박 장식을 한 냉기는 매우 좋은 것으로 부잣집에서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잘 사는 집에서는 융으로 만든 내복을 입었으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속옷을 입지 못했다. 속옷의 일종으로 두렁치라고 하는 것이 있긴 했으나 이것은 어린이들이나 성인 여자들이 입던 속옷으로 기저귀와 비슷하게 생겼다.

여자 어른들은 짹바지·사리마다 등의 속옷을 입고 분홍·노랑·옥색·흰색 등의 저고리와 분홍·남색·검은색 등의 치마를 입었다. 여자의 속옷은 사리마다 위에 고챙이(속바지)를 입고 단속곳을 입는 것이 기본이었다. 겨울에는 솜을 두어 누빈 고챙이를 입었고, 여름에는 훌고챙이에 사리마다만 입었다. 사리마다는 '사루마다'라고도 하는데 단속곳은 치마보다 길이가 약간 짧고 밑이 막힌 형태의 속옷으로 용변을 볼 때에 벗지 않아도 될 만큼 통을 넓게 만들었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옷차림은 차이가 있었다. 미혼 여성은 검은 통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많이 입었는데 기혼 여성은 염색한 긴 자락치마에 저고리를 입고 행주치마를 둘렀다. 분홍·노랑 바탕에 끝동을 단 회장저고리와 남색·자주색·분홍색·검은색 치마를 많이 입었고 노인들은 회색이나 옥색 치마저고리를 주로 입었다. 치맛단에 금박을 대서 외출복이나 예복으

로 입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따로 외출복을 장만해두는 경우는 드물었고 평상복 가운데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에 가거나 일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남자 어른들은 속옷이 따로 없었다. 대부분 검은색·흰색·회색 바지저고리를 입었다. 조끼를 입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군부대에서 훌러 나오는 잠바에 물을 들여서 입기도 했다고 한다. 여름에는 값싼 삼베로 잠뱅이·등걸(등거리)·적삼을 지어 입었고, 겨울에는 솜을 두어 만든 솜옷을 입었다. 외출할 때는 바지저고리 위에 조끼와 막고자를 입고 두루마기를 걸치는 것이 갖추어 입는 것이었으나 조끼와 막고자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조끼와 막고자에 검은색 물을 들여서 입는 사람이 많았다.

신발은 주로 짚신·나막신·고무신 등을 신었다. 검은 고무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짚신이 대표적인 신발이었다. 짚신을 신고 나무를 하거나 겨울에 버선을 못 신을 경우에는 발싸개를 한 다음, 짚신을 신었다. 무명을 잘라서 발에 둘둘 감는 것이 발싸개인데, 살갗이 벗겨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역할 뿐만 아니라, 발을 따뜻하게 해 주는 보온 역할도 하였다.

한편 나무를 파서 만든 신을 나막신이라고 하는데, 맨발에 신으면 살갗이 벗겨지므로 버선이나 양말 등을 신고 신어야 한다. 고무신은 점점 고무신이 일반적이었고, 흰 고무신은 부유한 사람들이 신거나 외출용으로만 사용하였다. 만약 코가 찢어지면 바늘로 꿰매어 신었다. 새색시가 신는 형겼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형겼에 풀을 먹여서 뺏뺏하게 한 후 만든 것으로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신을 수 없고 마른 곳에서만 신어야 하므로 마른신이라고도 불렀다. 그외에 미투리, 베드나무로 만든 게다, 게다와 비슷한 나라지 등의 신발을 신었다. 게다는 일본에서 들어온 신이라고 한다.

②일복(노동복)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 중에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은 대개 일을 하였으므로 일복이 곧 평상복이었다. 여자들은 치마·저고리 차림이었던 것이 일제시대에 몸뻬가 보급되면서 이것이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일복

이 되었다. 텅주몸뻬라는 군복과 비슷하게 생긴 바지를 입고 러닝 셔츠 위에 무명 저고리를 입거나 러닝 셔츠 대신 넓은 허리띠를 두르고 저고리를 입기도 하였다. 남자들은 일을 할 때 소매와 바짓단을 걷어올리는 것이 평상복과 일복을 구분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추리닝을 일복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름에는 반바지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농사일을 한다.

③의례복

태어나서 처음 입는 의례복은 돌 옷이라고 할 수 있다. 색동저고리가 대표적인 돌 옷으로 남녀가 모두 입었다. 또한 의례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례복이다. 신부는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쓰고 원삼을 입었다. 원삼을 입지 않고 족두리만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신랑은 바지·저고리에 관복을 입고 사모관대를 하였다. 혼례복은 대부분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상복은 베나 광목으로 지어 입었다. 이러한 상복은 초상이 나자마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초상집에 모여 베나 광목으로 손수 바느질을 해서 입었다. 이때 바지·치마·저고리 뿐만 아니라 두루마기나 건(巾) 등 일체의 상복이 준비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상포집에 가서 기성복으로 사다 쓴다. 이러한 상복에는 우선 너데기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옷은 형겼 조각을 너덕너덕 붙여 만든 옷으로 더덕옷이라고도 불렸다. 또한 두루마기처럼 입는 중단이란 옷이 있다. 중단을 굴건제복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옷을 입은 다음에 새끼줄로 만든 허리띠를 매고 머리에는 건을 썼다.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오동나무 지팡이나 미루나무 지팡이를 짚었다고 한다. 대신 여자들은 광목 치마·저고리에 새끼줄로 허리띠를 매고 머리에는 삼겹질과 짚을 혼합하여 만든 머리띠를 들었다고 한다.

제사를 지낼 때 여자들은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남자들은 흰색이나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통례였다. 한편 여자들은 시집을 때 옥색 치마·저고

리를 해 오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었다. 남자들은 두루마기가 대표적인 의례복이었으며 외출복이기도 했다.

④ 바느질 · 세탁 · 염색

양주지역에서는 베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옷감을 구입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옷감으로는 주로 광목을 이용하였는데, 광목은 표백하기 이전 상태였으므로 누런 색을 띠었다. 따라서 이것을 뺀고 삶고 산에 널어 말리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해야 색깔이 하얗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옷을 지어 입었다. 옷을 지을 때 주로 하던 바느질은 흄치기(훔질)였다. 흄치기는 세탁할 때 뜯기 편하고 비교적 튼튼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바느질이었기 때문에 하룻밤에 바지 · 저고리 한 벌을 지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저고리의 동정은 천으로 만들어서 달았고 세탁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세탁해서 다시 달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마대 자루와 비슷한 군용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 일이 많았다. 단추도 집에서 만들어 달았다고 한다.

한복은 세탁할 때마다 바느질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우선 안감과 겉감을 분리해야 하는데 솜을 둔 누비옷은 솜을 뻗다. 분리한 옷을 뺀고 나서 말린 후 풀을 먹이고 다시 말린 다음 바느질 한 것을 조각별로 뜯는다. 처음부터 뜯어서 뺀면 시집의 올이 풀어지기 때문에 풀을 먹인 후 뜯는다. 뜯은 조각들은 방망이로 다듬이질을 해서 주름을 펴고 다시 꿰매어 옷을 만든다. 다듬이질을 할 때는 다듬잇돌에 천을 놓고 방망이로 두들기거나 발로 밟는데 이런 방법은 광목과 같은 면직물에 사용하던 것이었고 견직물은 홍두깨를 이용하였다. 붉은 색의 고무 그릇이 나오기 전에는 자배기(옹기)에 뺀랫감을 담았다.

비누는 양잿물 비누를 사용하였다. 쌀겨를 체에 쳐서 잣물에 넣고 끓이면 밀가루 반죽처럼 되는데, 이것을 헷볕에 말린 것이 양잿물 비누이다. 이 비누는 매우 독해서 손가락이 벌겋게 달아 올라 피가 나기도 하였

다고 한다. 풀은 쌀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콩짚이나 수수깡을 태우고 나온 재를 시루에 담아 물을 내리면 붉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에 뺀랫감을 담갔다가 뺀면 때가 잘 빠졌다고 한다(백석면 흥죽 1리 안골). 삶을 때는 양잿물 비누 덩어리를 조금 풀어 놓은 물에 넣고 삶는다. 광목이나 옥양목에 먹이는 풀은 죽을 쏠 때보다 물의 양을 많이 하여 끓인 뿐만 밥물을 사용하였다.

광목에 여러 색의 물을 들일 때에는 천연 원료를 이용하기보다는 물감을 사서 염색을 하였다. 동네마다 염색물감 · 실 등을 가지고 다니며 파는 방물장사가 올 때마다 필요한 것을 사서 쓰거나, 장에서 구입하여 쓰기도 하였다. 색이 바라면 다시 물을 들였다.

(2) 식생활

수렵채집경제 단계에서는 식량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유동적이었으나 정착생활과 더불어 농경이 시작된 후 식생활이 안정되므로써 그 틀이 형성되었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식생활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경제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며, 새로운 재료나 조리법이 소개되었을 때 입맛에 맞기만 하면 수용되는 정도가 빨라서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기본 식단은 밥 · 국 · 김치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식생활 구조는 같지만 지역별로 생산되는 산물이 차이가 있고 지방색에 따라 조리법이나 종류도 약간씩 다르다. 조사 지역은 서울 · 경기 지방 음식의 성격을 띠며, 산지가 비교적 많은 지형의 특성상 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음식이 많다. 특산물이 없고 경제 사정도 넉넉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생활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단지 주내면 유양리의 경우 예로부터 각 가정에서 직접 순대를 만들어 먹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각 가정에서는 순대를 만들어 먹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통은 최근 양주 별산대 및 마을 뒤에 있는 불곡산이 등산 코스로 관광지화 되면서 순대 전문 식당이 마을 곳곳에 생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말만 되면 순대국밥을 사먹기 위해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일반적인 밥·국·김치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주식 대용 음식이나 별식에 대해서만 정리하였다.

①주식(主食)

우리나라의 주식은 밥이지만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이 귀했을 때는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만들어 먹었다. 적은 양의 재료를 이용하여 물을 많이 끓고 끓여서 양을 늘릴 수 있는 죽은 밥 대신 먹는 가장 일반적인 음식이었다. 죽은 적은 양의 쌀 외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 ‘보리피상죽’은 보리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껍질을 깨고 솔에 볶은 후 갈아 체로 쳐서 받은 보릿가루에 물을 넣고 끓인 죽이다. 보리이삭이 막 패을 때 먹던 음식이었다. 벼이삭이 패을 때도 풋바심을 해서 죽이나 밥을 지어 먹었다. 무청을 삶아서 죽을 끓인 것이 ‘시래기죽’이다. 쌀 대신 좁쌀을 넣고 끓인 죽은 ‘조당숙’이라고 한다. 콩을 물에 불려서 간 후 콩물을 받아서 그 물에 쌀을 조금 넣고 죽을 끓인 것은 ‘콩죽’, 밥을 한 것은 ‘콩나물밥’이라고 한다. ‘김치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겨울에 찬지(막김치)를 넣고 죽을 끓인 것으로 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쌀로 12명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쑥은 부황이 안 나기 때문에 쌀 한 움큼에 쑥을 넣고 소금으로 간하여 죽을 끓여 먹기도 하였다. 감자를 까서 보리와 함께 밥을 하는 ‘감자밥’도 먹었다고 한다.

‘수제비’는 여름에 주로 먹던 주식이다. 수제비는 밀가루 외에 보리나 메밀로도 만들어 먹었다. ‘메밀 칼싹득이’는 메밀을 갈아 물에 빨아서 걸러 낸 후 물은 묵을 쑤고 건더기는 체로 쳐서 가루를 반죽한 후 칼로 썰어서 흰떡처럼 만들어 수제비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는 음식이다.

일종의 별식이면서 주식을 대신한 것으로 ‘범벅’ 이 있다. 범벅은 주재료를 밀가루와 섞어서 찌는 음식으로 주재료에 따라 음식의 이름이 정해진다. 보리·감자·쑥 등을 주로 이용했는데, ‘감자 범벅’은 감자를

삶아 으깬 다음 밀가루와 강낭콩을 넣고 버무려서 밥솥에 찌는 것으로 요즘에도 별식으로 가끔 먹는다고 한다. 쑥을 뜯어다가 췄어서 밀가루와 버무려 시루에 찌는 것이 ‘쑥범벅’으로 ‘쑥버무리’라고도 한다. ‘보리범벅’도 조리법은 비슷하다. 팔과 쌀가루를 버무려서 밥솥에 찌는 ‘쌀범벅’도 있다.

②부식(副食)

부식은 주로 채소·육류·어류를 재료로 하여 조리하는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부식의 재료가 되었다. 육류는 귀해서 명절이나 잔치 때 먹는 것이 고작이었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류도 자주 먹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재배하는 배추·무 등의 채소와 들이나 산에서 나는 냉이·쑥·달래·고사리·취나물·버섯 등과 같은 나물이 주로 상에 올랐다. 특히 주변에 산이 많아서 산나물을 얻기가 용이하였다. 봄과 여름에 나물을 뜯어서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여 먹기도 하고 볶거나 무쳐서 반찬으로 먹었다. 또한 나물들을 삶아서 말려 두었다가 겨울이나 다음 해 봄에 볶거나 무쳐 먹기도 하였다. 현재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에 나뭇잎이 많이 쌓여 나물이 자라지 못해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양주지역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젓갈을 비롯한 해산물은 장에서 사다 먹었다. 특히 젓같은 서울이 가까웠으므로 마포 나루에 가서 사오기도 하였다(장흥면 올대 2리). 매년 마을사람들이 함께 인천으로 가서 젓갈을 사오기도 한다(주내면 유양 1리).

양주는 김치에 새우젓을 넣는다. 주로 담가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총각김치·물김치 등이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김치나 담그는 방법이 특이하지는 않지만 명칭이 다른 것이 있다. 무를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김장김치가 떨어졌을 때 썰어서 무쳐 먹거나, 물에 담가 동치미처럼 먹는다. 먹는 시기가 대체로 오이지를 먹는 시기와 일치한다. 배추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짠맛이 강하면 물에 담가 짠 기를 없앤 후 무쳐 먹는다. 이것을 ‘짜무김치’ 또는 ‘짠무지’,

'짠배추'라고 부른다. 김장 때 담그는 동치미는 '동김치'라고 하며, 설 세고 나면 맛이 없어진다고 하여 설전에 다 먹는다. 배추 껍질을 막 썰어서 썬 무와 함께 고춧가루·젓갈·각종 양념 등을 넣어 버무린 김치를 '막짠지' 또는 '막짠지'라고 한다. 부추를 많이 재배하는 백석면에서는 '부추김치'를 많이 담가 먹는데, 액젓과 고춧가루·파·마늘·설탕 등 각종 김치 양념을 넣고 버무린다.

③떡

떡은 옛날부터 술과 함께 제의나 의례에 사용되어온, 빼놓을 수 없는 행사 음식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떡 중에서 시루떡·절편·인절미를 가장 많이 해먹었다. 특히 팔시루떡은 지방보다 서울에서 더 발달하였다고 전해진다. 양주지역 역시 여러 가지 떡들 중에서 팔시루떡을 가장 많이 해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절식으로 먹는 흰떡이나 깨·콩·고구마·흰설탕·밤 등을 속으로 넣는 송편, 아이의 백일과 들, 그리고 고사 때 주로 해 먹는 백설기 등 여러 가지 떡이 있다. 여기서는 양주지역에서 주로 만들어 먹던 떡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 경단 : 찹쌀 가루를 반죽해서 옹수래미를 만들어 찐 후 여러 가지 가루를 묻힌다.
- 절편 : 골무떡 또는 잔골무라고도 한다. 무리떡을 쪘서 이것을 안반(떡판)에 놓고 나무 절개(떡매)로 쳐서 마름모로 만들어 떡살을 찍는다. 달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떡살을 찍는 것은 달떡이라고 한다.
- 편 : 팥을 타서 계피를 내고 이것을 체에 쳐서 가루를 낸 후 시루에 쌀 가루와 번갈아 두어 찐다. 팔시루떡과 같은 것으로 고물만 다르다. 이 떡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서 편이라고 한다 (장흥면 삼상리).
- 도토리떡 : 껍질 벗긴 도토리를 물에 담가 떫은 기운을 없앤 후 말렸다가 절구로 뺏아 체로 쳐서 가루를 낸다. 이 가루에 팥이나 콩 삶은 것을 넣고 찌는데, 쌀 가루 대신 도토리 가루를 이용하는

떡이다.

- 쑥떡 : 쌀 가루와 쑥·콩·호박고지 등을 버무려서 시루에 찐다.
- 손떡 : 쌀 가루 반죽한 것을 조금씩 떼어 넓적하게 편 후 팔양금 낸 것을 넣고 손으로 뭉쳐서 콩고물이나 팥고물을 묻힌다.
- 무시루떡 : 쌀 가루에 무채를 넣고 버무린 다음 시루에 팥고물과 가루를 한 켜씩 번갈아 놓고 찐다.
- 쑥개떡 : 쑥을 절구에 찔어서 쌀과 섞어 찐다. 이 떡은 주로 간식으로 먹었다.
- 계피떡 : 쌀 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은 다음 팥소를 넣고 반을 접어 밥그릇으로 눌러 펜 다음 찐다.

④별식

양주지역에서는 가을의 추봉이나 마을 잔치 때 많은 인원이 떡을 수 있도록 국을 끓여 먹었다. 행사 때 먹던 주요 음식으로는 술·국·밥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술은 대부분 막걸리를 즐겨 먹었다.

백석면 홍죽 2리 홍골에서는 '염포국'을 끓여 먹었다. 밀가루나 쫌쌀 간 것을 물에 끓여 물고 두부를 썰어 넣고 끓이다가 소금·파·마늘 등으로 간을 맞추고 양념을 한다. 밥과 함께 먹는 국이 아니라 밥 대용으로 먹는 것이므로 맵거나 짜게 하지 않는다. 북어를 물에 불린 다음, 뜯어서 양념을 해 두었다가 국을 끓여 먹을 때 조금씩 넣어 먹기도 한다. 이중날(추봉)에는 '계잼맞이'라 하여 이장이 염포국 1술과 막걸리 1통을 냈다고 한다. 회천읍 회정 1리에서도 염포국을 먹었다고 한다. 홍골에서는 노인이 죽으면 팥죽을 끓여 먹었다고 한다.

광적면 효촌 2리 효개울에서는 닭국을 끓여 먹었다. 내장만 제거한 닭을 통째로 솔에 넣고 무를 썰어 함께 넣은 다음 물을 붓고 끓인다. 한번 끓으면 닭을 건져내고 살을 빌라서 파·마늘·고춧가루·후춧가루 등을 넣어 버물려 두었다가 먹을 때 양념한 닭고기를 그릇에 조금씩 담아 국물을 부어 먹는다. 이 국은 벼 타작하는 날이나 닭을 잡는 날 해 먹었다고 한다.

은현면 하폐 2리에서는 두부국을 먹었다. 직접 만든 두부를 썰어 넣고, 북어도 두드려서 찢어 넣고 끓인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붉은 고추나 실고추를 넣는다. 식사용이었으므로 고춧가루는 넣지 않는다. 그러나 두부를 만드는 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면만두국으로 대치되었다.

남면 신암 1리에서는 무국을 끓여 먹었다. 쇠고기를 물에 넣고 삶은 후 건져내고, 그 물에 콩나물·무 썬 것을 넣은 다음 양념과 간을 한다. 건져 놓은 쇠고기는 잘게 썰어서 그릇에 조금씩 넣은 다음 국물을 부어 먹는다.

주내면 유양 1리에서는 순대국을 주로 먹었다. 양주 순대로 알려진 유양리의 순대는 배추김치·숙주나물·두부·돼지고기·찹쌀·돼지피·각종 양념 등이 주 재료로 쓰인다. 배추김치는 곱게 다지는데, 배추를 절여서 췄거나 그냥 삶아서 곱게 다진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두부와 돼지고기는 같아서 사용하며, 돼지고기 대신 '보살감투'라는 돼지 창자 속에 든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재료들을 모아서 생강·마늘·파·깻소금·후추 등의 양념을 한다. 속재료를 버무릴 때에는 반드시 돼지피를 넣어야 하는데 이는 돼지피가 각 재료들을 잘 엉기게 해주며 색깔과 맛을 좋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 찹쌀이나 맵쌀을 불리거나 찐 것, 당면, 냄새 제거를 위한 겨자가루 등은 기호에 따라 넣는다. 돼지창자는 뒤집어서 소금물에 넣고 미끈거림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뺀다. 다 뺀 창자는 뒤집은 채로 속을 넣는다. 원래대로 다시 뒤집어서 내용물을 넣으면 완전히 셋긴 쪽으로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한다.

유양 1리에는 약 3년 전부터 양주 전통 순대가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다. 과거 양주 순대는 '양주별산대놀이'가 끝난 후 뒤풀이 음식으로 먹던 것으로, 돼지머리를 삶은 물에 순대를 넣고 끓인 순대국이었다. 그러므로 돼지 냄새가 많이 나고 기름이 둥둥 뜨는 조잡한 음식이었다. 그런데 약 3년 전에 양주별산대놀이 보존 회원인 유한수가 사골국물에 속재료를 고급화시키고

일반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상품화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유양리를 가로지르는 350번 지방 도로변 여러 곳에 순대집들이 들어서 있다.

⑤기타

술은 누룩으로 만든 청주(清酒)를 주로 담가 마셨다. 밀을 갈아서 누룩을 만든 후 짚을 깔고 누룩을 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다시 짚과 포대기로 덮어 누룩을 띠운다. 그리고 맵쌀이나 찹쌀을 물에 담갔다가 시루에 쪘어서 술밥을 한다. 누룩을 뺏아서 햇빛에 말린 후 술밥에 섞어서 항아리에 담고 물을 붓는다. 항아리를 따뜻한 곳에 두고 익혀서 걸러 낸다. 술이 잘못되어 신맛이 많이 나면 그대로 더 두었다가 식초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식초는 굳이 따로 만들지 않고 남은 술이나 먹지 못하는 신 술을 항아리에 담아 장독대에서 2~3년 묵혔다가 사용하였다. 식초는 부정다면 안 되는 것이라 장독대에 따로 보관하였다고 한다.

엿기름은 보리를 서리가 내린 후에 췄어 시루에 담아 물을 주면서 썩을 띠운 다음 햇볕에 널어 말려서 사용한다. 바짝 마르면 맷돌에 갈아 엿기름 가루를 만든다. 지금은 시장에서 곁보리를 사다가 만들기도 하지만 엿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다. 장은 주로 음력 2월 말날(午日)에 담근다. 간장은 매년 담그며, 숯과 고추를 넣어 둔다. 고추장과 된장은 많이 남아 있으면 담그지 않는다.

간식은 자연에서 직접 구해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뻘기를 뽑아 먹거나 시엉 또는 졸례를 꺾어 먹고 아카시아나 전달래를 따먹기도 하였다. 떨어진 생감을 주어다가 모를 심은 눈에 푹 담가 두었다가 꺼내 먹기도 하였다(율대 2리 송추골). 쑥개떡이나 보리개떡을 간식으로 먹기도 하였고 왜떡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왜떡은 일본 사람이 만든 떡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3)주생활

주생활 조사는 민속 조사의 한 분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민속 조사가 행해진 마을을 중심으

로 하여 건립된 지 오래되거나 평면 구성상 특성이 나타나는 민가를 조사 가옥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주군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지만 일부 마을의 경우에 전통적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가옥은 총 4채인데 이 가운데 장흥면 삼상리 배울 신철순 가옥, 장흥면 율대리 송추골 김방제 가옥, 백석면 흥죽 2리 최두월 가옥 등 3채와 중요민속자료 제128호로 지정된 남면 매곡리 백수현 가옥이다.

조사 가옥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에 지은 김방제 가옥을 제외하고는 건립된 지 70~100여 년 가량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백수현 가옥은 양주군 내 전통 가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 배치와 공간 구성·장식 등이 상류주택의 면모를 보인다. 또 신철순 가옥은 대청 주변의 구성이 특이하고 부재·치목(治木)이 좋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해 관심을 끈다. 다만 이 두 가옥은 채가 많이 사라져 건립 당시의 배치와 공간構성을 알 수 없는 점이 아쉽다.

김방제 가옥은 건립 연대는 떨어지지만 그자형 안채 내에 사랑방과 사랑마루를 함께 배치한 평면 구성이 주목된다. 또한 최두월 가옥은 그자집 안채로 된 민가로서 그자집이 주류를 이루는 경기지역의 일반적인 평면 형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김방제 가옥이나 최두월 가옥과 같은 그자집은 안방과 윗방, 대청, 건넌방의 구성에 따라 중부지방형 그자집과 서울지방형 그자집으로 나누는데, 전체 평면 형태가 'ㄱ' 자라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방과 대청의 위치 등 평면 구성은 전혀 다르다. 이 가운데 김방제 가옥은 서울지방형 그자집으로서 '부엌-안방'으로 된 평면 구성에 안방 전면으로 대청과 건넌방이 부가된 형식이다.

반면 중부지방형 그자집인 최두월 가옥은 '부엌-안방-윗방'이 하나로 되어 있고 윗방 옆으로 꺾어 '대청-건넌방'이 배치된 평면 형식이다. 양주군에는 두 가지 유형의 그자집을 함께 볼 수 있어 주목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례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진12 백수현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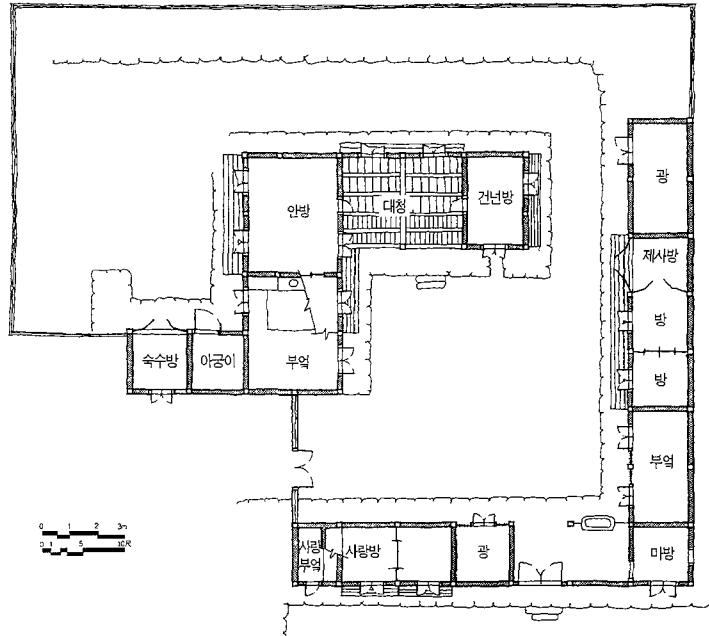
사진13 백수현 가옥 안채

본 조사가 양주군 전체를 현지 답사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조사 결과가 양주군 주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주군의 주생활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①남면 매곡리 백수현 가옥(사진 12)

중요민속자료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수현 가옥은 양주군 내 남아 있는 전통주택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 가옥은 “조선시대 때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었다.”고도 하고 “장희빈이 살았던 집이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다. 다만 천호식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김종원이 사들이고, 그 후에 백낙규가 구입한 것이라고 집주인의 일가 친척인 백승돈(75세)은 말한다. 백낙규는 현재의 집주인인 백수현의 증조부로서 정 3품에 해당하는



도면1 백수현 가옥 평면도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 ‘사과댁’이라는 이 집의 턱호(宅號)도 그에게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이 집에는 백수현의 동생인 백선현이 현재 생활하고 있다.

가옥은 남남서향으로 되어 있다. 집 후면에는 마을의 진산(鎮山)인 매봉이 있으며 이 봉우리가 마을의 좌우로 뻗어 내리면서 마을을 감싸고 있다. 매봉은 예전에 매를 날려 꿩을 잡았던 곳이라하여 붙은 이름³⁾인데, 마을의 진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소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 이 가옥과 마을 앞에는 너른 들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산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이 집에는 안채(사진 13)와 행랑채⁴⁾ (예전에 중문채)만 남아 있는데, 그자리 된 안채와 ㄴ자로 된 행랑채가 합해져 튼 모자를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는 문간채(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가 더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문간채와 사랑채는 현재의 행랑채 앞에 있었고, 별당채는 행랑채 서쪽에 자리했다고 한다. 또 안채 건년방 옆으로는 담과 중문이 있고, 여기를 지나면 뒷광채가 따로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광과 문 모두

없다. 문간채와 사랑채가 있던 곳에는 너른 채소밭이 있다. 사랑채의 서쪽에는 별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초석의 일부만 남아 있다.

안채는 그자리 된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부엌 측면에 아궁이와 숙수방이 첨가되어 전체적으로 을(乙)자가 거꾸로 된 모양이다.

이 가옥의 주간은 1칸이 2,450mm 내외인데, 간혹 2,310mm도 있다. 일반적인 실의 주간은 2,450mm이며, 기타 실은 2,310mm로 되어 있다. 안채의 경우 전면 주간은 모두 2,450mm이지만 측면 주간은 안방이 2,310mm, 부엌이 2,450mm로 되어 있다. 또 행랑채의 경우에도 제사방과 방은 2,450mm로 되어 있으나 광·부엌 등은 2,310mm로 되어 있어 칸 규모를 의도적으로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행랑채에서 안채로 가려면 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은 채의 중앙에 자리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안채가 바로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행랑채가 중문채로 쓰였을 때만 하더라도

3)이 마을이 매곡리인 것도 매봉 때문이라고 하는데, 마을 이름인 ‘매곡(梅谷)’은 매(蘆)와는 다르다.

4)이 행랑채는 예전의 중문채로서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배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중문채를 여기에서는 ‘행랑채’라 칭하기로 한다



사진14 백수현 가옥 대청마루



사진15 백수현 가옥 천정



사진16 백수현 가옥 주련

이 문은 중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가옥에서는 이곳에 대개 내외벽이나 내외담을 두지만 이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행랑채의 사랑방에는 행랑마당쪽으로만 문이 나 있고, 안마당쪽으로는 창호 같은 개구부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것은 안채 내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개구부가 없는 것은 건립 때부터 그런 것인지 행랑채의 일부를 사랑채로 쓰면서 고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능적인 편리성보다는 격식을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집에는 퇯마루와 쪽마루가 집안 곳곳에 설치되어 매우 아늑한 느낌이 든다. 특히 부엌 옆마당은 L자로 된 안채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쪽마루가 가설되어 있어 아늑하다. 더구나 우물과 장독대까지 있어 실제로 부엌일을 하기에도 좋다.

안채는 '안방 - 대청 - 건넌방'이 일렬로 구성되어 있고 안방 아래쪽으로 '2칸 부엌 - 부엌(아궁이) - 숙수방'이 이어져 있다.

부엌과 안방은 각기 전면 1.5칸, 측면 2칸으로 3칸 규모이지만 건넌방은 1칸 반에 불과해 이 집에서는 안방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대청(사진 14, 15) 가운데에는 기둥을 두지 않고 기둥과 비슷한 벽선으로 처리한 점이 눈에 띈다. 대청에는 우물마루가 깔려 있고, 대청과 퇯마루 사이에 사분합 들장지가 있는데 조사 당시 들어올려져 있었다. 대청 후면에는 겹문으로 된 바라지창이 있는데, 바깥 쪽이 세살문(띠실문)이고 안쪽은 범살문이다. 대청 전면 기둥에는 판각(板刻)한 주련(柱聯)이 있는데(사진 16), 매우 정교하다.

부엌 옆에 있는 숙수방(사진 17)은 큰일을 치를 때 떡을 하거나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로 일반적으로는 찬방(饌房)이라 한다. 이 방에는 구들이 깔려 있어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 앞에는 마루가 있었으나 현재 철거되고 없는데, 이 마루는 방과 마당 사이에 놓여 부엌일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행랑채는 '사랑부엌 - 사랑방 - 사랑방 - 광 - 문 -



사진17 백수현 가옥 속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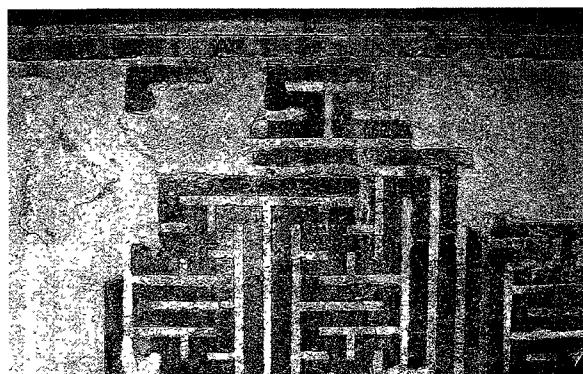


사진18 백수현 가옥 문양담

우사(牛舍) – 마방(馬房)’으로 되어 있고 위로 꺾어져 ‘2칸 부엌 – 방 – 방 – 제사방 – 2칸 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랑채에 있는 사랑방은 1칸씩 2개가 연이어져 2칸이며, 중간에 미세기가 있다. 마방은 행랑마당과 우사쪽으로 문을 두었는데, 예전에 말이 있을 당시에 우사쪽으로는 문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방의 출입구를 행랑마당쪽으로만 설치한 것은 안채가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의미로 보인다. 중문 옆에 있는 광은 안마당쪽 벽체를 판벽으로 만들고 상부에 살창을 두었으며, 바닥을 마루로 꾸며 통풍과 환기를 배려했다. 반면 사랑방 북측 벽면은 문양담(사진 18)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돌과 희를 가지고 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상단에 무시무종문(無始無終文)이 있고 그 아래에 卍자 4개를 이용한 무늬와 부(富)자가 있다. 이 문양담은 재료나 미적인 감각이 여느 일반 살림집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을 만큼 정교하다. 하

지만 현재 많이 퇴락해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안채 부엌과 행랑채 사랑부엌 사이에 담으로 둘러싸이고 가운데에 협문이 있는데, 백승돈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사랑방 측면으로 협문이 있었다고 하므로 건립 당시에 이곳에는 담과 문이 없었을 것이다.

안채는 두벌대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다듬은 돌로 된 초석을 사용했다. 1고주(高柱) 5량 납도리집으로 도리 아래에는 장여를 두지 않았다. 기둥머리는 사개 맞춤이며 각 부재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안채는 한식기와를 엎은 힙각지붕인데 행랑마당에서 바라 볼 때 부엌쪽에 형성된 힙각이 매우 아름답다. 부엌 상부에는 다큰이 있으며, 안마당과 면한 부엌쪽에 까치발로 지지한 선반이 가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겨진 당초무늬가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다.

행랑채의 초석과 기단도 다듬은 화강석을 사용했지만 안채에 비해 초석 높이가 낮고 기단 형식도 외벌대로 되어 두벌대인 안채에 비해 격식이 낮다. 구조는 맞걸이 3량으로 안채에 비해 간략하다.

안채 뒤에는 뒷마당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장대석을 둘러 화계를 만들고 앵두나무, 복숭아 등 화목(花木)을 심어 아름다운 정취를 자아낸다. 특히 벽돌로 치장한 굴뚝이 있어 뒷마당의 분위기를 한층 멋지게 만들고 있다. 조사 당시에는 안채 전면이 비닐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처럼 이 가옥은 전체적인 구성과 문양담, 선반을 지지한 까치발 등의 장식이 상류주택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굳이 틀에 얹매이지 않고 공간을 적절하게 가감한 실용성이 돋보인다. 현재 안채와 행랑채만 남아 있어 건립 당시와는 배치가 많이 다르지만 사랑채, 문간채, 별당채 등이 있었을 때에는 지금보다 공간구성이 훨씬 다양했을 것이다.

②장흥면 삼상리 배울 신철순 가옥(사진 19)

신철순 가옥은 나지막한 구릉을 배경으로 하면서 전면이 트인 곳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담이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현재 이 가옥은 안채만 있으나 1997년만 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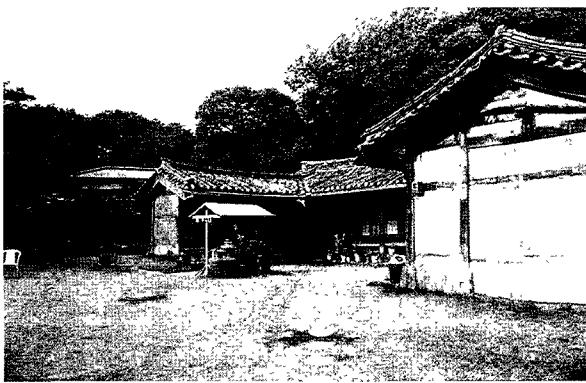


사진19 신철순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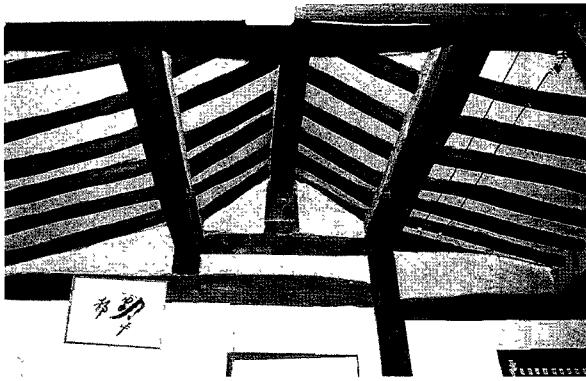


사진20 신철순 가옥 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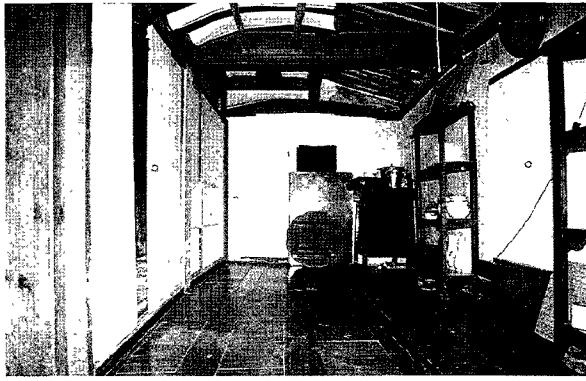


사진21 신철순 가옥 대청

집 입구에 ‘수청방’이라는 문간채(행랑채)가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인 신철순(85세)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구입해 살고 있어 건립 당시의 배치나 자세한 모습을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안채나 대지 규모, 전체 배치로 볼 때 이 가옥은 최소한 중류층 이상의 살림집으로 보인다. 신철순의 시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도 이 집이 있었다고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가옥은 건립된 지 100년은 넘었을 것이다.

가옥 구성은 안채가 대지의 뒤쪽에 배치되고 그 앞에 너른 안마당이 있다. 이 안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우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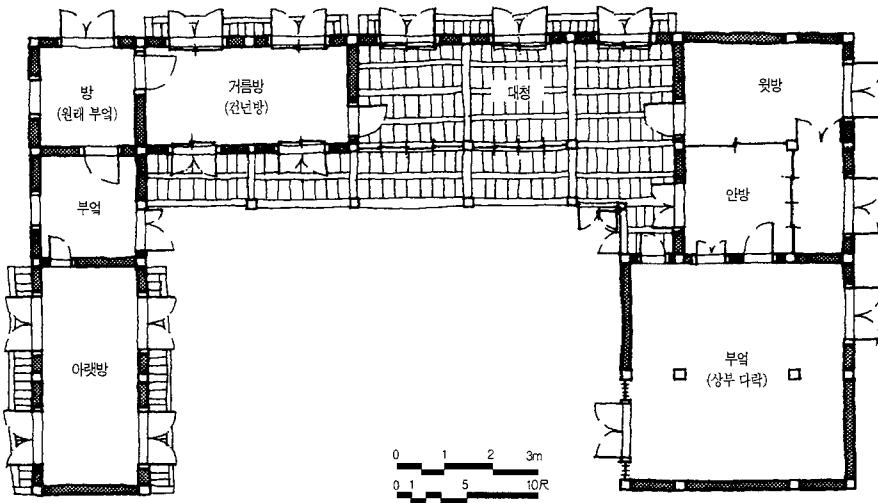
안채는 ㅁ자형으로 전면 7.5칸, 측면 4칸 규모인데, 가운데에 2칸 규모의 건넌방과 3칸 대청(사진 20, 21)을 一자로 두고 건넌방 옆으로 2칸의 부엌과 아랫방을 배치하였다. 건넌방 옆에 있는 부엌은 2칸이었으나 현재 상부 1칸을 막고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청 옆으로는 윗방과 안방, 부엌을 배치하였다. 안방 옆에는 미세기를 달고 골방으로 꾸몄다. 안방과 윗방은 미세기로 구분되어 있어 이 문을 열면 두 방이 연결된다.

부엌은 전면 · 측면 모두 2칸의 4칸 규모로서 넓은 편인데, 좌우 모두 퇴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청은 너비가 3칸인데, 이중 2칸은 전면에 미세기가 설치되어 있다. 나머지 1칸은 전면이 개방되었지만 반칸은 문으로, 나머지 반칸은 복도와 연결되어 마당과 직접 면하지 않는다. 이 1칸은 여름의 거처로서 뿐만 아니라 안방 전면의 복도와 연결되어 대청과 부엌, 안방의 통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전면에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안방과 대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대청이나 안방 · 윗방에 기거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대청 규모는 전면 3칸, 측면 1.5칸으로 총 4.5칸이지만 실제 크기가 3.5칸이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2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청과 퇴칸 사이에 문이 달려 있어 실제 크기가 2칸이며, 다른 한 칸은 문으로 구획되지 않아 1.5칸이다. 이에 따라 대청은 아늑한 공간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문을 열게 되면 개방적인 공간이 된다. 이처럼 이 가옥은 안채의 가운데가 4.5칸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고 있다.

대청 규모로 볼 때 이 가옥은 상류주택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청 전면에 지금은 없지만 들판지가 있었고, 대청 · 안방 · 윗방 · 건넌방 후면에 설치된 문이 대부분 겹문이어서 계층성을 드러낸다. 또한 초석이나



도면2 신칠순 가옥 평면도



사진 22 신칠순 가옥 장독대

기단도 일반 민가와는 달리 다듬은 돌을 사용하는 등 상류주택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아랫방은 중간에 벽체 없이 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주인에 따르면 벽체가 없었다고 하지만 건립 당시에는 벽이 있어 별도의 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집에서는 안방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생활하고, 건넌방은 큰아들 내외, 아랫방은 작은아들 내외가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안방을 시어머니가 사용하고, 건넌방은 큰며느리, 그리고 아랫방이나 사랑채는 시아버지와 아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집에는 부엌이 2개 있는데, 이 가운데 안방

아래쪽에 있는 부엌은 평상시에 취사 용도로 쓰이며 안방과 윗방의 난방을 담당한다. 건넌방 옆의 부엌은 아랫방과 건넌방의 난방을 하며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음식을 만드는 장소로 쓰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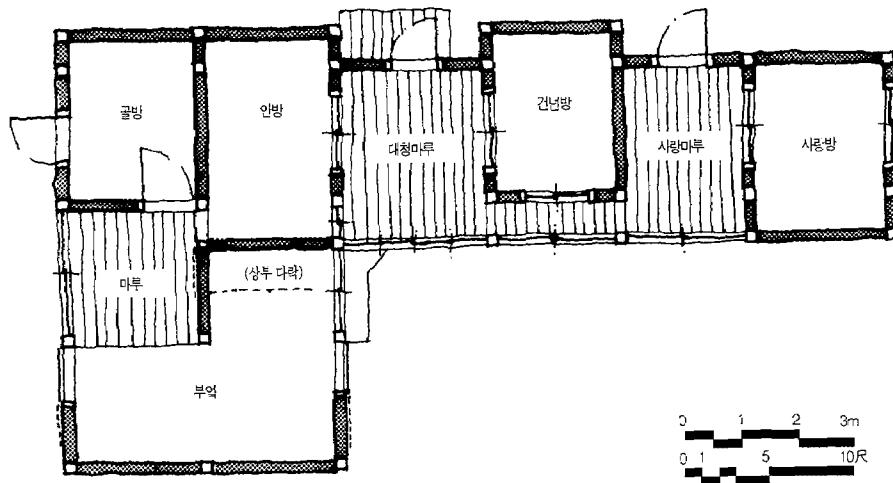
이 가옥은 1고주 5량 구조에 사개맞춤이다. 기둥은 사각기둥으로 $170\text{mm} \times 170\text{mm}$ 크기이다.

기단은 외벌대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190mm 이며 내밀기는 $1,100\text{mm}$ 이다.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서까래 지름은 100mm 내외이고, 서까래 내밀기가 900mm 이다. 미루는 높이가 530mm 이며 우물마루형식이다.

전면 주간은 부엌 $2,340\text{mm}$, 건넌방 2칸은 각각 $2,390\text{mm}$, $2,300\text{mm}$, 대청 3칸은 각각 $2,480\text{mm}$, $2,290\text{mm}$, $2,275\text{mm}$, 안방·윗방은 $2,480\text{mm}$, 퇴칸은 $1,250\text{mm}$ 로 되어 있어 대청 1칸과 안방의 주간이 약간 크다. 측면 주간은 $2,490\text{mm} \sim 2,570\text{mm}$ 이다.

뒷마당에는 나지막한 경사지에 장독대(사진 22)가 설치되어 정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가옥은 문간채를 비롯한 다른 채들이 없어져 건립 당시의 배치를 알 수 없지만 안채 규모가 크고 대청 주변의 구성이 특이해서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보존 상태도 양호해 가치가 높다.



도면3 김방제 가옥 평면도

③ 장흥면 을대리 송추골 김방제 가옥

김방제 가옥은 나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하면서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자형 안채와 一자형의 바깥채, 그리고 사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가옥은 한국 전쟁 때 불타고 나서 지은 집으로서, 원래는 99칸 집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이 99칸 집이었다고 하는데 대지 규모로 볼 때 이를 믿기는 어렵고 단지 칸수가 많은 가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의 형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ㄱ자형이지만 그 구성은 일반적인 ㄱ자형과 다르다. 즉, '부엌-안방-대청-건년방'이 ㄱ자로 배치되어 서울지방형 ㄱ자집과 같지만 그 옆에 사랑마루와 사랑방이 1칸씩 부가된 점이 특이하다. 이처럼 이 가옥은 안채 내에 사랑방과 사랑마루를 둔 사랑채가 함께 구성된 형식으로서, 이러한 배치가 여러 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대청 규모이다. 이 가옥에서 대청은 1칸에 불과해 다른 가옥에 비해 작은 편이다. 그런데 이것은 부엌을 2칸으로 만들고 사랑방과 사랑마루까지 배치했기 때문에 전면 너비가 넓어져 대청폭을 부득이하게 1칸으로 축소시킨 결과로 보인다. 다만 건년방 옆에 별도의 사랑마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청의 실제 크기는 2칸인 셈이다.

대청과 건년방 전면에는 퇴칸을 형성하여 퇴마루를 만들고 이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면에 분합을 달아 대청을 실(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랑방 전면 퇴 부분은 건년방이나 대청처럼 퇴마루로 만들지 않고 방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방을 넓힐과 동시에 함실아궁이를 만드는데도 수월하다. 강화도 등 다른 지방에서는 이곳에 함실아궁이를 만들면서 마루를 약간 높게 만들기도 한다.

이 가옥은 부엌이 2칸인데다가 부엌 옆에 골방과 마루까지 구성하는 등 부엌과 관련된 공간이 넓은 점이 주목된다. 이 집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생활하고, 건년방에서는 아들 내외가, 사랑방에서 시아버지가 생활했다고 한다. 골방은 식모가 사용했는데, 현재는 광으로 쓰고 있다.

건년방의 사랑마루와 면한 벽체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랑방에 거처하는 시아버지와 건년방에 거처하는 며느리가 내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구성이다. 건년방과 사랑마루 사이에 통로가 있는 데다가 두 방이 근접해 있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자주 마주쳤을 것이지만 이 구성은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내외에 대한 고려는 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내외담'이라고 하

는 안마당의 막이담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집에는 대문을 들어서면 막이담이 있는데, 이 담은 바깥채 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이 안채에 거처하는 사람, 주로 아녀자를 곧바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시멘트로 만든 담이지만 위치나 형태가 내외담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 가옥의 사당은 위치가 일반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있다. 사당은 사랑방 위치로 볼 때 동쪽이나 동북쪽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는 안채 서북쪽에 자리해 있어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일반적인 배치와 다르다.

주간은 골방 2,480mm, 안방 2,420mm, 대청 2,760mm, 건넌방 2,360mm, 사랑마루 2,390mm, 사랑방 2,490mm 등 8자 내외이다. 반면 대청만 9자 정도로서 다른 주간보다 1자 가량 커서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안방과 골방, 건넌방의 경우에는 후대에 670mm 가량 확장하여 넓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대청은 후면에 뒤텋과 연결된 바라지창 때문인지 뒤쪽을 넓히지 않았다.

안채 지붕은 현재 기와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초가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사각기둥인데 굵기가 130mm × 130mm이다. 서까래는 지름이 80mm 내외이고, 내밀기가 710mm이며 부연 내밀기는 280mm이다.

구조는 1고주 5랑이며, 기둥머리는 사개맞춤으로 되어 있다. 종도리 밑에 장여를 받치고 전면은 부연을 단 겹쳐마형식이다.

집주인이 내관 출신으로서 가옥의 배치나 규모가 주인의 신분과 연관된 점이 일부 엿보인다. 또 원래 있던 살림집이 한국전쟁 중에 불타게 되자 그 후에 서둘러 지은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곳에서 계층성을 추구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전형적인 양반가옥의 배치와는 거리가 멀다.

④백석면 홍죽 2리 최두월 가옥(사진 23, 24)

최두월 가옥이 있는 홍죽 2리는 나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약간 경사진 지형에 자리해 있다. 마을 끝부분에



사진23 최두월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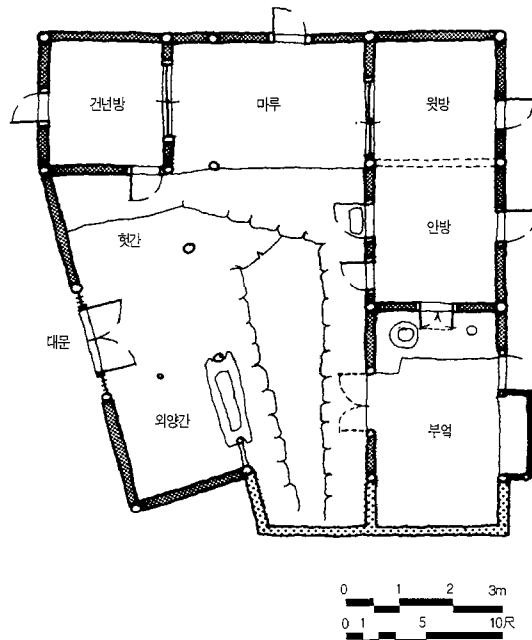
사진24 최두월 가옥 내부

위치한 이 가옥의 전면과 후면에는 여러 가구가 있고 그 뒤로 산이 에워싸고 있다.

기둥이 상투걸이(촉꽃이맞춤)로 되어 있고 자구로 나무를 다듬는 등 구조 기법이나 치목을 살펴보면 오래 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보인다. 현재의 집주인인 최두월이 26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왔기 때문에 건립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마을사람들에 따르면 70~10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옥은 ㄱ자형 안채와 ㅡ자형 문간채가 결합한 ㅁ자집으로 안채만을 놓고 보면 ㄱ자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집은 ㅡ자집으로도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마루가 남동향이고 이웃집보다 높은 곳에 자리해 있지만 ㅡ자형 문간채가 사선으로 안마당을 감싸고 아래쪽은 시멘트 담을 쌓아 폐쇄적인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ㅁ자형을 하고 있다.

안채는 '건넌방-마루-윗방'이 ㅡ자로 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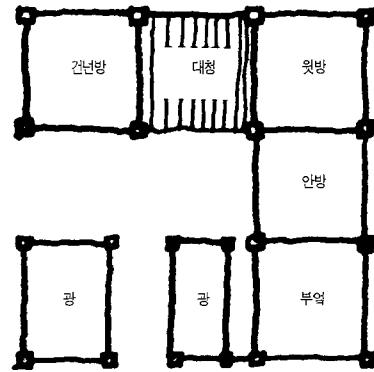


도면4 최두월 가옥 평면도

윗방에서 아래로 꺾어져 '안방 – 부엌'이 있다. 문간채는 건넌방 아래로 이어져 '햇간 – 대문 – 외양간'이一字로 되어 있는데 방은 없다. 현재 외양간은 구유가 있긴 하지만 소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햇간으로 쓰인다.

각 실은 모두 1칸으로, 마루의 경우에 기둥 배치를 보면 1칸 반이지만 1칸(3,060mm) + 반칸(850mm)으로 되어 있어 1칸으로 보는 것이 옳다. 전면 주칸은 '건넌방 – 대청 – 윗방'이 각각 2,360mm, 3,910mm(850mm + 3,060mm), 2,580mm이며 측면은 '윗방 – 안방 – 부엌'이 각각 2,510mm, 2,890mm, 3,400mm이다. 1칸 크기를 놓고 보면 안방과 부엌을 윗방이나 건넌방에 비해 크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안방에는 안마당과 뒷마당으로 갈 수 있는 여닫이 문이 있다. 마당쪽으로 여닫이창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아 막혀 있다. 안방과 윗방 사이에 있는 벽체를 허물고 안방을 2칸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벽이 있었으며 벽에 두 방을 오갈 수 있는 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안방과 윗방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방을 넓히는 것은 오늘날 농어촌에서 식구가 줄어



도면5 최두월 가옥 아랫집의 개략적인 평면도

들고 방이 남는 데에 따라 생기는 일반적인 추세이다.

안방 아래에는 부엌이 있고 부엌 상부에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벽장이 있다. 안마당에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쌍여닫이였으나 현재는 문틀만 있다. 부엌에는 가마솥이 1개 걸려 있고, 연탄 보일러가 있다. 부엌 측면에는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 이 문을 나가면 광이 있다.

최두월은 안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는 시어머니가 안방을 사용하고 며느리인 최두월은 건넌방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안방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윗방에서는 자녀들이 생활했는데 성장하고 외지로 나가 지금은 광으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장롱과 일상 도구를 넣어 둔다. 윗방에서 마루로 나가는 출입문은 원래 외여닫이문이었으나 지금은 미세기이다.

마루(사진 25, 26, 27)는 원래 흙바닥으로 된 토방이었으나 현재 시멘트 바닥 위에 비닐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다. 그자집에서는 대청이 대부분 나무로 짠 마루인데 이 집에서는 흙바닥으로 된 토방 형식이라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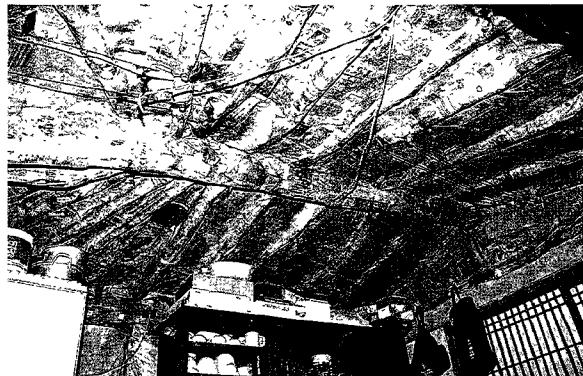


사진25 최두월 가옥 천정



사진26 최두월 가옥 대들보



사진27 최두월 가옥 마루

이하다. 마루 옆에 있는 건년방은 바닥이 마루보다 400mm 가량 낮은데, 이것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들을 빼는 과정에서 바닥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마루의 높이는 330mm, 기단 높이는 220mm이다. 기단과 마당은 모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다. 가구는 3량 구조이며, 기둥머리는 상투걸이로 되어 있고 일부만 사개맞춤이다.

예전에는 초가였다고 하며, 서까래 내밀기 650mm, 서까래 끝지름 70~90mm이다.

안채는 현재 그자집이지만 여러 곳에서 一자집으로 보이는 요소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안방 전면 기둥과 건년방 기둥의 치목이 다르며, 특히 원기둥으로 안방·윗방 전후면 기둥의 지름이 200mm나 되는 반면 마루와 건년방 기둥은 지름이 120mm로 차이가 나는 점, 850mm 크기의 마루 용도와 형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一자집에서 그자집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이 집은 ‘부엌-안방-윗방’으로 된 一자집에서 마루와 건년방이 부가되면서 그자집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밝혀 줄 구조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 건립 당시의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一자집에서 그자집으로 고쳐진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 이것은 一자집에서 생활에 편리한 토방을 만들어 그자집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두월의 윗집에 사는 한춘명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은 그자집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 예로 최두월의 바로 아래에 있는 민가도 외형은 ㄷ자집이지만 그자 안채에 一자 문간채가 결합된 형식이다. 이 집은 안채가 건년방과 대청, 윗방이 一자로 되어 있고 윗방 아래로 꺾어져 안방과 부엌이 一자로 되어 있어 최두월 가옥과 평면 구성이 같다. 다만 대청이 마루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최두월의 집 뒤에는 얼마 전까지 ㅁ자집이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인 한춘명이 이를 우물집이라 했는데, 대청이 3칸에 달하고 행랑채까지 있는 등 전체 칸수가 20칸에 달했다고 한다. 이 집에서는 안방에서 웃어른인 부모가 생활하고 건년방에서 아들 내외가, 딸들은 윗방에서 생활했다. 또 안방은 웃어른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았으며, 제사는 마루에서 지냈다고 한다. 식사는 식구들 모두 안방에서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서 먹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가 한 상에서 먹었는데, 간혹 따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집도 초가지붕이었으나 새마을운동 때 바꾸었으

며, 초가지붕에서 일식기와 지붕으로 바꾸는데 든 비용은 25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초가지붕일 때에는 가을 추수한 후인 음력 10월경 일꾼을 얻어서 지붕을 새로 했다고 한다.

5) 세시와 놀이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이라 함은 주기전승(週期傳承)의 의례적인 행위, 즉 태음력(太陰曆)을 기초로 하여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수한 생활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예로부터 세시풍속을 세시(歲時)·세사(歲事)·월령(月令)·연중행사 등으로 불러 올 만큼 시계성(時季性)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농어업 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의례 및 개인의례, 민속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생활 리듬이 인간의 자율에 의해서 더 많이 지배를 받게 되자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인 세시풍속도 변화되거나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이번 조사 지역인 양주지역 역시 서울과 아주 근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그 생활권이 모두 서울이나 의정부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그 파괴 정도가 심각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세시 풍속의 현황을 자료 수집의 차원에서 월별로 정리하였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세시 풍속은 현재 마을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을 구분 없이 정리하였다. 단 특정 마을에서 꾸준히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의 경우 전승지역을 명시해 줌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시풍속의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의례 및 개인의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장을 설정하여 정리하였다.

① 설날(음력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는 설날로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2대 명절 중의 하나이다. 지금도 설만큼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진다. 객지에 나가 있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설 명절이 돌아오면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 설 전날인 음력 설날 그믐날에는 어른들에게 묵은 세배를 가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묵은 세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설날 아침이 되면 서로 일찍 일어나려고 한다. 늦게 일어나면 눈썹이나 머리가 하얗게 센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습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 풍습이다. 즉 새해 첫날 늦잠을 자면 1년 내내 게을러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한다.

설날 아침에는 모두 새옷으로 갈아입는데 아이들은 이를 ‘때때옷’이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주로 때때옷을 집에서 어머니들이 지어 주셨다고 하나, 요즘에는 때때옷의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 경제적인 여유로 새옷의 의미가 그만큼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때때옷으로 갈아입은 자손들은 종가집이나 큰집에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올린다. 설날은 메(밥)대신 떡국을 끓여 차례상에 올리고 나누어 먹는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설빔’ 또는 ‘때때옷’이라는 새옷을 입고 차례를 지낸 다음, 집안 어른들이나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다니면서 덕담을 듣는다. 그러나 양주군 내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이러한 세배 풍습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기껏해야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주내면 유양리의 경우 지금도 세배를 하는 풍속만큼은 철저하다. 성묘를 마치면 우선 집안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마을 어른들께 반드시 세배를 다녀야 만 한다. 마을이장인 노인호(64세)의 경우 지금도 연장자에게 세배를 다닌다고 한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 설날에는 세배를 다니지 않는다. 손님 맞이에 바쁠 뿐 아니라, 새해 첫날부터 바깥 나들이 하는 것이 전통

적으로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들은 설 다음날부터 친척 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닌다. 그런 다음 여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널뛰면서 명절을 즐긴다. 이러한 널뛰기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세배가 끝나면 끼리끼리 모여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즐기고 논다. 예전에는 모여서 널뛰기나 윷놀이와 같은 우리의 전통 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윷놀이 정도만 전승되고 있을 뿐 대부분 어른들은 고스톱과 같은 화투나 카드놀이 등을 즐긴다고 한다. 윷놀이의 경우에도 대부분 청년회나 자율방범대 등이 주관하고 참가비를 받는다. 윷놀이에 대한 내용은 민속놀이편에 자세히 소개했다.

②정월 열나흘날(음력 1월 14일)

정월 열나흘날은 정월 대보름 명절을 쇠기 위한 준비를 한다. 실제로 이 날부터 대보름 명절이 시작된다. 여자들은 오곡과 나물을 미리 준비해둔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 날 저녁부터 오곡밥을 지어 먹는다. 아이들은 저녁에 쥐불놀이를 하면서 '밥 훔쳐 먹기'를 하기도 한다. 또한 '나무장가보내기' 또는 '나무시집보내기'라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주로 남자아이들이 하는 의례 행위로 과실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거나 던져 올려 앓게 함으로써 과실의 풍년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노간주나무나 싸리나무를 베어다가 밥을 해먹으면 그 해에 벼가 잘 영근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들 나무에 불을 때면 '탁탁' 소리를 내면서 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날은 나무를 아홉 지게 하고 밥도 아홉번 먹어야 좋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하루종일 나무를 했다고 한다. 주내면 유양리의 경우 예전에는 이 날 짚신을 9켤레 삼아야 좋다고 하여 이날만 되면 어른들은 짚신을 삼았다고 한다. 이렇듯 정월 열나흘날은 모든 것을 9번 해야 좋다고 하는 풍습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③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은 1년 중 세시풍속과 민속놀이가 가장 풍부한 전통적인 명절이다. 설날부터 내내 이어져 오던 정초의 명절이 대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끝난다. 따

라서 정월 대보름에 치뤄지는 풍습은 대개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최고 절정을 이룬다. 그 내용도 대개 달과 관련된 풍습과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월 대보름날에는 쌀·수수·조·콩·팥 등의 5가지 곡식을 넣고 지은 오곡밥을 해 먹는다. 오곡밥과 함께 아홉 가지 나물과 김도 아울러 먹는다. 쌀밥에 김을 싸 먹기도 한다. 그리고 밤을 베개 밑에 두고 잤다가 새벽에 날이 환해지기 시작하면 깨물어서 버린다. 밤 이외에도 호두나잣 등을 가지고 부림 깨물기를 하기도 하고 귀밝이술을 마시기도 한다. 지금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부럼깨물기와 귀밝이술을 마신다.

유양리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잣을 깨물어 알맹이를 바늘에 꽂아 불을 지른다. 그런 다음 잣이 다 탈 때까지 기원을 한다. 그리고 밤 3개를 깨물어 '마마병 물러가라' '열병 물러가라'고 주문을 외면서 안마당에 집어 던진다. 또한 보름날 아침에 음나무(염나무)를 꺾어다가 대문에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마마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또한 큰 개울을 건너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새벽에 자녀의 밥그릇에서 밥을 세 숟가락 뜨고 나물과 섞어서 개울에다 고기밥 먹으라고 뿐린다.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날은 해뜨기 전에 아침밥을 짓고 해지기 전에 저녁밥을 짓는다. 이는 밥을 지을 때 굴뚝에서 나는 연기에 달이 그을려서 밤에 달을 보지 못할까 봐 조심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월 대보름은 일년 중 달이 가장 크고 밝은 날이라 하여 달맞이를 하였다. 광적면 가납리의 경우 보름달이 뜰 무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뒷동산에 올라가 농악을 울리면서 농기를 세워놓고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빈다. 그런 다음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놀았다고 한다. 한편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쑥과 짚을 섞어서 자신의 나이만큼 매듭을 지어 혜를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 혜에 불을 붙이고 "달님 달님 절합니다. ○○○ 한 소원을 빕니다."하며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양리의 경우 햇대를 만드는 방법이 다른 마을과는 좀 다르다. 즉 싸리나무에 짚을 넣고 싸리나무를 자기 나이수대로 칡넝쿨로 묶어 햇대를 만든 다음, 달이 뜰 무렵 뒷동산에 올라가 절을 하면서 햇대에 불을 붙이고 햇대가 다 탈 때까지 소원을 빌었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는 햇대를 담싸리(벗자루를 만드는 싸리)와 조짚(유양리에서는 '좆대'라고 부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유양리에서는 인근에 있는 야산 꼭대기에 두 팀으로 나누어 올라가 '불꽃싸움'을 하였다. 즉 산꼭대기에 있는 적당한 나무를 선택한 다음, 그 나무에 불을 지른다. 불꽃이 많이 올라가는 쪽이 승리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서로 상대방의 안녕을 빌어준다. 불꽃싸움은 1970년대 중반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될 무렵 입산금지로 인해 중단되었다. 한편 어린이들은 저녁이 되면 '쥐불놀이'를 하였다. 깡통에 철사로 끈을 매어 구멍을 뚫은 다음 '작정이(마른 나무 가지)'를 담아 불을 붙인 후 원형으로 돌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깡통의 불꽃이 살아 오르면 서로 '쥐불싸움'이라 하여 깡통을 원심력에 의해 상대방에게 내던지기도 한다. 이러한 쥐불놀이 역시 화재위험 때문에 1997년부터 중단되었다.

한편 보름달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길하다고 하여 서로 산에 먼저 올라가려고 하였다. 마을 노인들은 달의 기울기를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대보름에 행해지는 놀이 및 주술적인 행위로는 달맞이, 쥐불놀이, 줄다리기, 고삿반, 연날리기, 육놀이, 널뛰기, 지신밟기 등이 있었는데, 이 중 연날리기의 경우 정초에 연을 만들어 가지고 놀던 연을 액연이라 하여 보름날에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또한 유양리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은 대보름날 저녁 짚으로 제옹을 만들어 그 밭속에 밤을 깨물어 넣은 다음 제옹을 삼거리나 사거리에 내다 버린다. 이는 열병(염병)을 없애 달라고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대보름날에는 '더위팔기'라고 하는 풍습도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아무개

야"라고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를 사가라."고 한다. 그러면 여름 내내 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미리 눈치를 채고 먼저 "내 더위를 사가라."고 하면 상대방의 더위까지 감당해야 한다.

④정월 열 엿새(음력 1월 16일)

1월 16일이 되면 보름까지 놀던 여러 놀이를 중단하고 1년을 준비하는데, 이를 '개부심 한다'고 한다. 또한 이 날을 '귀신날'이라 하여 목화씨, 머리카락, 고추씨 등을 태워 대문 밖에 놓거나 두릅나무, 엄나무 가지를 대문에 매달아 놓는다. 또한 얼맹이(체)를 대문 옆 담벼락에 걸어 놓거나 신발을 모두 방에 들여놓았다. 이는 모두 '암팽이', '마구'라 불리는 귀신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얼맹이는 구멍의 수를 세다가 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걸어 놓는 것이고, 신발을 안에 들여놓는 것은 귀신이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귀신이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 주인이 죽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외에도 멀리 출타하는 것을 삼가하거나 김치를 먹지 말아야 하며 김과 산나물, 그리고 고기 등만 먹어야 한다. 주내면 유양리에서는 이날 김치를 먹으면 살쇄기(가려움증)가 일어난다고 한다.

⑤입춘

24절기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다.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절기로 입춘에는 대들보나 대문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 써 붙이든지 아니면 붓글씨로 다른 글귀를 써서 붙여 놓는데, 이를 '입춘축(立春祝)'이라고 한다. 장흥면 삼상리 1구 정주머리에 거주하는 윤정순의 집 대문에는 '정축년 입춘대길 가내무환여생행락(丁丑年 立春大吉, 家內無患餘生行樂)'(사진 28)이란 글귀가 쓰여 있고, 광적면 효촌 2리 박인용(사진 29)·이응무(사진 30)집의 대문에도 '입춘대길'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이란 글귀가 쓰여 있다.

⑥2월 초하루(음력 2월 1일)

2월 초하루는 나이 송편을 먹는 날이다. 나이 송편

은 집안 식구의 나이 수만큼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만든 송편으로 자기 밥그릇에 나이 수만큼 담아 먹는다. 이날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따라서 머슴을 둔 부잣집에서는 이날 머슴들에게 새옷을 해주고 노자를 주어 장에 나가 놀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 날 서는장을 '머슴장'이라고도 한다. 장에 나가면 씨름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⑦경칩

경칩 전에 개구리가 울면 그 해 봄이 춥고, 경칩 후에 울면 봄이 따뜻하다고 한다.

⑧삼월 삼짇날(음력 3월 3일)

이 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로 진달래꽃을 따서 화전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청명한식에 흡수되었다.

⑨한식

제사 음식을 준비하여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 날은 죽은 사람을 위한 일만 하는 날이므로 산 사람을 위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감기, 손톱 깎기, 바느질 등의 일은 하지 않는다. 절식으로는 편을 해서 먹었다. 편은 팔을 타서 계피를 내고 다시 체에 쳐서 가루를 낸 후 쌀 가루와 번갈아 뿐린 뒤 시루에 찌는 떡이라고 한다.

⑩사월 초파일(음력 4월 8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연등 행사를 한다.

⑪단오(음력 5월 5일)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다. 특히 연못에 있는 창포를 저녁 때 베어다가 이슬을 맞혀서 단오날 아침에 삶아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풍이 안 든다고 한다.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였다. 지금도 유양리에서는 단오날이 되면 '양주별산대놀이'와 함께 그네뛰기를 한다. 이외에도 여자들은 '댕기싸움'을 하였다. 댕기싸움은 여자들이 빨간 댕기를 서로 묶은 다음 양쪽에서 잡아당겨 끌려가는 사람이 지는 놀이다.

⑫유두(음력 6월 15일)

6월 15일을 유두일이라하여 가묘(家廟)에 차례를



사진28 윤정순 집 입춘축



사진29 박인용 집 입춘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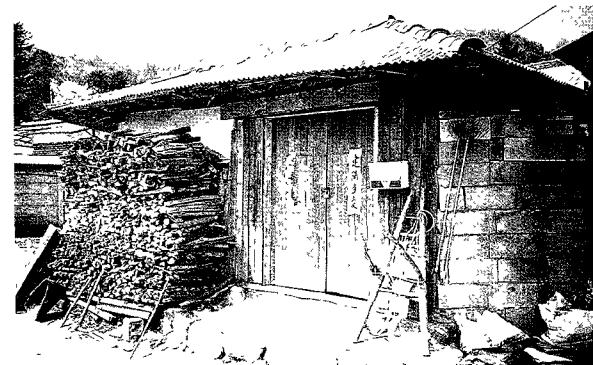


사진30 이응무 집 입춘축

지냈으나 현재는 행하지 않는다. 또한 여자들은 동쪽 물가에 가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다. 그러면 머리가 일년 내내 개운하고 부스럼이 안 생긴다고 한다.

⑬ 삼복

초복·중복·말복을 합쳐서 삼복이라고 하는데, 일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복날에는 닭·개 등을 잡아먹고 더위에 지친 몸을 보양한다. 보통 중복은 초복이 지나고 열흘만에 오고, 말복 역시 중복이 지난 열흘 뒤에 온다. 초복에는 아침에 팔죽을 먹어야 더위를 안 먹고, 중복에는 점심에 팔죽을 먹어야 더위를 안 먹으며, 말복에는 저녁에 팔죽을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고 한다.

⑭ 칠월 칠석(음력 7월 7일)

이날 농가에서는 으레 비오는 날로 전해져 온다. 그 이유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때문이다. 이 날을 ‘칠석 맞이’라하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름적을 부쳐먹는다. 이 누름적을 집 안 구석구석마다 조금씩 두고 먹어야 한다. 만신 집에 다니는 사람은 만신 집에 가서 누름적을 부쳐먹고 풀이(푸닥거리)를 한다. 또한 공동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⑮ 백중(음력 7월 15일)

7월 15일을 백중 또는 중원이라 하여 가묘에 차례를 지냈으나 현재는 절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 날은 김매기 두레가 끝나는 날로 호미씻이라 하여 두레식으로 놀이를 하고 놀았다. 그리고 인근 장터에서는 머슴들을 위한 백중장이 서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씨름판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⑯ 추석(음력 8월 15일)

한가위 가배(嘉俳)라고도 하며, 한국 고유의 4대 명절인 설·단오·한식·추석 중 가장 큰 명절로 여겨왔다. 24절기 중 추석은 입추에서 입동에 이르는 가을의 한 가운데란 뜻으로 중추절(中秋節)이라 부르며, 중국에서도 중추 월석(月夕)이라 하였다. 추석은 달 밝은 가을밤이란 뜻으로 년 중 8월 보름달이 가장 월색(月色)이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기』에 “춘조월 추석월(春朝月 秋夕月)”이라 하여, 봄에는 새벽달을, 가을에는 저녁달을 최고로 삼았다. 이와 같아 추석은 그 어는 절기보다도 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추석은 봄에서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을 거두어 들이는 계절이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으며, 달은 1년 중 가장 밝아 가장 큰 만월을 이루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여 바쁜 몸이라도 지겹지가 않다. 또 한편으로는 농사가 거의 끝나 가기 때문에 즐겁고 풍족하여 여유가 있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8월 한가위는 놀기 좋은 명일로서, 이웃과 친지들이 모여 실컷 먹고 취하고 즐긴다고 하여 “오월농부 팔월神仙(五月農夫 八月神仙)”이라 하였다. 이처럼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족하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만 같아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하였다.

한편 추석날 아침 첫번째 하는 일은 차례를 지내는 것이다. 추석 차례는 설날과 달리 흰떡국 대신 햅쌀로 메를 짓고, 술을 빚고,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지낸다. 가을 수확을 하면 햇곡식을 먼저 조상에게 천신(薦新)한 다음 사람이 먹는데, 추석 차례가 천신을 겸하는 수도 있다. 차례를 마치면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으로 온 가족이 음복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한다.

추석 무렵은 놀기 좋은 계절이고 풍요를 자랑하는 때이기에 마음이 유쾌하고 한가해서 여러 놀이를 즐긴다. 사람들이 모여 농악을 치고, 노래와 춤을 추며 즐겁게 보낸다. 이 때에는 농악놀이·씨름·닭싸움·줄다리기·달맞이 등의 민속놀이를 한다. 또한 추석날 저녁에는 마을 동산에 올라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달맞이를 한다. 추석날 날씨가 맑아야 좋고,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고 하여 불길한 징조로 삼는다. 또한 구름이 끼어 달을 보지 못하면 보리와 메밀이 흉년이 들고, 토끼는 포태를 못해 번식하지 못하며, 개구리가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추석 무렵이 되면 먹을 것이 풍족하니 인심도 좋아서 기꺼이 대접을 한다. 열나흘날 저녁 달을 보면 송편을 빚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배우자를 만나고, 밑게 빚으면 못생긴 남을 만난다고 하여, 처녀·총각들은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추석술은 백주(白酒)라고 하여 햅쌀로 빚기 때문에 신도주(新

稻酒)라고도 한다. 또 추석 절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황계(黃鶴)이다. 옛날에는 명절에 어른에게 닭을 많이 선사하였다. 경사가 있을 때에도 닭을 선사 하였으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추석에 백주와 황계는 좋은 술과 안주였다. 가을 과일로는 감·밤·대추·호두·은행·모과·사과·배 등이 있는데, 밤·대추·곶감은 제물로서 필수이고, 풋밤으로는 밥과 송편, 단지를 만들기도 한다. 대추는 감미가 있어 여러 모로 쓰였고 약식에도 넣었으며, 약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특히 양주지역은 밤 집산지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밤을 구입하러 왔다고 한다.

⑯ 중양절(음력 9월 9일)

9월 9일은 양수(陽數)인 9가 겹친다 하여 중양절이라고 부르는데,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한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국화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었다고 하나 현재는 기억으로만 전해질 뿐이다.

⑰ 10월 고사

10월에는 고사를 지낸다. 마을이나 가정의 평안함을 기리는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붉은 팔시루떡을 한다. 고사떡은 집집마다 돌려 먹는다. 이때 마을 고사를 비롯하여 집 안에서는 성주와 터주, 업, 삼신, 칠성 등을 새로 모신다(10월 고사에 대한 내용은 마을신앙과 개인신앙에서 자세하게 설명). 또한 각 집안에서는 10월이 되면 문중이 함께 선산에 모여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시제를 올린다.

⑲ 동지

동짓날에는 절에 다녀와서 동지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죽은 액땜을 한다는 뜻에서 먼저 주문을 외우면서 집 안팎, 동서남북에 '고수래'를 한 후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그런데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초에 오면 애동지라 하여 팥죽을 끓여 먹지 않는다.

⑳ 설달 그믐날(음력 12월 30일)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빛을 갚아야 함으로 빛을 갚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해가 바뀌면 빛을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 해가 바뀌기 전에 빛을 받으려고 하여

빛진 사람들이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하여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잡귀가 신을 신으면 안 좋다고 하여 신발을 감추고, 잡귀가 빨랫줄에 앓지 말라고 빨랫줄을 푸는 등 집 안팎을 정리하여 새해 맞을 준비를 한다.

㉑ 윤달

윤달은 재액(災厄)이 없는 달로 매년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온다. 윤달을 '공달' 또는 '뜬 달', '썩은 달'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윤달에는 혼례나 집짓기, 수의 만들기, 조상 묘소를 이장하거나 화장하기 등 무슨 일을 해도 좋다고 한다. 윤달에는 특히 수의를 많이 만들었다.

(2)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크게 집단놀이와 개인놀이, 그리고 남성놀이와 여성놀이로 나눈다.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세시풍속의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세시풍속과 함께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겨우 어른들의 기억 속에서만 그 명맥이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주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민속놀이를 계절에 관계없이 놀이 종류별로 살펴보자 한다.

① 땃지치기

주로 어른들이 하던 투전놀이로 '동전치기'라고도 한다. 동전을 벽에 던져 그 반사적인 힘에 의해 튕겨나가면 멀리 던진 사람이 먼저 자기의 동전으로 상대방의 동전을 쳐서 맞춘다. 동전을 맞추면 그 동전을 갖는다. 만일 맞추지 못하면 상대방이 똑같은 방법으로 동전을 쳐서 먹는다. 이때 벽으로부터 일정한 위치에 선을 그어 놓고, 선 밖으로 동전이 튕겨 나가면 무효가 되어 상대편에게 동전을 빼앗긴다(주내면 유양리에서 채보).

② 구슬 굴리기

남자 아이들이 주로 하던 놀이로 땅에 원형의 주먹만한 구멍을 파고 여기에 구슬을 넣는 방법이다. 만일 구멍에 구슬을 넣지 못하면 상대편에게 우선권을 빼앗

긴다. 이를 ‘구슬치기’라고도 한다. 대개 겨울에 많이 하나 1년 내내 계절에 관계없이 즐기는 놀이이다(주내면 유양리 및 광적면 가납리·효촌리 등지에서 채보).

(3)제기차기

엽전이나 넓적한 돌, 그리고 단추 등을 넓은 종이나 비닐에 싼 다음 엽전 부분을 실로 묶는다. 그런 다음 그 윗부분을 약 1cm 크기로 가늘게 쪼개어 제기를 만든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발로 제기를 차는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누가 제기를 많이 차는가를 따져 승리자를 가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둥글게 모여 ‘동네 방네 제기차자.’하면서 순서없이 한번씩 제기를 차기도 한다. 만약 이때 제기를 떨어뜨리면 지게 되어 모든 승리자에게 제기를 던진다. 그러면 승리자들은 제기를 발로 멀리 차 버린다. 이때 ‘오니(진 사람)’가 제기를 받든지 아니면 승리자가 제기를 차지 못하면 게임은 다시 시작된다(모든 조사지역에서 채보).

(4)자치기

양주지역에 있는 많은 마을에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자치기’ 놀이를 하고 놀았다. 이 지역의 경우 자치기는 주로 명절 때 즐긴 놀이였다고 한다. 주로 남자 아이들이 즐기던 놀이였으나 때로는 여자 아이들도 즐기던 놀이이다. 우선 자치기를 하려면 땅바닥에 직사각형의 네모를 그린 다음, 그 안에 길이 25cm 정도 되는 길쭉한 흠을 판다. 그런 다음 길이가 약 15cm 정도 되는 작은 막대와 약 50cm 정도 되는 큰 막대를 준비한다. 작은 막대는 때리면 잘 튀어 오를 수 있도록 양쪽 끝 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뾰족하게 깍는다. 이때 깍는 방향이 서로 달라야 한다. 여기서 큰 막대를 ‘어미자’라고 하고, 작은 막대를 ‘새끼자’라고 부른다.

놀이 방법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은 막대를 땅에 파는 흠에 올려놓고 큰 막대로 작은 막대의 경사진 면을 때려 공중으로 떠 오르면 큰 막대로 다시 쳐서 멀리 날려 보내 작은 막대가 땅에 떨어지면 큰 막대로 그 거리를 재서 승부를 가린다. 또는 사전에 몇 자 내기를 해서 먼저 정해진 점수에 도달하면 이긴다. 이 때 공격

자는 작은 막대를 방어자가 없는 곳으로 날려 보내려하고 방어자는 작은 막대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작은 막대를 방어한다. 따라서 때로는 작은 막대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얼굴 등을 다치기도 한다. 이러한 자치기 놀이는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럿이 집단으로 할 수도 있는 놀이이다(주내면 유양리 및 광적면 효촌리·가납리, 남면 신암리 등지에서 채보).

(5)공기놀이

공기놀이는 고무줄 놀이와 함께 여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던 놀이다. 공기놀이는 구슬 크기 만한 5개의 둥근 돌을 가지고 손재주를 부리며 노는 일반 공기놀이와 수십 개의 공기돌을 가지고 노는 모듬 공기놀이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어린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5개의 공기돌을 가지고 노는 일반 공기놀이를 하고, 고학년이 되면 모듬 공기놀이를 한다.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방법이 쉬운 병어리 공기놀이를 즐긴다.

공기돌 5개를 가지고 노는 일반 공기놀이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기돌 5개를 공중으로 던진다. 그런 다음 그 중 1개를 잡아 공중으로 던지면서 바닥에 있는 공기돌을 줍는다. 이때 던진 공기돌이 땅에 떨어지거나 바닥에 있는 공기돌을 잡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기회를 빼앗긴다. 물론 바닥에 있는 공기돌을 잡을 때 옆에 있는 공기돌을 건드려서도 안된다. 이런 방법으로 처음에는 1개씩 잡고,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2개씩, 세 번째는 먼저 3개를 잡은 다음 나머지 1개를 잡는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한꺼번에 4개를 잡는다. 이러한 과정을 순서에 따라 첫집기, 두집기, 셋집기, 막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실수없이 끝내면 고추장으로 넘어간다. 고추장은 5개의 돌을 한꺼번에 손에 쥐고 그 중 한 개의 공기돌을 공중으로 던진 틈을 타서 검지손가락으로 땅을 그은 다음 던진 돌을 실수없이 받아야만 한다. 고추장이 끝나면 다음에는 ‘꽈배기’라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꽈배기는 원손 검지 손가락을 중지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V자를 거꾸로 엎어 놓은 듯이 땅에 댄 다음 오른손으로 공기들을 원손 앞에 던진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공기들을 1개를 지정해 주면 그 공기들을 건드리지 않게하여 오른손으로 지정한 공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공기들을 공중으로 던져 손으로 받는 순간 땅에 있던 공기들을 원손 안으로 밀어 넣는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지정해준 공기들을 안으로 밀어넣고 오른손으로 공기들을 1개를 던진 다음 그 순간에 나머지 4개의 공기들을 잡는다. 꽈배기가 끝나면 다시 고추장을 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윽'을 한다.

온 5개의 공기들을 공중으로 동시에 던진 다음 오른손 등에 올라 앉는 공기들만을 다시 채서 손으로 잡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여 잡은 공기들의 수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5년 등의 년 수를 정해 많은 년 수를 한 사람이 승리한다(모든 조사지역에서 채보).

⑥말타기

사내 아이들이 주로 하던 집단놀이로 일명 '쫄박기'라고도 한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팀 중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선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선 사람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다. 이런 방법으로 진 팀 모두가 머리를 박고 엎드리면 이긴 팀은 약 10m 밖에서 달려와 등 위에 말을 타듯 올라탄다.

이때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패배한다. 모두 등에 올라 타면 제일 먼저 등에 올라탄 이긴 팀의 주장과 벽에 기대어 선 진 팀의 주장이 다시 가위·바위·보를 한다. 여기서 이기면 승리자가 된다. 놀이가 매우 재미는 있으나 위험이 뒤따른다(주내면 유양리 및 백석면 홍죽리에서 채보).

⑦불놀이

양편으로 나누어 잔디와 짚으로 햇대를 만든 다음 불을 붙힌다. 이때 햇대가 오래타는 팀이 이긴다. 따라서 서로 햇대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한다(주내면 유양리에서 채보).

⑧오재미 놀이

오재미 놀이 역시 남녀 혼성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개 여자 아이들이 주로 하던 놀이이다. 형겼에 콩이나 모래를 넣고 실로 훠맨 다음 손으로 던지면서 노는 놀이이다. 오재미는 어린 아이 주먹만하게 만든다. 놀이 방법에 따라 1~3개의 오재미를 가지고 노는 방법과 그 이상의 오재미를 가지고 노는 방법이 있다. 즉 오재미 놀이는 방 안에서 1~3개 정도의 오재미를 가지고 한 손으로 교대로 던지면서 노는 방법과 야외에서 여럿이 집단으로 노는 방법이 있다.

야외에서 하는 경우 그 놀이 방법을 살펴보면 2페로 편을 나누는데, 한 편은 오재미를 던져서 상대편을 맞추고 다른 한편은 오재미를 피하며 뛰어노는 놀이이다. 한편의 구성인원은 대개 10여 명 가량이 적당한데, 놀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다. 이러한 오재미 놀이는 넓은 마당이나 공터에서 주로 하는데, 먼저 직사각형의 놀이판을 사람의 수에 따라 크게 그리기도 하고 또는 작게 그린다. 그런 다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편은 양꽁이라하여 네모 안에 들어가고 진편은 수꽁이라 하여 네모 밖에서 오재미를 던져 양꽁을 공격한다. 놀이가 시작되면 수꽁은 자기편끼리 이리저리 오재미를 던져 주고받다가 양꽁에게 던져 양꽁을 맞추면 오재미를 맞은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네모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때 던진 오재미를 받아 수꽁에게 공격하여 역시 맞추면 수꽁도 더 이상 놀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수꽁이 양꽁을 모두 맞춰 탈락시키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 그러나 양꽁 중에서 1명만 남았을 때 수꽁이 오재미를 10번 던져 양꽁을 맞추지 못하면 탈락되었던 양꽁들이 모두 살아나 처음부터 놀이를 다시 시작한다(백석면 및 장흥면 일대에서 채보).

⑨사방치기

사방치기는 주로 여자 아이들이 하던 금궁기 놀이로 마당이나 공터에 일정한 형태의 놀이판을 그려놓고 '막자'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 놀이판을 통과하는 놀이이다. 여기서 막자란 사방 5cm 정도 되는 매끈한 돌멩

이나 사금파리를 말하는 것으로 놀이하는 사람마다 1개의 막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막자를 출발점에서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최종점까지 실수없이 도달하면 이기는 놀이이다. 사방치기 놀이는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할 수도 있다(모든 조사지역에서 채보).

⑩ 고무줄 놀이

고무줄을 가지고 노는 여자 아이들의 놀이이다. 긴 고무줄을 두 사람이 길게 잡고 서 있으면 한 사람이 고무줄에 올라가 각종 묘기를 보이는 놀이이다. 그 과정에 따라 처음에는 쉬운 동작을 하다가 점점 어려운 동작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데 놀이를 하는 도중 실수로 틀리면 교대한다. 고무줄 놀이는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럿이 집단으로 할 수도 있다. 즉 혼자 고무줄 놀이를 할 경우 고무줄을 양쪽에 매어 놓고 혼자 고무줄을 타고 놀면 된다. 반면에 편을 짜서 여럿이 고무줄 놀이를 할 수도 있다. 상대편이 고무줄을 잡고 서 있으면 단체로 줄넘기를 타고 노는데, 이때 한 사람이라도 틀리면 교대를 해야 한다. 한편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할 때 남자 아이들은 몰래 숨어 있다가 칼이나 날카로운 연장으로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면서 여자 아이들을 놀리기도 하였다고 한다(모든 조사지역에서 채보).

⑪ 윷놀이

양주지역에서 지금까지 전승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민속놀이다. 대개 정초에 이루어진다. 집 안에서 가족이나 친구끼리 윷놀이를 하기도 하나 요즘에는 대개 마을 공동으로 청년회, 자율방범대, 부녀회, 노인회 등과 같은 단체 주최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윷놀이 대회가 열린다. 마을마다 대회 규정이 있어 그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대개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내면 유양리의 경우 윷놀이가 매우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각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 놀기도 하고 경로당에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모여 내기 윷놀이를 하기도 한다. 특히 이 마을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5~6년 전부터 한 해도 걸르지 않고 정월 초하루 10시 경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유양리 자율방범대 주

관으로 윷놀이 대회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는 점이다.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실시되는 윷놀이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진다. 온 마을사람들이 모두 나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윷놀이를 하는데, 마을의 친목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날만큼은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외지로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윷놀이에 참여한다. 그럼으로써 온 마을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간다.

윷놀이는 주로 남자들이 한다. 놀이방식은 두 사람씩 조를 짠 다음 윷놀이를 하여 이긴 사람은 다른 조에서 이긴 사람과 다시 겨루어 또 이기면 또 다른 조에서 이긴 사람과 겨루는 방식으로 최후의 승리자를 가려 등수에 걸맞는 상품을 준다. 상품은 그리 비싸지 않은 생활용품들로 주로 주방용품들이다. 상품과 대회 경비는 윷놀이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1회에 2,000원씩 하는 표를 팔아 그 기금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자율방범대 기금과 각종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표 한 개를 사서 이기면 계속 윷을 놀 수 있으나 지면 다시 표를 사야 한다. 윷놀이에는 어른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윷놀이 방식은 가락윷을 가지고 노는데, 윷가락을 던지고 말(馬)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룬다. 즉 가락윷과 29발이 있는 윷판(말판), 그리고 총 8개의 말(각각 4개씩)을 가지고 노는 놀이이다. 기타 놀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윷놀이 방식과 동일하다. 윷은 마을 사람들이 참나무로 깎아 만들었으며, 윷판 역시 마을 사람들이 그려 만든 것을 사용한다. 윷놀이를 하는 중간 중간에 마을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유양리 이외에도 대부분의 조사 지역에서 마을 공동으로 정초에 윷놀이를 실시하고 있었다.

⑫ 술래잡기

남녀 구분없이 아이들이 하는 놀이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놀던 집단놀이다. 여러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술래를 정한다. 술래는 일정한 표식물에 기대어 눈을 감은 다음 수를 센다. 다른 사람들이 숨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큼 수를 세는데, 대개 20~30 정도의 수를 센다. 이때 승리자는 재빨리 자기의 몸을 감춘다. 그러면 술래가 눈을 뜨고 숨은 사람들을 찾아 몸을 맞추던지 아니면 먼저 달려와 표식물을 맞추면 술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끝내 숨은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숨은 사람이 술래 몰래 먼저 달려와 표식물을 맞추면 술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모든 조사지역에서 채보).

⑬병정놀이

남자 아이들이 하던 군사놀이로 편을 나눈 다음, 나무로 칼과 총을 만들어 서로 죽이는 시늉을 하던 놀이다. 이 놀이에는 꼬마대장이 있어 꼬마대장의 지시에 따랐다(주내면 유양리에서 채보).

⑭외나무 타기

긴 통나무를 양쪽으로 걸쳐놓고 누가 빨리 통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건너가는가를 시합하던 놀이다(주내면 유양리에서 채보).

⑮새끼꼬기

남자 어른들이 하던 놀이로 사랑방 등에 모여 새끼를 꼬다가 심심하면 새끼꼬기 대회를 한다. 즉 누가 빠른 시간 내에 새끼를 예쁘게 많이 꼬는지를 시합한다. 이때 막걸리나 담배내기를 하기도 한다(주내면 유양리에서 채보).

⑯기타

이러한 놀이 이외에도 양주지역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팽이치기, 널뛰기, 연날리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썰매타기, 기마전 등의 놀이를 하였고, 단오에는 그네뛰기 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여름철 마을 고목나무 아래에서는 어른들이 고누놀이나 장기 또는 바둑을 두면서 더운 여름을 이겨냈다. 또한 주내면 유양리의 경우 주로 5월경에 백화암 입구에서 광대들에 의한 남사당 패 놀이와 별산대 놀이가 열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놀이들 중 연날리기는 정월 대보름날 액연이라하여 겨울 내내 날리던 연을 이날 멀리 날려 보내는 풍습이 널리 유행하였다고 한다.

6) 평생의례

평생의례는 사람이 일생을 지내면서 그때그때 마디가 되는 시기, 즉 출생·성년·결혼·사망 등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행하는 크고 작은 의례를 일컫는 것으로, 유교적 용어인 관혼상제와 의미가 상통한다.

의례는 일정한 문화권에서 오랜 관습을 통해 약속된 생활 방식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하게 된다. 조사 지역에서도 과거에 행해지던 의례들이 간소화되거나 혹은 소멸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기자 의례부터 죽은 후의 제례까지를 범위로 하였다.

(1)아들 빌기와 출산 의례

우리나라는 가계를 잇는 것이 남자에게 국한되어 왔으므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은 중요한 의무였다. 그러나 아이의 성별은 인간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초인간적인 힘에 의존하여 아들을 출산하고자 하는 습속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기자'라고 한다. 기자 의례는 크게 치성 기자와 주술 기자로 구분된다. 치성 의례는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리거나 영험하다고 알려진 곳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아들을 낳은 산모의 치마를 입거나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의 월경대를 얹어다 몸에 두르는 등의 행위는 주술적인 것이다.

태몽으로 아이의 성별을 구별하는데, 아들 꿈은 뱀이나 호두(남자의 성기 모양과 비슷해서)가, 딸은 구렁이(색깔이 화려해서)가 꿈에 보인다고 한다. 만약 아이가 없을 때에는 삼신 할머니를 모셨다. 모시는 방법은 닥나무 껍질로 만든 창호지에다 농사를 지어서 처음 찐쌀을 싸서 방에 매달아 놓는다. 이것을 '삼신 주머니'라고 하는데 삼신 주머니 위에는 종이로 고깔을 만들어 썼다고 한다. 또한 아들이 없을 때 아들 빌기 의례로 바가지에다 쌀을 담아서 창호지로 덮은 다음 안방 윗목에다 1년 동안 매달아 놓는다. 이렇게 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쌀은 집안 식구들이 먹는다. 그

렇지 않을 때에는 계속 보관하다가 집안 어른이 돌아 가신 후에 없앤다.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 쌀을 상여가 떠난 후 옷이나 그 유품 등을 태울 때 같이 태우고 바 가지는 깨뜨린다고 한다. 이것을 '지석 바가지'라고 한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선바위나 기자석 같은 곳에 가서 빌기도 한다. 장흥면 울대리나 교현리 등지에서는 울대리에 있는 삿갓 바위에 가서 빌었다고 한다.

한편 임산부는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한다. 특히 음식과 행동을 금해야 한다. 좋지 못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초상집에는 가지 말며, 빛자루를 깔고 앓지 말아야 한다. 임신 중에 짚리를 깔고 앓으면 딸을 낳는다고 한다. 개고기를 먹으면 형제간에 싸우고, 닭고기를 먹으면 닭뼈가 몸에 들어가 태아에게 해롭고,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발가락이 붙고, 토키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눈이 빨개진다고 한다.

임산부가 있는 집에서는 산달이 가까워지면 아이 낳을 준비를 한다. 출산 준비는 대개 시어머니가 담당하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 배냇저고리, 포대기 등과 산모가 먹을 미역을 장만한다. 미역은 예정일이 있는 달에 사 두었다가 만약 달을 넘기게 되면, 다시 산달[產月]에 새로 사 오기도 한다(장흥면 삼상 1리 정자동). 임산부의 진통이 시작되면 우선 방을 따뜻하게 하고 바닥에 짚을 깔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바닥에 짚을 까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는 종이나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상을 준비하는 집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삼신상을 '삼신뫼'라고 부르기도 하며 "밥을 해다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삼신상은 밥 2그릇, 미역국 2그릇을 차려 두었다가 해산한 후에 밥과 국을 짚에 싸서 깨끗한 곳의 나무에 매달아 둔다(장흥면 삼상 1리 정자동).

첫 아이는 친정에 가서 낳기도 하나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자기 집 안방이나 자기 방에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았다. 시어머니가 안 계실 경우는 남편이나 '삼할머니'라고 불리는 산파가 조산을 담당

하였다. 난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삼할머니를 불러오고 산모에게 남편의 허리를 잡게 하거나 남편의 무릎을 산모의 배에 대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또 새벽에 대문을 열어 두고 그 문고리를 셋은 물을 먹이기도 하는데 이는 자궁이 열리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문을 닫는 한밤중에는 이러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태는 태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뼘 가웃 남기고 아기 쪽으로 세 번 훑고 나서 동여맨 후 자른다. 태를 훑는 것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태를 길게 자르면 아이가 대·소변을 잘 본다고 한다. 태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산모의 엄지발가락에 태를 감아 두기도 하였다. 태는 깨끗한 마당에서 불을 놓아 태우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보면 부정탄다고 하여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태웠다. 왕겨에 불을 놓은 것에 태우는 것이 가장 잘 탄다고 한다. 태의 재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 금줄을 친다. 이들은 솔가지, 숯, 고추를 달고 딸은 솔가지와 숯을 달았다. 금줄은 7일에서 삼칠일까지 쳐 놓은 다음 거둔다.

산모와 아이는 3일이 지나야 몸을 씻고 아이는 이때 배냇저고리를 입는다. 한 이레가 되어야 입히기도 한다. 백일 전에는 같은 젖먹이끼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의 복을 다른 아이가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모 역시 이 기간에는 외출을 삼가 했다.

출산 후 바로 젖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은 밥을 씹어서 아이에게 먹이거나 입에 쌀을 넣고 씹어서 그것을 물에 다 끓여 먹였다. 3일이 지나야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산모가 젖을 미역국에 한번 씻은 후 아이에게 물렸다. 산후 조리 기간에 산모가 두부·호박·죽처럼 무른 음식을 먹으면 이가 빠진다 하여 금하였고 김치도 먹지 않았다.

(2)백일과 돌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이 되면 잔치를 열어 준다. 백일에는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해서 쌀밥, 미역국과 함

께 상을 차린다. 백설기와 수수팥떡은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며 만드는 것인데, 특히 수수팥떡은 살(煞)을 풀어준다하여 10세까지 생일마다 해 주었다고 한다.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돌이라 하여 축하를 해준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일년 사계절을 무사히 보내고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집안의 경사였다. 돌에는 아이에게 돌봄을 지어 입혔다. 돌상에는 실·돈·책 등을 올려놓고 아이가 집어드는 것을 보고 아이의 장래를 점쳤는데 이를 돌잡이라고 한다. 실을 잡으면 장수하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책을 잡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

(3) 관례와 계례

관례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되는 것을 축하하며 마을의 구성원으로 성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의례이다. 관례는 중국에서 전해진 풍속으로 양반 계층에서나 행해졌고 일반 서민들은 혼례에 포함되어 별도로 행해지는 일이 드물었다. 다만 성인 한 사람의 뜻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간단하게 막걸리와 약간의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대접하므로써 성인으로 인정받는 의례를 치렀다고 한다. 그러므로써 한 품으로 인정받아 두레째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품앗이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의례로 서민들 사이에서는 100근 정도 되는 등그런 돌을 들어 올려 힘자랑을 하므로써 어른으로 인정받는 들돌들기라는 행사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양반 사회에서는 남자의 경우 관례라는 의식을 거쳐 성인으로 인정받았고,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라는 의식을 거쳐 성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주내면 유양리는 양주관아가 있던 곳으로 지금도 향교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향교에서 관례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4) 혼례

혼례는 인륜지대사라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보통 혼인은 20세 정도면 치렀다. 양반집이나 부잣집

에서는 혼인을 더 일찍 하였다고 한다. 양주의 관아터가 있었던 유양리의 경우 대개 15세 정도면 연상의 여인과 혼인을 하였다고 한다. 과거의 혼례는 친척이나 이웃의 중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중매쟁이를 '매파'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이 예전에는 혼인을 반드시 중매에 의해서 치렀지 맞선이나 연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혼인은 경기도 관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양주군 내에서 서로 혼사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유양리의 경우에는 대개 장흥면에서 신부를 정했다고 한다. 혼인이 결정되면 택일을 한다. 사주는 중매쟁이가 미리 가지고 간다. 택일 후 혼례를 치르는 날까지 신부는 상가나 혼인집에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혼례에 참석하면 먼저 시집가는 사람이 복을 다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부는 식을 올리기 전에 머리털 고르기를 한다. 이마에 난 잔 머리털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뽑는 것이다.

함은 혼례날이나 그 전날 신랑 친구나 마을사람 중에서 첫 아들을 난 사람이 지고 간다. 함을 지고 갈 때에는 보통 3~4명이 신랑과 함께 가는데, 함진아비들은 그날 돌아온다. 함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함진아비가 "함이 왔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가 함을 받는데, 함을 받을 때 방문 앞에서 바가지나 접시를 밟아 깨뜨린 다음, 함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행위는 그 소리를 듣고 색시를 쫓아온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단 함이 방으로 들어가면 함을 상 위에 올려 놓는다. 그러면 신부의 부모가 그 앞에 앉는다. 신랑과 함진아비들은 큰절을 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함을 풀어본다. 그런 다음 함진아비들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돌아가다가 막걸리라도 먹고 가라고 엽전을 준다. 요즘처럼 함을 파는 풍속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한다(주내면 유양리).

혼례는 신부집에서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부집이 가난할 경우에는 신랑집에서도 치렀다. 신랑은 혼례날이 되면 아침 일찍 신부집으로 간다. 이때 신랑

가족 대표 한 사람과 신랑 친구들이 함께 따라간다. 부잣집의 경우에는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갔으며 그럴 형편이 안되면 걸어서 갔다.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집을 떠날 때에는 평상복(대개 검은 두루마기)을 입고 중절모에 흰고무신이나 검은 고무신을 신고 초행길에 올랐다. 한편 초행길에 서낭당을 만나면 미리 신랑 어머니가 준비해 준 북어와 떡을 서낭당에 놓고 절을 한 다음 돌을 쌓고 지나간다. 혼례식을 치루고 돌아올 때에도 역시 똑같은 의례를 행한다. 또한 초행길에 상여를 만나면 다른 길로 돌아간다.

신랑이 신부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초례청을 차린다. 초례청을 차리는 동안 신랑은 신부집을 지나기 전에 있는 신부 이웃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 기다린다. 초례청이 다 차려지면 신랑은 신부집으로 향한다. 신부는 하루 종일 혼례복을 입고 방에 앉아서 색시 노름(혼례복을 입고 눈을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하다가 대례를 치른다. 혼례상에는 말부리 떡(흰떡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든 떡) 9개, 입에 밤과 대추를 물린 북어, 국수 두 그릇, 술 등을 차려 두고 식이 끝나면 나누어 먹는다. 혼례식은 집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다.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신부가 답례를 한다. 이어 신랑이 술 한잔을 먹고 신부에게 준다. 그런 다음 맞절을 한다. 한편 혼례상에 올렸던 닭은 반드시 신랑이 가져가 잡아 먹는다.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으로 갈 때 마을 입구에 다다르면 신랑집에서 준비한 상차림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덜어서 던져 준다. 귀신들이 이 음식을 먹고 가라고 하는 일종의 액막이인 것이다.

혼례를 치른 다음 신랑은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친정 살림이 어려우면 당일에 시댁으로 가기도 하였다. 또한 반대로 친정이 넉넉하면 3일 후에 시댁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신혼 첫날밤에는 신부집에서 신방을 차린다. 신부는 원삼 족두리를 쓰고 신랑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신랑은 초저녁에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밤이 이슥해지면 신방으로 들어간다.

이때 술과 안주상을 신방에 차려 놓는다. 신부는 신랑에게 술을 따라 주고 신랑 역시 신부에게 술을 따라 준다. 이러한 의례가 끝나면 잠자리에 듦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와 걸옷을 벗긴다. 먼저 족두리를 벗긴 다음, 웃저고리 고름을 풀고 치마를 벗긴다. 그런 다음 촛불을 끈다. 촛불은 반드시 손으로 꺼야 한다. 만약 입으로 불어 끄면 첫딸을 낳는다고 한다. 이때 문 밖에서는 부녀자들이 침을 묻혀 창호지 문을 뚫고 신방을 엿본다. 이를 신방 엿보기라고 한다.

신방 엿보기와 관련하여 주내면 유양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신방 엿보기는 임꺽정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랑들은 첫날밤 신부를 다룰줄 몰랐다는 것이다. 천민이었던 임꺽정 역시 혼인을 하였다.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지가 이르기를 “신방에 들어가면 신부를 잘 벗겨야 하느니라.”라고 일러 주었다. 그런데 임꺽정은 백정으로서 어려서부터 소를 잡아 가죽만 벗기는 일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부한 말이 실제로 가죽을 잘 벗기라고 하는 줄로만 알고 칼로 신부의 가죽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로 이러한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신방 엿보기란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으로 갈 때 신랑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갔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왕골로 만든 힘에다가 떡·산자·다식·인절미·고기·술 등을 담아 보낸다. 이 짐은 대개 신부집 머슴이 지고 가나 머슴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을 사서 지고 가게 하였다. 신랑집에 도착하면 가는 당일로 폐백을 드린다. 폐백은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신랑·신부가 절을 하면 밤이나 대추 등을 던져 주면서 덕담을 한다.

한편 신부가 3일 안에 하늘을 쳐다보면 가난하게 산다고 하였기 때문에 3일 간 화장실 출입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심한 경우는 3일간 굶는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버선을 기우거나 방 안에

서 할 수 있는 일만을 하였다. 신랑은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를 “옷갓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 시댁에 와서는 먼저 사당에 인사를 올리고 폐백을 드린다.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신부는 부엌일을 시작한다. 시집에 온지 약 1주일 간 또는 그만 두라고 할 때까지 시부모님께 아침마다 몸단장을 하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한다. 이때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되어 장남의 경우에는 대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차남 이하는 대개 1년 정도 함께 살다가 분가한다.

결혼 후 첫 친정 나들이인 근친은 ‘첫푸래기’ 혹은 ‘도배기’라고 하여 대개 혼인한지 1년 후나 또는 친정에 행사가 있을 때 갔다. 그러나 해방 전후부터는 시댁에 온 지 3일만 되면 재행이라 하여 첫 친정 나들이를 하였다. 그런데 짹수날에는 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근친 후 보통 3일 안에는 다시 시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재행을 갈 때나 돌아올 때는 대개 술·고기·떡·엿 등을 장만해 가지고 간다. 이것을 채반이라고 하는데, 채반은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관례였다. 여기서 ‘며느리 채반은 무릎 밑에 두고 먹고 딸 채반은 산 넘어 간다.’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친정에서는 시집에 보낼 채반 준비에 매우 신경을 썼다(장흥면 울대리).

한편 재행을 가면 신부 동네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남의 처녀를 훔쳐 갔다고 하면서 대들보에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장작개비로 빨바닥을 두들겨 팤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사위를 잘 봐달라고 온갖 음식을 내놓는다. 심지어 신부가 노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신랑을 풀어 주는데, 이를 신랑달기라고 한다. 심술궂은 마을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신랑이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첫 나들이 이외에도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친정 나들이를 간다. 이때 신랑은 금방 돌아가고 신부는 친정에서 한동안 머무른다. 그런 다음 시집으로 돌아갈 때쯤 신랑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간다. 시댁으로 돌아갈 때는 광목으로 시댁 식구마

다 버선 한 켤레씩을 장만하고 떡·술·고기 등의 음식도 준비해 간다. 안살림은 보통 시집온 지 3년이 지난야 하나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다르다.

(5) 회갑례

우리나라 나이로 61세가 되면 회갑례를 치룬다. 회갑을 환갑이라고도 하는데, 수명이 짧았던 예전에는 회갑 때까지만 살아도 장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회갑이 되면 일가 친지 및 마을사람들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환갑잔치에 대한 유래를 주내면 유양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주 예전에는 환갑만 되면 고려장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고려장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생일이라 하여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한이 많은 생일이라 하여 회갑을 ‘환갑’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아무튼 회갑날이 되면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 회갑상을 차렸다. 밤·대추·곶감·다식·산자·떡·산적 등 온갖 음식들을 목기에 높이 쌓아 상 위에 차려놓고 당사자가 자리에 앉으면 그 자손들은 상 앞에서 회갑을 맞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그런 다음 축하객들과 함께 어울려 온 종일 잔치를 벌인다. 잔치는 예전의 경우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루 또는 2~3일씩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형 음식점을 빌려 회갑례를 치룬다. 또한 대부분 요즘에는 장수를 하기 때문에 회갑례를 치루지 않고 그 대신 70세가 되는 고희 때 잔치를 치루는 경향이 늘고 있다.

(6) 상장례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객지에 나가 있던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들여 임종을 지켜본다. 임종시에는 안방에 모시는데, 안방 이외의 방은 객지라고 생각하여 그곳에서 죽으면 객사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임종에 임박한 사람이 살던 집 안방으로 망자를 모신다. 이때 안방에 있던 모든 가구들은 밖으로 내 놓는

다. 만일 집 밖에서 죽으면 객사로 인정하여 시신을 집 안에 들여놓지 않는다. 시신을 관에다 넣은 후 바깥에 놓아 두었다가 장례식을 치룬다(주내면 유양리).

사람이 죽으면 ‘초상났다’ 또는 ‘상 당했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우선 마을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상갓집으로 모여든다. 아주머니들은 방에 모여 베나 광목으로 수의와 상복을 만드는데, 수의의 경우 부유한 집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한다. 한편 남자들은 인근 마을의 지인(知人)과 친인척들에게 부고를 띄운다. 그런 다음 돼지를 잡는 등 초상 치를 준비를 한다.

임종을 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초복을 부른다.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에서 초복 부르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씨(성씨만 부름).” 그런 다음 “복, 복, 복.” 하면서 고인의 웃저고리를 지붕 위로 던진다. 한편 주내면 유양리에서는 성씨를 부르면서 “휘이 휤이.”라고 외치면서 망자가 입던 깨끗한 윗도리를 역시 지붕 위로 던진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망자의 혼이 방황하지 말고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 세계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초복은 마을사람 중에서 담이 큰 사람이 담당한다. 잘못하여 던진 적삼이 바람에 날려 던진 사람에게 떨어지면 놀래 병이 들든지, 아니면 죽기도 한다는 속신 때문이다. 따라서 초복은 마을에서 항상 하던 사람이 한다. 초복과 함께 사자상(使者床)을 차려서 대문 앞이나 행랑채 지붕 위에 옮겨놓는다(장흥면 삼하리). 사자상에는 짚신 3켤레, 밤 7무 더기, 동전 약간 등을 채반에 옮겨 놓는다(장흥면 삼하리). 이러한 사자상은 저승사자를 위한 것으로 장례시 상여에 신고 가다가 첫번째 지나는 다리에서 내팽개쳐 버린다.

장례는 보통 3일장을 치루나, 5일장이나 7일장을 치루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3년이 지나야 만 반드시 탈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1년 탈상이나 100일 탈상, 아니면 49제로 탈상을 하기도 한다.

임종을 하면 우선 시신을 반듯하게 눕히고 고정시킨 다음 만 하루가 지나면 염습을 한다. 염을 할 때에는 쌀을 입에 3숟가락 넣는다. 저승까지 가는데 필요 한 양식으로 벼드나무나 미루나무로 숟가락을 만들어 입에 넣어 주면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라고 한다. 이때 여자는 벼드나무 숟가락을 사용하고 남자는 미루나무나 대나무 숟가락을 이용한다(주내면 유양리). 또한 염습을 할 때에는 향물로 시신을 깨끗하게 씻긴 다음, 손톱과 발톱 등을 조발낭이라는 주머니에 넣는다. 이렇게 하여 염습이 끝나면 나무 토막으로 관 밑을 고인 다음 관을 놓고 그 앞에 병풍을 친 다음 성복제를 지낸다. 염습이 끝나면 성복제를 지낸 다음, 상주들은 상복으로 갈아 입고 문상객을 받기 시작한다.

모든 준비의례가 끝나면 출상을 하는데 출상을 하기 전날에는 대떨이를 한다. 대떨이는 빈 상여 놀이로 조적이라고 하는데(주내면 유양리) 출상을 잘 부탁하는 의미에서 상여꾼들에게 푸짐하게 한턱 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떨이는 호상인 경우에만 한다.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나 처녀가 죽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상여를 사용하지 않고 들것으로 시신을 옮긴다. 한편 발인을 위해서 시신이 방에서 나갈 때에는 머리 방향이 먼저 나간다. 그러나 일진을 보아 거꾸로 나가기도 한다. 또한 시신이 방을 나갈 때에는 문지방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바가지를 밟아 깨뜨리고 지나간다. 상여는 대개 12인용 상여를 사용하나 호상인 경우에는 상포집에 가서 광목을 사다가 상여줄을 추가로 매어 24명이 상여를 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상여는 보통 12인용을 사용하였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16인용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도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상여를 이용해 장례를 치루고 있다.

하관할 때에는 일진을 따져 무슨 땀, 무슨 땀의 사람들은 하관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관시에는 칠성판을 놓고 그 위에 시신을 놓은 다음 그 위에는 홍대를 덮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은 묻지 않고 태워 버린다. 단지 명정이나 예단 같은 모두 시신과 함께 묻는

다. 시신을 묻고 봉분을 만들 때에는 달구질을 한다. 달구질을 할 때에는 방아타령을 불렀다. 장례를 치룬 다음에는 원래 오던 길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봉분을 만든 다음 좌로 한바퀴 반, 우로 한바퀴 반을 돈 다음 산소에서 내려온다. 이때 상주는 망자와의 정을 끊기 위해 돌아오면서 뒤를 돌아 보지 말아야 한다.

장례 후에는 안방이나 대청마루에 상청을 차리고 탈상할 때까지 3년 동안 매일 같이 식사 때마다 메를 올려야 한다. 특히 매월 1일과 15일에는 삭망차례라 하여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노인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청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초우제(初虞祭)와 재우제(再虞祭)는 집에서 지내고 삼우제(三虞祭)는 장례를 치른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묘소에 가서 지낸다. 상복은 탈상시 모두 불에 태워 버린다.

(7) 제례

제례는 일반적으로 기제사(忌祭祀)를 말하는 것으로, 넓게는 차례 및 시향도 포함한다. 기제사는 4대조 까지 지내는 제사이고, 5대조부터는 10월에 시향을 지낸다. 그리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제사로 아침 9시 이전에 지내야 한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남자의 경우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갓을 쓴다. 여자는 시집을 때 해 온 옥색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기제사는 원래 돌아가신 날 자정, 즉 생전 당시 시간으로 제를 지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25일 오전 8시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당일 새벽 0시경(자정)에 제를 지내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대부분 전날 초저녁에 제사를 지낸다.

7) 민속신앙

민간신앙은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도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또한 대다수 민중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문화 또는 기층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개인을 포함하여 한 가정을 위한 개인 및 가정 신앙과 각 개인 및 가정들이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마을 신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으로써 또는 국가의 안위를 지켜 주었던 민족 종교로써 기능을 하였던 한국의 무(巫)와 점복·주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민간신앙이 행해졌다. 특히 마을 공동체는 전통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동시에 경제적 생산과 종교적 성소의 기초 단위도 되기 때문에, 마을신앙에 대한 규명은 기층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조사 대상 마을들은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이러한 마을신앙이 급격히 소멸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우나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마을에서 아직도 도당제 또는 산신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 전 지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산신제와 도당제, 그리고 도당굿 등을 마을 별로 살펴보고, 개인 및 가정 신앙은 일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을신앙으로는 산신제·도당제·도당굿·장승제 등이 있고, 개인 및 가정 신앙으로는 성주·터주·업·조왕·집안의 액막이·칠성·삼신·대감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실제로 터주가리 등과 같은 개인신앙 대상물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적과 같은 점복 주술적인 행위들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마을신앙

① 가납리 가래비 마을의 산신제

광적면 가납1리 가래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일 밤 1시경 마을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가래비 뒷산 중턱에 있는 산제사 터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제사 터에는 특별히 모시는 대상물은 없고 단지 평평하게 흙으로 단을 만들어 놓았다. 산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선화주들은 9월 그믐날 오전 중에 산제사 터로 올라가 제

당 주변을 청소하고 임시천막을 치는 등 제 지낼 준비를 한다. 제관은 제 지내기 10여 일을 앞두고 생기복덕을 보아 정갈한 사람으로 5명을 선출한다. 즉 제물을 장만하는 '앉은 화주' 1명, 제물 뿐만 아니라 각종 뒷 심부름을 하는 '선회주' 2명, 그리고 제를 주관하는 '제관' 1명, '축관' 1명 등이다.

제관을 선출하면 예전의 경우에는 제관집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렸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한편 제 지내기 일주일 전에 앉은 화주와 선회주는 조라단지에 조라술을 담궈 산제사 터에 갔다 묻어 놓고 제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런 다음 제관 일행은 집에서 근신을 하고 있다가 제 전날 제물을 장만하여 산제사를 지낸다. 선회주들은 오전 일찍 산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는 등 제 지낼 준비를 하고 나머지 제관 일행은 저녁을 먹은 후 제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간다.

제물은 사과, 배, 밤, 대추, 메 1그릇, 소머리 1개, 조라술, 백설기 1시루, 육탕, 초 2개, 향 등이 준비된다. 예전에는 소머리 대신 통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소머리로 대체하였다고 한다. 제사경비는 걸립에 의해 충당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성의껏 낸다.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마을이 무사하라고 지내는 공동제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은 걸립에 참여한다. 한번 제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약 20여 만원으로 제물은 가래비장에서 구입한다. 제기는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뜻그릇이 마을에 보관되어 있다.

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물을 준비가 끝나면 제물을 진설하고 잔을 올린다. 이어 제관이 재배를 하고 축문을 읽는다. 이어 다시 재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세대주 소지를 모두 올려 주는데, 한 사람이 호명을 하면서 축원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제사가 마무리된다. 제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마을 회관에 모여 있던 마을사람들은 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깨끗한 사람들만 산으로 올라간다. 산으로 올라간 일행들은 제관들과 함께 소머리 등 제물을 나눠 먹고

산에서 내려온다. 새벽 2시경이면 모든 제의가 끝난다.

한편 산신을 주 대상신으로 위하고 있는 가래비 마을의 산제사는 한국전쟁 당시 2~3년 정도만 중단되었을 뿐 지금껏 한번도 결르지 않고 제를 지내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낼 것이라고 한다. 한편 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한 달 정도를 연기를 한 다음 날을 다시 잡아 제를 지낸다.

②효촌 1리 회내미 마을의 산제

광적면 효촌 1리 회내미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9월 3일 밤 12시경 마을로부터 북서쪽 국사봉 4부 능선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산제를 지낸다. 언제부터 산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로부터 지금껏 마을이 무사태평하고 가축이 번성하기를 비는 마음에서 산신을 위하고 있다. 산제는 정갈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을 보아 제 지낼 사람으로 제관 1명, 축관 1명, 화주 3명 등 총 5명을 선출하여 지낸다. 제관 일행의 선출은 보통 음력 8월 30일에 이루어지며, 일단 제관으로 선출되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제관집 앞에 황토 2무더기를 뿌려 제관집임을 알린다. 그 다음날 산제당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 주변에 있는 풀을 베고 청소를 한다. 이때 산제당 아래에 있는 우물도 깨끗하게 품고 청소한다. 이날 화주 1사람은 시장에 가서 제물을 구입한다. 조라술도 1일에 담궈 산에 묻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라술 대신 소주를 사다 쓴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 2일 아침 해뜨기 전에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일단 산에 올라가면 제의가 끝날 때까지 마을에 내려오지 않는다. 산제당이 있는 곳에서 점심과 저녁을 해 먹는데, 이때 절대로 비린 음식은 먹지 않는다. 저녁 11시경에 방에다가 먼저 제물을 차려 놓는다. 제물이 모두 차려지고 제 지낼 시간이 되면 제물을 산제당 뒤편에 있는 산제단으로 옮겨 진설한다. 그런 다음 잔을 따르고 제관이 재배한다. 이어 독축을 하고 재배를 한 다음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대동 소지, 제관 소지, 축관 소지, 화주 소지(연령별), 세대주 소지,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소지 순으로 올린다. 여기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당사자들이 소지 올릴 종이를 사다 준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 어른인 영좌를 모시고 다시 음복을 한다.

제물과 부대 기자재는 소머리 1개, 소적 3근, 백설기 3되 3홉, 배, 사과, 밤, 대추, 조리술(현재는 소주), 촛불 2개, 청사초롱 2개 등이다. 여기서 청사초롱은 화주 2명이 양쪽에서 제 지낼 동안 들고 서 있는다. 조리술은 누룩술로 제 지내기 하루 전에 담그는데, 우선 땅을 판 다음 솔가지로 불을 놓아 땅을 덮는다. 이어 뜨거워진 땅 속에 조라 단지를 넣고 그 위에 솔가지를 덮는다. 그러면 술이 잘 된다고 한다. 한편 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약 30여 년전부터 조성된 마을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20여 만원 정도의 기금으로 제의 경비를 충당한다. 그러나 마을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각 호당 결립에 의해 경비를 충당하였다고 한다. 제물 준비는 화주가 담당한다.

한편 회내미 마을 산제당에는 당 건물(사진 31)과 산제단(사진 32)이 있다. 즉 산제당 건물 뒤편(서쪽) 약 10m를 거리에 두고 산제단이 있는데, 산제단은 높이가 약 40cm, 넓이가 80cm 되는 반원형의 긴 돌담(길이 630cm)으로 그 안에 제단이 놓여 있다. 제단은 넓적한 돌로 되어 있는데, 그 크기는 120×90×65cm이다. 산제당 주변은 넓은 공터로 되어 있으며 산제당 옆에는 참나무 1그루가 있다. 원래 산제당은 초가집이었다. 1971년 양회를 빌라 보수를 하였고, 1994년에는 원래 산제당을 헐어 버린 다음 산제당을 새로 건립하였다. 현재 있는 산제당은 시멘트 벽돌에 기와 지붕으로 앞면 492cm, 옆면 260cm, 높이 220cm이다. 앞면과 뒷면에 철문이 각각 1개씩 있으며 산제당 앞에는 120×75cm의 넓적한 돌이 놓여 있다. 원래 뒤쪽으로 나 있는 문은 창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새로 산제당을 지으면서 산제단으로 드나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을 만들었다고 한다. 산제당은 제를 지내는 곳이라기 보다는 제관들이 기거하면서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③효촌 2리 효계동 마을의 산제



사진31 효촌 1리 회내미 마을 산제당



사진32 효촌 1리 회내미 마을 산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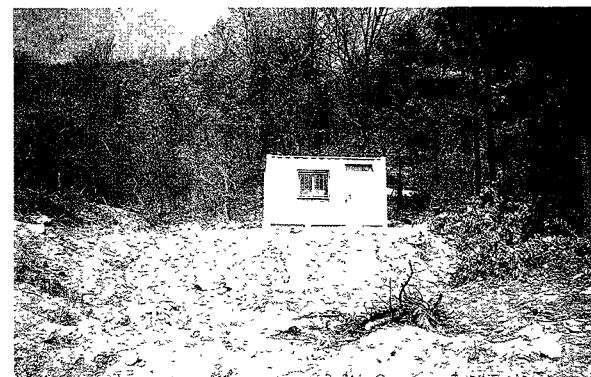


사진33 효촌 2리 효계동 마을 산제당

광적면 효촌 2리 효계동에서는 매년 음력 9월 2일 밤 12시경 마을로부터 서쪽 고청산(高淸山) 8부 능선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산제를 지낸다. 언제부터 산제를 지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로부터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산신을 위하고 있다. 산제당(사진 33)은 현재 조립식 건물로 지어 놓았는데 예전에는 벽돌에 쓰레트 지붕이었다고 한다. 산제당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크기는 높이 267cm, 앞면 387cm, 옆면 297cm이다. 콘테이너 산제당에는 문과 창문이 각각 1개씩 있다. 산제당 아래에는 조그만 방죽이 있다. 산제는 산제당 안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산제당으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진 뒤편에서 지낸다. 이 터에 제기와 조라술을 묻는다. 즉 제를 지낸 다음 산제터에 제기를 묻어 놓았다가 그 이듬해 산제를 지내기 2일 전 제기를 다시 꺼내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제기는 놋그릇이었는데, 약 20여 년전 군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가져가 제기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제관집의 제기를 사용하고 있다.

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는 제관 1명, 축관 1명, 화주 2명 등 총 4명을 선출한다. 화주는 당 주변과 우물 청소를 비롯하여 길을 닦고 나무를 준비한다. 반면에 제물 준비는 제관과 축관이 담당한다. 제관은 제 지내기 4일 전에 생기복덕을 보아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제관을 비롯하여 제를 주관하는 사람들 대문에는 선출된 날부터 솔가지를 꽂은 원새끼를 치고 그 앞에는 황토를 뿌린다.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들은 매일 같이 목욕재계를 해야 함은 물론 비린 것도 먹지 말아야 하며 부부가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없다.

제물은 밤 1되, 대추 1되, 쌀 1말(7되는 떡, 3되는 메), 메, 떡 3되 3홉, 볶어 5마리, 배 5개, 창호지 10장, 양초 1갑, 사고지, 무 1개, 소머리 1개, 조라술 등이다. 이중에서 조라술은 2일 전에 산에다가 담궈 놓는다. 제를 지낼 때에는 소머리 정수리에 부엌칼을 꽂아 놓는다. 한번 제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총 26만원 정도로 집집마다 1만원씩 거출한다. 이렇게 하여 1년에 걷히는 총 경비는 약 39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경비를 쓰고 남은 돈은 마을기금으로 사용한다. 마을 내에 있는 5곳의 공장에서도 똑같이 1만원씩 돈을 낸다. 제물은 제관들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이 제 전날 주내면 가래비장(4, 9일)에 가서 구입한다.

제의는 제관의 선출에서부터 시작된다. 4일 전에 제관을 선출한 다음 금줄과 황토를 뿌리고 2일 전에는

제당 주변과 우물을 청소한다. 그리고 밤에 조라술을 담근다. 전날은 제물을 구입하고 당일 오전 10시경에 산제를 지내려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산에서 근신을 하면서 점심과 저녁을 먹은 후 저녁 11시경이 되면 메를 지어 제를 지낸다. 이때 제관 일행들은 밥과 소금, 그리고 간장만을 먹을 수 있을 뿐 기타 다른 반찬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제의는 밤 12시가 넘어서 지낸다. 제는 진설, 촛불, 킴, 협작, 재배, 독축, 재배, 소지 순으로 이루어진다. 소지는 대동 소지만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제관 일행끼리 간단하게 음복을 한 다음 제물을 조금씩 떼어 사방에 고수례를 한다. 그런 다음 제물을 지게에 지고 마을로 내려와 소머리를 삶는다. 예전에는 솔을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소머리를 삶았다고 한다. 한편 예전에는 제가 끝나면 화주가 제물을 백지에 싸서 똑같이 나누어 제관 4명과 축문 쓰는 사람, 동네 영좌, 산임자(김씨, 이씨) 등에게 갔다 주었다고 한다. 기타 마을사람들은 음복 장소에 오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 음복을 하였다.

孝溪 高清山 山祭祀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佳洞幼學○○○等敢昭告于

高清山神 節彼高清 吾鄉之望 斯民之願 神報如響 願豐五穀 使我鼓腹 願逐

斯我奠宅 花蹄盈圈 雪額屏跡 去我百害 降我百福 保我佑我 惟神之德 今揀良辰

白飯清酌 齋潔告虔 神庶歆格尚饗

④효촌 2리 거마을 마을의 장승제

광적면 효촌 2리 거마을 마을에서는 2년에 한번씩 음력 8월 추석 전으로 날을 잡아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에서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은 나무장승으로 마을 입구 오른쪽에 서 있다. 총 3기로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이란 명문이 쓰여 있다. 원래부터 거마을에는 천하대장군만 있었다고 한다. 장승은 장승제를 지낼

때마다 새로 깎아 세운다고 한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데 보통 3기 정도는 항상 서 있다고 한다. 조사 당시에도 역시 3기의 장승이 있었다. 그런데 매번 장승을 새로 깎기가 어려워 1996년 외부조각가에게 의뢰하여 500만원을 주고 장승 2기를 깎아 세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을에서 장승을 깎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새로 만든 장승은 붉은 칠을 하였으며 눈·머리·명문은 검은색으로 칠하였다. 몸체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이란 명문이 쓰여 있으며, 큰 귀와 허옇게 드러난 이빨 등이 인상적이다. 이 장승의 크기는 약 3m 정도로 키가 매우 크다(사진 34).

한편 원래 마을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장승은 모두 3기로 가운데에 있는 장승이 양 옆에 있는 장승보다 키가 훨씬 크다. 이들 장승은 새로 세운 장승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 양옆에 있는 작은 장승의 크기는 약 1m 20cm이고, 가운데에 있는 장승은 약 2m 정도이다(사진 35). 장승은 제 당일 아침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강복희(66세)가 깎은 다음, 오후에 세운다. 장승은 소나무로 만드는데, 아침 일찍 노고산에 가서 베어온다. 장승목을 벌 때에는 강복희 외에 2~3명 정도가 함께 간다.

제 당일 저녁 마을사람들은 개를 잡아 가지고 장승제를 지낸다. 개를 잡아 장승제를 지내는 이유는 노고산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호랑이는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를 통째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다. 개는 절대로 떼여서 잡지 않고 목을 매서 잡는다. 개가 죽으면 짚으로 그을려서 내장만 뺀 다음 원형 그대로 놓고 제를 지낸다.

장승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고 깨끗한 제관 1명을 선출한다. 제관이 선출되고 장승제 날짜가 잡히면 제관집 대문에 황토를 뿌린다. 그 후에는 부정한 사람은 제관집에 출입할 수 없다. 대신 장승이 있는 곳은 황토를 뿌리지 않는다.

제물은 제상 대신 지게 2개를 서로 마주보게 맞대어 놓고 그 위에 널빤지를 올려 놓은 다음 한지를 깔고 그



사진34 호촌 2리 거마을 마을 장승



사진35 호촌 2리 거마을 마을 옛장승

위에 개를 통째로 올려 놓는다. 개를 제외한 다른 제물들은 장승 앞에 있는 평평한 돌 위에 진설해 놓고 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개 1마리, 포 2마리, 조라술, 팥시루 떡 1말, 촛불 등을 준비한다.

제 당일이 되면 아침부터 길을 닦은 다음 마을사람들이 모여 함께 점심을 먹는다.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제물로 바칠 개를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없고 깨끗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물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제물로 쓸 곡식은 집에서 방아를 짚어 사용하였다고 하나 요즘엔 방앗간에서 준비한다. 제의 비용은 마을의 공동 기금을 활용한다. 한번 제를 지내는데 약 50여 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 이중에서 개값으로 보통 25만 원 정도 듈다. 개값이 비쌀 때에는 1마리에 50만원 정

도 줄 때도 있다고 한다. 개를 살 때에는 암수를 가리지 않으며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주고 산다. 제를 지내는 데에는 총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우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이 헌작을 한다. 이어 재배를 하고 독축을 한 다음 다시 재배를 한다. 그런 다음 나이순으로 3잔을 올린다. 이어 소지를 올리고 철상을 한 다음 음복을 한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마을사람들이 한데 모여 개고기를 삶아 저녁을 먹는다. 소지는 장승제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올려준다. 한편 장승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은 삶은 개고기와 떡을 조금씩 한지에 싸서 나누어 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면서 논다.

⑤경신리의 산신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남면 경신리에서는 2년에 한번씩 마을 북쪽에 있는 월봉산(감악산 남쪽에 위치)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월봉산을 '달봉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경신리에서는 월봉산 산신을 위한다. 월봉산은 비록 얇으막한 작은 산이지만 마을 주변에서 우뚝 솟은 경신리의 주산이다. 제를 지내는 곳을 산신당이라 부른다. 산신당에는 당 건물이 없다. 그러나 산신제를 지낼 때에는 임시로 천막을 치고 지낸다. 산신당에는 4~5백년 정도된 참나무 한그루가 있어 이를 신목으로 위하고 있다.

산신제는 11월 초순으로 날을 받아 지낸다. 특히 정일(丁日)로 날을 받는데, 만약 정일이 안 맞으면 친일(辰日)로 날을 받는다. 그러나 동짓달 초 이렛날을 넘기지는 않는다. 시일이 지날수록 마을에 부정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일은 10월 그믐날 밤 12시경에 정한다. 제일을 정하면 곧 이어 제관들을 선출한다. 제관은 모두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하는데 일단 제관으로 선출되면 그날부터 화주집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근신을 한다. 이처럼 제관 일행은 화주집에서 산신제를 지낼 준비만 한다. 이들은 바지·저고리·두루마기를 입고 제를 지내는데 모든 제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기집에도 갈 수 없다. 이와 같이 화주집에서는 제관 일행의 숙식을 모두 제공해 주고 제가 끝난

다음 그 비용을 결산 받는다.

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는 제관 숙식을 담당하는 화주 1명, 축문을 읽는 축관 1명, 제를 주관하는 현관 1명, 방아를 짚고 제물을 담당하는 소임 1명, 제물을 구입하는 유사 1명 등 총 5명을 선출한다. 한편 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그 해에는 제를 지내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지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제일이 정해진 이후에 외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제의가 끝날 때까지 마을을 나갈 수 없다. 제의가 끝난 다음에야 나갈 수 있으며, 그대신 이들의 소지도 올려준다. 그리고 화주집 대문에는 소나무를 원새끼에 끼워 금줄을 치고 그 앞에는 황토를 3무더기씩 양쪽에 뿌린다.

제물로는 소머리 1개, 우족 4개, 백설기 3되 3홉(1시루), 통북어 3개, 조라술 등이 준비된다. 단 과일은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라술은 날을 받은 다음날 소임이 산에 가서 해 놓는데, 짚주저리를 틀어 놓는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머리 대신 수소를 통째로 잡아 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민간 도축을 금지하면서 소머리로 대체하였다. 제물은 제 전날 유사가 소임과 같이 의정부장에 가서 사온다.

제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제관을 선정한 다음, 조라술을 담그고 화주집에서 근신한다. 제의 전날에는 제물을 구입하고 당일 아침에 천막을 치고 청소를 한다. 그런 다음 밤 11시 30분경에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산신당으로 올라간다. 이때 제관 일행 5명만 참여할 수 있다. 산신당에 도착하면 먼저 백설기를 쪐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물을 상 위에 진설하고 분향을 한 다음 강신을 한다. 이어 헌작, 재배, 독축, 재배, 소지, 음복, 북쪽 감악산을 보면서 고수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소지는 제일 먼저 대동 소지를 올려주고 이어 각 반별 소지, 세대주 소지(1반부터 호명), 각 공장 소지, 외지인 소지 순으로 올려준다. 이러한 순서로 제의가 모두 끝나면 새벽 2시경이 된다. 산에서 내려오는 즉시 제관 일행은 화주집으로 일단 갔다가 다른 의식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날 아침 마을사

람을 모두 초청하여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결산을 한다. 단 음복시 소다리와 소머리는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먹지 않고 제관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山神祭 祝文

維歲次丙寅十一月庚辰朔初三日壬午幼學
○○○敢昭告于
紺嶽之南月峰之神惟我一同大小民人敢竭卑
誠伏祝神其保佑別無異常
永久鎮安謹以酒饌祇薦于神尚饗

⑥신암 1리 산제사

감악산은 서낭당이나 산신 등 마을신앙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신령이 깃든 영산(靈山)으로 남면에 있는 신암리는 바로 이 감악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귀신과 바위가 많아서 신암리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신암리에는 각종 굿당을 비롯하여 개인이 치성을 드리는 장소가 여기저기에 있고, 이외에도 마을공동으로 위하는 산제당이 저수지 아래에 있어 마을사람들이 산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신암 1리의 산제사는, 산제당은 1리에 있지만 현재 1리와 2리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 원래는 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함께 지낸다고 한다.

신암리의 산제사는 예전에 음력 9월 3일 고정적으로 지냈으나 최근에는 매년 음력 9월 초로 날을 받아 지낸다. 제일은 보통 음력 9월 1일에 정한다. 제의는 마을로부터 북쪽 감악산 아래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치뤄진다.⁵⁾ 현재의 산제당은 약 30여 년전에 새로 건립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돌담에 서까래를 엎고 짚으로 이엉을 한 초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산제당은 한국 전쟁 때 소실되어 이후 새로 지었다. 이때 산제당이 소실되면서 잠시 제의가 중단되었다가 휴전이 되면서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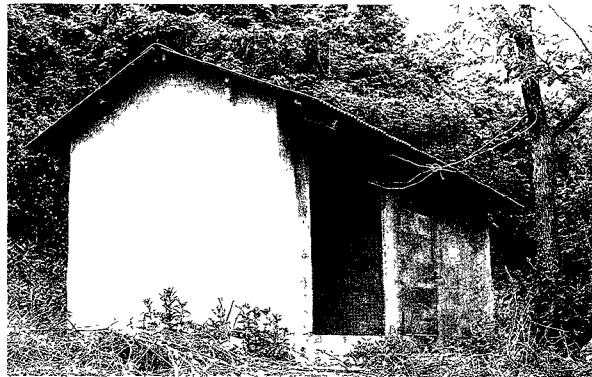


사진36 신암리 산제당

에서 산제를 지내다가 1962년경 산제당을 새로 지었다. 한편 현재 있는 산제당은 벽돌로 쌓은 후 시멘트를 바르고 쓰레트로 지붕을 하였다. 산제당의 구조는(사진 36) 방 1칸과 혀간 1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뒤쪽에 조그만 창문이 나 있다. 혀간보다 방의 크기가 조금 크며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함석문이다. 산제당의 크기는 앞면이 600cm, 옆면이 240cm, 높이가 285cm이다.

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는 제관 3명(초헌관 1명, 아헌관 1명, 종헌관 1명), 회주 3명을 선출하는데 축관은 제관 중에서 한사람이 담당한다. 제관과 회주로 선정되면 예전에는 집 대문에 금줄을 쳤다고 하나 지금은 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제관들은 집에서 근신을 해야 한다. 심지어 날이 정해지면 외부 사람들의 경우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마을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을 밖으로 나가면 제가 끝나야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애들도 혼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제관과 회주들은 초상집에 갈 수도 없고 비린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제물로는 소머리 1개, 배, 사과, 밤, 통북어 3마리, 노구메 3그릇, 조라술 등을 준비한다. 그런데 신암리 역시 예전에는 소를 통째로 잡아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지금은 소머리로 대체되어 지내고 있는데, 소머리를 밤새 깊은 다음 밤 12시 넘어서 제를 지낸다. 노구

5) 산제당은 감악산 아래에 있는데, 신암리를 들어 서면 잣풀이란 마을이 있고 여기를 지나 감악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신암 저수지가 나온다 여기서 저수지를 지나기 전 도로 원쪽으로 냇가를 따라 들어가면 바로 냇가 건너편에 산제당이 있다 산제당 옆에는 25사단 72연대가 위치하고 있다.

메(3되 3홉)와 백설기는 산에서 지어 올린다. 특히 백설기의 경우 3되 3홉을 짓는데 예전에는 산에서 절구에 쌀을 빻아 산에서 떡을 쪘다고 한다. 지금은 방앗간에 가서 가루를 빻아 산에서 떡을 쪘고 있다. 조라술 역시 9월 1일 날을 받은 후 산에다가 담궈 놓는다. 제사 경비는 마을기금을 이용하는데 대략 20~3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제물은 화주가 신산장에 가서 구입해온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 당일 아침 일찍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이때 제관 3명과 화주 3명 이외에는 아무도 산제당에 올라가지 않는다. 일단 산에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다. 따라서 산제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해 먹는다. 저녁을 먹은 후 해가 질 무렵 떡과 메를 짓기 시작하여 밤 12시가 지나면 제를 지낸다. 우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잔을 따르고 이어 재배, 독축, 재배, 소지, 음복, 고수례, 하산 순으로 이어진다. 소지는 대동 소지와 제의에 참석한 6사람의 소지만 올린다. 고수례할 때는 한지에 제물을 조금씩 싸서 7곳에 갔다 놓는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산에서 날을 샰 다음 새벽 해뜨기 전에 마을로 내려온다. 마을로 내려와서는 마을사람들이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이때 70세 이상된 노인들에게는 '소도복'이라 하여 제물을 한지에 싸 조금씩 나누어 드린다. 이때 제관이나 화주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준다.

山祭 祝文

維 歲次〇九月〇〇朔 初〇日〇〇後學〇〇
〇等 敢昭告于

紺岳之神 糜我山靈 慈愛蒼生 除其災害 增其福
祿 洞民齊潔 酒果犧牲

尚饗

⑦홍죽 1리 안골 마을의 들제사와 산제

• 들제사

백석면 홍죽 1리 안골 마을에서는 매년 읍력 7월 1

일 저녁 8시경 마을 앞 들판 앞벌이란 곳에서 들제사를 지낸다. 들제사를 일명 우두제사라고도 한다. 제의 명칭에서 보아 알수 있듯이 이 마을에서 들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부스럼이나 종기, 그리고 마마를 물리치고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옛날에는 유독 이러한 종류의 병들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제사에서는 마마신(홍역신)을 모신다. 한편 이러한 들제사를 지내면 실제로 이러한 병들이 없어졌다고 한다.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를 지낼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제물을 차리는 앉은 화주 1명, 제물을 사오는 선화주 1명, 제관 1명, 축관 1명 등 총 4명을 제 지내기 바로 전날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한다. 제관 일행들은 당일에만 담배나 술을 먹지 않는다.

제물로는 소머리 1개, 황계 수탉 1마리, 백설기 1 말, 통복어 10마리, 메 1술(2되 정도), 배, 사과, 꽃감, 포, 밤, 대추, 쇠고기 적 1근, 조라술 등이 준비된다. 여기서 조라술은 당일 아침 일찍 제 장소에 천막을 쳐놓은 다음 현장에서 담궈 사용한다. 제물은 보통 의정부 시장에서 제 당일에 선화주가 구입한다. 한편 30여 년전만 하더라도 들제사를 지낼 때 소를 통째로 잡아 제를 지낸 후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제물로는 소를 통째로 쓰지 않고 소머리만 바쳤다고 한다. 제기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놋그릇이 있으며, 마을 회관에 보관하고 있다. 제의 경비는 집집마다 거출하여 충당하는데, 한번 제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30여 만원이다.

들제사는 제관, 축관, 화주만 참석할 수 있다. 제 지내기 전에 제관 일행은 목욕재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예전에는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 앉은 화주가 집집마다 돌리면서 비용을 거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제물을 돌리지 않는다. 단지 제를 지낸 다음날 아침 마을 이장이 방송으로 마을사람들을 앉은 화주집에 모이게 한 다음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당일 아침 제의 장소에 천막을 치고 조라술을 담그는 동안, 선화

주는 소머리와 제물을 준비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저녁을 먹지 않고 어두워질 무렵 제물을 지게에 지고 제를 지내려 나간다. 제의 장소에 도착하면 우선 제물을 진설한다. 그런 다음 술 한잔을 따른 다음 제관이 재배를 한다. 이어 독축을 하고 다시 제관이 절을 한다. 재배가 끝나면 술과 소머리 3~4점을 헌식한다음, 음복을 한 후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돌아온 제관 일행은 앉은 화주집에서 술을 한잔씩 한 다음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날 마을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하면서 결산을 한다.

• 산제

백석면 홍죽 1리 안골 마을에서는 들제사와 함께 매년 음력 10월 1일 7~8시경 마을 앞 음봉산에서 산제를 지낸다. 산제터는 마을로부터 동쪽 음봉산 6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위와 소나무 1그루가 대상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를 ‘고사나무’라 하여 매우 신성시하고 있다. 산제 지내는 곳을 ‘산제사터’라고 부르며 여기서 위하는 신은 산신이다.

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모든 조건이 들제사와 동일하다. 즉 제관 1명, 축관 1명, 앉은 화주 1명, 선화주 1명을 제 전날 선출한다. 예전의 경우에는 일단 제관으로 선정되면 거부를 하지 못하였으나 요즘에는 서로 제관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너무 까다롭고 힘이들기 때문이다. 한편 축문은 들제사와 산제가 서로 다른데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 축문을 구하지 못하였다.

제물 역시 들제사와 동일하나 그 중에서 황계 수탉만 올리지 않는다. 제의 경비는 예전의 경우 걸립에 의해 충당하였으나 요즘엔 마을 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한번 제를 지내는데 약 30여 만원이 소요된다. 제의 순서 역시 들제사와 거의 동일하다. 단지 소지만 더 올린다. 소지는 제관들 소지를 먼저 올린 다음 대동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먼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사고 없이 해달라고 기원한다. 만일 제를 앞 두고 마을에 초상이 나면 한달 정도 연기하여 제를 지낸다. 산제를 지낼 때에도 산에 임시로 천막을 친다. 산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산신을 잘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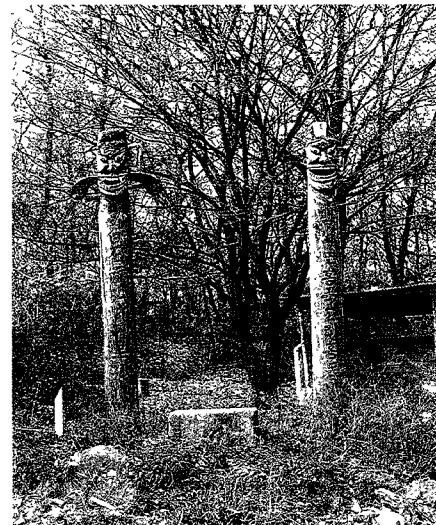


사진37 홍죽 2리 홍골 마을 장승

야 평안하다고 믿고 있다.

⑧홍죽 2리 홍죽 마을의 산제

장흥~광적간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백석면 홍죽 2리 홍골 마을이 나오는데, 도로 왼쪽 마을 입구에 홍골 마을을 알리는 남녀 장승 2기(사진 37)가 나란히 서 있다. 남장승 몸체에는 ‘백석면 홍죽 2리 홍죽 마을’이라 쓰여 있고, 여장승 몸체에는 ‘백석면 홍죽 2리 홍동 마을’이라 쓰여 있다. 장승의 크기는 높이가 310 cm, 둘레가 95cm이다. 이 장승은 마을을 알리기 위해 10여 년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세웠다고 한다. 이 장승에는 특별한 의례를 치루지 않는다. 한편 이 길을 따라 시멘트 포장길을 한참 들어가면 홍죽 2리 마을회관이 나온다. 바로 이 마을에서 매년 10월 1일 밤 11시경에 산제를 지낸다.

산제는 마을로부터 서쪽방향에 있는 마을 뒷산 월암산 3부 능선 산고사터에서 지낸다. 이곳을 ‘산제 잡솟는 곳’이라고도 한다. 제당은 자연제당으로 큰 소나무 2그루와 큰 바위가 있다. 제를 지낼 때에는 병풍을 치고 지낸다.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홍죽 마을의 산제는 산신을 위한다. 제 당일 저녁 무렵 산에 올라가서 제를 지낼 준비를 해 놓은 다음 다시 마을로 내려와 근신하고 있다가 제 지낼 시간이 되면 다시 올라가 제를 지낸다.

제를 지내는 사람으로는 제관 1명, 축관 1명, 음식 차리는 사람 3명 등 총 5명을 선출한다. 이들은 제 당일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선출하는데, 예전에는 이들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렸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제물 역시 당일에 준비한다. 제물로는 소머리 1개, 배, 사과, 대추, 밤, 메 1그릇, 팔시루떡 3말, 약주술, 초 2개, 소지 종이, 포 1개 등이 준비된다. 이들 제물들은 모두 집에서 준비하여 산에 가지고 간다. 제사비용은 제를 지낸 후 결산을 한 다음 각 호수대로 평등하게 나누어 거출한다. 한번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약 30여 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당일날 저녁 해질 무렵 제관 일행 2~3명이 산에 올라가서 주변 청소를 한다음 마을로 내려온다. 그런 다음 다시 밤 11시경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진설한다. 진설이 끝나면 헌작을 하고 이어 재배, 독축, 재배, 헌작, 재배, 소지, 음복, 헌식, 하산 순으로 이어진다. 소지는 대동 소지만 올린다. 마을로 내려오면 그날 저녁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쉬고 그 다음날 아침 제물을 차린 집으로 마을사람들이 모인다. 여기서 음복을 하면서 결산을 한다. 토박이들의 경우에는 교인들도 참여하나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잘 참여하지 않는다.

⑨홍죽 3리 천죽 마을의 산제

백석면 천죽 마을 역시 매년 음력 10월 1일 밤 9시 이후에 산제를 지낸다. 산제당은 마을로부터 서북 방향 약 400여m 정도 떨어진 마을 뒷산인 월암산 3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산제당은 넓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제당 옆에는 큰 굴참나무가 있다. 현재 산제당(사진 38)은 1996년 시멘트에 쓰레트 지붕으로 새로 지었는데, 지붕에 파란 페인트를 칠해 놓았다. 산제당 출입문은 쌍여닫이 쇠문으로 남서방향으로 나 있으며, 옆쪽으로 창문이 한개 있다. 산제당은 약 6m 정도의 정방형으로 높이는 약 340cm 정도이다. 산제당 앞에는 넓게 시멘트로 포장을 하였으며 산제당 아래에는 옛 산제당 건물을 헐어버린 흔적이 남아 있다. 옛 산제당은 나무기둥에 흙벽을 한 초가집이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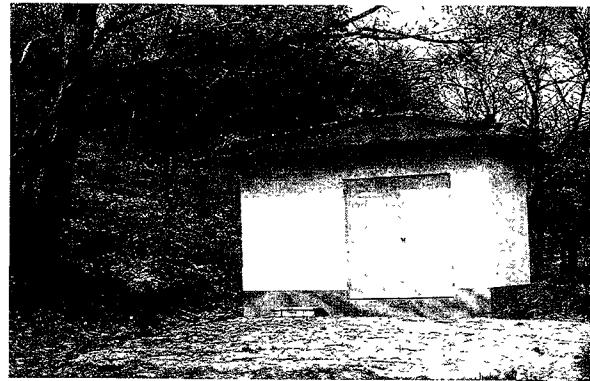


사진38 홍죽 3리 천죽 마을 산제당

런데 1950년대 중반 쓰레트로 지붕개량을 한 이후 계속 사용해 왔으나 당집이 너무 오래되어 허물어 지는 바람에 1996년 마을기금을 이용하여 산제당을 새로 지었다.

한편 천죽 마을 산제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1970년경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상수도를 놓기 위해 산제당 앞에서 폭약을 터트렸다고 한다. 그 이후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음독자살을 하는 등 자꾸 비명횡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 마을사람들은 산신이 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여 1977년 대동굿을 치루었다. 대동굿은 광적에서 초청한 박수에 의해 3일 동안 치뤄졌다. 대동굿을 치룬 후 마을이 평온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산제당이 있는 곳은 매우 영험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접근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산제당 주변에 있는 굴참나무나 화나무 가지가 떨어져도 가져다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관은 상하주 1명과 부하주 2명 등 총 3명을 선출한다. 그 중 상하주는 생기복덕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상하주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그 부인의 생기복덕도 본다. 만일 제 지내기 전에 마을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제를 연기하는데, 아이를 낳는 산부정은 3일, 사망 등 죽은 부정은 7일이 지난 다음 다시 날을 잡아 제를 지낸다. 제관 일행은 음력 9월 그믐날 저녁에 선출하는데 제관으로 선출되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대문 앞에 황토를 뿌린다. 제물 준비는 하주집 여자

들이 담당하며, 부하주 중 1명은 제물을 구입해 온다. 제당 주변 청소는 상하주가 담당한다.

제물로는 밤, 대추, 배, 콧감, 산자, 팔시루떡 3말, 메 3그릇, 포 3마리, 우족(앞다리로 삶아서) 1개, 영계(삶은 닭) 1마리, 통돼지, 조라술, 쇠고기적, 누름적, 두부적, 미쌈적(두부를 다진 다음 계란에 적셔 적을 만듬), 생간 1근, 어적 등 여러 가지 제물이 차려진다. 여기서 메는 새옹에다 짓는데, 화주들이 각자 자기의 메를 짓는다. 돼지는 내장만 꺼내고 각을 내지 않은 상태로 통째 올린다. 돼지는 낮에 상하주 집에서 잡는다. 반드시 수퇘지를 사용해야 하며 약 150근 정도로 가능한 검은 돼지를 잡는다. 술 역시 조라술로 아침에 산에다가 담궈 놓았다가 사용한다. 또한 돼지간으로 전을 붙여 제물로 올리는데, 이를 전야라고 한다. 어적은 원래 숭어로 해야 하나 요즘에는 북어로 어적을 만든다. 이외에도 예전에는 홍합, 문어 등을 제물로 올렸으나 지금은 쓰지 않는다. 이러한 제물은 의정부에 가서 사온다. 제사 경비는 약 70여 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집집마다 1만원씩(1997년의 경우) 거출하여 충당한다. 즉 제를 지낸 다음날 경비를 결산하여 분담한다음 일정액의 돈을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하면 돈을 가지고 나와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그러나 교인들은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걸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날이 어둡기 전에 산으로 올라간다. 산에 올라가 제를 지낼 때까지 산제당에서 기다린다. 제사는 산제당 안에서 치뤄진다. 제 지낼 시간이 되면 제관 일행들은 찬물로 세수를 한 다음 노구메를 짓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어 현작을 하고 독축을 한다. 독축에 이어 재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상하주가 먼저 대동 소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상하주 소지를 올린다. 이어 부하주들이 각자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철상을 하고 청소를 한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술 한잔을 뒤편에 따라 놓는다. 산에서 음복은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산에서 내려와 상하주 집에서 음복을 한다.

제를 지내고 산에서 내려오면 대략 밤 10시경이 된다. 간단하게 음복을 마치고 그날 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 다시 모여 음복을 한 다음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 집집마다 돌린다.

⑩삼하리 매내미 마을의 도당제

장흥면 삼하리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 밤 10시경에 마을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00여m 떨어진 마을 뒤에 있는 노고산 밑 재라봉 아래에서 마을 공동으로 도당제를 올린다. 한편 도당제와 더불어 2년에 한번씩 도당굿을 하였다고 한다. 도당굿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지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0여 년전에 도당굿은 사라졌다고 한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제를 지내 오기 시작한 삼하리에서는 이러한 마을 제의를 도당제라고 한다. 도당제를 지내는 장소에는 참나무 1그루와 그 위쪽으로 두껍바위가 있었는데, 이 중 두껍바위는 군인들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없애 버렸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은 신목인 참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제의 장소인 두껍바위가 있는 곳 산줄기에는 삼하리에서 장흥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해고개가 있다. 이 해고개는 도당제를 지내는 산줄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절대로 상여가 이곳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도당신의 영험이 이곳까지 뻗쳐 있기 때문이다.

삼하리 도당신의 신격은 산신으로 마을이 잘되고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한다. 특히 도당신인 산신을 비롯해 5신위를 모신다고 하는데, 나머지 신들은 그 성격이나 명칭을 잘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도당제를 지내기 위해 음력 9월 3일 조라술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각부터 일체 살생을 금해야 한다. 심지어 미꾸라지를 잡아먹어도 안되었고, 외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 잘 수도 없었다고 한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되면 제의 장소에 가지 않았지만, 스스로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꺼림칙하면 스스로 피한다고 한다. 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제관' 또는 '절하는 사람'이라 하였는데 제관과 축을 읽는 축관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관과 축

관은 제 지내기 보름 전에 대동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하는데 제관은 부정이 없고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으로 선출하고, 축관은 깨끗한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때 제의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 한다. 제의에는 제관과 각 반장 및 유지들 10여 명만이 참가한다. 제물은 제관이 차리며, 제사 비용은 호당 3,000원 정도씩 각출에 의해 충당한다. 각출에는 마을사람들 모두가 해당되나 현재 교인들은 일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제관과 축관이 정해지면 마을 입구 와 제의 장소, 그리고 제관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뿐 렸다. 그러나 요즘에는 금줄은 안치고 황토만 뿐린다고 한다. 대신 제관집에는 지금도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뿐린다고 한다.

제물로는 배, 감, 대추, 밤, 산자, 백설기 2시루, 팔 시루며 3시루, 북어 5마리, 조라술, 돼지머리(예전에 소머리를 사용했다고 함), 3가지의 탕이 준비된다. 여기서 조라술은 음력 9월 3일 항아리에 술을 담가서 도당제터에다 묻어 놓은 다음 제 당일 9월 9일날 찌꺼미를 걸려 사용하였고, 떡시루에는 각각 한 마리씩의 북어포를 올려놓는다. 3가지의 탕은 쇠고기를 사용하는 육탕(肉湯), 북어를 사용하는 어탕(魚湯), 두부를 사용하는 소탕이 있다. 이러한 모든 제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가서 사 오는데 한번 제를 지내기 위해 드는 비용은 약 30여 만원이라고 한다. 제기는 제관집의 것을 사용한다.

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제관과 축관이 결정되면 9월 3일 조라술을 담그고 마을 입구와 제의 장소, 그리고 제관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뿐린다. 그런 다음 제 지내기 2일 전에 제사 비용을 각출하여 제관에게 준다. 그러면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물을 준비한다. 낮에 제물을 준비하여 밤 9시경에 산에 올라간다. 준비해 간 제물을 진설하고 집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순서와 같이 제를 지낸다. 한편 예전에는 집집마다 소지를 올려 주었으나 지금은 올리지 않는다. 축문을 지금도 읽고 있으나 조사 당시 축문을 구할 수가 없었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 즉 밤 9시경에 제의가 시작되어 밤 11시경이면 끝난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그대로 제관집으로 내려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결산을 한다.

만일 제의 기간 중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만 참석하지 않고 제의는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요즘 급속한 사회의 변모로 도당제 역시 급속히 변모되어 가고 있다. 예전보다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삼상리에서는 도당제를 지내 오고 있다. 이러한 도당제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마을주민들은 말하였다. 특히 마을로 큰 도로가 지나갈 계획이어서 이러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⑪ 삼상리의 도당제

장흥면 삼상리에서는 2년에 한번씩 훌수 해에 마을 공동으로 도당제와 도당굿을 치른다. 그런데 도당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내 오고 있으나, 도당굿은 1975년을 마지막으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중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근래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여 1997년에는 도당제와 함께 도당굿을 치렀다. 도당굿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마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가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삼상리에서는 약 20여 년만에 도당굿을 다시 치른 것이다.

1997년 도당굿은 서울 수색에서 무업에 종사하는 박수와 그 일행인 악사들을 초청하여 하루 동안 치렸다. 그러나 1975년 이전에는 벽체에서 무업에 종사하던 ‘의지자지’라는 여자 만신을 초청하여 굿을 치렀다고 한다. 굿을 할 때에는 무당을 비롯하여 해금(깡깡이), 퍼리, 제금, 장구잡이 등 총 5~6명이 초청되어 하루 동안 굿을 하였다고 한다. 즉 삼상리에서는 도당제와 도당굿을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데 무당을 초청하여 제를 치를 때도 있으나 최근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 굿은 하지 않고 도당제만 지내 왔다고 한다. 한편 무당을 불러 도당굿을 치르더라도 마을에서는 제관을

선출하였다고 한다. 즉 도당제는 제관이 주관하였고 이어 치러지는 도당굿은 무당이 주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제물은 제관이 준비한다. 단지 무당은 굿만 진행할 뿐이다.

도당제는 예전부터 항상 음력 9월 9일에 지낸다. 그런데 삼상리의 동제계 장부⁶⁾를 살펴보면 1977년의 경우에는 10월 9일 도당제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79년에는 음력 10월 1일에 도당제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속 2회에 걸쳐 9월 9일이 아닌 다른 날에 제를 지내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마을 이장이 마을 형편에 따라 제의 날짜를 새로 잡아 지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이후로는 어김없이 해마다 9월 9일에 도당제를 모시고 있다.

제의 명칭도 마을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당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동제계 장부를 보면 그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대동산치성(大同山致誠), 도당치성(都堂致誠), 산치성(山致誠), 당산제, 도당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도당제는 삼상리 배울 마을에 있는 행주 장씨 소유의 야산에서 치러진다. 일제시대 때에는 도당제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삼상리에서는 계속 지내 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사람 중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제관인 상하주[또는 都有司]와 중하주[副有司]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를 주관하게 하였다고 하나, 근래에는 삼상리 동제계 규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 이장이 도유사가 되고 반장들이 부유사가 되어 제를 주관한다. 이를 제관은 음력 9월 1일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제물 중 아홉 시루의 떡과 조라미는 10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맡긴다. 이를 역시 재수가 좋은 사람으로 선정한다. 또한 예전에는 제 당일인 9월 9일 소를 잡아 제를 지낸 후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밀도살을 하지 못하게 한 이후부터 소며

리나 우족 등을 사다가 제를 지내고 있다. 제사 비용은 마을사람들이 조금씩 거출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는데, 돈이나 쌀로 낸다. 조라술은 9월 1일 마을 회의가 끝난 후 제사 지내는 곳에다 담궈 놓았다가 제사 당일에 꺼내어 사용한다. 제의는 당일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어 밤 11시경이 되어야 끝난다. 도당제를 지내는 시간은 저녁 8시경이다. 축문을 읽으며, 소지도 올려 준다. 소지는 제사 비용을 낸 사람은 모두 올려 준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삼상리 동제계 장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3년 계해 9월 9일, 영구보존건(永久保存件)으로 작성된 강릉면 삼상리 「산치성 절차초(山致誠 節次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山告祀 祝文

維 歲次 癸亥 九月 丁卯 朔 九日 乙亥 三上里民
代表 幼學 ○○○ 敢昭告于

日迎峰駱山 陶堂山神靈 伏以今當 九秋佳節 里
民一同 百家集誠 例年準禮 謹以酒果珍羞

茲以虔告 神其保佑 洞中泰平 殺無後艱 伏以願
祇薦于 神尙饗

□ 제례 순서

1. 집례(현관 이하 참사한 리민 전원 배례, 참신, 사신) : 강신
2. 초헌관: 고윤식
3. 대축관(축관은 초헌관 좌편 동향에서 고축함)
4. 아헌관: 이상운
5. 종헌관: 임세창
 - 집사 2인 : 좌집사 - 고경석, 우집사 - 장석문
 - 봉작(爵) : 고석화
 - 찬의(제사 절차를 총 지휘함) : 김을준

6) 삼상리에는 도당제와 관련하여 제를 지내기 위해 거출한 수입부 및 지출부, 그리고 제의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 동제계 장부가 전하고 있다. 이 장부는 1977년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77年 三上里大同山致誠 支出 및 決算部 및 收入部’, ‘1979年 三上里大同山致誠 收入部’, ‘1983年 陶堂致誠 支出記 및 收入記’, ‘1983年 山致誠 節次抄’, ‘1989年 陶堂致誠 收入記 및 상차림도’, ‘1993年 당산제 支出記 및 收入記’, ‘1995년 도당제 支出記 및 收入記’ 등이다.

□ 규약

1. 도유사는 치성의 모든 절차를 총지휘한다.
2. 도유사는 이장으로 자동 취임한다.
3. 부유사는 각 반장으로 한다.
4. 도유사, 부유사는 치성에 필요한 성금, 미 거출, 제수의 마련은 물론 치성 당일은 오전부터 오후 11시 치성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행사를 거행키로 한다.

□ 제 수 규정

1. 9월 1일은 도유사 및 부유사와 삼상리 거주 유지 노인이 모여 치성에 대한 준비회담을 한다.
2. 당일 조라미는 도유사가 선정하여 마련토록 한다 (조라미는 9월 3일에 당산에 독을 묻고 빛어 넣는다).
3. 당상제물기
 - 성주시루 3되 • 구능도당시루 3되 • 호구시루 3되
 - 대감시루 3되 • 호서낭시루 2되 • 안시루 2되
 - 백편당편 2되 • 백설기시루 2되 • 웃끼 찹쌀 5합
 - 소머리 1개 • 우족 2개 • 전육 2근
 - 생닭 1마리 • 배 10개 • 사과 10개
 - 감 10개 • 밤 5합 • 대추 5합
 - 산자 2봉 • 사고지 20권 • 창호지 5장
 - 옥춘 2봉 • 약과 3봉 • 북어 10마리
 - 만수향 1갑 • 양초 2갑
 - 기타 준비 사항 : 전기기설, 천막, 장작 및 모닥불, 공석 준비.

마지막으로 1977년부터 1995년까지 도당제를 지내기 위해 거출된 수입 내력 및 지출 내력을 통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삼상리의 경우 제사 비용을 성금이나 백미로 각자 자기 성의껏 내고 있는데, 1977년의 경우에는 총 153명의 마을사람들로부터 백미 2섬과 현금 13만원을 거출하였다. 이 중 백미 2섬

을 매각한 금액 4만 6,000원을 현금과 합하니 총 수입 금액은 17만 6,000원이 되었다. 이 돈으로 각종 제물을 구입하고 사례금을 지불하였는데 그 지출 금액은 총 16만 1,000원이다. 사례금은 총 지출액 중 8만 5,000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77년의 경우 1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이월되었다. 이 당시 성금은 500원에서부터 2,00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내고 있는데, 대부분 1,000원씩 내었고, 1,500원을 낸 사람들도 몇 명 보인다. 그리고 의정부에 사는 고석천(2,000원), 고덕재(500원), 고석환(1,000원) 등 3명이 성금을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고향이 삼상리라고 한다. 백미는 보통 1되에서 많이는 3되까지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백미 역시 보통 1되씩 낸 사람이 가장 많다.

그런데 1979년에는 일률적으로 백미 1되 5합에 성금 1,000원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몇몇 사람들은 이보다 적게 낸 경우도 있고, 좀 더 많이 낸 경우도 있다. 따라서 1979년에는 총 144명의 주민들이 거출한 성금 14만 2,000원과 백미를 판 돈 9만 9,000원을 합해 총 24만 1,000원이 모아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기록은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한편 1983년에는 총 136명이 백미 1되와 성금 2,000원씩을 거의 일률적으로 내어 백미 128되 5합과 성금 26만원을 모아 제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 제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29만 350원으로, 성금으로 걷힌 돈 26만원을 제하면 3만 350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1981년 도당제를 지내고 남은 백미 80되와 1983년에 걷힌 백미 128되를 합하여 환전하니 8만 8,000원이 되었다. 이 돈으로 부족액 3만 350원을 충당하니 잔액 5만 7,000원이 남아 “도유사에게 보관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1989년에는 제비 거출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총 69명의 주민들이 성금 2,000원 또는 3,000원, 많게는 6,000원까지 다양하게 거출함으로써 총 15만원이 모아졌고, 백미도 내고 싶은 사람에 한해 1되 또는 2되 정도를 내어 총 49되

가 모아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때 역시 지출 내역은 나와 있지 않다.

1993년에는 기구당 1만원씩을 거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67명의 명단만이 남아 있다. 이 명단 중 배울 사람들이 45명이며, 장포동이 2명, 정자동이 2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총 수입액은 삼상 1리에서 62만 6,000원이 걷혔고, 삼상 2리에서는 50만원이 걷혀 총 112만 6,000원이 모아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제사 비용으로 88만 4,340원이 지출되었고, 또한 배울에 15만원을 환원해 줌으로써 9만 1,660원이 잔액으로 남아 이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5년의 경우 삼상 1리에서 70만원, 삼상 2리에서 75만원이 거출되어 총 145만원이 모아졌고 이 중 제사 비용으로 123만 7,000원을 지출하여 21만 3,000원이 남았다. 그런데 삼상 1리 배울에서는 49명이 참여하였고, 정자동에서는 21명이 참여하여 총 7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삼상 2리는 그 현황을 알 수 없다. 역시 1995년에도 각 호당 1만원씩 일률적으로 거출하였다고 한다.

⑪교현리의 산신제와 장승

• 산신제

장흥면 교현리에서는 매년 음력 9월 초하룻날 좋은 날을 받아 음력 9월 3일 안으로 마을 뒷산인 응달산 아래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즉 날을 받은 그 다음날이 나 아니면 이를 안으로 산신제가 치러진다. 그런데 예전에는 산신제를 3월초와 9월초 2회에 걸쳐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약 15년 전쯤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간소화되어 3월 산신제는 없어지고 지금은 9월 산신제만 지내고 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제의를 산신제라고 하며, 제의 장소를 산신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산신당에는 일정한 형태의 당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큰 소나무 2그루가 있어 여기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제관이라 부른다. 제관은 생기복덕을 보아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으로 선출하는데, 예전에는 제관과 함께 축관도 선출하였다고 한다.

즉 예전에는 축문을 독축하였으나, 한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축문을 쓸 사람도 없고 해서 지금은 독축을 하는 대신 소지를 올리면서 덕담만 한다. 즉 “교현리 주민 총 몇 호 1년 열두달 무사태평하게 해 달라.”고 축원한다. 소지는 대동 소지만을 올려 준다.

제의는 밤 9시경에 산제당으로 올라가서 밤 12시경에 제를 지내고 새벽 동이 틀 무렵에 산에서 내려온다. 산신제에는 현재 제관을 비롯하여 15~20여 명 정도의 마을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지내는데, 10여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짐꾼만 12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것이 간소화되어 적은 인원이 올라가 그들만 음복하고 내려온다고 한다. 교현리의 산신제에서는 삼각산 산신령을 위하고 있다. 따라서 제물을 진설한 다음 삼각산 산신령께 리민 무사태평하게 해 달라고 진혼을 하면서 절을 하고 술을 봇는다. 그런 다음 소지를 올리고 음복을 한다. 음복은 10여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수대로 제물을 나누어 집집마다 돌려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산신제를 지내려 간 사람들끼리 만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옛날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제사 음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제물은 곶감, 대추 등 과일 5가지와 떡 2시루(예전에는 여러 종류의 떡시루를 준비하였다). 소머리 1개, 누름적, 쇠고기적, 돼지고기적 등 일반 기제사에서 차리는 제물과 유사하게 준비한다. 이외에도 조라술이라 하여 술을 산제당에서 담근다. 즉 제사 날짜를 잡는 9월 1일 제관이 산에다가 술을 해 놓는다. 그런 다음 제사 당일 제를 지내려 산에 올라가서 조라술을 걸러 제주로 사용한다. 한편 제물을 만들 때에는 절대로 음식의 맛을 볼 수 없다. 물론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는 절대로 제물에 손을 댈 수도 없다. 반드시 산신제를 지낸 후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정성을 드려야 한다. 제물을 차릴 때에는 마을의 깨끗한 여자들이 모두 제물 차리는 집으로 모여 서로 도와준다.

제사 비용은 마을사람들로부터 돈을 거출하여 충당

한다. 한번 제를 지내는데 내는 비용은 호당 약 3,000 원 정도로 이 돈으로 제물 준비 등 일체의 경비를 충당 한다. 만약 제를 지낸 후 경비가 남으면 제물을 준비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고, 부족하면 마을 기금으로 충당 한다고 한다. 제물은 추진 위원과 마을 이장이 제관을 도와 준비한다. 교현리는 마을 개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군인 가족들도 원하는 경우에는 산신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들 군인 가족들은 산신제에 큰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제사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 그러나 교인들은 마을일이기 때문에 직접 제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제비만큼은 잘 낸다.

• 장승

교현리 장승은 이안동 마을 뒤쪽 밭둑 숲 속에 위치해 있다. 이 장승은 1997년 6월 29일 세워진 장승으로 남녀 한 쌍의 나무 장승(사진 39)이 나란히 마을을 굽어보고 서 있다. 원래부터 이곳에 장승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및 대형 철탑이 이곳 북한산 줄기를 타고 지나감에 따른 자연 파괴가 예상되어 자연보호 환경 단체인 우이령 보존회와 교현리 주민 대책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나무 장승 2기를 세우고 하루 동안 나라굿을 펼쳤다고 한다. 즉 고속도로 및 철탑 등을 건설함으로써 자연이 파손되고 그로 인해 삼각산의 산신령이 노해 삼각산을 떠나 파주에 있는 감악산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곳에 장승을 세우고 진혼제를 지내야 한다 하여 이런 행사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큰무당들을 불러 하루 동안 크게 나라굿을 치렀다는 것이다.

장승은 나무 장승으로 총 2기가 나란히 서 있다.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에 남장승인 천하대장군이 서 있고, 그로부터 약 180cm 정도 떨어진 왼쪽에 여장승인 지하여장군이 서 있다. 장승의 둘레는 130cm이고 높이는 300cm로 그 크기가 매우 크다. 남녀 장승의 크기는 동일하다. 천하대장군에는 파란 띠에 현납속이 걸려 있고, 지하여장군에는 빨간 띠에 형겼으로 된 현납



사진39 교현리 장승

속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는 오색끈으로 장승과 인근에 있는 소나무를 연결시켜 놓았다.

⑬ 울대 1리의 산신제와 기우제

• 산신제

장흥면 울대 1리에서는 매년 음력 3월초와 9월초로 날을 받아서 두 차례씩 산신제를 지낸다. 제사 날짜는 2월 그믐께와 8월 그믐께에 받는데, 화주 모시는 사람의 생년월일을 보아 날을 받는다. 여기서 화주란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한 명을 선출하는데, 화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집안에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에 맞아야 한다. 화주 이외에도 축관 한 명을 생기복덕을 보아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화주와 축관이 선정되고 제삿날이 정해지면 우선 화주집 대문과 당집에 원 새끼줄로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또한 일단 제삿날이 정해지면 마을사람들은 마을 밖에 나가서 자지도 못하고 손톱이나 발톱도 깍지 않는다. 심지어 제사 지내기 위해 준비한 쌀뜨물조차 제 지내기 전에 소에게 먹이면 소의 눈이 먼다고 한다. 이처럼 울대 1리의 산신은 영험하다고 한다.

제물로는 팔시루며 1시루와 절편, 산적, 편, 삼색실과, 소머리, 북어, 국수 1그릇, 조라술 등이 준비되었는데, 예전에는 소머리 대신 산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아 제를 지냈다고 한다. 제를 지내고 남은 고기는 마을사

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위낙 경비가 많이 들고 밀도살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소를 잡는 대신 상징적으로 소머리 1개를 사다가 제를 지내 오고 있다. 조라술은 제 지내기 전에 당집 옆에다 미리 담궈 놓았다가 제 당일에 걸러서 바친다. 그런데 조라술의 영험과 관련하여 울대 1리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군인이 당집 옆에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담궈 놓은 술을 몰래 꺼내어 마시고 그 이후 그 군인은 미쳐 버렸다고 한다. 아무리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해도 낫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느 무당에게 물으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울대 1리 당집에 묻어 놓은 조라술을 몰래 꺼내 마셔서 오봉산 산신령님이 노해서 미친 것인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굿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군인 어머니는 무당을 데리고 와 울대 1리 당집에서 굿을 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그 군인은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대 1리 산신제에서는 마을 남쪽에 있는 오봉산 산신령님을 위하고 있다. 그런데 오봉산 산신령님이란 산신 할아버지와 산신 할머니를 일컫는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는 울대 1리의 당집 안에 산신 할아버지와 산신 할머니의 화상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젠가 도난을 당하여 현재는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산신 당 안에는 제상과 제기만 보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울대 1리 주민들은 산신령님께 마을이 아무 털없이 편안하고 산짐승의 피해를 막아 주며 풍년이 들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따라서 한 해도 산신제를 안 지낸 적이 없다. 그리고 산신제를 지냄으로써 좋은 일이 있었으면 있었지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마을 동쪽 갓바위 아래 야산 정상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산제당(사진 40)이 있다. 산제당을 마을에서는 주로 도당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 산신제를 지낸다. 도당 옆에는 오래된 아름드리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다. 도당은 목재에 2칸으로 된 기와집이었으나 현재는 붉은색 기와 지붕에 시멘트로 벽을 칠해 놓았다. 그러나 건물의 골격은 예전 그대로라고 한다.



사진40 울대 1리 산제당

한편 산신제와 함께 울대 1리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만신들을 데려다가 큰굿을 치렀다고 한다. 봄·가을 중 한번만 굿을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큰 만신 10여 명이 와서 굿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의정부 만신 중 울대 1리에서 주로 굿을 담당한 만신은 의정부에 사는 바위네와 그 일행이었다. 굿은 2일 동안 계속하여 밤낮 없이 치렀는데 이러한 굿을 산신굿이라고 한다. 굿을 할 때에도 마을에서는 화주나 축관을 선출하여 산신제는 산신제대로 지냈다.

제사 비용은 집집마다 각각에 의해 충당하였다. 충경비를 계산한 다음 가구 수대로 나누어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여 집집마다 걷는다. 다른 세금은 안내도 산제사 경비는 즉시 낸다고 한다. 울대 1리 쌍용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도 산신제에는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도 산제사 경비를 내고 있다. 물론 교인들도 산제사 경비를 낸다. 이러한 제사 비용은 한번 제를 지내는데 수십만원씩 소요된다.

제의 절차는 일반 유교식 제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마을 역시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리는데 축문은 구할 수 없었다. 축문의 내용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에 따라 축문 내용이 조금씩 변한다고 한다. 즉 덕담하는 식으로 축을 읽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다. 소지는 화주와 축관 소지를 먼저 올린 다음 대동 소지를 올린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음복을 하는데, 음복은 도당에서만 하고 마을에 내려와서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산신제가 끝나고 음복을 하

면서 조그만 봉지에 떡 등의 제물을 가구 수대로 담아 나누어준다. 따라서 모든 마을사람들이 부정하지만 않으면 산신제를 지내려 간다. 심지어 여자들도 깨끗한 사람은 모두 참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깨끗한 사람의 기준이 있다. 즉 제 당일 아침에 이를 닦아서 피가 안 나면 제를 지내려 갔다고 한다.

• 기우제

울대 1리 운경공원 묘지 뒤쪽에는 10여 평 남짓한 용못이 있다. 용못 아래에는 이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7평 정도의 곰소와 가마소가 있다. 용못은 산 위에 있는 연못으로 옛날 용이 승천했다고 하여 이곳을 용못 또는 용못골이라고도 부른다. 이 용못은 산 위에 있지만 그 깊이가 매우 깊어 명주실 한 꾸러미에 돌을 매달아 못 속에 넣어도 땅 끝이 안 닿는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매워졌다. 그래도 아직 사람 키의 몇 배는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깊고 마르지 않아 예전에 이곳에서는 날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면 그 즉시 천둥벼락과 함께 비가 내려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올 때는 비를 맞고 내려왔다고 한다. 이러한 기우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전에 지낸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한번도 기우제를 지낸 적이 없다. 기우제는 봄에 비를 기다리다 안 오면 하지 지나서 지낸다. 하지 이전에는 절대로 안 지낸다고 한다. 기우제는 유교식 제례와 똑같이 메와 소머리, 그리고 삼색실과 등을 차려 놓고 기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이 지낸다. 이때 축문도 읽는다고 한다.

⑭ 울대 2리의 산신제

장흥면 울대 2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초로 날을 받아 마을 동쪽에 있는 태봉(예전에 태를 묻었던 곳이라고 함) 밑 바위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제의 날짜는 보통 제 지내기 1주일 전쯤에 받는데, 이때 제주도 함께 선정한다. 산신제는 총 2곳에서 지낸다. 태봉 아래 5개의 조그만 바위가 있는 곳과 바위 바로 위쪽 등 2곳에서 지내는데 바위 위쪽에서 지내는 제의를 윗산신제라 하고 5개의 조그만 바위가 있는 곳에서 지내는

제의를 아랫산신제라고 부른다. 윗산신제는 제물의 종류와 양을 많이 차리는 반면에 아랫산신제에서는 메나나물류 등은 진설하지 않는다. 즉 윗산신제보다는 아랫산신제가 보다 간소하게 치러진다.

제의는 저녁 10시경에 지낸다. 산제를 지내려 갈 때에는 횃불을 들고 올라가 지낸다. 부정한 사람은 제를 지내려 갈 수 없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제의는 제주 한 사람이 주관한다. 제주는 제물 장만을 비롯해 산신제 일체를 주관한다. 따라서 제주는 아무 탈이 없어야 한다. 소지는 집집마다 모두 올리는데 창호지에 자기 식구 이름을 모두 쓴 다음 각자가 알아서 자기집 소지를 올린다. 이러한 소지는 원래 본인이 올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만일 집에 부정한 일이 있어 제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웃 사람이 대신 소지를 올려 준다.

제비는 예전의 경우 쌀 등 곡물로 거출하였으나 요즘에는 5,000원 미만의 돈을 거출하여 충당하는데 대개 1,000원 정도씩 낸다. 이러한 제비는 송추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낸다고 한다. 제물은 삼색파실, 북어, 산적, 소머리, 메 2그릇, 백설기 1시루, 팔시루떡 1시루, 각종 나물류, 조라술 등을 준비한다. 여기서 조라술은 제 전날 항아리에 담궈 산에 갔다 묻어 놓았다가 제 지내기 바로 직전 꺼내어 사용한다. 그리고 소머리는 예전에만 썼고 지금은 쓰지 않는다. 또한 백설기는 윗산신제에서 사용하고 팔시루떡은 아랫산신제에서 사용한다. 아랫산신제의 경우 메와 나물류는 올리지 않는다. 팔시루떡과 산적, 북어, 조라술, 과일, 촛불 등만 간단하게 차려 놓고 지낸다. 대신 윗산신제의 경우 아랫산신제의 제물과 거의 비슷하나 메와 나물류 등을 더 차려 놓는다. 그리고 그 양에 있어서도 아랫산신제보다 더 많이 준비한다. 즉 울대 2리에서는 윗산신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제의가 끝나면 예전의 경우 제물을 싸서 마을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제를 지내려 올라간 사람들끼리 나누어 음복을 하는 것으로 끝낸다.

제의 목적은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서이다. 따라서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눈을 쓸고 가서 제를 지낸다. 한편 예전에는 제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 와 제물이나 제의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규모가 간소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⑯ 유양리 마을의 산고사와 도당굿

• 산고사

주내면 유양리에서는 매년 음력 8월 3일 밤 12시경에 마을로부터 북쪽으로 약 1.5km정도 떨어진 불곡산 8부 능선에 위치한 산고사터에서 산고사를 지낸다. 산고사 터에는 약 500여 년 된 당수나무 1그루가 있다. 산고사를 산제사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곳에 산제당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맞아 산제당이 소실된 것을 이후 마을주민들이 새로 건립하였으나 다시 미군들이 불을 질러 태워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터에서 산고사를 지내고 있다. 그 대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제당일 산고사 터에 천막을 치고 제를 지낸다. 한편 소실된 산제당의 형태를 살펴보면 토담에 초가집으로 매년 가을에 지붕을 새로 교체했다고 한다.

산제당 안에는 각종 제기와 제사 기물들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산제당이 소실되면서 지금은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다. 산고사를 지내는 횟수도 한국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음력으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냈다고 한다.

유양리 산고사에서 위하는 신은 산신으로 남자신이다. 즉 남자신은 산고사를 잡듯고 여자신은 도당굿에서 위해진다. 산고사는 남자들에 의해 치루어진다. 산고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부정이 없고 정갈한 사람으로 생기복덕을 보아 제관 2명과 축관 1명을 선출한다. 제관은 가능한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제관 중 1명은 이장이 담당한다. 따라서 만일 이장에게 부정한 일이 생기면 한달 정도 제를 연기한다. 제관을 초현관, 아현관, 종현관이라 부르며, 이장은 종현관이 된다. 제관들은 바지·저고리에 흰두루마기를 입고 제를 지낸다. 한편 산고사 터 옆에는 조

그만 샘이 있다. 이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관 중 한 사람이라도 개고기를 먹거나, 부부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일을 하고 제를 지내려 가면 그 샘이 갑자기 말라버린다는 것이다. 산고사에는 제관과 축관 이외에도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산고사에 올리는 제물로는 조라술, 황소머리 1개(예전에는 소머리 대신 돼지를 산채로 산에 가지고 가서 잡은 다음 제물로 사용하였다고 함), 은행·밤·잣·호두 각각 2되, 무 3개, 두부 3모, 통북어 8개, 소금 1되, 밀가루 풀 1사발, 메 등이 준비된다. 이러한 제물은 이장과 마을 총무가 의정부 시장에 가서 구입한다. 제사비용은 걸립에 의해 충당하는데, 각 반별로 반장들이 책임을 지고 집집마다 3,000원씩 거출한다. 그러나 교인들과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걸립에 참여하지 않는다. 걸립을 하는데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산고사를 지낸다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걸립에 참여한다. 보통 1년에 40여 만원 정도 거친다고 한다.

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제 당일 아침 9시경 제관 일행은 산고사 터로 올라가서 우물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런 다음 제관 일행들은 가지고 간 쌀로 밥을 해먹으면서 산에서 제가 끝날때까지 내려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녁 무렵 마을사람들은 준비된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제의는 밤 12시경에 시작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물을 진설하는데 제물은 모두 도토리 잎을 따서 그 위에다 놓는다. 특히 메는 도토리 나뭇잎 3개를 따서 각각 한숟가락씩 메를 떠 놓는다. 이러한 제물들은 밤새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 촛불 2개도 밤새 타도록 그대로 둔다. 그러면 밤새 들짐승들이 제물을 모두 먹어 치운다고 한다.

제사는 두 곳에서 지낸다. 산고사 터 바로 위에 있는 큰 바위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당수나무가 있는 산고사 터에서 지낸다. 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물을 진설하고 나면 초현관, 아현관, 독축(이때 일제히 재배), 종현관, 마을사람들 재배, 소지, 상 물림, 소머리 삶기, 반기, 하산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소

지가 끝나면 약 30분 정도 제물을 그대로 놔 두었다가 상을 물린다. 상을 물린 다음에는 소머리를 삶는데, 약 3~4시간 정도 삶는다. 한편 반기란 제물을 조금씩 싸서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물을 비닐봉투에 조금씩 담아 다음날 아침 집집마다 전달해 준다. 한편 소지는 이장이 먼저 남북평화통일 기원 소지를 올린다. 이어 대통령과 백성의 안녕 소지를 올리고 유양리 주민 소지를 올린다. 그런 다음 각자 개인 소지를 올린다. 음복은 소머리를 삶기 바로 직전에 실시한다. 모든 제의가 끝나고 아침 해가 뜨면 산고사 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제관 일행들은 하산을 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운다. 이 불을 황당불이라고 하는데 산불 위험 때문에 미리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1997년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원래 지내던 산고사 터에서 제를 지내지 못하고 장소를 옮겨 마을에 있는 동현터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4일만에 이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를 두고 마을사람들은 산고사를 잘못 지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山祭 祝文

維 歲次 丁丑 八月 己酉 朔 三日 初獻 通政 亞獻
通政 終獻 通政 敢昭告于

拂國山王大神 至公至察 紫山黃野 五穀 登 府近
衆生 無由安過 雨順風調

始終如一 無災收穫 南北統一 平和建設 祭基至
誠 奉獻 謹以清酌 脣醴祇薦

于神 尚饗

• 도당굿

유양리에서는 대개 음력으로 3월경 길일을 택해서 도당굿을 실시한다. 산고사와는 달리 도당굿은 만신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듈다. 교인을 제외하고는 자기 성의껏 몇만원씩 기금으로 내 놓는다. 굿

을 하는데 드는 경비는 약 300여 만원으로 이장과 굿을 진행하는 부녀회원 4명이 경비를 거출한다. 도당굿은 산고사와는 달리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 이장과 함께 걷은 경비는 굿을 진행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 만신에게 넘겨진다. 도당굿을 주관하는 만신은 유양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정점례(45세)로 도당굿을 도맡아 한다. 그러면 정만신은 그 돈으로 각종 제물과 제반 경비를 총당한다. 굿은 정만신이 직접 하지 않고 서울이나 의정부 등지에서 큰 만신 4~5명을 초청하여 굿을 한다. 이들 중 호적수는 항상 따라오나 깽깽이는 올 때도 있고 오지 않을 때도 있다.

도당굿은 마을회관으로부터 약 500여 미터 떨어진 초등학교 뒤편 ‘국수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치뤄진다. 예전에는 이곳에 당집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당집이 없다. 또한 예전에는 매년 도당굿을 치루었다고 하나 약 15년 전부터는 많은 경비 때문에 3년에 한번씩 도당굿을 치루고 있다. 1997년에 도당굿을 치루었다. 도당굿은 하루굿을 하는데 점심 때부터 시작하여 밤 10시경이면 끝난다. 도당굿을 하는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고 나쁜 악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이다. 굿거리는 대개 불사거리, 삼거리, 대감놀이, 조상거리, 서낭굿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⑯회정 1리 평촌 마을의 산신제

회천읍 회정 1리는 별말, 과골, 새골 등 3개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옛날부터 이 3개 마을은 같은 마을로 산신제를 함께 지내오고 있다. “산치성 받친다.”라고도 부르는 평촌 마을의 산신제는 매년 음력 정월 동짓날 초하룻날 날을 받아 동짓날 초순(5일 이내)에 제를 지낸다. 그러나 날을 받은 후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그 해는 제를 지내지 않는다. 심지어 길에 쥐가 죽어있는 모습만 보아도 제를 지내지 않는다. 아무튼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산신을 위하는 평촌동의 산신제는 마을로부터 서쪽 약 1.5km정도 떨어진 과골안 산등성이에서 지낸다. 제당에는 바위와 우물이 있다.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는 화주 1명, 축관 1명을

선출한다. 화주는 제물을 차리는 것은 물론 제의 일체를 주관한다. 한편 이러한 제의는 약 30여 년전부터 마을 청년회에서 주관 하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중계가 있어 여기에서 산신제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제사 경비도 한국전쟁 이전에는 대개 쌀 1되씩 을 집집마다 거출하여 충당하였으나 지금은 마을 청년 회 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제물은 다른 마을에 비해 아주 성대하게 차려진다. 평촌동 산신제 물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국수) 1봉, 양초 2개, 창호지 2장, 소지(창오지) 1권, 다시마 1오리, 산자 1첩시, 깍지 않은 배·사과·감 각각 5개, 생밤 5홉, 대추 3홉, 북어(탕에 1마리, 산에서 1마리) 2마리, 문어 1오리, 대구포 1마리, 북어포 1마리, 소간·천엽을 합해서 1근, 쇠고기 적 1근, 계란 10개, 수탉(익힌 것) 1마리, 우죽 1개, 치자 약간, 흥합 3개, 해삼 1첩시, 녹두(누름적과 갈납용) 5홉, 두부(소적과 당용 2모, 제물용 1모) 3모, 3탕, 찹쌀(침병 만들 것) 5홉, 술(탁주) 1병, 쌀(백설기용) 3되 3홉, 건전지(6V용) 1개, 면수건 1개 등이 필요하다. 이들 제물 중 떡은 바위 위에 차려놓고 다른 제물들은 세상을 가지고 가서 병풍을 친 다음 상 위에 차려 놓는다. 그리고 조라술은 1일 날을 받으면 아침을 먹은 다음 산에다가 해 놓는다. 즉 화주가 땅을 파고 조라 단지를 묻은 다음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 다시 짚을 덮어 놓는다. 또한 다른 제물들은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가나 메만큼은 산에 가서 짓는다. 한편 제물을 만들면서 나온 쌀뜨물은 제의가 끝나기 전에는 소에게 줄 수 없다. 반드시 제가 끝난 다음에 소에게 먹여야 한다.

제물은 제 당일날 화주가 구입하는데, 예전에는 덕정장에 가서 했으나 요즘에는 의정부로 나가 구입한다. 또한 예전에는 제의가 끝난 후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고 하나 요즘에는 잘 먹지 않는다. 제기는 화주집의 것을 사용한다. 한편 제당 주변과 우물 청소는 조라술 담그러 가는 초하룻날 이루어진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저녁 8시경에 산신제를 지내 러 산에 올라간다. 산에 올라가면 떼를 짓는 등 제 지

낼 준비를 한 다음 밤 10시경에 제를 지낸다. 우선 제물을 진설하고 헌작한 다음 재배하고 독축을 한다. 이어 재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대동 소지, 화주소지, 축관 소지 순으로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북어 1마리와 떡을 조금씩 산제당에 떼어 놓는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산에서 내려와 화주집에서 술 한잔씩을 간단하게 먹은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한편 예전에는 마을 어른들을 다음날 오라 하여 음복을 하고 결산을 하였으나 지금은 음복을 하지 않는다.

산신제에는 부정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대개 7~8명 정도 제를 지내려 간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은 제물을 지고 가는 사람,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 병풍을 잡아 주는 사람(제의 장소가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 병풍을 쳐야 한다) 등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신제는 한국전쟁 때 잠시 중단된 적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고 있다. 특히 어른들이 예로부터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 교인들은 참여 하자는 않으나 외지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은 제의에 참여한다.

山神祭 祝文

維 歲次 ○○九月 ○○ 朔 ○ 日幼學 ○○○ 敢昭告于

之靈維

靈陳此下 土監我 民生降伏 孔嘉日雨 卽雨 求晴得晴 稗稷麥稻

百穀用成 褒患 疾病 永永削除 家家和樂 人人平康 惟靈之賜謹以

玄酒持性 陣此奠儀尙 饗

(2)개인 및 가정신앙

①성주

성주는 집 안에서 모시는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신이다. 대개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좋

은 날을 받아 성주를 모신다. 지금은 성주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성주를 모셨다고 한다. 성주는 보통 마루나 대청마루 중앙 대들보 위에 모신다. 모시는 형태는 대개 한지를 접어서 그 안에 곡식을 넣은 다음 명주실로 묶어 놓는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모두 성주 탓으로 돌렸다.

한편 성주를 모실 때에는 무당을 불러서 성주굿이나 성주 고사를 하였다. 성주굿은 먼저 장독대에 가서 터주굿을 한 다음 부엌으로 가서 조왕굿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주굿을 한다. 그러나 성주굿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다음 성주를 새로 모시고자 할 때 주로 하였다. 보통 가을에 추수를 마친 후 햅곡식으로 가을 떡을 해 놓고 북어와 막걸리, 산적(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등의 제물을 차려 놓고 성주 앞에서 비손 한다. 주로 부녀자들이 하는데 10월 상달 중 좋은 날로 잡는다. 돼지날(亥日)이 성주를 모시는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한다.

새로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성주를 모신다. 성주는 상량식 하는 날 모신다. 성주는 대주(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성주를 만들어 북어 한 마리를 매달아 대들보에 걸어 놓는다. 그런데 만약 세 대주가 죽으면 원래 성주는 없애고 장남이 성주를 이어받아 다시 모신다. 성주를 없앨 때에는 성주에 들어 있던 묵은 쌀을 꺼내어 반드시 떡을 해 먹고 쌀을 쌌던 종이는 불 태워 버린다.

②터주

터주는 집터를 지키는 신으로 장독대나 뒤뜰에 모신다. 가을걷이를 한 후에 햅곡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타작한 좋은 나락(벼)을 단지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젊으로 주저리를 틀어 터주가리를 만들어 모신다. 터주 중간 주저리에는 문종이를 접어서 새끼줄로 묶어 놓는데 이를 “예단 드린다.”고 한다. 터주가리는 1년에 한번씩 바꾸는데, 터주에는 나락을 주로 넣어 두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쌀을 넣기도 하였다. 현 젊 주저리는 마당에서 불을 놓아 태운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에는 터주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다시 모셔 놓는다.

우리 조상들은 집 안의 동·서·남·북·중앙 등 다섯 방위에 각각 다섯의 신이 있다고 믿었다. 그 중, 터주는 다섯 신 가운데 북쪽의 신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터주는 북으로부터 시작된다. 터주에는 항상 터주항아리 놓는 돌과 떡시루 놓는 돌 두 개를 놓는다. 그 이유는 집 안 고사 후 항상 터주에게 먼저 봉양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터주항아리를 다시 위할 때는 그 속에 들어 있던 쌀로 떡을 해 먹는다. 가을에 고사떡을 하면 반드시 터주에 갔다 놓고 위한다. 요즘도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난 후 햅곡식으로 시루떡을 찌어 그것을 먹기 전에 장독대에 시루채 갔다 놓고 터를 위한다. 터주 고사를 지낼 때에는 팔시루떡과 북어, 막걸리 등을 차려 놓고 터주를 모시는데, 막걸리가 없으면 냉수를 대신 떠놓고 지낸다. 만신이 와서 터주고사를 할 때는 삼색실과 등 각종 제물을 고루고루 차려 놓고 지낸다. 성주나 터주, 조왕, 업, 대감, 칠성 등 집에서 모시는 신들은 모두 하루에 다 모신다.

주내면 유양리 홍순일(73세) 집의 경우 조그만 바위가 1개가 있는 앞마당 밤나무 아래에 터주가리 2개를 만들어 놓고 위한다(사진 41). 이 터주가리는 방울이라는 별호를 가진 무당 홍순일의 모친이 30여 년 전 유양리로 이사를 온 다음부터 계속 모셔오던 것으로 젊주저리는 마을에 살고 있는 조수천(80세)에게 부탁하여 만든다. 이외에 광적면 효촌 2리 효가 마을 백대현 집(사진42)과 최칠성(사진43) 집 뒤틀에도 터주가리가 현전하고 있다.

③업

업은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 구체적인 실체는 보통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지네 등으로 나타난다. 업 역시 장독대 옆이나 광에 업가리를 해 놓고 모신다. 업가리는 터주가리 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집 안에서 이러한 업의 실체인 구렁이나 족제비 등이 집안 식구들의 눈에 보이던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업들이 죽어서 대들보 등에 걸려 있으면 그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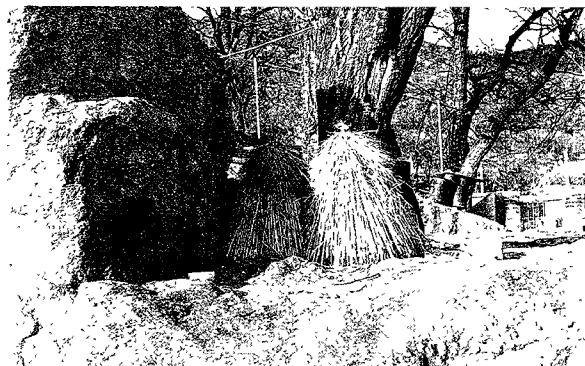


사진41 홍순일 집 터주가리



사진42 백대현 집 터주가리



사진43 최칠성 집 터주가리

업을 모실 때에는 한 밤중에 개 짖는 소리 등 짐승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만신을 초청하여 모신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독대에서 대를 내려 대가 좌정을 하면 그대로 업을 갖다 모신다. 그런데 광과 같이 집 안에 대가 좌정하면 짚주저리를 하지 않고 밖에 좌정하면 짚주저리를 틀어 놓는다고 한다. 업가리에는 쌀을 넣어 둔다. 즉 항아리에 쌀과 돈을 넣고 한지로 고깔을

접어 위에 덮은 다음, 그 위에 항아리 뚜껑을 덮는다. 업가리를 위할 때에는 백설기와 삼색실과, 그리고 냉수를 떠놓고 위한다.

④조왕

조왕은 부엌의 신으로 신들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신이다. 조왕은 변화무쌍한 신으로 풍요를 상징한다. 가장 까다로운 신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하는데, 아주 깨끗한 사람이 정성을 드려야 한다. 조왕을 하루라도 거르면 조왕이 심통을 부려 모시지 않는 것만 못하다. 조왕은 주부가 모시는 신으로 새벽 일찍 우물이나 샘에서 깨끗한 물을 떠다가 부뚜막에 놓고 정성을 드린다.

⑤칠성

칠성은 장독대나 터주가리에다 7월 7일 집안의 무사태평을 위해서 모시는 가신(家神)이다. 백설기를 만들어 물 한 사발과 함께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부엌이나 장독대에 놓고 위하므로써 칠성님께 어린 자식들의 무고함과 건강함을 빌었다. 즉 장독대에는 칠성 물방구리(조그만 항아리)에다 냉수를 떠놓고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상 위에는 백설기와 북어를 놓고 촛불을 켜 놓은 다음 칠성을 모신다. 치성을 드릴 때 남들이 보는 것을 꺼렸다. 남들이 보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문 앞에 황토 세 무더기를 나란히 놓아 두었다. 그러면 이것이 치성을 드린다는 표시가 되어 외부인이 출입을 삼가하였다고 한다. 칠성을 잘 모셔야 자손이 번창한다고 한다. 따라서 칠성을 모실 때에는 “글(公부) 끝마다 이름나고 말끝마다 향내나게 도 외주십시오. 세 여든에 퇴를 달고 우리 아들 백세 장수하게 도와 주십소사.”라는 축원문을 외웠다고 한다. 칠성은 원래 윗방 시렁 위에 모셔 놓는다고 한다. 그 형태를 살펴보면 고리짝 같이 생긴 ‘칠용’이란 곳에 기저귀 천과 같은 긴 천을 넣어 놓는데, 이를 ‘명다리’라고 한다. 명다리는 천을 나이 수대로 쟁 다음 잘라 칠용에 넣어 둔다.

⑥집안의 액막이

집안의 액막이로 우선 동토잽이를 들 수 있다. 동토

잽이는 쌀죽과 북어대가리를 머리 맘에 두고 침을 세 번 뱉은 다음 그것을 길에 버리는 행위이다. 이것은 손이 없는 날 하거나 손이 없는 방향으로 갔다 버리는데, 대개 행길이나 밭에 버린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칼을 던져 봐서 칼끝이 안쪽으로 향하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초하루나 보름 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 가서 빈다. 고사는 햇 농사 지은 것으로 지내야 한다. 대개 말날 지내면 좋다고 한다. 고사떡을 찌면 제일 먼저 안방의 대들보에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냉수와 함께 부엌, 장독, 우물 등에 갔다 놓는다. 그리고 떡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전에 조금씩 떼어 대문간을 비롯하여 사방에 버린다. 이때 주문을 외우기도 한다. 또한 다른 집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고수레하고 조금 떼어버린 후 먹었다.

⑦삼신

삼신할머니는 아기의 잉태와 어린 아이의 건강을 보살펴 주는 신이다. 삼신의 신체는 방 안의 구석에 매달아 모신다. 삼신은 닥나무 껍질로 만든 창호지에 쌀을 쌈어서 방 한쪽 구석에 매달아 놓는데, 쌀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 찢은 것으로 사용한다. 이를 삼신 주머니 또는 삼신 단지라고 한다. 삼신주머니 위에는 종이로 고깔을 만들어 씌워 놓는다.

⑧10월 고사

10월 고사는 추수 감사제로 양주군 전 지역에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가정신앙이다. 가을 추수를 끝낸 후 음력 10월 중 좋은 날로 날을 정해 떡과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집안을 지켜주는 여러 신들에게 제를 지낸다. 이러한 의례는 주로 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몇몇 사례를 통해 10월 고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내면 유양리 노인호 집

10월 고사를 “고사 지낸다.”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나서 고사를 지내는데, 교인을 제외하고는 농가나 비농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금도 가을 고사를 지내고 있다. 고사는 주로 10월 중 말

날로 잡는다. 무해무덕(無害無德)일이라 하여 길일로 여기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사는 반드시 햅곡식으로 지내야 한다. 햅곡식 중에서도 고사를 지낼 곡식은 미리 정갈하게 떼어 놓는다. 이러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 날을 받아 제를 지낸다. 우선 팔시루떡을 찌는데, 떡은 찹쌀떡과 맵쌀떡 두 가지를 준비한다. 떡이 다 찌지면 떡을 잘라 접시에 담은 후 안방, 장독대, 마루, 광, 대문, 우물, 뒷간(화장실), 자동차, 집 안에 있는 나무 등 집안 곳곳에 떡을 갔다 놓고 축원을 한다. 이때 포와 막걸리도 함께 차려놓고 제를 지낸다. 축원이 끝나면 약 30분 정도 그대로 놔두었다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 백석면 홍죽 2리

홍죽 2리에서는 음력 10월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을고사를 지낸다.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은 다음 첫 수확물을 따로 떼어 놓았다가 10월 중으로 좋은 날을 받아 그 쌀로 팔시루떡과 백설기를 찌 고사를 지낸다. 떡을 찔 때에는 시루에 창호지를 깐 다음 떡을 찐다. 떡이 다 찌지면 제일 먼저 마루에 있는 성주를 모신다. 성주를 모시기 위해서는 우선 상 위에 떡시루를 올려 놓는다. 아울러 막걸리, 통북어 1마리, 촛불 등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안주인이 가족의 안녕과 무사를 기원한다. 간혹 무당들이 와서 비손하기도 한다. 비손이 끝나면 떡을 잘라 접시에 담은 후 집 안 곳곳에 갖다 놓는다. 즉 용궁(우물), 자동차, 농기계, 각 방, 우사, 대문, 화장실, 부엌, 장독대, 광 등에 갖다 놓는다. 이때에도 막걸리를 따라 놓고 손을 비비면서 비손한다. 비손이 끝나면 떡과 막걸리를 조금씩 떼어 고수레를 한다. 이러한 의식이 모두 끝나면 이웃들과 떡을 나누어 먹는다.

⑨산노구메

남면 신암 1리에서는 매년 2월이나 3월경 마을 뒤에 있는 감악산에서 개인적으로 산노구메를 드린다. 이를 “산노구메 드린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감악산 정상에 가서 산노구메를 드렸다고 하나 산이 너무 험해 지금은 대부분 산 아래에서 드리고 있다. 산노구

메를 지내기 위해서는 지난해 지은 농사 중 노구메 드릴 곡식을 따로 잘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2월이나 3월 경 생기복덕을 보아 좋은 날을 잡아 산노구메를 드린다. 산노구메는 부부가 함께 가서 지내는데, 제의 장소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 즉 감악산 정상에 있는 우물당이란 곳에서 먼저 제를 올린 다음, 바로 아래에 있는 비석거리에서 두번째 제를 올린다. 제물로는 떡, 메, 삼색실과 등을 준비한다. 제의는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집을 출발하여 아침에 지낸다. 이렇게 아침 일찍 제를 지내려 가는 이유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소지도 올려 준다. 이러한 산노구메는 신암 1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3) 무속신앙

양주군은 옛 한양과 인접한 고장으로 예전부터 한양굿을 주로 하였다. 한양굿이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 무속에서 일반적으로 놀아지는 재수굿 12거리와 그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굿을 말한다. 이로 보아 양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은 서울지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주지역에는 한양굿과 함께 평안도나 황해도의 굿도 전승되고 있었다. 대한경신인연합회 의정부 지부장을 지낸 적이 있는 심안기(남, 60세, 광적면 우고리 150-6번지) 제보에 의하면 10여 년전만 해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무당이 많이 있어서 이북굿으로 일컬어지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굿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북굿은 춤·가락·사설과 공수 등이 빠르고, 주받이가 많다는 점에서 한양굿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지역 출신 무당들이 점차 사망하면서 이북굿도 따라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① 마을굿

양주지역의 무속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큰 변화양상을 보인다. 한국전쟁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농촌

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추첨을 하여 1년 중 어느 특정한 시기에 마을굿을 벌이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마을이 소실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피난 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왔고, 거기마다 군부대의 주둔, 행정지역의 분리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마을 질서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마을굿은 점차 사라져갔다. 게다가 근대화 과정과 굿을 하는 비용 문제 등도 마을굿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회천읍 회정 1리 벌말 경로당 앞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200여m 정도 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서낭당이 있다. 전쟁 전만 하더라도 매년 여기에서 서낭굿을 벌였다고 하는데 전쟁 후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동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당목 바로 앞으로 동두천행 군용도로를 내면서 더 이상 서낭굿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히 주민들도 서낭을 더 이상 위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작년에 어떤 박수무당이 와서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꽈필순(여, 86세, 양주읍 회정 3리)의 제보에 의하면 자신을 비롯하여 마을 노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집에서 떡과 돈, 과일과 술 등을 마당에 차려놓고 서낭목을 향해 혼자 고사를 지내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또 20여 년전만 하더라도 옆 마을인 샛골 역시 대동굿을 하였다 하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내지 않게 되었으며 지금은 이를 기억하는 이도 드물다.

한편 주내면 유양 1리에서는 지금도 도당굿을 지내고 있다. 원래는 국수당굿·부군굿·대동굿 등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도당굿이라고만 불린다. 이두현 교수의 조사⁷⁾에 의하면 원래 유양리의 도당굿은 유양리에 살았던 옴팽이 만신 개인이 쓰던 당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녀의 신딸인 조영자(1906년생, 작고) 만신에게 당을 물려 주었는데, 조만신이 1961년 실명을 하면서 더 이상 당주 역할을 못하게 되자 그 이후부

7) 이두현, 「동제와 당굿-경기도 양주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논총』 17, 서울대학교, 1978, 31~62쪽

터 마을 공동으로 당을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1974년 당시만 하더라도 당주나 화주를 마을 주민이 맡았으며 제비도 부녀회에서 추령하는 등 이미 도당굿으로서의 성격 변화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호 이장에 의하면 예전에는 일년에 한번씩 도당굿을 하였으나 굿을 주관하던 조씨가 약 15년 전에 사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0여 년전부터 다시 3년마다 한번씩 굿을 거행하고 있다.

굿은 음력 3월 초순에서 중순경으로 날을 가려 정하는데, 화주를 뽑아 집집마다 추령을 한다. 제사 비용은 대략 300만원 정도 드는데,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서 제비 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추령한 돈을 조만신의 손자 며느리이자 만신인 정점순에게 갖다주면 그녀가 제수를 장만하고 굿 준비를 한다. 그녀는 몇 년전 신이 내려 무업을 하게 되었고, 시 할머니의 당을 이어 받아 도당굿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배움이 많지 않아 음식 준비와 무당들을 모으는 등의 일을 주로 맡으며, 굿에서 중요한 거리는 의정부 등지의 경험 많은 무당들 4명이 맡아 한다.

이들 외에 함께 굿을 다니는 남자 악사 2명이 참여 한다. 굿의 절차는 행추물럼→초부정(初不淨)→부정 청배(不淨請拜)→불사(佛師)거리→칠성(七星)맞이→제석(帝釋)거리→호구거리→산신거리→밀명〔萬明〕거리(대신할머니거리)→상산(上山)거리→장군거리→별상(別相)거리→오방신장(五方神將)거리→상 산대감(上山大監)거리→성주(城主)거리→창부거리→걸립거리의 순으로 진행되고, 상문과 영산 등 집귀 잡신을 풀어 먹이는 것으로 끝난다. 예전에는 저녁 무렵에 시작하여 다음날 늦게나 끝나는 큰굿이었으나 이제는 제비 등의 문제로 하루 낮 동안만 치룬다. 이 마을에서 지내는 유교식 산제와는 달리 부녀자들이 제비를 모으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굿을 하는 목적은 산제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무사태평을 빌고 도당신을 위하는 데 있다.

②김악산(紺岳山) 빗돌대왕

양주지역의 무당과 단골들에게 김악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악산은 감박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양주군 남면·파주군 적성면·연천군 금곡면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675m의 산이다. 정상에는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이 있다. 비석은 높이 170cm, 옆면 15~19cm, 앞면 77~79cm로 모양과 크기가 마치 「진홍왕 순수비」와 비슷하다. 또한 그 주변에서 삼국시대 토기가 출토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매년 소사(小祀)를 올렸다고 하는 『삼국사기』의 기록 등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비석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김악산신에 대한 국가제례의 기록이 찾아지는 것만 보더라도 김악산에 대한 신앙은 고래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⁸⁾

주민들은 이 비석을 빗돌대왕, 또는 갓바위라 부르며, 김악산신의 신체로 여기고 있다. 무당과 단골들은 봄이나 가을에 날을 잡아 김악산신에게 무업의 번성이나 집안의 평안과 수명장수 등을 비는데, 이를 일러 “산 쓰다.” “산치성 드린다.”고 한다. 또 아들이 없는 이들이 빌면 꼭 아들을 낳는다 하여 그 영험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사나 굿은 정상까지 올라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산 아래 기도하기 좋은 곳이나 굿당에서 하기도 한다. 지금도 단골들이 집에서 고사를 지내는 경우, 예를 들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더라도 꼭 두 그릇을 떠놓고 빈다고 한다. 하나는 본향대 감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김악산 산신령에게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제보자 : 광필순).

현재 산 주변에는 굿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김악산 신암리 굿당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위치는 남면 신암 1리이고 당주는 황해도 봉산이 고향인 이정례 만신(여, 67세)으로, 이씨는 그 동안 인천과 의정부 등지에서 무업을 하다가 10여 년전쯤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김악산이 고향과 가깝고 김악산 신의 영험함이 뛰어나다는 소문에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한

8)이용범, 「김악산 신라고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320~3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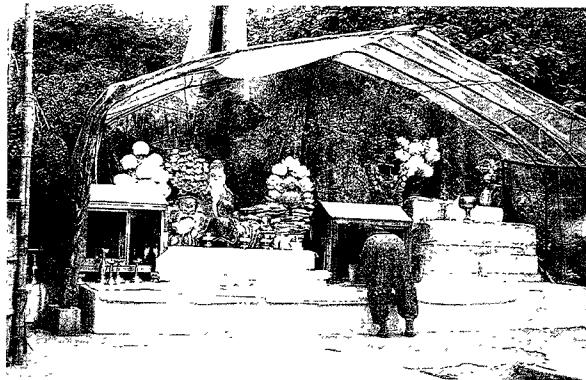


사진44 감악산 굿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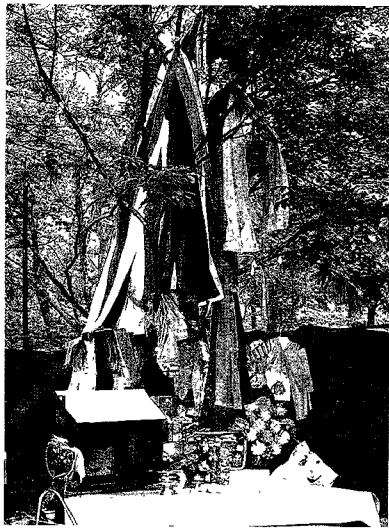


사진45 감악산 굿당 상차림

다. 원래 친정 할아버지가 신을 모셨었고 그녀에게도 32세 때 신이 내려 무업을 하게 되었는데, 모시는 신은 산신령·미륵님·산신도사·장군신 등이다.

굿당(사진 44, 45)에는 방이 6개가 있고, 집 뒤편에도 신을 모시고 굿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굿을 하였으나 지금은 몸이 불편하여 무업을 파하고 외부에서 굿을 하러 오는 이들에게 굿당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방 6개를 모두 빌려줄 정도로 굿이 성하였으나 최근들어 경제위기로 인하여 굿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일년 중 음력 정월에 새해맞이 재수굿을 많이 하였으나 올해는 거의 굿이 없다. 이곳에서 주로 치러지는 굿은 나라의

태평을 비는 나라굿,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재수굿, 질병이나 그밖의 우환을 물리기 위한 병굿, 감악산 신에게 이들을 비는 기자굿 등을 주로 한다.

③무당 생활사

김봉순은 1936년 3월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 김노중과 어머니 사이에서 2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집안에 특별히 신을 모신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느 집들처럼 가난한 테다가 부친의 부정(不貞)으로 고생이 심하였다고 한다. 그녀의 나이 15세 때 한국전쟁이 터졌고 군인이었던 오빠 때문에 식구들이 인민군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으며, 마침내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기에 이르렀다. 밤낮없이 며칠을 걷다가 잠깐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 흰 수염을 길게 드리운 낯선 할아버지가 나타나 “너무 늦었으니 어서 가라.”고 하여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 뒤 기회를 보아 목숨을 건 탈출을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녀는 채석장 인부·생선장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지만 계속된 생활고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녀가 22살이 되던 해 4살이 많은 언니 김숙자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1년 후 아들 하나를 낳고 미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길로 양주로 가서 무업을 시작하였다. 식구들은 원래 어머니의 고향이 광적면 가납리였던 데다가 생활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로 언니를 따라 양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김봉순은 사주가 세어 만흔을 하라는 말도 들은 바 있었고, 생활도 어렵고 하여 당시로는 좀 늦은 25세에 재취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한지 4년만에 남편은 병으로 죽었고 그녀는 다시 광주리 장사, 인쇄소 잡역부 등으로 생계를 이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36살이 되던 해에 시금치를 먹고 체하여 식중독으로 한달 간 고생을 하게 되었다. 워낙 아파서 정신이 혼미하던 차에 신령들이 자꾸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무척 놀랐다. 그녀는 언니가 이미 무당이 되었던 터라 자매가 나란히 무당이 되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고, 또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무

업을 하지 않으려고 1년을 버티다가 결국 신을 받게 되었다. 자신과 아이들이 자꾸 아프고 생활비를 벌 방법도 막막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들어온 그녀의 몸주신령은 신장, 개성 덕물산 최영 장군, 산신할아버지 등이었고 나중에 여불사(女佛師), 부처님,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약사보살 등이 더 들어왔다. 내림굿은 언니가 해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사상 만큼이나 간단하게 차려놓고 하였다. 사정이 그러했으니 따로 무업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예를 가르쳐 줄 변변한 선생도 모시지 못했고 무가를 적은 문서 등을 물려줄 이도 없었다. 다만 몸주로 모신 신령들이 직접 가르쳐 주었고, 그녀가 눈썰미를 발휘해서 열심히 익혀 나갔다. 무꾸리(점복) 역시 따로 배운 바 없이 신령이 일러주는 대로 할 뿐이다.

내림굿을 할 당시 언니는 양주군에서 무업을 하며 알게 된 악사들과 함께 소놀이굿을 배우던 중이었고, 그녀도 원마부로 이름났던 조만봉으로부터 소놀이굿을 함께 해보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그녀가 소놀이굿 보유자 후보로 지정되는 계기가 된다.

2년 후 김숙자는 다시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자녀교육도 있고 해서 신령을 그만 모시기 위해 치성을 드리고 나서 김봉순은 언니의 몸주를 대신 모시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몸주도 부담스러웠던 터라 안 모시려 했으나 언니의 간청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 무렵 아이들 중학교 배정 문제로 지금 살고 있는 유양리로 옮겨왔다.

양주지역에서는 함께 굿을 다니는 사람들을 ‘클럽’이라고 하는데, 김씨 등과 함께 다니는 이들은 언니의 신딸이었던 안양의 ‘동생집네’, 의정부의 ‘신곡동 만신’ 등이고 악사로는 소놀이굿 보존회의 고희정·김병옥 등이다. 그밖에도 의정부지역 만신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다고 한다. 이들이 서로를 부를 때는 그냥 사는 동네 이름을 따서 부를 뿐이며, 이것을 자신들의 별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씨 자신은 ‘유양리집네’로 불려진다.

클럽은 전국 곳곳으로 굿을 다니는데 그래도 옛 양

주군이었던 의정부·현 양주군·동두천 등지의 일감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다. 굿은 주로 제가집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중 대부분은 처음 신을 모시던 때부터 다니던 양주와 의정부의 단골들이다. 이들로부터 의뢰받는 굿은 지노귀굿·우환굿·재수굿이 많으며, 김씨는 이 굿들 가운데 불사거리·장군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대감거리 등을 맡아서 논다.

그녀는 파주군과의 경계에 있는 감악산에 매년 음력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좋은 날을 가려 자신의 무업과 가족의 평안을 빌고 신령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 산치성을 드리러 간다. 과거에는 정상까지 올라가서 고기, 씨 있는 삼색과일(사과·배·감·대추 등)과 술, 백설기와 시루떡 등을 차려 놓고 빗돌대왕에게 치성을 드렸으나 지금은 힘이 들어 산 아래 적당한 장소를 골라 산치성을 드리고 있다.

그녀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옥수를 받아 집 별채에 마련된 신당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굿은 위낙 대중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일과가 있지는 않다. 아직은 일을 놓을 생각은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가 터득한 것들을 가르쳐 줄 인연을 만나서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예전에 내림굿을 해준 신딸들이 두어 명 있었으나 모두 그녀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 금방 독립시켜 버렸다. 제대로 배울 태도를 가진 똑똑한 제자를 거두고 싶지만 그런 경험들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제보자 : 김봉순, 여, 무녀, 주내면 유양 1리 256번지).

(4) 점복·주술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점을 치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하므로써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자 하였다. 물론 이제는 이러한 점복술과 주술적인 행위들이 서서히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초가 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1년 신수를 점치기도 하고 자식들의 입학이나 취업, 결혼 등의 문제로 점을 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전통 사회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법에 의존하지 않고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 찾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점복술에는 역학의 토정비결과 같이 유사과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가 하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형식으로 “~하면 좋더라.” 또는 “~하면 나쁘다더라.” 하는 등의 금기도 있다. 이러한 점복술과 주술적인 행위들이 양주지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가를 주내면 유양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한다.

①점

대개 운수나 재수, 또는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본다. 운수나 재수점의 경우에는 대개 정초에 보고 그외는 수시로 본다. 유양리 사람들의 경우 대개 의정부로 점을 보러 간다. 대개 여자들이 점을 잘 보는데 1년에 2~3회 정도 본다. 점은 신수점도 보지만 대부분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본다. 예전에는 점을 보아 점괘가 나쁘게 나오면 장님 독경쟁이를 불러 경을 읽었다고 한다. 한번 점을 보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1~2만원 정도이다.

②부적

1년 열두달 집안이 평안하라고 부적을 붙인다. 부적을 붙이는 위치는 안방문 위나 현관문 위에 붙인다. 부적은 마을에 있는 백화암이란 절에서 구입하는데, 가격은 일정하지가 않다. 대개 1장에 1~2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다. 부적은 연초에 붙이는데 한번 붙이면 그 다음해 새로 부적을 붙일 때까지 그대로 놔둔다. 이와 같이 부적을 구입하여 집 안에 붙여 놓으면 1년 동안 마음이 든든하다고 한다. 유양리 노인호의 경우에는 그 부인과 딸이 삼재가 들었다고 하여 백화암에서 부적을 구입한 다음 안방문 위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 본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부적을 지갑에도 넣고 다닌다. 또한 유양 1리 홍순일 집의 현관문 위에 도 삼재부적 등 여러 형태의 부적이 붙어 있음을 볼 수 있다(사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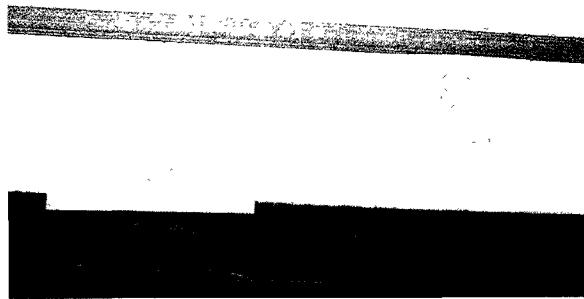


사진46 노인호 집 부적

8) 종교

한국의 종교는 다종교로 한국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 뿐만 아니라, 선사 시대 이래로 내려오는 무와 19세기 중반 이후 성립된 수많은 민족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는 이처럼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온 종교들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 위에서 새로운 종교들을 창조하기도 했다. 한국 종교의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조사 지역의 종교 상황도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의 종교 현황을 계통별로 자세하게 분류하지는 않았다. 단지 마을을 단위로 하여 실제로 신앙되고 있는 종교들에 대하여 신도들을 중심으로 그 전체적인 윤곽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표본조사라는 제약성 때문에 양주군 전체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산악지대인 장흥면 일대를 중심으로 그 종교적인 특색을 살펴보았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정 지역으로 전통문화의 급속한 파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사팀은 장흥면 일대를 중심으로 종교상황을 살펴보았다. 물론 도로 건설과 관련하

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종교단체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사 지역에 있는 몇몇 종교단체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마을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체계를 살펴보자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인 신앙 역시 큰 범주로 볼 때 종교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을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마을 신앙과 무속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대신 마을신앙과 무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속신앙 편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1)장흥면 삼하리

구파발까지 약 5km 정도 거리에 있는 삼하리의 생활권은 주로 서울이다. 마을 뒤로는 북한산의 한 줄기인 노고산이 펼쳐져 있고, 마을 앞으로는 큰 하천이 흐르고 있다. 마을 지형이 주로 산악 지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전형적인 농경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다. 근래 외지인들이 도시 근교 농업을 하기 위해 대거 들어오면서 마을의 종교상황도 많이 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그 동안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조상숭배를 철저히 지키고 마을 공동으로는 도당제 등을 지내 오던 삼하리 주민들은 외래종교가 수용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신앙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삼하리 주민들은 아직도 대부분 불교와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나 이외에도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그리고 남녀호랑교, 무당 등 복합적인 종교 생활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삼하리 노고산 밑에는 '절안' 이런 지명이 남아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 마을에 현재 사찰은 없다. 그렇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많은 마을사람들은 인근의 절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전체 마을 중 15가구 정도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 주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아녀자, 그리고 젊은 층이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삼하리 장로교회나 인근에 있는 장흥교회로 다니고 있다. 기독교 이외에 천주교인들도 10여 가구 정도 있다. 성당은 구파발에 있

는 구파발 성당으로 다닌다. 조사 지역 중 삼하리는 유난히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 남녀호랑교를 믿는 사람이 한집 있으며, 3년 전에 삼하리 절안에 터전을 잡고 무업을 하고 있는 여자 만신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이 무당집에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 주로 서울 등 외지의 무당집을 찾고 있다. 그러나 삼하리 사람들도 예전에는 자주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고 한다. 주로 병굿을 하였는데, 서울·경기굿이 치러졌다고 한다. 굿은 무당을 불러 단골집에서 보통 하루 정도를 하였다고 한다. 경비는 예전의 경우 몇십만원 정도 들어갔으나 요즘에는 굿을 한번 하려면 몇백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굿하는 날짜는 무당이 정하였다. 이러한 굿은 개인굿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모시는 도당제 때에도 도당굿이라하여 무당 여럿을 불러다가 대동굿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굿 이외에도 정월이 되면 일년 신수를 보기 위해 무당집이나 점보는 사람을 찾았으며, 10월 상달에도 성주나 터주 등을 모시면서 굿을 곁들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2)장흥면 삼상리

삼하리와 이웃해 있는 삼상리의 종교 형태는 주로 유교적인 전통 위에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삼상리에는 교회가 없다. 대신 노고산 자락에 청룡사와 도림사라는 사찰이 있고 정주머리에는 '부처님의 집'이 있어 마을사람들이 주로 이곳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정주머리에 있는 부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삼상리의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흥면 삼상 1리 정자동에는 부처님의 집이라는 암자가 있다. 1988년에 지어졌으며 혜관 스님이 관리하고 있다. 원래는 187번지에서 가장 큰 집터였으나 스님의 동생이 불사를 위해 땅을 내 주었다. 그러나 그런 벨트 지역이라 불사를 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93년에 기와를 새로 얹었다. 불사금을 모아서 부처님 감로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기와를 얹었다.

법당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셔 놓았고, 불상 옆에 위폐와 사진을 모셔 두는 공간이 있다. 오른쪽 옆 벽면에 탱화가 걸려 있다. 개인 집 정원에 있던 160여 년 된 석등을 앞마당에 옮겨 놓았다. 삼성각을 ‘용왕당’이라 부른다. 이곳은 옛날 마을 우물터였고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물을 떠간다. 용왕 기도는 상인, 사업가, 수험생 부모들이 주로 한다.

신도들은 80% 정도가 서울 사람이며 정자동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자들이다. 가족 단위의 신도가 많아 남자 신도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법회는 매월 음력 초하루에 열리는데 30~1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한다. 기도, 법문, 점심 공양 등 오후 4~5시면 끝난다. 연중행사로 봄이 시작되는 첫날을 기리는 입춘, 사월 초파일, 조상을 천도하는 백중, 병자의 쾌유기원·무병장수·남녀간의 인연해로 등을 기도하는 칠석, 절기가 바뀌는 것을 기리며 팔죽을 끊여 먹는 동지 등이 있다. 마을 안에 위치해 있어서 동네사람들이 김장이나 동지 때 와서 일을 도와주고 수천 평되는 밭농사도 함께 지어 나누어 먹는다. 평상시에는 죽은 이의 제사를 지내 주고, 위폐나 사진을 모시고 49제를 지내 준다. 처음에는 조계종에 속했으나 1994년에 선교종으로 바꾸었다.

이외에 마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도당굿을 치렀는데 이때에는 고양시에서 무당을 초청하였다고 한다(도당굿에 대한 내용은 마을신앙에서 자세히 설명). 물론 삼상리에는 무당집은 없다. 그러나 삼상리 사람들도 예전에는 자주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고 한다. 주로 병굿이나 재수굿을 하였는데, 무당은 주로 고양시에서 불러왔다. 이러한 굿 이외에도 정월이 되면 1년 신수를 보기 위해 무당집이나 점보는 사람을 찾았으며, 10월 상달에는 터주 등 집 안에 있는 신들을 모시기 위해 무당을 부르기도 하였다.

(3) 장흥면 교현리

군부대가 유난히 많은 교현리는 군부대 내에 군인 및 군인 가족들을 위한 절과 교회가 있다. 이 마을 역시 유교적인 전통 위에서 불교 신자들이 아직은 기독교 신자들보다 많다. 특히 마을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서낭당 고개에서 서낭을 모셨던 마을이기도 하다. 현재 군부대 내에 있는 절과 교회 이외에도 마을 뒤에 있는 오봉산 아래에는 석굴암이란 절이 있다. 이 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절로 마을사람들이 주로 이 절에 다니고 있다. 사찰 이외에도 약 20여 년전에 개척한 교현리 장로교회가 있어 부녀자나 젊은층들이 다니고 있다.

한편 교현리 마을 공동으로 지내고 있는 산신제의 경우 군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은 참여하지 않으나 교인들도 제비를 각출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일신교인 기독교인 조차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큰 거부감 없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1997년 6월 29일 우이령 보존회와 교현리 마을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교현리 마을 뒤쪽에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란 명문이 새겨진 나무 장승 2기를 세워 놓았다. 이 장승은 송전탑 및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저지 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것으로 장승을 세우고 나라굿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이 지역에는 아직도 우리 전통 민간신앙을 비롯해 각종 무당굿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

(4) 장흥면 울대리

송추골 유원지가 자리하고 있는 울대 2리와 공원 묘지와 농원이 많은 울대 1리는 의정부와 경계하고 있는 마을로 마을 뒤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펼쳐져 있다. 특히 울대 2리는 송추골 유원지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로 종교적으로 별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 마을에 절이나 교회가 없으며 일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인근 지역으로 다닌다. 교인들도 외지인 중심으로

일영리나 교현리 쪽으로 나간다. 그 대신 울대 2리에서는 마을 뒷산 태봉 밑에서 매년 10월 1일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울대 1리 역시 마을에 절이나 교회는 없다. 그 대신 조사 지역 중 유일하게 2칸짜리 당집이 현존하고 있어 여기서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산신제 와 함께 3년에 한번씩 산신굿을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단되었다. 산신굿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에서 무당을 초청하였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마을신앙과 무속신앙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던 지역으로 보인다. 한편 울대 2리에는 천주교 길음동 교회 묘지가 있다.

9) 구비전승

(1) 전설과 설화

① 우리리 피고개 이야기

광적면 효촌리의 우리리 마을에는 피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예전에 이 마을에 강씨 성을 가진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남루하게 차려입고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그 집에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시주를 받고자 찾아갔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목탁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스님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다. 스님은 시주를 부탁한다고 하자 강씨는 얼굴을 붉히며 대뜸 하인에게 시켜 쇠똥 한바가지를 펴다 스님에게 끼얹었다.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갔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 마을에 한 스님이 나타나서 마을 앞 산을 반으로 자르면 강씨네가 더욱 부자가 될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사라졌다.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강씨는 자기 집안이 더욱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는 주변의 만류를 뿐리치고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을 동원하여 산을 반으로 자르기 시작했다. 얼마쯤 자르고 나니 갑자기 산에서 피가 쏟아져 나

와 내를 이루었고 강씨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 피에 훔쓸려 떠내려가 죽었다. 그리하여 강씨네 집은 망하였고 지금도 강씨가 이 마을에서는 살지 않는다고 한다. 산을 반으로 자른다는 것은 고개를 낸다는 것으로 자연환경을 거스르려는 인과응보에 대한 전설인 셈이다 (제보자 : 정평진, 남, 71세, 광적면 효촌 2리).

② 우리리 개내미 고개 이야기

광적면 효촌리 우리리 마을에 개내미 고개라는 곳이 있다. 예전에 이 마을에 정승을 지내 세도가 당당한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의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하루는 마을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동네의 개가 뛰어들어 부인의 아랫도리, 곧 음부를 물고 말았다. 그 정승은 화가 나서 고개 너머 파주로 개들을 모두 내쫓아 버렸다. 그래서 이 마을엔 지금도 개가 별로 없다고 한다. 개내미 고개는 당시 개들이 넘어가던 고개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수루레미, 또는 수레너미가 있다(제보자 : 정평진, 남, 71세, 광적면 효촌 2리).

③ 임꺽정과 신방 옛보기

주내면 유양 1리의 유양초등학교 뒤편에는 수령이 500년도 더 된다고 전해지는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조선시대의 유명한 의적 임꺽정이 태어났다고 한다. 옛날엔 불곡산 너머를 청석골이라 불렀다고 하며, 꺽정은 청석골의 백정 출신으로, 날 때부터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2~3배 몸집이 커서 '클거(巨)' 자를 이름에 넣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가 백정이니 임꺽정은 어릴 때부터 동물 잡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임꺽정은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우직한 꺽정이가 신방에서 실수를 할까봐 신방치례를 일러주었다. “꺾정아, 먼저 촛불을 끄고 신부를 벗기거라. 그 다음부터는 더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미덥지 못해 첫날 밤 그의 아버지가 몰래 지켜보니, 꺽정이 신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뛰어가서 물어보니 색시를 벗기려고 칼을 간다는 것이었다. 꺽정의 아

버지는 “색시가 점승이냐, 껌질을 벗기다니, 옷을 벗기라는 이야기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제보자 : 노인호, 남, 주내면 유양 1리 이상).

④영조대왕과 팔일봉

백석면 홍죽 1리에는 있는 팔일봉(八日峰)이라는 산에는 조선시대 21대왕 영조에 얹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알려져 있듯이 생모 최씨는 궁중의 무수리였다. 최씨가 죽자 아들 영조는 살아서 천대받던 모친을 궁에서 가까우면서도 근사한 데에 묻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명당을 찾았는데, 여러 곳을 다니다가 양주에 와서 명당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곳엔 조선 초기에 영의정을 지낸 윤자운(1416~1478)의 묘가 이미 있는 것이었다. 탄식을 한 영조는 다른 곳에 좋은 묘자리를 내려달라고 근처 산에 올라 가서 8일간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제보자 : 이용덕, 남, 92세, 백석면 홍죽 1리).

⑤빗돌대왕 이야기

양주군의 북쪽 끝 감악산에는 정상에 「빗돌대왕비」라 불리는 비가 있다. 원래 이 비는 파주군 적성면에 있었는데 이 앞을 통과하는 사람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 무조건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신령의 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옛날 한 군인이 이런 말을 무시하고 말을 타고 지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비석을 산 정상으로 옮겼다고 한다. 나중에 군사들이 산 정상에 주둔하면서 비석을 산 아래로 치워버렸지만, 바로 다음날 비석은 어김없이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기를 서너 번 하자 모두가 신기하고 두려워해서 더 이상 옮기지를 못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군인들도 비석을 두려워 한다(제보자 : 백월희, 여, 72세, 남면 신암 1리).

⑥구렁이가 된 아들

옛날 신통력이 대단한 도사 형제가 있었는데 양주의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하룻밤 묵을 집을 고르다 한 집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형제가 보

나 그 집은 부정이 심하게 탄 상태였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 곧 커다란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일려주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마당에 장작을 모아 불을 지른 다음 자신의 아들을 그 불에 던져 넣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구렁이로 변하여 타죽고 말았다. 이는 다름 아니라 집주인이 농사일을 하다가 베어 죽인 구렁이였고 주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로 변해 있던 것이다(제보자 : 한공모, 83세, 남, 광적면 가남 1리).

(2) 민요

다음은 '달구소리'라 불리우는 만가(輓歌)로 양주소놀이굿 보존회 김환익 총무(66세, 효촌 2리 497번지)의 구전 내용을 『가전문화연구(畿甸文化研究)』 제18집⁹⁾에 실린 동일한 제보 내용과 비교·정리한 것이다. 각 행마다 '어야 어야'와 같은 적절한 후렴구가 덧붙여지거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금방네 금방네 금방금네
동서사방으로 군방네 불러
대답이나 하여 봅시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그만두고
옛 노인네 하시듯
우리도 한번 다시 하여 봅시다
여보시오 기중이네
귀경세정을 허지를 말고
먼데 사람들은 듣기나 좋게
여례로 가셨나 되돌아 가셨네
이승은 잠깐이고 저승은 억만년인데
꽃같은 날을 두고 되돌아 가셨네
황천길이 얼마나 멀어서
한번 가면 다시는 못오나
불쌍하고 가련도 하다
들어가신 내 님이 불쌍하다

9)정동학, 「양주지방의 민요고」, 『畿甸文化研究』 18, 인천교육대학, 1989, 118~127쪽

이 소리로 회생을 하나
 젖은 소리로 하여보세
 달고 하시는 여러 선상님들
 이내 말 좀 들어보소
 한발 두발 달고때를
 이리저리 어서 가랴
 섬섬옥수 겹쳐잡고
 산등허리 등기렁 다녀
 먼 데 사랑을 듣기나 좋고
 조객손님들 보기나 좋게
 창포밭에 금잉어 놀 듯
 녹대밭에 생쥐 놀 듯
 잔소밭에 백로 놀 듯
 여덟 고개 호박씨 놀 듯
 썩은 새 속에 굽뱅이 놀 듯
 춘향이 방에 이도령 놀 듯
 등실 등실 잘도 논다.
 막걸리 석잔이 상금이고
 이 소리를 못 들으면
 냉수 석 잔이 별주로다
 막걸리로만 상금을 받아
 술에 안주도 상금이지
 막걸리 안주라면
 두부전골이 제격이고
 소주에 안주라면
 넓이 안주가 제격일세
 소주 청종에 안주라면
 갈비찜이 제격이라
 다른 소리로 하여 보세
 무슨 소릴 들려보나
 화심곡을 불러볼까
 이것저것 다 고만 두고
 천지가 좋다는데
 천황지황이 생긴 뒤에
 금수강산이 생겼으니
 일월이 생겼구려

해동하고 조선국은
 팔도강산으로 나누었으니
 백두산 내린 줄기
 힘홍누각 생겼으니
 평양으로 올라 올라와서
 묘향산이 생겼으니
 대동강의 수기를 받아
 모란봉이 생겼으니
 단군 천년 기자 천년
 이천년에 굴려라
 황해도로 올라와서
 구월산이 생겼으니
 한강의 수기를 받아
 곤륜산 내린 줄기
 생주개성이 생겼구나
 이 소리로 하세월 하나
 다른 소리로 들려보세
 하려리 소리들은 상두꾼의 소린가
 상두꾼만 잘하나 나뭇꾼들도 잘 하지
 나뭇꾼만 잘하나
 논매는 사람도 잘하지
 논매는 사람도 잘하나
 배젖는 우리도 절는 헌다
 놀기가 좋다구 마냥들 허나
 허기가 좋다구 마냥들 허나
 이 소리도 뒀다가 또 허세
 금방네 금방네 금방금네
 옛날의 신령말고 새로 세 번 내지 말고
 옛 노인의 시를 시대 한번 하여를 보세
 왜 들어갔나 왜 들어 갔소
 가지마오 가지마오
 처자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승길은 잠깐이요
 저승길은 억만년인데
 아껴두고 못 먹었다가 일도에 우리 낭군
 명맥을 끊어오니

불쌍하고 간련한
 산도 설고 물도 설은 이곳에
 만년유택 집을 짓고
 하늘에 땅에 집을 짓고
 두견접동 벗을 심아
 산천초목으로 올타리 삼고
 찬 대지 풀을 쳐 이불을 덮네
 자진 달고를 하여나 보세
 달고 허시는 여러 선생
 한발 두뼘 달고때를
 이리 저리 노저어 가면
 남의 발등을 짚지 말고
 산중에 허리를 구부려 가며
 먼데 손님은 듣기나 좋게
 조객 손님들 보기 좋게
 남의 소리를 적다말고
 아내 소리를 마두를 삼고
 열에 열 분이 하시드라도
 한 사람이 하는 듯이
 일시에 받아 일시에 놓고
 발 맞춰 가면서 하여보세
 여보시오 시주님네
 나의 한 말을 들어보소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 밖에 또 있느냐
 새 세상에 나온 사람
 누구의 덕으로 나왔을까
 아버지의 별을 타고
 어머님의 달을 빌어
 칠성님께 명을 빌고
 제석님께 복을 빌어
 세 삭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탄생하니
 우리 부모님 나를 낳고
 애지중지 키울 적에
 겨울이면 칠월 생각
 여름이면 겨울 생각
 젖은 자리는 벗겨놓고
 마른 자리 콜라 뉘며
 고이고이 키웠건만
 한두 살에 글 몰라
 부모은공 알은손가
 어이없고 애달프다
 인생칠십 고래흰데
 없는 상심 절로 난다
 망령이라 중을 보고
 구석구석 굳은 모양
 애통하고 절통하고 통분하여라
 인생 늙어지면 인간백년 다 살아야
 각자 근심을 잊으련만
 삼사십을 못 살 인생
 어제 오늘 성턴 몸이
 처량하자 병들었네.
 병이들자 들어갔네

10) 민간의료

민간의료는 의료 전문직 의사가 아닌 민간인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민간의료란 공식적 의료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의 질병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비공식적 의료체계이 한다. 오늘날과 의료상황이 달랐던 과거에는 민간의료가 활발한 기능을 하였고 전승되었으나 이제는 의학의 발달과 의료시설의 보급, 국가 차원의 의료제도 확립,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10) 김태곤, 「民間醫療의 實態와 原理—信仰治療를 中心으로」, 『정신건강연구』1,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3, 51~62쪽

양주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민들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몇 군데 안 되는 보건소와 약국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초를 거래하는 전문적인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다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틈틈이 캐낸 약초를 장에 내다 파는 정도였다. 고 하나 이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현재는 주로 광적면 가남리 가래비장터 부근과 회정읍 덕계리에 병원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큰 병원이 있는 의정부나 서울과의 교통도 좋아져 “조금만 아파도 대처로 나간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변해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치료해 주지 못하는 병에 대한 대응책과 급작스런 발병에 대한 구급단방(救急單方) 등에서 신앙치료(faith healing)와 약초에 대한 전통적 지식들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에 없던 새로운 신체적 위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대처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총상이나 농약증독에 대한 치료법 등이 그것이다.

생존해 있는 남자 노인들은 대체로 주변 어른들로부터 한방의 본초학적 지식을 단편적으로 습득하여 질병치료에 응용을 하였는데, 이를 “사약(생약) 쓴다.”고 한다. 여자 노인들의 경우 무당을 불러 병굿을 하거나 가신(家神)에게 차성을 드리기도 하고, 맹인·판수·독경쟁이들에게 고사를 부탁하고 치료법을 전해 받는 등 신앙치료를 즐겨 이용하는 경향이 컸다고 한다. 남녀 모두 이런 신앙치료에 대해서는 “잘 낫지만 미신이니까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다음은 이 지역 민간요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제보자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 감기나 몸살 걸렸을 때

- 배와 꿀을 함께 고아서 찬 후 그 물을 마신다.
- 길에다 밥을 놓아두면 그 밥을 먹은 사람이 병을 가져간다. 또 칼을 끊어두기도 하는데 이는 귀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다.
- 콩나물국, 생강 끓인 물 등을 먹는다. 어린이의 경우 맹물에 들기름과 파뿌리를 넣고 끓여서

먹인다.

- 파, 북어, 고춧가루, 계란 등을 넣고 ‘계란국’을 끓인다. 목구멍이 시원해지고 속이 따뜻해져 한결 개운하다.
- 고뿔을 몹시 않으면 독감이 되는데 인동덩굴의 줄거리를 고아서 여러 번 먹으면 낫는다.

□ 신경통

- 뼈가 쑤신다고 느껴질 때는 두더지를 잡아 그 삶은 물을 먹었다. 지금은 두더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파스를 붙인다.
- 손발이 쑤시는 것이 고질이 된 경우에는 노루뼈를 삶아 먹었다.
- 다리나 무릎이 쑤시거나 땅길 때는 산에서 오갈피나무나 산복숭아나무 가지를 잘라 소주로 술을 담아 먹는다.
- 손발이 시리고 다리가 아플 때는 단오 때 약쑥의 줄기만 뜯어서 잘 말렸다가 물에 넣고 끓여서 국물을 마신다. 또는 바짝 졸여서 환을 지어 먹기도하는데 효과가 좋다.

□ 배가 아플 때

- 놋주발에 갖은 나물(반찬)을 담아 따뜻하게 해서 배에 대고 문지른다.
- 음식을 잘못 먹었다던가 해서 배가 아플 때는 약쑥을 달여 먹는다. 약효가 아주 좋다.
- 익모초를 달여 3일 정도 마신다.
- 아이들 배 아플 때는 “네 배는 뚱태고 내 손은 약손이다.”라고 하면서 어루만져 준다. 또는 보리싹을 잘라서 말린 다음 깁질 채로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먹인다.

□ 개에 물렸을 때

- 물린 개의 털을 태워서 그 재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개서 상처에 바른다.
- 양약은 잘 듣지 않는다. 개털을 잘라서 태운 다음 그것을 물린 자리에 붙여서 지지면 물린 자리가 덜나지 않는다. 상처가 덜나면 죽을 때 개처럼 짖으며 죽는다는 말이 있다.

□ 동상에 걸렸을 때

- 몸이 얼었을 때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안 된다. 콩을 넣은 자루에 언 부분을 담그면 얼음이 빠진다. 첫눈을 모아서 녹은 물에 손발을 담근다. 예전엔 집집마다 첫눈 녹은 물을 가지고 있었다.

□ 머리가 터졌을 때

- 된장을 바르거나 쪽을 짓이겨서 불로 지진다.

□ 황달에 걸렸을 때

- 참외 꼭지를 잘라서 볶은 뒤에 뺏는다. 그것을 코로 들이마시면 코에서 노란 물이 나온다. 황달의 노란 기운이 나오는 것이다.

□ 충치

- 두더지 배를 갈라 소금을 넣고 구운 뒤, 그 소금을 꺼내 이빨을 닦고 고슴도치의 털로 이빨을 쑤신다. 효과가 아주 좋다. 요즘엔 고슴도치나 두더지가 잡히지 않지만 예전엔 종종 잡을 수 있었다.

□ 뱀에 물렸을 때

- 뱀에 물리면 뱀이 흙을 먹기 전에 뱀에 물린 사람이 먼저 흙을 집어먹으면 독이 몸에 피지지 않는다.
- 물린 부위에서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묶고 대나무 가지를 꺾어서 찔러 물(독)을 뺀다. 또는 뽕나무 잣물을 내어 물린 부위를 담그면 독이 흘러나온다.
- 돼지고기를 먹거나 물린 부위를 돼지고기로 친다. 잘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한다. 이 방법은 뱀과 돼지가 상극(相剋)이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다.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명리학(命理學)에서는 십이지(十二支)의 동물 가운데 사해상충(巳亥相庶)이라 하여 뱀과 돼지의 기운이 크게 충돌한다고 한다.
- 뱀한테 물리면 흙을 집어먹고 계속 상처를 뺀다. 그러면 노란 물이 나온다. 그리고 그 뱀을 잡아 죽여야 낫는다. 뱀에게 물려서 독이 오르

는 사람은 벌에 쏘였을 경우에도 역시 독이 오른다. 이를 “뱀 타는 사람은 벌도 탄다.”고 한다.

□ 벌에 쏘였을 때

- 된장을 바르거나 벌침을 뺀다.

□ 베었을 때

- 갑오징어 뼈를 빻아서 붙인다.
- 석유를 붓고 일담배로 칭칭 동여맨다.

□ 불에 데어 화상을 입었을 때

- 시궁창에서 썩은 흙을 덴 부위에다 놓고 칭칭 동여맨다.

□ 무좀

- 감자를 갈아서 비닐로 감싸 맨다.
- 삼잎새를 삶아서 무좀 걸린 틈새에 뮤어 둔다.
- 연탄 가스에 발을 씬다.
- 토키풀을 찧어서 발가락 사이에 바른다.

□ 체했을 때

- 무엇을 먹고 체했는지 알아내서 그 음식을 태워 물에 타서 마신다.
- 화로나 아궁이 불에다 먹은 음식을 구워서 그 재를 물에 넣고 끓여 먹는다.
- 개고기 먹고 체한 데는 살구씨를 달여 먹는 것이 직방이다.
- 새우젓국을 한 국자 정도 떠먹는다.

□ 이가 이풀 때

- 담뱃대에 쪽을 태워 편다.

□ 기침을 오래 할 때

- 배를 창호지로 싸서 진흙으로 다시 쌌 다음 왕겨에 파묻은 후 불을 놓는다. 다 타고나면 배를 꺼내서 짠 후 그 물을 마신다.

□ 더위 먹었을 때

- 익모초를 삶아 그 물을 마신다. 익모초를 찢어서 생즙을 마시기도 한다.

□ 옷 올랐을 때

- 닭을 삶아서 그 물로 몸을 씻는다. 생쌀을 씹어서 옷 오른 부위에 바른다.

- 소 뚱물로 씻고 들기름으로 닦으면 효과가 있다. 약을 안 써도 13일째 되면 저절로 낫는다.
- 거름을 짜서 그 물로 몸을 씻으면 좀 나아진다.
- 닭 피나 생쌀을 씹어서 몸에 바르면 예방할 수 있다. 옷이 올랐을 때는 더운물이나 찬물에 몸을 담그면 가려움이 좀 덜해진다. 긁으면 진물이 나기 때문에 긁으면 안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더 심해지므로 돼지고기는 절대 금지다. 체질적으로 옷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심하면 근처에만 가도 옷이 오른다. 많이 다루게 되면 면역이 된다.

□ 오줌소태

- 고춧대를 서리에 맞지 않게 밀려서 삶은 물을 마신다. 옥수수 수염(술) 삶은 물을 마시기도 한다.

□ 젖몸살

- 쌀바가지를 따뜻하게 해서 젖을 문지른다.

□ 태열

- 태를 태운 재를 바른다.

□ 토사 광란

- 사철 쪽을 달여 먹는다. 미역에 꿀을 찍어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증상은 뿌리까지 다 토해야 낫는다고 한다.
- 아궁이 앞쪽에 있는 탄 흙을 물에 담근 다음, 위로 뜯은 그 물을 마신다.
- 손가락 끝을 바늘 등으로 딴다.

□ 경기할 때

- 체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물을 뿜는다.

□ 다래끼

- 윗눈썹에 다래끼가 나면 윗도리 위쪽을 3번 깨물어서 실로 동여매면 되고, 아래눈썹에 나면 윗도리 아래자락을 3번 깨물어서 실로 동여맨다.

□ 두드러기

- 아궁이 앞에서 몸에 소금을 뿌리면서 수수 빗자루로 3번을 쓸면서 “중도 고기를 먹더냐.”라고 한다.

- 초가집 이엉을 뽑아 두드려기 난 사람을 홀딱 벗긴 다음 짚을 태우면서 그 연기를 쐈다.

□ 사마귀 났을 때

- 오이를 먹고 오이 꼭지로 문지른 다음 그 꼭지를 두엄에 묻으면 그 꼭지가 썩으면서 사마귀가 없어진다. 손으로 빗물을 받으면 사마귀가 생기고, 고드름을 따먹어도 사마귀가 생긴다고 한다.

□ 땀띠 났을 때

- 소금물에 씻는다.

□ 벼침

- 쌔리나무를 베어다가 아궁이에서 태우면 쌔리나무에서 거품이 난다. 그 거품을 벼침난 곳에 빌라 준다.

□ 가래톳

- 침을 바르고 주무른다.

□ 삼눈

- 바늘을 가지고 손 없는 쪽으로 가서 가시나무(찔레나무)의 가시를 자신의 나이만큼 떼어 버리고 바늘로 나뭇가지를 찌르고 절한다. 절하면서 “가시나무도 삼눈 앓더냐.”라고 한다.
- 팔알을 아침해가 뜰 무렵에 눈에 떨어뜨리면서 “○○눈 ○○로 가고 ○○눈 ○○로 가라.”고 말한다.

□ 속앓이

- 돌을 불에 구워 배에 대고 찜질한다.

□ 냉대하

- 익모초나 사철쑥을 달여 먹는다.

□ 산후 부종

- 호박 뚜껑을 따서 속을 파낸 다음 그 속에 미꾸라지와 꿀을 넣어서 뚜껑을 덮은 다음, 불에 달여서 그 물을 먹는다.

□ 채독

- 메밀 당숙(메밀묵을 묽게 끓인 것)을 먹는다.

□ 생인손 앓을 때

- 그 부위를 째서 김치잎(짠 김치)을 동여맨다.
- 조선 간장을 끓여 지진다.

□ 종기

- 송곳을 불로 달군 다음, 종기난 곳에 대고 찌른다. 그러면 고름이 나오면서 낫는다.
- 밀가루를 반죽하여 불이면 균이 뽑혀 나온다.

□ 총에 맞았을 때

- 늙은 호박을 잘라 상처에 붙이면 화약독이 빠지고 새 살이 돋는다. 20일이면 완치된다.

□ 고환 크기가 다를 때

- 소금 자루를 부엌 문 앞에 매달아 놓은 다음, 물동이를 이고 다니면 그 소금이 물동이 물에 녹으면서 낫는다.
- 누런 두꺼비를 잡아서 깡통에 가두어 놔두면 두꺼비가 오줌을 쌈다. 그 오줌을 고환에 바르면 낫는다.

□ 주당살

- 상복 두루마기의 한 귀퉁이를 잘라 태워서 그 채를 물에 타서 마신다. 그리고 수수, 콩, 보리, 쌀을 뷔아서 지은 밥인 자반을 각성바지 세 명이 주당살 든 사람에게 뿌리면서 달구질을 한다. 주당살 든 사람을 명석에 말아 놓고 “에허 러 달구.” 하면서 원쪽으로 두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며 막대기로 달구질을 한다.

□ 학질

-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소의 오줌으로 세수한다.
- 묘 앞의 망두에 침을뱉고 망두의 따귀를 때리면서 “내 학질 때 가라.”고 한다.
- 삼거리에 가서 “넌 오늘 드는 날이야. 난 오늘 나는 날이야.”하고 담뱃갑을 앓은 지기 수만큼 두고 다른 길로 돌아온다. 학질은 하루 걸러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런 행동은 증상이 일어 나지 않는 날 한다. 한번 앓는 것이 한 지기이다.
- 학질에 걸리면 으실으실 춥고 열이 나고 몸이 떨린다. 하루 걸러 아픈데 아픈 날 눕지 않으면 낫는다. 예방하려면 변소의 주춧돌을 훑으면 되나 그것이 더럽기 때문에 종이로 싸서 훑았

다. 또 이미 걸렸을 경우 원새끼를 꼬아 집 밖으로 나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소나무에다 감고 “내 학질 가져가라.”고 소리친다.

- 건강한 사람이 학질에 걸린 사람의 허리를 묶어 이슬 내린 밭을 끌고 다닌다. 또는 환자의 목에 끈을 걸게 한 뒤에 “뱀이다.”라고 주위에서 소리치면 학질이 놀라 달아난다.

□ 몹시 아파 지쳤을 때

- 피마자 기름을 먹인다. 잘못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다.

□ 쪘기에 쏘였을 때

- 된장을 바른다.

□ 간질

- 굼벵이를 달여서 먹인다.

□ 피부가 끓았을 때

- 고름을 짜고, 거미집을 터트려 진물을 뽑아서 바르거나 잣나무 송진을 바르면 낫는다.

□ 회상 입었을 때

- 옥수수 껍질이나 감자를 태워서 참기름에 개어 바른다. 소주나 된장을 바르기도 하는데 소주 가 더 좋다. 그렇게 하면 상처가 부풀지 않고 금방 낫는다.

□ 홍역

- 찬물이나 찬바람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숨이 차고 몸에 한기가 온다.
- 홍역은 저승 가서도 한다. 일생 중 한번은 반드시 걸리는 병이므로 확실하게 낫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홍역에 걸렸을 때는 찬 기운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소병에 걸리는데 이때는 여우 해골을 고아 먹으면 낫는다.
- 가재를 잡아 즙을 내어 마신다. 이 방법이 안 들으면 냉수에 개똥을 조금 넣어 마신다.

□ 해소천식

- 노인들 해소천식에는 뽕나무 뿌리 껍질을 벗겨 말려서 뽕아 살구씨와 함께 마시면 금방 낫는

다.

- 모과 열매를 여러 번 달여 먹는다. 기침을 많이 하는 것은 잘 먹지 못해서 그렇다.

□ 타박상 및 어혈

- 해혈에 좋은 당귀뿌리를 달여 먹는다.

□ 각종 중독

- 농약 중독, 똥독에는 쥐눈이콩과 감초 한 흡을 물 한 되에 넣어 달여 먹으면 해독된다. 또 녹두를 물에 불려 갈아서 물을 꽂 찬 다음 마셔도 된다. 한약 잘못 먹어 중독된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하면 잘 낫는다.

□ 여드름이나 부스럼

- 쑥을 끓인 물로 씻는다.

□ 마마

- 마마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가리고 부정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려면 마마 걸린 이(별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할 정도로 부정을 몹시 가린다. 마마가 떠나가면 배송을 한다. 배송은 인근의 무당에게 한다.
- 마마에 걸리면 무조건 빌어야 한다. 무를 채썰어 뷔은 다음 밥과 함께 상에 놓는다. 젓가락이 나 수저는 놓지 않았다. 아픈 사람 머리맡에 놓고 마마에게 잘못을 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집 밖으로 버리고 나서 또 무조건 빈다. 그런 다음 밥과 채소 반찬을 오챙이에다 넣어서 나무 옆에다 놓고 다음과 같이 빌고서 돌아온다. “마마님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 입이 삐뚤어 졌을 때(구안 와사증)

- 할미꽃 뿌리를 마늘 한 되에 섞어 찧어서,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면 원편 팔목 동백 부위에 바르고 左쪽으로 돌아갔으면 오른쪽 팔목의 같은 부위에 바른다. 혹은 대추나무 가지로 입이 당겨지도록 물어서 고정시켜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 정신이 이상할 때

- 실성하여 헛소리를 하면 귀신이 들린 것으로 판단, ‘매인(맹인)’을 불러 경을 읽게 하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

□ 티눈

- 티눈 난 부위를 살살 긁어 흠집을 내고 양잿물을 바르면 된다. 몇십 년 묵힌 식혜나 식초를 바른다.

□ 외음염

- 황을 들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초기에 빨리 발라야 한다. 외음은 그냥 옴보다는 덜 간지럽지만 전염이 잘 되었으며 한국전쟁 때 피난민과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에 의해 퍼졌고 지금은 없다. 한 10여 일 간지럽다.

□ 안질

- 동네 삼거리에 삼발이로 솔을 걸어 놓는다. 만약 지나다니던 사람이 차고 지나가면 그에게 병이 옮아간다. 우물에 가서 빨래를 거꾸로 뒤집어 놓기도하는데, 누군가 빨래하러 왔다가 그 빨래를 건드리면 역시 눈병이 옮아간다. 동네에 안질이 발생하면 예방책으로도 이 방법을 썼다.

- 소금물로 씻는다.

□ 냉으로 아플 때

- 약쑥 달인 물을 마신다.
- 단오 때 사철쑥의 밑동을 잘라서 대하고 잎을 뜯어서 말린다. 가을이 되면 2~3시간 삶아서 그 물을 먹어도 좋고, 전더기는 건져내고 창출을 넣어 환을 지어먹기도 한다. 냉이나 소화 안 될 때 먹으면 좋다.

□ 난산일 때

- 음력 9월 9일경에 구절초를 뿌리째 캐서 그대로 끓이면 국물이 줄어서 조청처럼 된다. 여기에 창출 등을 넣어서 환약을 만든다.

□ 산후조리

- 쑥을 쪄서 요강에 넣고 그 위에 앓아 김을 씬다. 또는 쑥물로 음부를 닦거나 전신을 목욕한

다. 그렇게 하면 시원하고 후유증도 없다. 또 막 태어난 아기도 쑥물로 씻어준다.

- 출산 후 몸이 부으면 호박을 삶아 그 물을 먹으면 좋다. 또 조청이나 꿀을 먹기도 한다.
- 바람을 쐬면 더 뜯기 때문에 찬 기운과 바람을 피한다.

□ 하혈이 있을 때

- 쑥 끓인 물로 음부를 닦는다.

□ 이질에 걸렸을 때

- 쪄레나무 꽃을 따다가 말려서 삶아 먹었다.

□ 열과 오한이 나고 몸이 피곤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 귀신이 불었다고 생각하여 상 위에 도마를 놓고 한지를 깔고 말을 7필 그린다. 그리고 소금과 된장을 그림 윗부분 여백에다 조금씩 놓고 밥을 작은 그릇에 담아 올리고 숟가락도 놓는다. 것 가락은 놓지 않는다. 상은 부엌 등 적당한 곳에 차린다. 그리고 상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차렸으니 이것 먹고 썩 물러가라.”고 하면서 빌고 마당으로 나가 칼을 던진다. 칼이 집 밖으로 향하면 병이 낫고 집 안으로 향하면 병이 낫지 않는다.

□ 젊주리다가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어 몸이 부을 때

- 약쑥에 소금을 넣고 쟈서 꾸준히 먹는다.

□ 아이들이 아플 때

- 아이들이 배가 아프거나 몸살이 걸렸을 경우 우물에서 새로 물을 떠다가 “삼신할머니, 우리 삼신 자손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삼신에게 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되뇌인다.
- 애들이 설사할 때는 장님을 불러 독경을 하기

도 했다.

□ 손발이 찰 때

- 단오 때 익모초를 따서 뿌리는 자르고 대와 잎을 쳐마 밑에 걸어 바짝 말린다. 이것을 뺏아서 환을 지어먹거나 국물이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줄여서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마신다. 손발이 찬 사람은 1.5l 음료수병으로 두 병 정도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진다.

11) 무형문화재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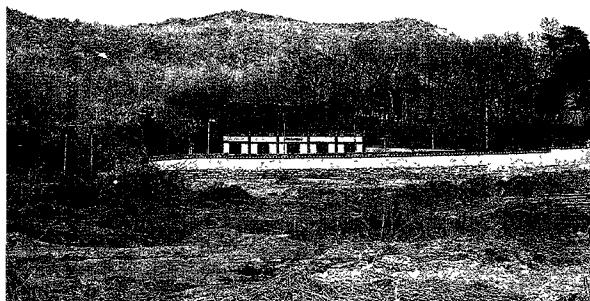


사진47 양주별산대 전수회관

양주군에는 현재 양주별산대놀이와 양주소놀이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각기 보존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별산대놀이는 주내면 유양 1리에 있는 양주별산대 전수회관(사진 47)을, 소놀이굿은 백석면 방성 4리의 소놀이굿 전수회관을 중심으로 전수교육과 공연을 행한다. 전수교육은 지정된 이수자와 일반 전수자 뿐만 아니라 인근의 각급 학교 학생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은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행해진다. 소놀이굿은

11)무형문화재편은 지난 4월 26일(백석면 방성4리)과 5월 5일(주내면 유양1리) 전수회관에서의 정기공연시 본 조사팀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한 내용과 아래의 문헌 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李輔亨, 「楊州 소놀이굿」, 『文藝振興』, 문예진흥원, 1983
이두현·임돈희, 『양주 경사굿 소놀이굿』 한국의 굿 13, 열화당, 1989
양주문화원, 「楊州 別山臺놀이」, 『양주군지』下, 楊州郡, 1992
徐淵昊, 「山臺탈놀이」, 한국의 탈놀이 1, 열화당, 1992

4월 마지막 주말에, 별산대놀이는 5월 5일에 정기공연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월 초 거행되는 양주문화제에서도 공연하고 있다. 군 내에 특별한 지역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공연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대표적 행사가 되고 있다. 그밖에 1년에 4~5회 정도의 외부 초청공연이 있다. 정기공연에는 점차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식적 행사로만 치러지며 그나마 이런저런 이유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는 1964년 12월 7일 국가 중요무형 문화재 제2호(연극종목)로 지정되었다. 원래 산대놀이란 궁중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무대에서 노는 연희로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국가적 행사로 전해오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폐지된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 계통의 놀이를 일컫는다. 본래 산대놀이를 놀던 하층민(팽인, 편놈)들이 주로 녹번·애오개(아현)·사직골 등지에 살고 있었으므로 본산대로 부르고 여기서 갈라져 나온 분파를 그들과 대별하는 의미에서 별산대라 한 데에서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래담이 전해진다. 양주에는 200여 년전부터 매년 4월 초파일과 5월 단오에 구파발 산대패나 사직골 딱딱이패 등을 초청하여 산대놀이를 하였으나 그들이 약속을 어기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주로 관아의 아전을 중심으로 신명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탈을 만들어 실연한 결과 춤과 재담이 한양의 놀이패에 못지 않아 그 뒤로 계속 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초반의 이을축(노장, 탈 제작)·노경무(상좌)에서 19세기 후반의 신복홍(노장, 취바리)·박광현(말뚝이) 등으로 이어지고 20세기 초에는 김성운(왜장녀)·정한규(신할아비, 포도부장) 등으로 이어지면서 양주별산대놀이는 더욱 유명해졌다. 이어

일제시대에는 조종순(취바리)·박중철(음중) 등에게, 근래에는 김성운의 아들인 김성태(1894~1962; 노장, 취바리)·유경성(탈 제작) 등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많은 연희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연희 모습이 전해온다.

놀이의 전승은 주로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무업을 하던 무당들과의 제휴도 특징적이다. 예를 들면 100년 전 탈을 잘 만들었다는 신순필의 처 김씨는 이 일대에서 '승냥이 만신'이라 하여 널리 알려졌었고, 음중춤을 잘 추던 석성묵의 모친도 역시 만신으로 '지린내'라는 별호를 갖고 있었다. 위에 언급한 김성운의 처이자 김성태의 모친은 유양리 일대에서 큰무당으로 알려진 '옴팡이 만신'이었고, 그녀의 신딸로는 유양리에서 마을굿을 한 조영자 만신(작고)이 있다. 김성태의 아들로 멱중춤을 잘 추는 김상용(73세)은 조영자 만신을 고모라고 불렀다고 한다. 조만신은 소놀이굿도 했었다고 한다. 또 취바리역을 하던 이윤서의 아들 이장순(1963년 작고) 역시 노장춤을 잘 추었고, 유경성(1918~1989)의 아들 유한수(52세) 역시 탈 제작을 이어받고 있다.

한편 일본인 학자 아끼바(秋葉隆)의 조사에 의하면 도중(都中)이라 하여 별산대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었다고 한다. 기능이 가장 뛰어난 4명을 영위(領位)라 하고 다음의 2명은 수석(首席)이라 하였으며 5명은 오상(五常)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는 양주별산대놀이가 나름대로 조직적인 운영과 전승을 추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놀이는 사월 초파일과 단오·추석 등의 명절에 주로 연희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로 놀기도 하였다고 한다. 연희자들이 큰 보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마을의 놀이판이었기에 동네 유지들과 상인들이 추첨을 하여 비용을 마련하였다. 장소는 불곡산 아래 새젖골 놀이터에 임시로 개복청(改服廳)과 삼현청(三絃廳)을 설치하고 놀았으나 1985년 마을 뒤편에 전수회관과 잔디밭 등을 마련하면서 지금은 전수회관 마당에서 탈판을 벌인다.

놀이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놀이를 하기 전에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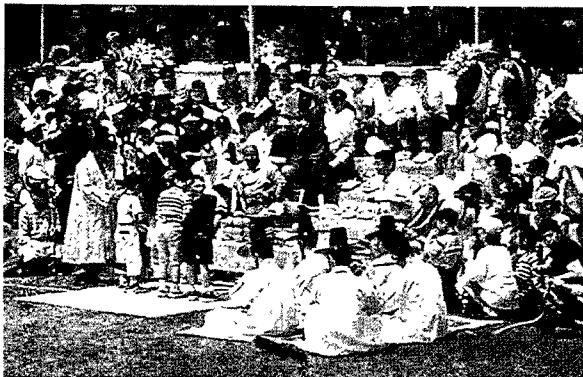


사진48 양주별산대놀이 서막고사 장면



사진50 양주별산대놀이 제3과장



사진49 양주별산대놀이 제1과장



사진51 양주별산대놀이 제5과장

을을 한바퀴 도는 길놀이(거리굿)를 한 다음 서막고사(사진 48)를 지낸다. 제일 상단에는 탈을 늘어놓고 그 아래에 제상이 위치한다. 조라술·떡·삼색과실·소머리·돼지다리 등의 제물을 차리고 유교식 제문을 읽는데, 현재는 한자어를 풀어쓴 우리말 제문을 만들어 사용한다. 그 다음 연희자들이나 구경나온 사람들이 무사히 놀이가 끝나기를 비는 절을 하고, 고인이 된 연희자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소지를 하고 제물을 음복하는 것으로 간단한 고사가 끝난다.

놀이 순서는 채록자에 따라 8과장, 10과장, 12과장으로 나누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대략 상좌춤, 음중과 상좌, 음중과 먹중, 연잎과 눈꼽적이, 팔먹중놀이, 노장, 샌님, 신할아비와 미알할미 등 8과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과장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제1과장에서는 상좌가 나와 거드름춤과 깨끼춤을 추고(사진 49), 제2과장에서는 음중과 상좌가 재담을



사진52 양주별산대놀이 제7과장

하며 거드름춤을 춘다. 제3과장(사진 50)에서는 음중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랑을 하나 결국은 음이 오른 중임이 들통난다. 제4장에서는 고승 연잎과 눈꼽적이 가 나타나 파계승인 음중과 먹중을 벌한다. 제5과장(사진 51) 1경(소과장) 염불놀이에서는 여덟 명의 타락한 먹중이 염불을 가지고 재담을 하는 내용이고, 2경 침놀이는 말뚝이 가족이 완보의 도움으로 신주부라

는 의원의 침을 맞고 살아나는 내용이며, 3경 애사당 복놀이는 먹중들이 애사당을 희롱하는 이야기이다. 제6과장 1경 과계승놀이는 노장의 과계 과정을 춤으로 보여주고, 2경 신장수놀이는 두 소무(小巫)와 살림을 차린 노장이 두 소무에게 줄 신발을 신장수에게 외상으로 산다는 내용이며, 3경 취바리놀이는 취바리가 노장에게서 소무 한명을 빼앗아 살림을 차린 뒤 아이를 낳고 글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제7과장 1경 의막사령놀이에서는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모시고 나와 친구 쇠뚝이와 함께 양반의 위선과 권위주의를 비웃고 풍자 한다. 2경 포도부장놀이에서는 양반인 샌님의 청을 평민인 젊은 포도부장이 빼앗는다는 내용이다(사진 52). 제8과장에서는 신할아비가 부인 미yal할미와 다투다가 미yal할미가 죽자 자식들을 모아 장사를 지내는데, 이 때 떨이 무당이 되어 지노귀굿을 한다는 내용이다.

놀이의 주제는 산대도감극 계통의 공통적 특징인 과계승·양반·무당·사당·하인·기타 다양한 민중들의 등장을 통하여 양반에 대한 풍자와 현실비판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또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남과 여 등의 극명한 대립이 보이고 특히 계급차별과 남녀차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른 탈춤들과 구별되는 면모를 보인다. 과거에는 극 전반에 욕설이나 음란한 부분이 있어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보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한 점이 오히려 민중의 건강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주요 등장인물은 먹중·옴중·취바리·해산어멈·소무·노장·샌님·애사당·말뚝이·완보·상좌·왜장녀·포도부장·원숭이·연잎·눈꿈적이·미yal할미·신할아비 등이다. 이중 완보는 원래 원먹중이였는데 옛날 김완보라는 이가 원먹중 역을 위낙 잘하여 완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전체 등장인원은 32명이지만 겸용하는 탈이 있어서 실제 사용되는 탈은 22개 남짓이다. 종이나 나무로도 만들었으나 주로 바가지를 이용해서 만든다. 재료로

박·송피(松皮)·한지·풀·아교·물감 등을 사용한다. 만드는 방법은 바가지 위에 송피로 코·눈썹·턱 등을 깎아 붙인 다음, 삼노끈으로 주름살을 만들고 그 위에 한지를 바르고 색칠을 한다. 탈은 100여 년전 새젖꼴에 당집이 있었을 때는 그곳에서 보관하다가 당시 없어진 뒤로는 주요 연희자들의 집에 두었고 지금은 전수회관에 보관하고 있다.

구성 요소로는 춤·음악·노래·덕담·가사 등이 있다. 춤은 크게 거드름춤과 깨끼춤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두루치기·팔뚝잡이·활개치기·활개꺾기·활개펴기·돌담춤 등 모두 21개의 춤동작이 있고, 후자에는 불림사위·빗사위·깨끼리·고개잡이 등 모두 22개의 춤동작이 있다. 음악은 피리 2개·젓대·해금·장고·북 등 삼현육각을 기본으로 하며 팽과리를 추가하기도 한다. 주된 장단은 염불·자진굿거리·허튼타령·세마치·느린굿거리·칠채맺음 등을 쓰며, 노래로는 등장가·백구타령·조기잡이·야할타령·염불타령·등등타령·넋타령·시조 등이 있다.

(2) 양주소놀이굿

양주소놀이굿은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연극종목)로 지정되었다. 원래 양주지역 경사(慶事)굿의 13번째 거리인 제석거리와 14번째 호구거리 가운데 행하여지는 부속 연희로서 독립된 굿은 아니다. 다만 그 명칭이 예전부터 소놀이굿·소놀음굿·소굿·쇠굿·마부타령굿 등으로 불려왔을 뿐이다.

경사굿은 고사굿 또는 신사굿이라고도 불리는데 재수굿이나 안택굿과 같은 것이다. 1년 중 주로 추수 후에 행해졌지만 때로는 동짓달이나 정월에 지내기도 한다. 추수에 감사드리고 신곡(新穀)을 바치거나 액(厄)을 막고 농사나 장사 등 하는 일이 잘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1967년 당시 이두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¹²⁾ 17거리가 놀아졌다고 하는데, 그 순서는 행

12)이두현·임돈희,『양주 경사굿 소놀이굿』한국의 굿13, 열화당, 1989.

추물림, 부정, 불사맞이, 본향, 초가방, 조상, 대감놀이, 성주맞이, 상산, 별상, 신장, 산신대감, 제석, 호구, 성주, 창부, 뒷전 등이다. 물론 굿을 주관하는 무당이나 굿의 규모 등에 따라 순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중부지역 무에서의 일반적인 재수굿거리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양주군에서도 주로 백석면과 그 인근 동리에서 소놀이굿을 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 부잣집에서 경사굿을 할 때는 목청 좋고 소리 잘하는 놀이꾼들을 청해다가 소놀이굿을 놀았다. 놀이꾼들은 위낙에 신명을 즐기는 사람들인자라 술대접과 그날 품삯 정도를 받고 놀아주었다 한다.

소놀이굿의 기원은 알 수 없고 다만 몇 가지 설이 전해진다. 이 지역에서 신령스런 산으로 숭배되는 감악산의 감악사 유래설,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소장수의 번성을 기원하는 데서 나왔다는 설, 궁중의례 유래설, 굿 여홍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농경의례설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월 보름이나 팔월 한가위에 풍농을 기원하고 수확에 감사드리는 소먹이놀이나 거북놀이 등의 농경의례가 전국적으로 행해졌었고, 특히 양주의 것과 비슷한 소놀이굿은 주로 한강 이북에서 평안남도지역에까지 집중적으로 분포했었다. 이러한 의례들은 풍요와 자손의 창성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치러졌는데 이는 무와 가신신앙에서 곡신으로 여겨지는 제석(帝釋)의 성격과 일치한다. 그리하여 제석거리의 부속 연회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소놀이굿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옛날에 노하면 사람인 팽수천(彭壽天; 1901~1937)에 의해 놀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팽수천은 어려서부터 무당인 작은 어머니의 굿을 따라다녔고 후에는 작은 어머니의 신幡과 혼인하였으며, 무가와 잡가·타령 등에 능했다고 한다. 그가 어디서 소놀이굿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승되고 있는 가사가 극히 세련된 것으로 보아 전적으로 그의 창작은 아닐 것이라 짐작된다.

팽수천이 젊은 나이에 타계하자 그에게서 원마부 역할을 배운 고관성(高寬成)·오복삼(吳福三)·우용진(禹龍辰)·전춘성(全春成) 등에게 소놀이굿이 전해졌고, 우용진의 결마부 역을 하던 조만봉(趙萬奉)이 다시 자신의 결마부였던 김인기(金仁起; 84세, 백석면 방성리 446)에게 전해 오늘에 이른다.

소놀이굿은 전체적으로 무당과 원마부의 대화로 진행되기에 무당의 역할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 전승에 있어서는 위에서처럼 원마부와 결마부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무당은 원마부에게 놀이를 배우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속과는 별개였던 농경의례로서의 소놀이굿이 굿거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음악은 굿거리 장단에 경(京)드름으로 창부타령과 같은 곡조이며, 악기는 해금·북·피리·장구·징 등이 사용되어 악사도 4~5명이 필요하다. 무당·원마부·결마부·악사 이외에 조무(助巫) 1명·큰소·송아지 등의 배역이 있다. 큰소에는 소머리와 소꼬리가 각 1명, 봄통 부분에 2명이 들어가고 송아지에는 2명이 들어가니 모두 합쳐 적어도 15명 이상이 있어야 제대로 놀 수 있다.

1967년과 1985년 이두현 선생이 조사한 바에 의해 놀이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제석거리가 끝나면 제석상을 마당에 갖다 놓는다. 상 앞의 목두(木斗)에 콩을 가득 담고, 소 고삐를 멜 말뚝이라 하여 북어 한 마리를 꽂는다. 마당을 향해 악사가 앉고 굿거리 장단을 울리면, 제석거리와 같이 흰 장삼에 흰 고깔을 쓴 무당이 흰 제석부채를 들고 마루 끝에 나와선다. 마당에는 검은 전립과 남색 전복에 홍띠를 띠고 오른손에는 삼신부채, 왼손에는 명주나 무명으로 만든 소의 고삐를 쥔 원마부가 큰소·결마부·송아지 등과 함께 들어선다. 무당이 소장수(원마부)를 부르면 ‘누가 나를 찾나’ 타령이 시작되고 이어 성명풀이, 마부

13) 이두현, 『임돈희의 앞의 책』

노정기, 보물타령, 마부 대령 인사가 진행된다.

소와 소장수가 등장하여 무당과 인사를 나누면 이제 분위기는 무르익어 소의 마모색에 대한 타령으로 이어진다. 소의 머리 치례, 절 타령, 소 뿔 치례, 소 귀 치례, 소 눈 치례, 소 입 치례, 소 이 치례, 소 혀 치례, 소 꼬리 치례, 소 다리 치례, 소 굽 치례, 소 모색(毛色) 치례, 소 글 가르치기, 마부 복식 치례, 소의 장식 치례, 잡곡타령은 흥정을 위해 소의 겉모습을 보아 똑똑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소를 사서 지을 농사에 대한 기대를 익살맞게 보여준다.

이어 소 흥정하는 대목, 말뚝타령, 뜨물타령, 소장수 마누라 타령 등에서는 소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장수의 4명이나 되는 부인의 치장에 대해 타령한다. 그리고 나서 무당이 소를 산 집에게 재수를 빌고 액을 막기 위해 성주풀이, 과거(科舉)풀이, 축원, 살풀이(삼재팔난)를 해주면서 소놀이굿 부분은 끝나고 다시 경사굿의 호구거리로 들어간다.

현재 보존회측에서 행하고 있는 정기발표회와 각종 공연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명칭으로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 먼저 제석거리의 축원과 주발이 소리, 재담이 있고 나서 원마부타령, 결마부타령, 소 지명, 절 내력, 은자보물, 소 빛 내력, 소의 머리 치례, 소 뿔 치례, 소 귀 치례, 소 눈 치례, 소 코 치례, 소 입 치례, 혀 치례, 소 이 치례, 소 꼬리 치례, 소 다리 치례, 굽 치례, 질마 치례, 소의 굴레 치례, 마부 치례, 논밭갈기, 소 글 가르치기, 부인 치장, 종자타령, 말뚝 치장, 집 치장, 소 흥정하는 대목, 주묘의 권주 등으로 이어진다. 몇몇 대목의 첨삭이 눈에 띄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주풀이에서 살풀이까지는 소리 문서에는 있으나 불려지지 않는다. 실제 굿에서 놀아지지 않고 소놀이굿 부분만 공연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 지역 경사굿이 이틀에 걸쳐 놀아지던 큰 굿이었고 소놀이굿 또한 제대로 하려면 2시간 이상은 걸린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현재 이 지역에서는 경사굿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나마 소놀이굿을 함께 노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각종 공연에서

는 연희자들의 체력이나 생업(주로 농업)과의 시간 안배 등의 문제로 인해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여서 행하기도 한다.

소놀이굿에 쓰이는 소는 보존회에서 직접 제작한다. 소머리는 고무래를 짚으로 싸서 윤곽을 잡고 한지에 소 얼굴모양을 그려 붙이는데, 요즘은 고무래 대신 스티로폼을 소의 머리 형상으로 다듬어 사용하기도 한다. 혀와 귀는 적당한 물건 즉, 짚신이나 신발 바닥 등으로 모양을 낸다. 그리고 나서 큰 명석을 반으로 접어 고무래 꽃을 부분을 남기고 옆부분을 봉하면 된다. 고삐는 흰 광목이나 명주를 길게 늘어뜨려 사용한다. 큰 소는 뿔을 만들지만 송아지는 만들지 않는다. 큰소는 4명이 넉넉히 들어갈 정도로 만들며, 송아지는 그보다 작게 만든다. 큰소의 제일 앞 머리부분에 서는 사람을 소머리, 중간에 서는 사람을 각각 앞통과 뒤통이라 부르고 제일 뒤에 서는 사람을 꼬리라고 부른다. 고무래의 대는 양다리 가운데 쪽으로 향하도록 들고 선다.

보존회는 현재 22명으로 그 중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인기(원마부)는 1914년생으로 백석면 방성리에 살며 10세 때부터 우용진에게 소놀이굿을 배웠으며 1980년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의 아들 김남강(金南康) 역시 보존회 조교로 송아지 역을 맡고 있다. 현재는 고령이라 공연에 참가하지는 않고 있다. 고희정(高熙貞)은 1921년생으로 남면 경신리에 살며 농사를 짓고 있다. 10대 때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삼현육각을 모두 다를 줄 알며 소놀이굿에서는 해금을 다룬다. 원래는 양주별산대놀이의 악사 전수생이었으나 1980년 소놀이굿의 악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보존회장직도 맡고 있다. 김병옥(金炳玉)은 1931년생으로 광적면 효촌리에 살며 태평소에 능하다. 1984년 조교로 선정되었고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환익(金煥翼)은 1933년 생으로 광적면 효촌리에 살며 어릴 적부터 소리와 재담에 능하고 신명을 잘 탔다. 젊어서부터 소놀이굿을 배우고자 조만봉·전춘성 등과 어울리고 싶어했으나 인연이 닿지 못하다가 1980년대 초반 김인기의 곁마

부가 되어 소놀이굿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991년 조교로 지정되었고 현재 각종 공연의 원마부역과 보존회 총무를 맡아 소놀이굿과 보존회 업무 전반을 이끌고 있다. 김봉순(金鳳順, 무당)은 1936년생으로 주내면 유양리에 살며 35세 무렵부터 조만봉과 김인기에게 소놀이굿의 무당 역할을 배웠다. 그녀의 언니 역시 무당으로 소놀이굿을 할 줄 알았다고 한다. 고희정의 사례에서처럼 원래 별산대놀이를 하던 사람들과 소놀이굿을 하던 사람들이 따로 없을 정도로 양주군 내에서 유명한 놀이꾼들에 의해 두 연희가 전승되어 왔다.

양주소놀이굿이 또 다른 중요무형문화재인 평산소놀음굿과 다른 점은 전자가 마부와 무당의 재담와 춤, 그리고 소를 중심으로 한 타령과 흥정이 주가 된다면, 후자는 제석이 인간세에 강림하는 내력과 농사의 과정을 노래하고 수명을 늘려주며 아기를 주는 내용으로 중심축이 제석으로 분한 무당이라는 점이다.

12) 공예기술

공예기술은 한 사회에서 소요되는 각종 생활용구나 종교에 관련된 상징물 등의 제작에 쓰이는 무형의 기술이다. 제작은 개인의 주관적 정서와 육체적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물에는 기능성·사회적 상징성·예술적 조형미·전통적 기술지식·해당 문화권의 물적자원 등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공예기술은 한 문화권에 있어서 물질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동시에 그 사회의 여러 문화요소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다. 또한 공예기술은 당대의 사회상이 예민하게 반영되며, 물질문화의 변화로 생산물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의 소멸과 소수에 한정된 기술 전승으로 인해 그 맥이 끊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연구와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다.

양주군의 경우 서울 북부 도봉산에서부터 장흥면 부곡리로 이어지는 일대에 도자기 파편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과거 도자기 생산이 이루어진 흔적이 보인다. 현재 부곡리 일대에는 도예촌이 들어서 있으나 과거와 직접적인 연관 없이 현대적 기술과 미학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내면 산북 3리에는 전통적 기술과 제작과정을 지키고 있는 나전칠기 장인이 있어 생활사와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1) 나전칠기 장인의 생활사

김정열은 1954년 9월 4일 아버지 김형주와 어머니 강귀남의 6남매 중 셋째 아들로 경남 통영시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친척 형님인 안창덕의 공방에 입문하여 고된 기술습득의 과정에 들어섰다. 새벽부터 낮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니는 등 주경야독의 세월을 보냈다. 그의 나이 18세가 되자 안창덕 공방의 칠 분야 책임자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수입이 매우 적었고 모친에게 병이 있어 생활고가 무척 심하였다.

1년 후인 1972년 독립하여 충남 천안에 공방을 냈다. 얼마 되지 않아 모친이 사망하고 그 동안 치료비로 진 빚을 갚느라 공방을 처분하였다. 달리 배운 것도 없어 칠기 기술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고생을 하며 모은 돈으로 26살 되던 해에 다시 공방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지금의 아내와 결혼도 하였고 정신적으로 크게 안정이 되었다. 1984년경 천안을 떠나 서울 수유리로 이사를 해서 칠기 하청업을 해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2년 후 양주군의 한미공예사 연구원 겸 칠기부 책임자로 입사하였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보석함을 주로 만들면서 밤 새워 일하였다.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1989년에는 서울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가작으로 뽑혀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해 한국문화예술종합대상전에서는 금상을 받았고, 1991년 제21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는 3위에 올랐으며, 1992년에는 한국의 전통 탈을 나전장신구로 제작하여 제22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 나전탈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전시켜 1995년에는 나전상감기법으로 발명특허를 취득하기에 이른다. 1996년에는 마침내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되어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아 그간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그는 나전칠기 제작 전과정의 기술을 모두 지니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주로 제작하는 작품으로는 혼수함·보석함·서류함·경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전시회에 작품을 내거나 경진대회 등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제보자 : 김정열, 정공예 대표, 나전칠기, 주내면 산북 3리 372번지).

(2)나전 칠기의 재료와 도구

재료는 우선 백골·옻·패(貝) 등이고 그밖에 황토와 주사(朱沙)·색분(色粉)·삼베·한지·찹쌀풀·들기름이나 콩기름 등이 쓰인다. 백골은 원목을 잘라 만든 송판으로 휘지 않고 튼튼해야 하는데, 홍송(紅松)을 최고로 치며 그 중에서도 백두산의 것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긴다. 홍송이 귀할 경우에는 백송(白松)이나 잣나무를 쓰기도 한다. 요즘에는 작업에 쓰일 만한 나무가 없어 오래된 집을 헐었을 때 나오는 나무들을 구해서 쓴다. 오랫동안 그늘에서 자연스럽게 건조되었기 때문에 나무질이 좋지만 그마저도 비싸고 귀하다. 나무는 사방 9자, 두께 1치 정도 되는 것을 ‘사이’라 하여 단위로 삼는데 가격은 한 사이당 대략 8,000원선이다.

옻은 강원도 원주산과 중국산이 있는데 색상과 품질 면에서 국내의 것이 훨씬 좋다. 자개 가공 공장이 몰려 있는 왕십리에서 일본산 정제옻을 구입하기도 한다. 작품 완성의 최후단계인 상칠용으로는 특히 7·8월에 채취한 옻이 가장 좋아 그것을 쓴다. 이것을 ‘성칠’ 또는 ‘감칠’이라고 한다. 또 ‘캐슈’라 하여 열대식물에서 뽑아낸 대용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강도가 뛰어나고 광도 잘 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튼튼해지고 습기에 강한 옻칠이 있어 캐슈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패는 주로 전복패나 고등패를 쓰는데, 물이 깨끗한 곳에서 나는 것이 빛깔이 영롱하다고 한다. 주로 제주도에서 나는 것을 쓰는데, 제주도와 직거래를 하는 상인들이나 왕십리 등지에서 산다. 최근 중국산도 들어오는데 국산에 비해 빛깔이 좋지 못하다고 하며 따라서 가격도 싼 편이다. 패는 빛깔이 우선이지만 두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꺼워야 용도에 따라 깎아서 쓰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국산이라 하더라도 수패보다 암패가 겉면이 매끄럽고 속은 일곱 빛깔이 나서 비싸게 거래된다. 근래에는 작업시간이나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 두꺼운 패는 대개 잘 안 쓴다고 한다.

제작 도구로는 인두·참숯·숫돌·톱대·주걱칼·상사칼·진주칼·자개칼·바늘·실톱·솜 등이 주로 사용된다.

(3)나전 칠기 제작과정

작업은 크게 백골 짜기·각종 칠·자개가공 등으로 구분한다. 전통적으로 2명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옛 방식대로 하려면 몇 달 정도 걸려야 작품이 나오며 작품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제일 먼저 도안을 한다. 어떤 문양을 어떤 크기로 배치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작품의 크기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작품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되면 쌀풀이나 고운 톱밥 등을 잘 개어서 백골의 흠집이나 옹이, 못자국 등을 메워 준다. 그리고 나서 백골에 삼베나 한지를 붙여 옻칠을 한다. 원목장이나 소품들은 백골에 바로 옻칠을 한다. 옻칠은 백골에 스며들도록 약간 묽게 한다.

그리고 나서 고래(고태)를 얇게 주걱으로 여러 차례 바른다. 고래란 토큰(황토)을 구워서 앙금을 앉히면 위에 고운 가루가 남는데 이것을 생옻과 7대 3이 되도록 배합한 것을 말한다. 반반씩 섞으면 강해지지만 갈라지거나 트기 쉽다. 그 위에 삼베나 모시 혹은 한지를 등을 바르는데 접착제는 찹쌀풀과 생옻을 6대 4 비율로 간 것을 쓴다. 이것을 호칠 또는 맥칠이라고 한다. 베를 바를 때는 주걱으로 하는데 예전엔 나무주걱을

썼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주걱을 쓴다.

베를 다 바르고 나서 말린 다음 주걱칼로 베가 불거져 나온 부분을 쳐내고 베의 눈이 안 나타나게 한지를 덧바르는데 이것을 눈메움이라 한다. 그리고 다시 고래를 바른 뒤에 한지를 덧바르고 다시 고래를 1mm 정도로 두껍게 바른 다음 건조시킨다. 마른 뒤에 한번 더 바르는데 이때는 좀 얇게 바른다. 다시 건조시킨 후에 더욱 얇게 한번 더 바르는데, 건조는 응달에서 6~10시간 정도 하며 제대로 하려면 하루는 말려야 한다.

건조가 끝나면 작품 표면의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물을 바르고 솟돌로 가는데 이를 물갈기라고 한다. 그리고 뒤틀림이나 흠집 등을 확인하고 전체 형태를 정확히 맞추는 맞춤질을 한다. 맞춤질이 끝나면 고래를 바르고 다시 건조시키고 다시 솟돌로 물갈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인두와 풀이나 아교를 사용하여 자개를 붙이며 경우에 따라 맥칠이나 생옻칠을 하여 붙이기도 한다. 접착제에 따라 견고함에 차이가 난다고 한다. 자개를 붙이고 나면 고래를 바르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7~10회 정도 반복해서 한다.

자개가 두꺼우면 칠도 두껍게 바르는데 요즘에는 일본식으로 고래를 자개가 파묻힐 정도로 두껍게 바른 다음 솟돌로 갈아서 자개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이 방법이 간편하고 빨라서 흔히 쓰이지만 김정열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자개를 붙인 다음에는 묽게 생옻칠을 하고 눈메움을 하고 고래를 바른다. 그런 다음 고운 솟돌로 다시 물갈기를 한다.

그런 다음 색상을 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생옻칠·흑칠·주칠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색을 낸다. 흑칠은 생옻에 철분을 배합하여 쓰고 주칠은 경면주사에 생옻 등을 섞어서 만든다. 일본산 색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색상이나 색감이 달라 잘 쓰지 않는다. 칠은 얕게 5~6회 정도 칠하며 그때마다 솟갈기를 한다. 상칠은 마지막 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먼지가 앓지 않게 한지를 깔고 그 위에 솜을 깔고 다시 한지를 깐 후 칠을 부어서 걸러낸 다음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말총으로 칠을 한다.

자개긁기는 자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운 솟으로 솟갈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개가 도드라지게 하는 것, 즉 양각이 전통적 기법이고 자개가 파묻히게 하는 음각은 일본식이라 한다. 광내기는 황토분을 곱게 쳐내서 들기름을 물과 섞어 끓인 물과 6대 4 비율로 섞은 다음 그것으로 광을 낸다. 들기름 대신 콩기름 또는 송진과 데르핀이라는 약물과 섞어서 쓰기도 한다. 고운 솜으로 찍어서 손으로 둥근 원을 그리며 닦아주면 광이 난다. 그리고 나서 생옻칠을 묽게 해서 광낸 표면을 다시 솜이나 고운 면 등으로 닦아낸다. 그리고 건조장에 넣고 서너 시간 정도 말린다. 그런 다음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을 솜에 묻혀서 2차 광내기를 한다. 이것을 서리광이라 한다. 많게는 7~8회 정도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고운 솜으로 잘 닦아주면 완성된다.

김씨의 공방에는 작업실 옆에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조장을 만들어서 작품을 말린다. 건조장의 습도는 70~80도, 온도는 20~25°C 정도를 유지하는데 외부온도와 실내온도의 차이, 건조시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한다.

자개를 다루는 기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시폐법은 자개를 쇠절구로 빻아서 가루를 낸 다음 체로 쳐서 걸러낸 것으로 언덕 부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후폐법은 주름질이라고도 하며 실태으로 자르거나 줄로 다듬어서 문양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복폐법(伏彩法)은 얕은 나전의 안쪽에 채색을 해서 붙여 색상이 비치도록 하는 것이다. 모조법(살치기)은 조각칼 등으로 가늘게 문양을 내는 것이다. 치폐법은 창사톱으로 네모·마름모·세모 등의 각진 꼴로 일정하게 썰어서 수목의 잎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조법은 진주폐들을 양각하는 것이다. 박폐법(薄貝法; 끓음질)에는 직선끊음질과 곡선끊음질이 있는데 자개를 잘라 칼로 얕게 썰어낸 것을 상사라고 하며 이때 쓰는 칼을 상사칼이라고 한다. 이 때 겸지손가락의 손톱에 상사를 끼워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손톱을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만 보아도 끓음질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제작과정과 기법에 따라 칠장

(漆匠)과 나전장(螺鈿匠)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졌다. 반면에 196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나전칠기장에서 끓음질장이 분리되어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다.

4. 맷음말

지금까지 양주군지역에 대한 민속을 (1)조사 지역 개관 (2)지명 유래 (3)마을과 사회 (4)생업과 생업기술 (5)의·식·주 생활 (6)세시와 놀이 (7)평생의례 (8)민속신앙 (9)종교 (10)구비전승 (11)민간의료 (12)무형문화재 (13)공예기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조사가 표본 조사였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일부 마을에 편중되어 조사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예로부터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조사 지역 전체가 예전에는 서울에 근접한 기내(畿內)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거의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마을 단위로 조사·정리를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정리하므로써 이 지역의 민속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능한 마을별 또는 개인별로 조사·정리하여 양주 민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하였다. 단지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서울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인접해 있다는 점 때문에 전통 생활 방식과 이에 깃들었던 민속 현상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소멸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외지인들이 대거 전입해 오는 반면, 토박이들은 각자로 분산되어 가는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민속 전통은 더욱 와해되어 가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외지인이나 기독교인, 그리고 일부 젊은 층을 제외한 토박이들은 아직도 농경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외형상 전형적인 농촌으로서의 면모를 상실 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있는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면면히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민속 현상들이 무차별하게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우리의 선입관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무색할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장흥면은 최근 서울 시민들의 1일 관광 유원지로 일약 발돋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들이 많이 계승되고 있었다. 단지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및 자연의 훼손, 그리고 생활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더욱이 이 지역은 대부분이 그런 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3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흥면 삼하리에 우리나라 최대의 한국 전력 변전소가 건설되면서 인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만과 반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 상황들을 전제로 양주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 현상들의 변화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주군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두천시·의

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서울시 노원구와 중랑구 전부, 그리고 연천군·포천군·고양시·서울시 도봉구·성동구·은평구·송파구 일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군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물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북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경제적·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옛말에 “기생 좋아하는 관리는 평양감사 자리를 원하고, 돈을 좋아하는 관리는 양주군수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양주군은 부유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들 지역이 모두 시·군으로 분리, 독립되거나 서울시로 편입되어 그 규모가 작아져서 현재는 회천읍·주내면·광적면·은현면·장흥면·백석면·남면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지형상으로도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 지구대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군의 대부분 지역이 산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농경지가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양주 남부지역을 감싸고 있는 북한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만큼 산악 지대로써 경지 면적이 적고 농업 기반이 약해 산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던 지역이다. 따라서 약 40여 년전만 하더라도 장흥면 일대 주민들은 나무와 숯을 만들어 서울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근대화의 물결에 힘입어 이들 지역에는 각종 공장을 비롯해 도시 근교 농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특히 장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서의 급부상은 이들 지역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있다. 각종 공해에 찌든 도시인들의 1일 관광지로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은 도시인들을 유치하는데 제격이다. 이 중에서도 장흥면 지역은 관광지로써 뿐만 아니라, 비닐 하우스에 의한 원예농업이 두드러지게 발달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관광 수입이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이들 지역에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하는 이점 때문에 주말 농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백석 지역은 축산업과 시설채소(부추 농사)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가래비장과 덕정장, 그리고 신산장을 중심으로 전통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양주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시를 주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여건과 인문·사회적인 여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물론 현재 대부분의 민속 현상들은 급격한 변화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렇지만 마을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부터 아직도 마을에 실재로 전승되고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민속 현상들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 현상들은 일반적이고도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는 한국 문화라는 범주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작게는 경기 문화라는 특성,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장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시촌이 형성되면서 서민적이라기 보다는 귀족적인 문화적 특징을 가질 수 있다. 행정 중심지로서의 관아터와 향교, 그리고 양주별산대들이 등이 전승되고 있는 주내면 유양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양반문화와 서민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 지역으로 귀추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화적 특징 이면에는 보다 서민적이고도 기복적인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대부분의 지역이 산악 지대로 유교적인 이념을 기본으로 하되, 마을신앙이나 무속 등과 같은 민간신앙이 지금까지도 널리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면 신산리 감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민속신앙은 남면 일대 뿐만 아니라 양주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신앙되고 있어 우리 조상들의 정신사적인 맥락을 정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장흥지역의 경우 지금도 도당제나 산신제라는 이름으로 마을마다 마을신앙이 전승되고 있으며, 백석면 홍죽리나 광적면 효촌리의 경우에도 자연마을마다 마을신앙이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을 신앙과 함께 이 지역에서 융성했던 무속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지

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마을 차원에서는 매년 도당제나 산신제를 지낼 때, 인근의 무당들을 불러 도당굿을 하였으며, 개인적으로는 무당집이나 아니면 인근의 좋은 기도처에서 굿을 하거나 비손을 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고 간소화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무당이 참여하는 도당굿의 경우 경비상의 문제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장흥면 삼상리의 경우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도당굿이 1997년 9월 9일 도당제를 지내면서 다시 재현되었다고 한다. 또한 울대 2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산신당이 현존하고 있어 여기에서 해마다 제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신당 이외에도 교현리에는 1997년 환경 단체인 우이령 보존회와 마을사람들이 힘을 합해 세운 장승이 남아 있고, 효촌 2리 역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장승이 마을 입구에 있어 여기에서 2년에 한번씩 장승제를 지내고 있다. 이로 보아 양주지역은 아직도 전통적인 문화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모시는 개인 및 가정 신앙은 그 파괴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3곳에서 터주가리를 모시고 있는 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부녀자들이 아들을 빌기 위해 산치성이나 절치성을 드리는 일도 이제 거의 사라졌고, 출산과 양육을 관장하는 삼신에 대한 믿음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당에서 사모관대와 원삼 족두리를 쓰고 치르던 혼례 역시 사라져 간 하나의 풍경일 뿐, 그 혼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도시화의 물결로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일부 마을에서는 상례(喪禮)마저도 노인들만으로는 치르기가 어려워 약식화되든지 아니면 변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나서 죽을 때 까지 치렀던 각종 의례들도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역시 소멸 내지 간소화되어 가고 있었다. 기껏해야 설과 추석 명절, 그리고 한식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식은 원래

의 의미를 많이 상실한 채 지금은 산소를 들보는 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민속놀이 역시 대부분 기억 속에 사라져 가고 기껏해야 농악이나 윷놀이, 연날리기 정도의 민속놀이만이 전승되고 있었다.

한편 의식주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기대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다. 조사 지역이 서울 근교 지역으로써 양반 문화가 꽂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지리적인 여건상 서울 북부에 위치해 있던 조사 지역의 가옥들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거 생활에 있어서 몇 채 정도의 건물이 남아 있어 이 지역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식생활 분야에 있어서는 주내면 유양리에서 대대로 전승되고 있던 순대를 최근 문화관광상품화 하므로써 별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상으로 서울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양주지역의 민속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통 민속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민속이 이처럼 사라지고 변모되어 가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또는 다시 살려내고자 해서가 아니다. 다만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급격히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를 지역의 전통 민속을 그대로 찾아서 정리하고 소개하므로써,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배움은 물론,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속 조사는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우리 전통 민속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빠짐없이 마을 하나 하나를 실제로 답사하면서 사실에 기초를 두어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전통 마을이 변모해 갈 위기에 놓여 있는 이들 조사 지역의 기층 및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 특히 가장 전승력이 강하게 남아 있는 마을의 공동 신앙 대상물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정신문화 유산으로 이를 잘 보존해 나갈 당위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보다 적극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주 별산대놀이·양주소놀이굿 등과 같은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백수현·신철순·김방제 가옥 등과 같은 양반가옥, 그리고 최두월 가옥과 같은 서민가옥 등도 보다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21세기 문화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옥균, 「양주 비기지털 인간 문화재 유경성:한평생 스무개의 다른 얼굴을」, 『마당』32, 1984.
- 김계곤, 「경기도 방언 채집 : 양주군 광적면 방언」, 『畿甸文化研究』18, 인천교육대학, 1989.
- 김영복, 「조선조 역대 양주 牧使傳」, 『畿甸文化』4, 1988.
- 김명숙, 「봉산탈춤과 양주별산대놀이 춤사위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용수, 「사회적 몸짓으로 본 양주별산대 놀이 기존의 가면극 연구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 『언론문화 연구』11, 1993.
- 김윤미, 「산대놀이 춤사위의 특성 연구 : 송파산대와 양주별산대놀이의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정란, 「양주별산대의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태곤, 「民間醫療의 實態와 原理—信仰治療를 中心으로」, 『정신건강연구』1,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3.
- 김한영, 「양주별산대놀이의 인물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羅恪淳, 「고려시대 양주지방의 변천과 그 官人的 임용형태」, 『향토 서울』53, 1993.
- 문채련, 「탈춤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 : 봉산탈춤 양주별산대 통영오광대를 중심으로」, 『광주예술학교 논문집』3, 1996.
- 민순창, 「서울 근교 관광취락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주군 장흥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갑수, 「양주 방언의 음운 변이」, 『국어교육』67·68, 1989.
- 박태우,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의 비교연구」, 영남 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徐淵昊, 「민속연극의 보전·전수 실태조사, 彥州別山臺놀이」, 『문예진흥』44, 1979.
- 徐淵昊, 「양주 탈놀이의 인물성격 연구 : 현지조사 자료와 채록 놀이본을 중심으로」, 『예술과 비평』9.
- 徐淵昊, 『山臺탈놀이』, 열화당, 1993.
- 손동인, 「양주군 광적면의 전래동화 분석 고찰」, 『畿甸文化研究』18, 인천교육대학, 1989.
- 신경숙, 「양주별산대의 민중의식 성장론에 대하여」, 『漢城語文學』10, 1991.
- 안경숙, 「양주별산대놀이를 통한 민중의 美意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양주군, 『양주의 지명유래』, 1993.
- 양주군, 『통계연보』, 1996.
- 양주문화원, 『양주군지』上·下, 楊州郡, 1992.
- 윤혜숙, 「대동놀이를 통한 탈춤 美意識에 관한 연구 : 양주별산대놀이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은혜진, 「조선후기 탈춤의 문화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양주별산대놀이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이두현, 「동제와 당굿-경기도 양주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논총』서울대학교, 1978.
- 이두현·임돈희, 「양주 경사굿 소놀이굿」한국의 굿13, 열화당, 1989.
- 이두현, 『한국 가면극』,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李盤, 「한국 가면극 등장인물 연구 : 양주별산대놀이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4, 한국외국어대학교, 1992.
- 이병옥, 「송파와 양주별산대 탈춤의 춤사위 비교 연구」, 『논문집』9, 용인대학교, 1993.
- 李輔亨, 「楊州 소놀이굿」, 『文藝振興』, 문예진흥원, 1983.
- 이영주, 「양주별산대와 벚꽃 동산에 담긴 희극정신」, 『서강영문학』6, 1995.
- 이용범, 「감악산 신라고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이은경, 「가면극에 나타난 여성 ; 하회별신가면극 · 양주별산대놀이 ·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3, 숙명여대, 1993.
- 이창현, 「양주산대에 있어서 염불놀이의 의미와 기능」, 『국어 국문학』 103, 1990.
- 이춘옥, 「양주별산대춤의 무보채록 시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이현복, 「양주지방의 전설고」, 『畿甸文化研究』 18, 인천교육대학, 1989.
- 이해구, 「양주산대가면극에서의 등장과 퇴장의 형식」, 『동방학자』 20, 연세대국학연구원, 1978.
- 임용기, 「양주지방말의 말수」, 『인천교대논문집』 인문 · 사회 과학편 18, 1984.
- 장세준, 「양주별산대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전신재, 「양주별산대놀이의 생명원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전영경, 「양주 금곡리 青磁碗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동화, 「양주지방의 민요고」, 『畿甸文化研究』 18, 인천교육대학, 1989.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 조병한, 「18세기 揚州 紳 · 商 문화와 鐵板橋의 문화비판 ; 揚州八怪의 성격과 관련하여」, 『계명사학』 4, 1993.
- 조성선, 「경기도 양주군의 민속 : 광적면 일대를 중심으로」, 『畿甸文化研究』 18, 인천교육대학, 1989.
- 최현섭, 「양주군 광적면 · 백석면의 금기어」, 『畿甸文化研究』 18, 인천교육대학, 1989.
- 하경화, 「양주별산대놀이의 해학성이 보여준 사회학 개진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상), 성광인쇄사, 1985.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하), 성광인쇄사, 1986.
- 한명옥, 「양주별산대놀이 춤사위 연구—맞춤과 음중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황순연, 「양주별산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힐찰스, 「양주별산대 미알마당의 구조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田中一松 · 米澤嘉圃, 장혜옹 譯, 「楊州八怪와 八大山人」, 『牛巖繪畫』 2, 청주대학교, 1991.
- Kim, Hyung-a, 1991 「Political Satire in Yanju Pyolsandaes Mask Drama」, 『Korea Journal』 vol. 31.